

• 春溪 李在萬 自敘傳 •

春溪漫步



敎職生活
46年 6個月을
되돌아보며

출판
기획 두레

표지 디자인

김 산 희

著 者 略 歷

- 1920年 11月 28日 出生
1928年 4月 1日 大峴公立普通學校 入學
1935年 4月 1日 蔚山公立農業實修學校 入學
1939年 5月 17日 南旨南尋常小學校 赴任
1941年 4月 1日 南旨南尋常小學校 鼓谷分教場 赴任
1942年 12月 1日 晉州師範學校 臨時講習科 入學
1943年 3月 24日 鼓谷分教場 歸任
1944年 4月 4日 鶴城(兵營)國民學校 赴任
1946年 5月 17日 大峴國民學校 赴任
1949年 9月 1日 校監 昇進 (溫陽國民學校 赴任)
1952年 5月 3日 校長 昇進 (龍岩國民學校 赴任)
1956年 11月 7日 龍岑國民學校長 赴任
1961年 3月 31日 三湖國民學校長 赴任
1963年 9月 1日 龍淵國民學校長 赴任
1968年 9月 20日 農南國民學校長 赴任
1969年 9月 3日 龍岑國民學校長 赴任
1976年 9月 1日 德新國民學校長 赴任
1980年 3月 1日 鶴城國民學校長 赴任
1983年 3月 1日 呂川國民學校長 赴任
1985年 3月 1日 大峴國民學校長 赴任
1986年 2月 23日 停年 退任

褒 賞

1. 綠條勳章 (1978年 5月 日) 大統領
2. 棟柏章勳章 (1986年 2月 28日) 大統領

春溪漫步

-李在萬 自敘傳-



출판
기획 두레

家

訓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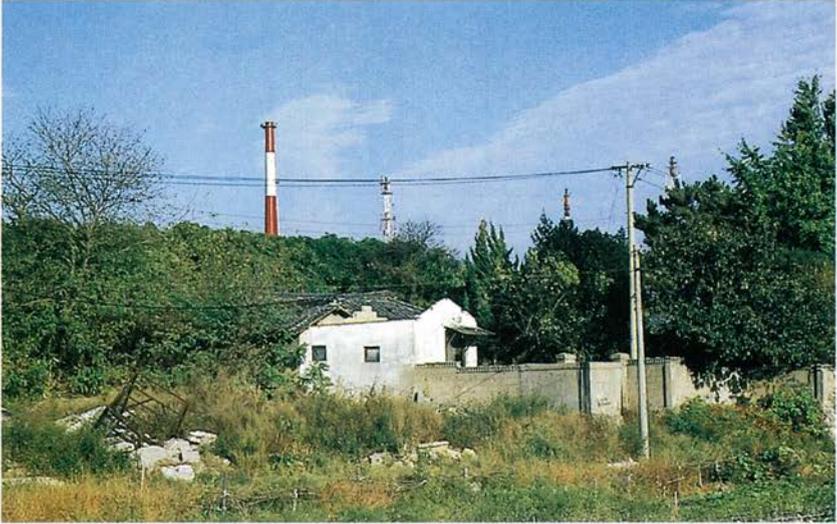
著者 近影



· 先考 李鐵炯 尊影
(1896.陰11.6~1968.陰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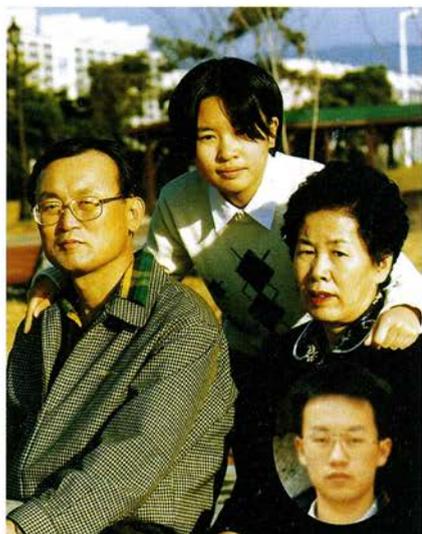
· 先妣 崔 文 尊影
(1898.陰12.19~1952.陰1.12)



·蔚山市 夫谷洞에 있는 나의 出生地. 어린 時節의 아스라한 追憶이 담겨있는 情겨운 곳이지만 지금은 石油化學團地가 들어서 廢墟가 되 어버렸다.(上) ·生家터에서 나의 아내, 아들과 함께 포즈를 취해 보 았다.(中-左) ·蔚山郡 斗西面에 있 는 先親의 墓所(中-右)



· 環境은 劣惡했지만 獨自의인 學校 經營者로서 矜持를 느꼈던 鼓谷分教場(現 南谷初等學校 全景, 上) · 내가 敎職生活을 처음 始作하면서 赴任하였던 南旨南小學校(現 南旨初等學校 全景, 中-左)와 校長으로 처음 赴任한 龍岩國民學校(中-右) · 德新國民學校(下-左)와 나의 母校이며 47年間的 敎職生活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在職한 大峴初等學校(下-右)



· 長男 泰鍵의 가족(왼 안은 현재
軍에 있는 長孫 峻好)



· 둘째 아들 昌鍵의 가족



· 셋째 아들 亨鍵의 가족



· 長女 妍淑의 가족



· 次女 貞美의 가족

오래된 寫眞을 들춰보니...



- 大峴公立普通學校 第5回 卒業生 記念寫眞(1934年)
보관을 잘못해 색이 바래고 곳곳이 패어나갔지만 나에게서는 매우 所重한 寫眞이다. 나의 가장 어린 모습이 담겨 있으며, 當時 學生과 先生님의 服裝뿐 아니라 揭揚臺에 걸려있는 日章旗가 日帝植民地였음을 말해 준다.



·蔚山農業實修學校
 卒業 記念(1937年 3月,
 上) ·農業實修學校
 時節 親舊와 함께(1936
 年, 中-左) ·南旨南
 小學校 時節(中-右)
 ·教員 發令 直前 親
 舊들과 함께(1939年,
 下-左)
 ·南旨南小學校 勤務
 時 修學旅行 記念(1940
 年, 下-右)





・農業實修學校 時節의 修學旅行(慶州, 193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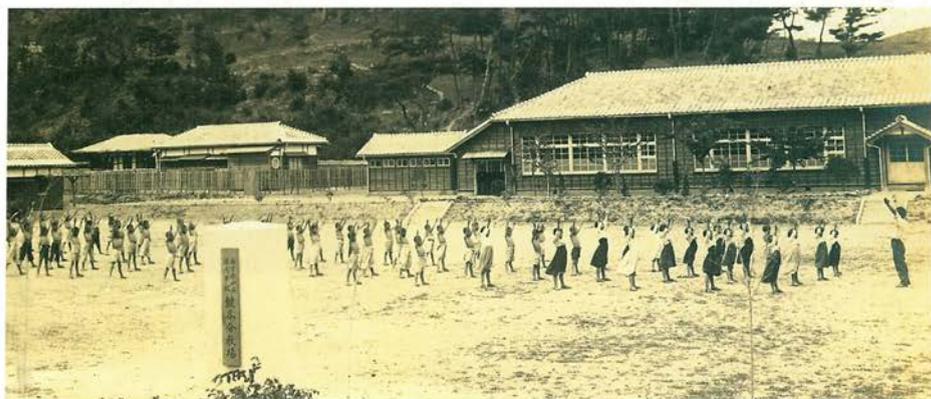
·南旨南小學校 在職時 晉州
師範學校 講習 修了 記念
(1943年, 上) ·南旨南小學校
在職時 釜山에서 研修하면서
同僚들과 함께(中-左) ·南
旨南小學校 時節 同僚 職員
과 함께(中-右)



· 나는 1944年 25살때 當時 20살 이던 아내 金聖禧와 結婚을 하였 다(上) · 아내의 小學校시절 사진 (15歲, 中-右)과 處女 時節의 모습 (中-左)



· 鼓谷分教場 時節 學生들과 함께(1943年, 上)
 · 大峴國民學校 在職時 教職員과 함께(1947年, 中)
 · 鼓谷分教場에서 의 體操 授業 光景(1942年, 下)





· 停年退任 後 教育
 監으로부터 勳章을
 받는 모습. 양 옆은
 敎職生活에 對한 功
 勞로 받은 勳章.
 · 綠條勳章(左)과 棟
 栢章勳章(右)





· '金婚式 召 古稀宴' 모습. 式後 全家族이 모여서 記念撮影을 하였다.



· 지금도 만나면 흥허물 없이 지내는 農業實修學校 同窓生들과 野遊會에서(上) · 어버이날 둘째, 셋째 며느리와 함께 慶州 보문단지에서(中-左) · 安東에서 門中 墓祭를 지내며(中-右)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

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

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

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界無無明亦無無明盡乃至無老死亦無老死盡無苦集滅道無

智亦無得以無所得故菩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碍無罣碍故無有恐怖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

大明呪是無上呪是無等等呪能除一切苦真實不虛故說般若波羅蜜多呪即說呪曰揭帝揭帝波

羅揭帝波羅僧揭帝菩提娑婆訶

觀自在菩薩
卮舍利子
亦復如是
是故空中
法無眼界
無老死盡
般若波羅
想究竟涅
藐三菩提
是無等等
說呪曰揭

羅蜜多時早見
異色色即是空
空想不生不
識無眼耳鼻
無無明亦無
智亦無得以
碍無罣碍故
般若波羅蜜
蜜多是大神
真實不虛故
帝波羅僧揭
帝菩提娑婆
訶

· 어린 時節부터 祖父님께 書藝를 배운 나는 요즘도 틈틈이 時
間이 나면 書藝를 한다.(著者が 직접 쓴 屏風과 筆跡)



春溪漫步

책 머리에

現代世間에는 自敘傳의 數字가 제법 늘어나고 있다. 人人이 다투어서 出版하는 感이 든다. 20~30年前만 하더라도 自敘傳을 發刊하는 人士는 한 君內에 한사람 程度 있을까 말까 하였다. 그런 것이 現今에 와서는 漫延的으로 늘어나는 傾向이 보인다. 그만큼 教育이 普遍化되어 知的水準이 均衡化 되어가는 좋은 現象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누구는 自敘傳을 發刊해도 좋고 누구는 發刊할 수 없다’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國家와 民衆에게 害惡이 되지 않는 出版은 自由이기 때문이다.

나는 自敘傳을 쓰겠다는 생각을 夢中에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여러 名賢人士분들의 自敘傳·文集 등이 到家하여 잠 오지 않는 밤에 혼자서 소리내어 朗讀해보니 句句節節이 名文章이요, 美辭麗句로 잘 짜여 있었고 나의 興趣를 돋구어 주는 것이었다. 내가 한참 冊에 빠져 있으니 옆에 있던 妻가 “무슨 冊이기에 그렇게 신나게 읽어요?” 한다. “○○先生님의 自敘傳이요.” 하고 말했더니 “當身도 自敘傳을 써서 우리들 子女·孫과 後孫들에게 물려주어 當身의 履歷을 傳하는게 좋지 않아

요.”하며 제법 執着心을 發露하였다.

그러나 나를 自省해 볼 때에, 내 頭腦에 들어있는 知識이 體系的으로 構成되어 있지도 않고 매우 散發的이며 또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亂雜할 뿐 아니라 知的인 量도 아주 貧弱하다. 그리고 思考方式에 있어서도 哲學性이 缺乏되고 文章 處理 能力도 不足하다. 거기에다 조금 알고 있었던 漢字도 半 가까이 잊어버렸고 한글 語句도 綴字法을 忘却한 것이 많았다.

그렇지만 마음 속에 자리잡기 始作한 自敍傳에 대한 誘惑을 果敢히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辭典, 玉篇, 百科大辭典, 廣辭林(日本冊), 漢字大典 등을 들추어 내며 글을 쓰려고 하니 時間은 지루하고 進歩는 더디어서 잘 되지 않았다.

나 같이 知德이 不備하고 社會的인 立地도 別로 없는 사람이 敢히 自敍傳이라 하기가 憫忙하며, 또 나의 書筆을 文集이라 하기는 더욱 體面問題이기에 題目을 『春溪漫步』라 붙였다. ‘春溪’는 나의 號이고 ‘漫步’는 내 발걸음 닿는대로 따라 걸

어 온 生活이기에 나의 全生涯의 生活을 ‘漫步’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號를 나 스스로가 書冊에 붙이는 것도 缺禮인 줄을 알면서도 눈 지긋이 감고 敢히 그렇게 하였다. 또한 發刊目的이 術學도 아니고 商魂을 發揮하여 市場物化하자는 것은 더 더욱 아니기에 誤字, 脫字 등은 修正하였으나 오히려 흠이 있는 것이 多少나마 味覺을 돋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 全面修正을 하지는 않았다. 책을 만드는 過程中 熱과 誠을 아끼지 않은 子息들에게 고마움을 表示하며, 특히 過去事를 記憶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勇氣를 倍加시켜준 妻에게 깊은 敬意를 表한다.

內容에 있어서 錯覺한 바와 誤謬가 많고 事實과 相異한 點이 있더라도 魯魚亥豕로 보아 叱責, 矯正을 바랄 뿐이다.

이 草稿는 1996년 5월에 펜을 들어서 1997년 5월까지 12個月만에 閣筆하였다.

1997年 5月 5日
春溪 李在萬 謹序

春溪漫步 / 차례

화보	3
· 父母님 尊影 4 · 나의 故郷 6 · 敎職生活을 한 學校들 7 · 나의 家族 8	
· 오래된 寫眞을 들춰보니 10	
책머리에	22
● 제 1 부 / 나의 歷代 直系祖 系統表	27
· 子女孫一覽表 56 · 暫定代置行列表(月城君派에 限함) 57	
● 제 2 부 / 내가 걸어 온 길	59
1. 나의 出生과 幼兒期 61 2. 나의 學業 62 3. 나의 向路의 選擇 68 4. 敎員 試驗 76	
5. 나의 敎職生活(南旨南尋常小學校) 80 6. 鼓谷分敎場 時代 84	
7. 晉州師範學校 臨時講習科 時代 87 8. 나의 結婚 90 9. 鶴城(兵營)國民學校 時代 93	
10. 大峴國民學校 勤務 時代 100 11. 溫陽國民學校 校監 時代 104	
12. 龍岩國民學校 校長 時代 110 13. 龍岑國民學校 校長 時代 117	
14. 三湖國民學校 校長 時代 121 15. 龍淵國民學校 校長 時代 124	
16. 農南國民學校 校長 時代 129 17. 第二次 龍岑國民學校 校長 時代 133	
18. 德新國民學校 校長 時代 137 19. 鶴城國民學校 校長 時代 143	
20. 呂川國民學校 校長 時代 144 21. 마지막 勤務地인 大峴國民學校 校長 時代 145	
22. 나의 停年退任式 148 23. 敎職 生活과 家計 155 24. 退任 後의 나의 生活 158	
25. 나의 號는 '春溪' 이고 字는 '樂瑞' 이다. 官名은 '在萬' 이요, 宅號는 '泉谷宅' 이다. 160	
26. 果樹園 經營 163 27. 新亭洞으로 移住 166 28. 祖父母님과 伯父母님과 父母님의 墓所 移葬 167	
29. 結婚式 主禮辭 一例 169 30. 蔚山南部警友會 結成 大會辭 170	
화보 / 아내와 함께 한 海外旅行의 追憶들	175
● 제 3 부 / 海外旅行記	187
1. 第一次 海外旅行(日本) 189 2. 第二次 海外旅行(東南亞細亞 7個國) 209	
3. 第三次 海外旅行(中國) 219 4. 第四次 海外旅行(유럽) 235	
5. 第五次 海外旅行(하와이, 美國 西部) 248	
6. 第六次 海外旅行(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262	
7. 第七次 海外旅行(캐나다, 美國 東部) 275 8. 第八次 海外旅行(二次 日本 旅行) 299	
● 제 4 부 / 春溪 哲學 斷想	309
1. 愚者寂滅觀 311 2. 思索의 放浪 314 3. 原初의 眞然은 宇宙이다 318 4. 人格 322	
5. 神의 存在 326 6. 身土不二 337 7. 一回性 340 8. 哲學斷想 346 9. 道에 關한 小考 365	
10. 人性과 作爲와 運命 374 11. 人間(Man) 381 12. 물(水)의 철학 394	
13. 時間과 空間의 無限한 神祕性 399	
14. 나의 宗教는 佛敎이다(佛敎의 基本의인 要諦抄錄과 나의 思考) 414 15. 思考의 片鱗들 438	
16. 俗談, 格言, 故事成語 445	
탈고를 하면서	469

나의 歷代 直系祖 系統表
(慶州·原州 李氏 統合世譜에 依함)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p>1 世 (始祖) (慶州 李氏 始祖)</p>	<p>李謁平</p>	<p>字는 天瑞, 號는 瓢巖(六人 天降說에 따르면 慶州의 瓢巖 즉 박바위에 誕降하셨다는 것으로 박바위는 밝음을 뜻하는 것이니 世上을 曠明하게 한다는 뜻이다)이시다. 紀元前 117年 辰韓땅 瓢巖峯下에서 嶽降하시니 身長은 9尺 8寸이며 허리띠가 10이름(한뼘과 같음) 손은 무릎을 지나고 龍顏 虎視로 위엄이 大將君의 狀이며 한번 號令을 하면 山川草木이 떨 程度로 壯大하셨다.</p> <p>辰韓의 六部村中 一인 關川楊山村長이 되시어 紀元前 69年 前漢地節元年壬子 3月1日에 여러 村長과 더불어 王을 모시어 建國하고 秩序를 바로 잡고자 德望 높은 사람을 찾아서 임금으로 모시자는 會議를 하던 중 突然 南方에서 電光이 번쩍이는지라 突山村長 蘇伐都利(崔氏 始祖)를 시켜 가본즉 白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形容이라 가까이 가니 白馬는 크게 울며 사라지고 蘿井가에 박통 같은 알이 있어 瓢巖께서 쪼개신즉 玉童子가 誕生함으로 世上을 밝혀줄 사람이라 하여 赫居世라 命名하고 瓢巖께서 보살펴 養育하여 紀元前 57年(五鳳元年) 甲子에 十三世로 王이 되시니 이 분이 新羅初代王 朴赫居世이시다.</p>

世 代	諱 又は 名號	摘 要
		<p>始祖 瓢巖公께서는 眞骨로 建國功臣의 元勳中에서도 議長役으로 一等功臣에 阿餐(新羅官制 十七等級中 六等級).</p> <p>建國 88年(西紀 32年前 壬辰三世儒理王 9年) 後에 氏族集團인 六部村을 行政區上 六部로 改編하고 村長을 部長으로 改稱하면서 賜姓을 하였으니 瓢巖公은 及梁部の 長에 李氏로 賜姓되고 大阿餐에 和白會議長으로 新羅開國에 크게 貢獻하신 功績을 枚舉하기 어려운 분이시나 享壽 二百世로 仙化하시니 536年 丙辰建元元年(二三代 法興王 二三年)에 文宣公으로 諡號가 내렸다.</p> <p>壬午에 景德王께서는 薺閣을 創建하셨고 38代 元聖王께서는 大光寶殿이라는 親筆賜額하시고 國家에서 保傳하였으나 甄萱의 亂때 燒失되었다. 後孫들이 始祖의 獄降遺蹟을 保傳하기 爲하여 1784年 甲辰(正祖 8年)에 永川郡守 集星公이 瓢巖에 『月城李氏始祖 謁平公 降處』라 새겼으며 1806年 丙寅(純祖6年) 9月에 遺墟碑 『新羅佐命功臣及梁部大人 李公諱謁平遺墟碑』와 碑閣을 세웠으니 碑閣 撰은 左議政 敬一公이요, 글씨는 刑曹判書 集斗公이다.</p> <p>1952年 壬辰(大韓民國) 後孫들의 表誠協贊으</p>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p>로 瓢巖齋를 再建했으며 新羅建國功勳을 崇奉하는 뜻에서 1971年 辛亥에 나라에서 獄降廟宇를 創建하였으며 또 1979年 11月 10日에 『慶州李氏始祖諱謁平景慕碑』란 題字로 中央花樹會가 主管하여 높이 21尺, 幅 4尺, 두께 2尺 6寸의 巨大한 碑를 瓢巖齋 옆에 세웠으며 1984年 甲子에는 全宗親들의 表誠과 國費補助等으로 近世에 드문 遺墟地聖化事業을 完成하였으니 이것은 오로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뜻에서 血族間의 單合을 表現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뿌리를 肥培管理하면 枝葉이 茂盛한다는 原則에 따라 自身과 後孫의 榮光을 祈願하는 行動이니 千秋萬代로 이 精神이 繼承되어야 할 것이다.</p> <p>配는 箕氏이니 馬韓太祖準(箕子 42世孫)의 따님이요, 저 有名한 太華公主이시다.</p> <p>祭亨定日은 陰 2月 中丁이다.</p>
2 世	子 侑(유)	<p>字는 智士, 生而俊達하고 力學達道하여 年 至 20에 身長大하고 風神이 華麗하며 勇力이 過人하니 號稱四觀尊者하고 壽는 80餘歲라. 太宗武烈王丙辰에 思其文章하다. 贈左內史左軍主하고 諡는 文和公이나 詳見文集하다.</p> <p>配는 楊氏니 卽 史勿國楊蕃之女生一男一女</p>

世 代	諱 又は 名號	摘 要
3 世	子 陀(타)	<p>하다.</p> <p>字는 庸伯, 號는 瓢公先生이니 少能文章하고 事孝悌之道하며 行賢聖之禮하고 年十六에 遊學三國하니 時人이 稱之曰 大賢也라 하다. 開國 建都初에 以佐命功臣으로 爲太輔太史大司徒하고 命遣馬命遣馬韓하니 其人이 靑以事大之禮어늘 先生 曰 我國이 自二聖肇興으로 人事修而天時和하고 倉庫實而人民讓하야 辰韓, 弁韓, 樂浪, 倭人이 罔不喪懷而吾王이 謙虛하야 使臣이 修聘하니 可謂 遇於禮라 하야 馬韓王 左右諫甚하다. 時에 三韓이 尙戰爭하되 先生이 獨行仁義하고 不務威力하며 以忠事君하니 時人이 謂賢相이러라. 官之大國承博士, 農令都尉令, 尙書事, 左右內史侍中太史公하고 太宗丙辰에 改太史令하다. 諡는 文成公이다.</p>
4 世	子 仲嘉 (중가)	<p>字는 子康이니 亦有文章兼孝悌하다. 始祖 王朝에 登官하야 至南海府使하고 儒理王朝에 明相事하야 官至副領, 尙書事, 大輔靖國功臣, 左令, 承內吏侍中, 大史令하고 卒享年이 八十七이라. 太宗武烈王이 贈諡文簡公하다. 配 朴氏니 始祖 赫居世之女라.</p>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5 世	子 奭(석)	少讀儒書하고 涉老經浮屠之說하며 又 善穎書射御理王朝에 登官하여 歷中都尉하고 遷大司寇博士令, 諫議大夫하고 至脫解王朝하여 左輔上等功臣, 角干左令, 承大骨千牛惇大阿餐하니 時人이 謂之賢相이러라.
6 世	子 文祥 (문상)	字는 善長이니 容儀偉麗하며 又 有貴价風彩하고 性寬厚하며 自少로 文章兼武藝하다. 婆娑王朝에 登官하여 命中尉博士令하고 累遷大農承左內史하여 之大輔上等, 定國功臣, 左令承眞骨大阿餐하고 號는 松軒先生이니 太宗武烈王이 思其先生之德行文章하여 贈左內史侍中太尉令尙書事하고 諡는 文莊 法興王이요, 贈鷄林侯하다.
7 世	子 昉(방)	字는 斗建이니 才能文章하고 德行하다. 祇摩王朝에 登官하여 太常博士로 累遷執事與籍하고 逸聖王祖에 以智勇으로 命遺使大小伽倻國하니 其王이 乃順從하다. 又命甘文曷文二國遺使하니 亦順從하다. 公이 常祖에 累立大功者一一이요. 至阿達羅王朝하여 輔40餘年에 有大臣之休하니 國人謂之明相이러라. 官之大輔上等功臣, 攝律都尉領, 尙書事, 御史大夫, 內史侍中領, 太史令하다.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8 世	子 秀章 (수장)	字는 僖溫이니 性德敏하고 好學善屬文하다. 逸聖朝하야 內翰直閣하니 時王이 無道하야 公이 以極言으로 上疏하니 悔過自責하고 復興하야 號稱賢主러니 至阿達羅王朝하야 立 40餘年에 國人인 稱之伊尹하다. 官至都尉領, 尙書事, 左右內史農令, 通政事, 侍史太師大夫 하다.
9 世	子 綏(유)	字는 文禹니 有文章德行하다. 阿達羅王祖에 登爲延日懸令하니 始置也로 至伐休王朝하야 遷輔國翰林左判院正匡承하고 奈解王朝에 爲 僕射大角干하고 王이 伐三國에 爲文臣謀士 將하야 興武士將軍勿稽子로 爲卒兵八十六하 고 伐骨浦漆浦古浦三國하야 因爲按察御史하 니 立朝50餘年에 累立戰功하야 官之上等功 臣, 大純司, 左右令, 千年頭阿餐.
10 世	子 起貞 (기정)	字는 耶邦이니 性重和裕하고 智勇이 過人하 며 有膽略智節하고 讀九經하야 文才秀出하 다. 奈解王朝에 登官太尉門下하고 累拜知事, 政忠事堂直太角干하다. 助賁王朝에 爲天牛惇 王伐甘文國公이고 以謀士將軍으로 舉老將軍 하고 其伐沾解王時伐沙伐國하고 公이 與于 老伐之하니 國人이 謂之忠義之將이라 하고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11 世	子 美善 (미선)	<p>諸國이 大懼之러라. 官至上等大輔功臣輔國大將軍千牛頭餐上柱國하고 法興王時에 贈諡忠宣公하다.</p> <p>字는 自章이니 性寬美風하고 力學文章하여 有道儀하고 有道德君子하니 沾解王이 聞其賢하고 爲太常侍博士하여 累遷政事堂忠直하다. 味鄒王時官至參知政事, 大匡輔國上等定國公臣, 左右承, 阿餐, 令하다. 公이 年老退任하고 隱於金鰲山幽谷間溪樹邊하다 因自沙로 好文章하여 求善士하고 勸學孝悌忠臣하며 好種植 松竹桃李하고 修德賢行하여 終其身하니 學者稱號雪悌先生하다. 享年이 九十七이라. 太宗이 聞其行하고 欽泰如仙也러라. 諡文敬公하다.</p>
12 世	子 成立 (성립)	<p>字는 景行이니 性剛直不撓하고 有鑑智하고 文章之才하니 儒禮王이 以女妻之하다. 登官하여 執事에 果忠直하니 遷知秦事侍郎하고 爲西幾停都摠菅正海軍하니 令密陽이라 進爲 左內史, 通政事, 大角干, 千牛惇大輔, 上等大阿餐하고 至基臨王二朝하여 贊賢相事하다.</p>
13 世	子 曙(서)	<p>字는 孟己니 自少로 多讀書有文行하고 兼孝</p>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悌之道하다. 基臨王朝에 登爲南幾停都摠官正海軍하니 令蔚州라. 累遷阿干大輔上等農承領, 忠恭政事堂大阿餐, 上柱國하다.
14 世	子 啓煊 (계환)	少能習學하야 有文章하다. 其臨王朝에 登官하야 至秦事하고 遷北幾停都督하니 當時에 謂之幾停也러라. 時에 百濟相侵伐하니 時에 公이 都督으로 援兵一戰하야 大破百濟하고 以戰功으로 官至輔國大將軍, 上等公臣, 角干阿餐上柱國하고 脫解王 兩朝에 立仕하니 載明相史하다.
15 世	子 傑(걸)	少雄偉力學하고 訖解王朝에 登爲延日縣知郡하고 累遷郎中令하다. 奈勿王朝에 爲墻馬하니 娶王女也라. 官至博士令, 大輔定國功臣, 復令參豫通政事, 大尉光祿大夫, 太史令하다.
16 世	子 宣璋 (선장)	字는 思壽니 有文章하고 多智略하다. 奈勿王朝에 登爲七城縣令하고 實聖王朝에 爲太常寺博士侍郎하고 訥祗王朝에 爲上等하다. 忠恭王時에 坐政事堂太尉宗丞하고 贈光祿大夫太史令, 諡忠元公하다.
17 世	子 基瞻	字는 尊直이니 性寬厚하고 少讀書하야 能文

世 代	諱 又は 名號	摘	要
18 世	(기침)	才藝하며 以孝悌事로 有德行하다. 慈悲王朝에 登官하고 至炤智王二朝하야 官至博士, 寺大農承令, 參豫政事大等하고 忠恭王時에 坐蒙宰太尉大阿餐上柱國하야 諡忠順公하다.	
	子 仁興 (인홍)	字는 和行이니 有文章德行하되 不仕하고 初隱於山林間하야 好種樹求賢士하며 修道德行하니 學者一稱號道千先生하다. 智證王이 聞其賢하고 爲用之四年에 先生이 以內史博士令秦事로 遷協律都尉하야 上言曰我始祖以來로 國號未定하야 惑稱斯羅하고 惑稱新羅하니 新字는 德業日新이요, 羅字는 綱羅四方之義則爲國號一宜矣니이다. 臣이 又觀 自古로 有國家者는 皆稱帝稱王이로되 自我立國으로 至今二十歲에 但稱方言하고 未定尊號하니 今臣等이 定議謹上하나이다 하니 善從之하고 因以國號新羅하고 諡法始此하다. 公이 進爲太尉領, 常書蒙宰, 通政事, 太師太傳, 大史令하다. 明年에 諫制衰服하다. 法興王이 臨夢에 以太子로 謂公曰吾死之後에 太子幼하니 願思周公之事라하고 命太子師傅하다. 法興王이 立之에 公攝行王事하야 始制百官公服禮하다. 時에 三韓諸國이 聞之大懼曰君子之國也라 하다. 公이 輔國30餘年에 賢相明政하고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p>年老退仕하야 謂其弟子曰孝悌忠信云과 三綱五倫法을 筆之書이다. 文集 20卷이 傳家焉하고 先生이 卒하니 享年이 73歲라. 法興王 23年에 贈太史令, 光祿大夫平林侯하고 諡文烈公하다.</p> <p>太宗 武烈王이 追封章惠王하고 讚日其忠其忠이며 百歲忠이요, 仁興仁興이여 萬歲仁興이라 하다.</p>	
19 世	子 槐(황)	以善士로 法興王朝에 登官하고 至眞興王二朝하야 至政堂文學, 左內史, 平章事, 都尉, 侍中, 博士令, 御史大夫, 大農令.	
20 世	子 善楨 (선정)	亦有才識하다. 眞興王朝에 登官하야 眞興王平王三朝에 爲戰功하고 公이 眞興王朝에 爲郎中하니 時에 高句麗兵이 犯境이어늘 王이 命之하여 爲司馬將軍하고 與金參天等八將으로 大破高句麗하고 又伐伽倻國하며 伐峯岑, 旗縣, 懸穴柵, 助川, 四城得之하야 累立戰功하다. 眞平王時에 百濟一大發兵來어늘 公이 命爲謀士摠兵將하야 與大將軍乾品等으로 大破之하야 官之兵部令, 內史門下平章事, 大輔功臣, 太史太輔, 太中大夫, 上柱國하다.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21 世	子 隸(체)	少能文武하며 有智勇絶人하다. 眞平王朝에 爲忠直, 知秦執事侍郎하고 從父하야 累立戰功하다. 官至門下中書舍人, 尙書令, 大輔功臣, 上柱國하다.
22 世	子 泰暉 (태휘)	字는 乃夏니 大能文章하고 遊學中原하니 時에 唐武德元年 高祖一聞其文章하고 命裴寂 劉文靜等하야 修定律令하고 置國子太學하야 監試四門生合 300餘員하고 始說賜第하니 公이 第等及第하니 時에 年22矣라. 唐高朝一嘉之하야 賜鞍馬하고 命爲翰林學士하며 累遷 中書舍人, 禮部侍郎하다. 年30에 來還하니 時에 善德이 卽位3年이라. 其後에 堂이 承襲請學하다. 至眞德王二朝하야 官至中書侍郎, 平章事, 諫議大夫, 中書令하다.
23 世	子 友榮 (우영)	字는 浩眞이니 少讀書文章하다. 眞德王2年 癸卯에 命爲遣使하야 入唐請兵하야 共伐百濟하니 時에 唐太宗이 聞其文章하고 說國子監試하니 公이 逐爲及第하야 至翰林學士하고 9月에 特賜請兵하다. 武烈王朝에 又得戰功하고 文武王에 爲謀率師하야 與唐兵으로 伐高句麗하다. 官至協律都尉, 衛社至功臣, 內史門下平章事, 守太尉常書左僕射, 大輔阿餐,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上柱國하고 贈太師光祿大夫大尉, 諡文貞公하다.
24 世	子 駿(준)	字는 常民이니 有才能하고 始仕文武王朝하여 至神文二朝하고 官至政堂文學, 門下侍郎平章事, 內史侍中, 上柱國하고 諡는 文貞公이다. 配는 永昌夫人金氏니 太宗武烈王諱春秋의 女라.
25 世	子 紹(소)	字는 子順이니 公이 有才藝하고 行孝悌之事하다. 孝昭王朝에 登官하여 至內史侍郎, 大角干, 門下平章事尙書左僕射, 守太尉侍中, 大阿餐, 太傅光祿大夫하고 諡는 忠孝公이며 以孝表閭하다.
26 世	子 敬智 (경지)	字는 進餘니 有能才識하여 聖德王朝에 登文孝成三朝하여 以忠信佐命功臣正匡으로 歷門下侍郎平章事, 大農都尉令, 尙書事, 司從通政事侍中, 上柱國하고 贈銀青光祿大夫 諡忠莊公이다.
27 世	子 頊(옥)	字는 定世, 號는 明巖先生이니 少能文學하고 以孝父母하여 聖德王이 聞其孝爲忠孝兼全하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고 特爲翰林侍郞中書舍人하다. 孝成王潛邸時에 爲忠言功臣하고 景德王朝에 爲協謀輔理佐命功信하고 官至守太尉門下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 大角干都尉領. 尙書事侍中判御史臺, 上柱國하고 諡忠定公이다.
28 世	子 元長 (원장)	字는 宗甫니 有章兼武하야 智勇過人하다. 景德王朝에 登官爲晉陽都督府, 都摠管, 正海軍하고 累遷左內史太, 尉郞中令하다. 惠恭王朝에 官至內史侍郞門下平章事, 上柱國하다.
29 世	子 漢老 (한노)	字는 玄如니 有文章하다. 元聖王이 卽位初에 爲輔助致理功臣하야 官至太師太保協律都律都尉, 大農博士, 令門下平章事, 內史侍中, 上柱國, 金紫光祿大夫하고 諡는 文純公이다.
30 世	子 季湯 (계당)	字는 順知니 哀莊王3年에 登第하야 憲德王兩朝에 官至春榜翰林學士, 內史中書舍人, 侍中門下平章事, 尙書左僕射로 昇門下侍中. 上柱國, 太史銀青光祿大夫하다.
31 世	子 洵(도)	字는 常夫니 有文章하다. 憲德王7年乙未에 登第하고 興德王元年에 重試及第하야 官至翰林院太學士, 承宣官, 左諫議大夫, 守太師平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章事하다. 僖康王元년에 立協律, 謀衛社致理功臣都尉領, 侍通政尙書事하고 諡는 文肅公이요, 號는 茅溪先生이니 出賢相史하다.
32 世	子 嗣彦 (사언)	字는 重二이니 有文章하다. 僖康王朝元년에 登第하야 以中書舍人으로 爲金明所害하니 人皆痛之러라. 神武王이 卽位初에 公이 與崔文昌으로 爲及第하야 眞翰林院學士하고 拜左諫議大夫하야 命爲太子師傅하야 委以翰林之任하니 一時貴遊者一師事하고 至門下侍中, 太史令, 銀青光祿大夫하야 復令參預政事하고 諡文義公이요 號는 松溪先生이라.
33 世	子 岐(기)	字는 孔淑이니 文聖王朝에 登第하야 官至翰林學士, 中書侍郎, 諫議大夫, 內史門下平章事, 尙書左僕射하다.
34 世	子 禧斗 (희두)	有文章하다. 憲安王朝에 與仲弟辰斗로 入中原하야 制科爲翰林學士하고 及東還三年에 景文王二年壬午에 別設國子監試하고 公兄弟가 同等及第하야 官至中書尙史, 平章事, 門下侍中, 上柱國하고 贈金紫光祿大夫하다.
35 世	子 誠(계)	字는 渭니 有才識精敏하고 善隸書하니 憲康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p>王朝에 登科하여 官至翰林院太學士, 中書諫議大夫, 平章事, 內史尙書領, 都尉復令參預政事하고 老年에 退去臨海間하여 學士徒衆하니 勸學訓導하고 植木樹하며 養魚放海하여 終其身하고 號는 法軒이라 正康王朝時에 賜銀紫光祿大夫侍中領하고 諡는 文懿公이니 筆蹟文集20卷과 李氏世譜文集30卷이 傳家焉하다.</p> <p>※ 筆者註</p> <p>大概 各姓氏의 始祖는 神話的으로 또는 傳說的으로 마무리 處理한 것이 許多하다. 卽 瓢巖先生의 天降說, 땅에서 솟아오른 濟州島三姓穴에서의 高夫良氏 같은 聳出說, 상자 속에서 나왔다는 箱出說, 알에서 나왔다는 卵出說 等 여러가지로 神話的, 傳說的 마무리는 어찌면 賢明한 處理方法인지 모른다. 그렇지 못하면 그 위에 누구이며 또 그 분 위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右往左往하다가 說明하기에 窮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의 始祖는 天降說을 適用시켜서 박바위 위에 내려 오셨다고 마무리 지었으리라.</p> <p>그런데 始祖로부터 지금까지 記錄한 것과 같이 35代까지는 省略해 버리고 實際로는 始祖이신 瓢巖先生으로부터 36世이신 居明, 卽 蘇判公을 卽 遠代孫을 1世로 하여 世數를 起算한 理由는 牧隱 李穡先生이 스승인 益齊公의 墓誌를 擇할 때 蘇判公을 一世로 譜系를 始定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系譜는 2千年 넘게 連綿히 이어왔음이 事實인즉 他姓인 남이 잘못 起算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게 瓢巖公을 一世로 起算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다.</p>	

世 代	諱 又は 名號	摘 要
36 世 (中始祖) (1 世)	子 居明 (거명)	蘇判. 新羅官制에 蘇判이라 함은 骨品制度의 最高貴族인 眞骨만이 받을 수 있는 벼슬임 (令狐澄新羅記에 新羅에는 貴族을 骨이라 하다) 오늘까지 이 居明祖를 1世로 起算하여 왔다. 慶雲祠~全州 鐵岩峯下에 1988年 5月 創建 祭享 定日 3月 中丁
37 世	子 金現 (금현)	兵部令○ 517年 丁酉(法興王四)에 처음으로 兵部를 두고 이의 長인 尙은 大阿餐大角干으로 宰相을 兼하게 하였다. 羅麗의 襲俗에 父子襲名하니 즉 父子의 이름에 같은 字 또는 같은 邊의 글자를 써서 父子 즉 血統을 表示한바 그 例로는 幸의 아들 仁幸, 襲直의 아들 直達등 襲俗에 따라 公之父子가 以金字襲名하셨다.
38 世 高麗朝	子 金書 (금서)	中原太守 戶部郎中으로 高句麗에 처음 벼슬한 분. 配慶州金氏 敬順王 溥의 따님. ○敬順王이 高麗에 納土入朝하니 高麗太祖 王建이 딸 安定淑儀公主(母는 神鸞宮夫人 後에 神明太后로 改稱)를 敬順에게 出嫁시키고 樂浪公主(樂浪太守 崔理의 딸 樂浪公主에 比하여)로 改稱하니 이 公主와 敬順 사이의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第三女가 公의 配位이다.
39 世	子 潤弘 (윤홍)	兵正○高麗에도 兵部를 設置하니 兵令의 다 음 品階로 宰相級이다.
40 世	子 承訓 (승훈)	正祖仕郎○高麗官制에는 內史侍郎平章事, 門 下侍郎平章事, 中書侍郎平章事는 級階가 正 二品이나 正祖侍郎은 無錄으로 미루어 아마 鄉職七品인 正朝인듯함.
41 世	子 申佑 (신우)	原州戶長으로 特除 兵部侍郎하고 昇尙書하 야 致仕終世하시니 後孫一部는 公을 始祖로 貫原州(舊益興)하여 定着世居이나 詳見發刊 辭津陽書院에 主壁으로 入享. 配는 原城李氏 輔의 女. 祖는 國子進士賢執 進士公則 新羅 敬順王之 駙馬李金書公의 女壻이다.
42 世	子 作良 (작량)	戶長一云 二部尙書
43 世	子 善景 (선경)	戶長一云 司諫
44 世	子 芳烈 (방렬)	檢校 大將軍.
45 世	子 皇升	國子進士.

世 代	諱 또는 名號	摘 要
46 世	(황승) 子 用平	承旨
47 世	(용평) 子 克良	國子進士 司成.
48 世	(극량) 子 昌規	國子進士
49 世	(창규) 子 賁(비)	高麗 高宗時郎將正六品으로 中郎將의 밑 別將의 위 官階이다.
50 世	子 忠堯 (충요)	號는 抱巖 ○高麗 忠烈王 17年에 合丹賦를 擊退한 大勳으로 益興(原州舊號) 都護部에 올라 善治하시니 昇兵部尙書하고 이어 判事에 올라 慶興君으로 封君되시어 終世하시니 諡號는 平素에 닮은 文武兼 全의 註로 文烈公으로 내렸다. 配 原城李氏 貞茂의 女. 禮儀判書謙의 孫女. 左京軍 有光의 曾孫女. 高麗提學兵曹判書 春柱의 七世孫.
51 世 (月城君派의 始祖)	子 之秀 (지수)	忠烈王時 金紫光祿大夫 三重大匡 匡靖大夫 尙書 都省左僕射封月城君○月城君派祖로 扶安津陽書院에 配享. 配金氏貞의 女.

世 代	諱 又名號	摘 要
52 世	子 揆(규)	忠宣王時大護軍, 忠肅王時右代言으로 曹國長公主의 告訃使로 元에 갔으며 密直副使로 王位를 노리던 瀋陽王曷를 智謀로 물리친 功으로 二等功臣에 封月城君. 忠惠王時 門下 評理로 忠惠王의 復位을 爲하여 盡忠한 功勳으로 鷄林付院君에 오르고 忠惠王廟庭에 配享. 諡號는 貞烈, 津陽書院에 配享.
53 世	子 元林 (원림)	判司僕寺事 配는 義城金氏 左尹台權의 女, 少尹瑞之의 孫女, 左僕射宣의 曾孫, 判官安東金承古의 外孫.
54 世	子 蔓實 (만실)	號는 花軒, 禡王十三年 丁卯에 寶源庫別監版圖摠郎으로 在任한 正月에 禡王이 寶源庫에 令하여 綺絹百匹을 가져오라 하였으나 庫中 品絶이라 進納치 못한 罪로 杖刑二百에 處하고 百官에 減俸刑을 내리니 棄官하고 隱去하다가 太宗初에 文科하여 左承旨 漢城判尹을 거쳐 吏曹判書로 致仕. 墓抱川花山文貞公左相柳洵撰行狀領相金壽童撰墓碣銘 配 貞敬夫人鐵城李氏監司濬의 女. 墓 同原誌狀은 六世孫惟精撰.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55 世	子 繩直 (승직)		<p>字는 繩平. 1378年 戊午(褐王四)生. 司馬試에 及第하고 特拜司憲府掌令. 太宗 十一年 辛卯에 司憲府執義. 世宗 二年 庚子에 文科에 올라 楊州牧師를 거쳐 慶尙道觀察使로 在任時 鞠獄의 明斷과 經倫에 밝고 清白함이 當世에 으뜸이라 世宗 九年 丁未에 刑曹參議로, 世宗 十一年 己酉에 特拜大司憲에 올라 激務로 因하여 身虛로 累次 辭職疏를 올렸으나 不允하시니 結局 惡性的 背瘡으로 世宗 十二年 庚戌 十一月 五日, 五十三歲를 一期로 壺中에서 終世하시니 世宗께서도 고기 반찬을 禁하시고 治喪官을 보내시어 致喪凡節을 돌보게 하셨다. 慶尙道觀察使時 從夫人 하야 所自廣州移居于琴溪村이나 反葬于楊州池洞하여 失傳으로 裴氏墓左上三位合設祭壇 하니 壇碑銘은 聞韶金應煥撰 津陽書院 配享. 配貞夫人延安李氏監正贈戶曹判書 亮의 女, 典書延城府院君係孫의 孫女. 生四男一女. 配貞夫人興海裴氏. 麗朝判司僕寺事杜門洞七二賢으로 肅宗朝 贈資憲大夫兵曹判書 栢竹堂尙志의 女, 生一男. 墓琴溪仕望卯坐有短碣銘撰, 遺訓으로 六典에 對한 上疏文 二篇 있음.</p>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56 世	子 時敏 (시민)	<p>字 子修, 號는 琴湖. 1430年 庚戌(世宗十二) 生. 6歲부터 屬文하니 才能이 뛰어난 神童이 란 名聲이 藉藉하였다. 潛心修學하여 文章節 行이 當世에 으뜸으로 1453年 癸酉(端宗一) 司馬試에 及第하였으나 不意에 仲兄 繕工監 副正命敏이 靖難에 被禍로 慶席도 베풀지 못하고 謹慎待罪中 遠隔異母之弟는 不卽隨 坐라는 命이 내려 落鄉琴溪村하여 謹身中 翌年甲戌에 復以無分於同異母各居之間이라 도 亦與緣坐하여 定屬於禮安縣하다. 1458年 戊寅(端宗四) 世宗大王原情恕罪로 傳曰義禁 府放安東安置를 從自願移永屬 梅月堂 金時 習이 尋訪하고 琴湖高士之軒이라 名第하였 다. 1472年 壬辰 (成宗三) 以仁粹大王妃로 特蒙天恩하고 乃得免放하다. 出天之孝하여 母喪에 侍墓三年하고 1473年 癸巳(成宗四) 卒하시니 享年 四十四歲.</p> <p>配 安東權氏縣監啓經의 女.</p> <p>墓 琴溪仕望洞子坐雙墳有碣碣銘은 永嘉 權 相圭撰, 鄉內士林 사이에서 戶祝之議로 影列 祠.</p> <p>配享에 推進合議가 있었다.</p>
57 世	子 宗準	1454年 甲戌(端宗二)生.(父親 禮安定屬其年)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종준)		<p>字는 仲均 號는 備齊, 備軒, 浮休子, 尙友堂, 太庭逸民藏, 六居士하다. 帖畢齊 金宗直의 門人으로 長壯時赴學하였으나 父親의 前故로 不許錄名되고 1485年 乙巳(成宗一) 別試文科 甲科二等으로 及第 成均典籍, 弘文館校理로 大提學魚世謙選으로 湖堂首頭に 올라 賜暇 讀書 成宗十八年에 吏曹侍郎으로 日本使臣 護送使로 東萊에 이르러 手書한 書畫를 주 었던바 天下의 重寶를 얻었다고 百拜致謝. 成宗二三年에 스승 帖畢齊卒. 成宗二四年 三月 承議司憲府持平十一月 承政院에서 明律 法者로 拔擢. 成宗二四年 檢詳에서 舍人으로 特進. 書狀官으로 燕京에 가서 書畫로 皇朝 를 울렸으며 1494年 甲寅(成宗二五) 義城縣 令으로 鞠獄을 明斷하고 頽廢한 校宮移建과 竹樓(聞韶樓의 前身) 創建하고 鄉子弟를 불러 誦詩習禮와 土木大興等 善政恤民에 盡力 하니 百姓들이 不忘碑를 세우고 稱頌하였다. 燕山三年十一月에 慶尙道地圖를 作成하여 上納하였다. 1498年 戊午史禍에 被禍됨에 刑曹判書 洪貴達과 海平府院君 鄭眉壽 極諫하 였으나 救解치 못하고 結局 四十四世를 一期로 鞠刑終世하셨다. 1509年己巳(中宗四) 伸雪되고 子 德淵의 上言으로 家產還受하고</p>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p>1673年癸丑(顯宗十四) 校理 李奎齡의 上言으로 推贈弘文館副提學하다. 有文集 鏡光書院, 栢麓里社, 周岡精社에 祭享.</p> <p>配淑夫人永嘉權氏綽의 女. 慶州府尹 許誠는 綽을 高節之士라 極讚하였고 孫供臣은 寄詩 綽云歲無紫陽筆誰記晉春秋라 하여 綽比淵하였다.</p> <p>墓仕望洞上下墳, 墓誌銘弟弘準撰. 墓碣銘葛庵李玄逸撰. 墓表陰記木齊洪汝河撰行狀은 臨汝齊柳奎撰.</p>
58 世	子(系子) 德淵 (덕연)	<p>生父는 公準(宗準의 季弟) 字는 聖源參奉에 薦舉되었으나 固辭隱居.</p> <p>配原州邊氏生員廣의 女. 副司直希의 7代孫이며 郡守寧의 曾孫女, 安東權哲經의 外孫女.</p> <p>墓順興乾井古臺洞上下墳, 有司 碣銘撰은 興海裴東煥.</p>
59 世	子 胤讓 (운양)	<p>字는 士允, 號는 慕先齊. 官至成均館大司成, 戊午禍亂後退隱于慶州南星里.</p> <p>配光山金氏 生卒未詳, 墓所不傳. 文純公后稠堂富弼祖는 監司雲巖綠, 曾祖는 生員. 贈吏曹判書孝盧光山府院君興光后 外祖는 師傅河就深晋州人. 尙州老多設壇祭享.</p>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60 世	子 廷秀 (정수)	字는 景學, 號는 民學. 典渭同直長. 明宗庚戌 생. 仁祖癸未卒. 墓慶州府南伏安에 子坐. 墓 碣銘은 月城, 孫奎鎬 지음. 配는 密陽孫氏 廣理君兢訓의 后孫 監役富羽 의 女. 明宗 辛亥生, 宣祖癸卯四月十四日 卒. 墓 이조 호암 남성산에 丑坐.
61 世	子 隱(은)	字는 衛夫, 號는 明齊 又 省庵. 宣祖丙戌十二月二十五日生. 道義로서 寒岡鄭 先生을 爲하여 얻은바 先生께서 德行感化即 浴行하는 날 從遊케 하셨다. (寒岡浴行錄에 실려 있음) 顯宗戊申卒. 配는 慶州金氏 庭寬의 女. 墓 慶州府南伏安先塋後山에 丑坐雙墳.
62 世	子 惟善 (유선)	字는 子膺. 仁祖庚午生. 肅宗辛未六月三日卒. 墓 慶州府南斗西面活川에 酉左. 配는 月城崔氏是垣의 女. 墓 活川. 配는 鄭氏. 墓 上同.
63 世	子 世樑 (세량)	蔚山入鄉祖이시며 字는 汝成, 號는 陽隱이시 다. 仁祖己丑十月九日生. 忌日은 三月十八日. 墓는 蔚山府西熊村面檢丹고야 洞山에 酉坐.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墓碣銘은 蔚山 李錫强 지음. 配는 蔚山朴氏 司果顯度の 女. 顯宗丙午生, 英祖癸未卒. 墓 蔚山 熊村面大陽店谷에 子坐, 有表石.
64 世	子 命禧 (명희)	肅宗壬申生. 忌日은 四月二十日. 配는 蔚山朴氏 通德興祖의 女. 辛巳生, 英祖乙酉四月十一日卒. 墓는 仙葬하고 石祭壇. 熊村面大陽里店谷山에 有함.
65 世	子 慶麟 (경린)	字는 仁甫. 英祖丁未生, 正祖甲辰四月十一日卒. 學行이 著放鄉. 墓는 地域開發形便으로 仙化葬하고 熊村面大陽里店谷山에 有石壇. 配는 金海宣氏 庚戌生. 忌日은 三月二十二日. 有石壇 上同. 配는 東萊鄭氏 來秀의 女, 清道金兌一의 外孫女, 丙辰生. 高宗乙亥五月四日卒. 墓 上同.
66 世	子 精奎 (정규)	字 文叔. 英祖甲申生, 乙亥六月十七日卒. 墓 熊村面大陽村後亥坐有床石. 配는 廣州安氏 相國女. 忌日은 六月三日. 墓 乾位合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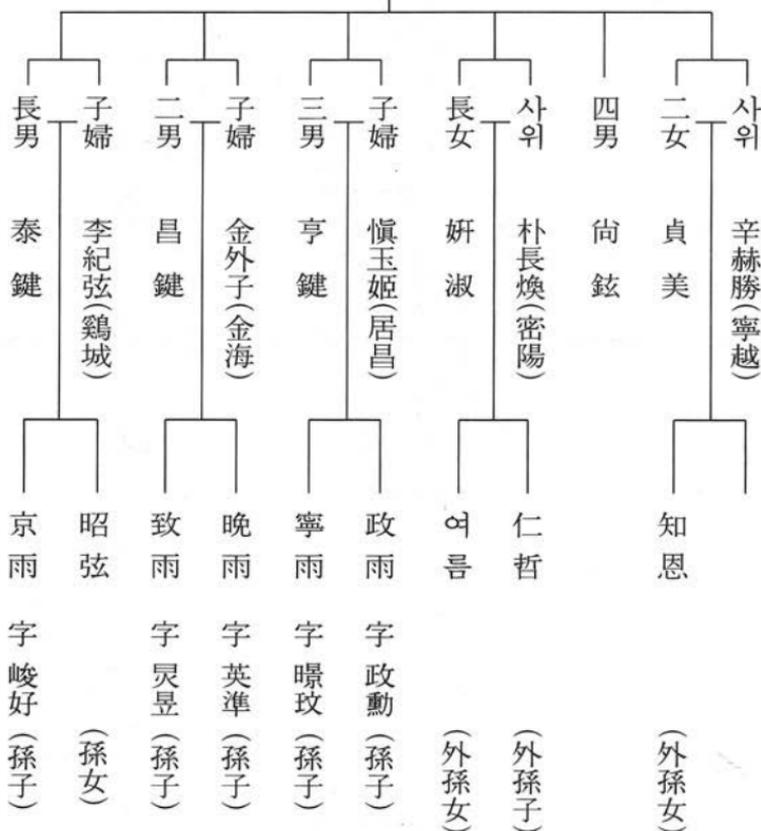
世 代	諱 又は 名號	摘 要
67 世	子 錫馨 (석형)	<p>生父 鍾奎, 字 永瑞. 正祖庚申四月八日生. 辛酉七月二日卒. 墓 大陽西山亥坐 尊床石. 配는 月城金氏學禮의 女. 純祖辛卯七月十日卒. 墓大陽店谷良坐有床石. 配 晋州姜氏璞의 女. 純祖庚午十月二日生, 庚午十月二十七日卒. 墓店谷先塋下. 子坐有床石.</p>
68 世	子 德雨 (덕우)	<p>字는 善裕. 憲宗戊戌十月十四日生, 乙酉二月二十一日卒. 墓熊村面大陽店谷先桃下子坐有貞尊石. 配는 月城金氏命泰의 女. 憲宗己亥四月十八日生, 戊戌二月七日卒. 墓熊村面大陽괘안大谷卯坐, 有尊石.</p>
69 世	子 相郁 (상욱)	<p>字는 仁燮, 號는 君七. 有文章하고 性이 寬厚 仁慈하시며 鄉內에서 士林과 親熟相從하셨으며 吉凶事에 出入이 잦으셨고 鄉里를 指導啓蒙하시다. 其言行이 著於鄉이라. 高宗戊辰九月十二日生. 宮內部主事. 辛巳九月二十八日卒. 墓 斗西面西河里辛坐乙하다. 配는 青松沈氏魯文의 女.</p>

世 代	諱 又는 名號	摘 要
70 世	子 鐵炯 (철형)	<p>高宗庚午四月二十九日생, 辛巳一月八日卒. 墓 乾位와 雙墳.</p> <p>字는 順明, 號는 俊民. 1896年丙申十一月六日生. 公의 夫妻分께서는 父母님께 孝誠이 至極하시어 鄉里에서 表彰하러 하였으나 頑固히 辭讓하시다. 戊申五月二十九日卒. 墓 斗西面西河里先塋下.</p> <p>配는 月城崔氏讚壽의 女. 夏樂東輔의 后孫. 1898年戊戌十二月十九日生, 壬辰一月十二日卒. 나의 父母님께서는 來賓過客을 厚接, 隣里에서 得人心.</p> <p>墓는 乾位와 雙墳(斗西面西下里山)</p>
71 世	- 名 - 子 在萬 (재만)	<p>字는 樂瑞, 號는 春溪. 四兄弟中 二男으로 出生하다. 위의 兄 在和, 아래로 在原과 在烈 두 동생이 있고 女동생 3人이 있다. 兄 在和는 伯父前으로 入養하였으므로 在萬이 世代를 이었다. 그리고 在烈은 三寸後로 入系했다. 1920年 庚申十一月二十八日生이며 일직 敎職에 몸을 담아 46年 9個月동안 倭政時代에는 訓道, 解放後부터는 敎師, 校監 2年餘, 校長 34年을 歷任하고 1986年2月23日 停年退</p>

世 代	諱 又は 名號	摘	要
			<p>任하였다. 그후 周岡精舍의 門有司로 6年間 在任하였으며 또한 鄉内の 여러 儒所에 出入하였고 約 800雙의 結婚式 主禮를 맡은 바 있다. 그리고 慶州李氏 大陽門中の 會長으로 6年間 在任하였으며 在任時 熊村面大陽里에 門中齊舍 慕遠齊를 計劃하여 門錢으로 建立하였다. 性은 頓重沈着한 편이며 每事 深思熟考型이고 不義와는 秋毫의 妥協도 不容하다. 그리고 勤勉節約하는 알뜰型이기도 하다. 綜合的으로 誠實性的 人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p> <p>體軀는 身長 168cm, 體重 68kg, 胸圓은 89cm 이니 우리나라 平均值이다.</p> <p>妻는 高靈 金氏 在祐의 長女 金聖禧이다.(1925年 乙丑 陰 11月 16日 生)</p>

子女孫一覽表

(本人) 李在萬 — 金聖禧(妻)
(高麗金氏 在佑의 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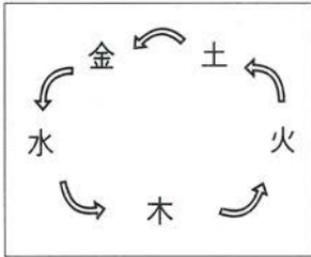
暫定代置行列表(月城君派에 限함)

世代數	制定行 列第次	現行錯 誤行列	是正代 置行列	世代數	制定行 列第次	現行錯 誤行列	是正代 置行列	世代數	制定行 列第次
(三五)	○ 榮	○ 炯		(四四)	○ 東			五三	泰 ○
三六	奎 ○	在 ○		四五	心 丙 ○			五四	○ 模
三七	鍾 ○	○ 鍵 鎬		四六	○ 世 教			五五	炫 ○
三八	○ 雨	濟 濬 ○	永 ○	四七	鎮 ○		鎬 ○	五六	○ 均
三九	相 ○	○ 東	○ 杞	四八	○ 求		○ 冲	五七	鎔 ○
四〇	○ 熙 炯	丙 心 ○	炫 ○	四九	根 ○		槿 ○	五八	○ 淳
四一	在 ○	○ 世 教	○ 奎	五〇	○ 變		○ 照	五九	秉 ○
四二	○ 鍵 鎬	鎮 ○	銘 ○	五一	준 ○			六〇	○ 炅
四三	濟 濬 ○	○ 求	○ 浩	五二	○ 善			六一	基 ○

○ 行列은 代數에 따라 一代는 行列字가 위로 되면 다음 代는 行列字가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例를 들면

仁炯 → 在昌 → 五鍵 → 濬徹 → 增東 → 丙九

○ 行列字는 五行에 따라 定해야 한다.



例를 들면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이니 父가 金行이면 子는 水行, 孫은 木, 曾孫은 火行, 玄孫은 土行이다. 五代마다 다시 같은 行列이 되지만 五代前에 위의 行列字가 있었으면 五代後에는 그 行列字가 아래에

간다.

○ 例示

圭鎮은 行列이 圭字니 圭는 土行이다. 따라서 그 아래 代에는 土生金이니 金字가 든 글자 卽 章鉉이라 하던지 潤錫이라 하던지 金字가 든 글자가 아래에 들어가면 된다. 다음 代 卽 孫子의 이름에는 金生水라야 하니 물수字(水)나 삼수字(氺)가 든 글자가 이름의 위의 글자가 되어야 한다. 卽 永浩 또는 浩字를 써서 浩民이라 하던지 또는 永字를 따서 永俊이라 해도 좋다. 혹은 泳華라고 해도 좋다. 行列字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달리 글자를 擇하여도 된다. 例컨데 埃(티끌애)字는 티끌이나 먼지와도 같고 쓰레기와도 같으니 奎字나 塘字나 壩字를 사용해도 좋다. 土字가 들어간 글자를 고르면 된다.

제2부

내가 걸어온 길



1. 나의 出生과 幼兒期

나는 1920年 陰曆 11月 28日에 蔚山郡 大峴面 夫谷里 22番地에서 出生하였다. 아버지 李鐵炯(1896年 丙申 陰曆 十一月 六日 生), 어머니 崔文(1898年 戊戌 陰曆 十二月 十九日 生) 두 분 사이의 四男三女 中 次男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時는 어둑어둑해 갈 무렵인 午後 5時頃이었으니 卽 晡時末인 셈이다. 내 위로 兄님 한 분이 계셨고 아래로는 男동생이 셋, 女동생이 셋이었는데 兄님은 일찌기 伯父님 前으로 入養하였으므로 내가 長男 노릇을 하게 되었다.

어쨌거나 나의 運命과 向路가 始發된 것이다. 나의 이때의 呱呱之聲이 무엇을 豫告했는가? 바로 이 몸이 오늘날까지 겪어 온 ‘波瀾萬疊한 歷程의 生’,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부터 記述해 보고자 한다.

모든 一切의 生物은 ‘母體榨取의 原理’ 卽 母體犧牲에 依하여 生育成長하는 그 原理에 따라 나 亦是 母體를 빨고서 자라났다. 이것이 大宇 宙自然의 作業임을 알고는 있으나 얼마만큼의 苦痛과 괴로움을 어머님께 안겨드렸는가 생각해 볼때에 매우 罪스러운 心情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幼兒期와 幼年時節에 대한 記憶은 별로 없어서 쓸 말이 없긴 하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다. 어렴풋한 記憶으로 6歲때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손가락에 얽힌 사연이다.

손가락 자루가 半쯤 잘려나간 몽당 손가락을 나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무척 좋아 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朝飯때에 그 몽당 손가락이 밥상에 보이지를 앓았다. 나는 “내 몽당 손가락 어디있냐, 내 놓으라”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올어대었다. 나의 父母님께서는 “몽당 숟가락은 거지가 와서 밥을 얻어 먹을 때 쓰는 것이니 너는 온전한 숟가락을 使用하라”고 달래신다. 그렇지만 나는 막무가내로 내 숟가락을 왜 거지에게 주느냐며 떼를 썼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나의 어깨를 한대 치셨다. 그래도 나는 계속 고집을 피웠고 기어이는 그 몽당 숟가락을 찾아 내어 밥을 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可觀이었고 철부지 時節의 응석이었다. 그 後 한달이 채 못가서 나는 그 몽당 숟가락에 실증을 냈고 더 이상 使用하지 않게 되었다.

이 때의 이 不完全 又 不確實한 好奇心이 오늘날의 나의 性格에 影響을 미쳤는지도 모르겠다. 요즘도 나는 남이 잘 입지 않는 빨강·파랑·노랑 와이셔츠, 붉은 양말등을 選好하는 편인데 아마도 이러한 怪癖은 그때부터 싹 텄는지도 모르겠다. 帽子도 異色の인 것을 좋아하는데 나의 特異한 性格으로 굳어 버린 것 같다.

2. 나의 學業

나는 7歲때부터 祖父님으로부터 사랑방에서 漢文을 배웠다. 「千字文」, 「四字小學」, 「童蒙先習」등을 마치고 「小學」을 배우다가 當時의 大峴公立普通學校에 滿 7歲에 入學하였다. 집에서 漢學을 배우면서 祖父님으로부터 漢字 쓰는 법도 제법 배웠다. 나는 祖父님이 나의 큰 恩師이셨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思慕하는 바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랑방에서 祖父님과 한 房에서 起居하면서 옛날 이야기, 訓戒 等 祖父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다가 滿 7歲가 되던 해 4月 1日에 祖父님을 따라서 大峴

公立普通學校에 가서 一學年에 入學하였다. 요즘 初等學校가 그때는 普通學校였다. (‘普通學校’가 그 後에 ‘尋常小學校’로 改正되었고 다음에 ‘國民學校’로 바뀌었다가 1996년에 ‘初等學校’로 校名이 改正되어 現在에까지 이르고 있다.)

나는 어린 시절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는데 入學하는 날에도 그런 모습으로 學校에 갔더니 先輩들과 級友들의 웃음 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5學年の 한 아이가 나를 데리고 東쪽의 校舍 옆으로 가더니 나무 걸상을 하나 가져와서 앉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걸상에 앉으니 내 머리 위로 차가운 物體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더니 한 3分 後에 “되었다, 가거라.” 하기에 일어나 보니 머리가 다 꺾여져 있었다. 길다란 머리채가 다 밟 그대로 땅에 떨어져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차가운 物體는 ‘바리깡’이라는 理髮器具였다. 나는 마음 속으로 이상한 物件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머리를 꺾고 나니 머리가 어찌 그리도 시원하던지 나는 두손으로 몇번이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시원하기도 하였지만 참 神奇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나의 入學式날의 아스라한 追憶의 한 斷片이다. 그 當時는 새 學年이 4月 1일에 始作되었다. 그래서 다음 해의 3月 31일이 學年末이었다.

나는 1934年 3月 24일에 普通學校를 卒業하였다. 卒業式에서 나는 優等賞, 皆勤賞, 珠算 一等賞을 받아서 級友들의 羨望의 對象이 되었다. 그 當時에는 4學年때부터 珠算科目이 있어서 6學年까지 繼續되었다. 珠算은 내가 第一 좋아하는 科目이었다. 日本人 校長 쓰내모리(經森)先生님이 6學年 擔任先生이었는데 珠算 時間에 아무리 빨리 불러도 끝맺음에 가서 ‘대와(그림)’ 소리가 나기도 전에 나는 손을 번쩍 들곤 하였다. 勿論 거

의 매번 正答을 맞췄다. 나는 우쭐한 기분이 들 程度였다.

이 珠算 一等賞은 前해 가을 學藝會때에 學父兄 等 觀衆이 滿堂한 가운데 珠算 競試를 한 成績結果였다. 5個月이 지나 卒業式날에 賞狀과 賞品을 함께 받았는데 나로서는 무척 흐뭇한 賞이었다. 優等賞 보다도 훨씬 貴重한 賞이라고 그 당시에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後 賞狀들을 모두 불 태워 버렸는데 그것들이 나의 一生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普通學校에서는 每月 學校에 授業料를 納付해야 했다. 學父兄들은, 또 우리들도 이것을 月謝金이라고 말했다. ‘가르쳐 주셔서 感謝하다는 뜻으로 다달이 바치는 돈’이라는 뜻이다. 金額은 每月 60錢이었다. 60錢이라면 지금의 어린이들은 理解를 잘 못할 것이다. 現在는 錢이라는 單位는 使用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貨幣도 없으니까 말이다. 그 당시 白米 한 가마의 價格이 6圓 程度였으니 대충 計算해 보면 쌀 한 되박에 15錢꼴이 되는 셈이다. 한 되박이라면 되박 위에 수북이 올라 오도록 쌀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한달 月謝金이 쌀 4되박인 것이다.

그때의 農村사람의 生活은 一次產業 時代이기에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콩을 심어서 가을에 秋收하고 나면 그 밭에 또 보리를 심어서 이듬해 여름에 收穫하는 每年 되풀이하는 農業經營方式이었다. 당시에는 肥料 事情도 좋지 않아서 金肥가 稀貴하였고 또 現金이 貴하여 買入할 수도 없었다. 또한 綠肥도 山野가 裸地가 많아서 그리 많이 採取할 수도 없는 實情이었다. 그러니 稻作은 秋收穀量을 많이 期待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의 집은 7,000坪의 밭을 所有한 大農에 속하는 편

이라 家族의 食糧은 充分하게 充當할 수 있었다. 그러나 全部가 天水沓이었기 때문에 旱災가 들었다 하면 사정은 180度 變異하여 食糧難을 겪기도 하였다. 豐年이 들었다 해도 餘裕로 남은 米穀은 現金化하여 日常家用돈으로 使用해야 하니 넉넉치 못하였다. 거기다 食口는 大家族으로 8名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10人 食口로 늘어났으니 期日內(每月 10日)에 授業料를 納付해 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期日이 닳쳐오면 나는 冊 보자기를 어깨에 메고는 學校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마당에 서서 “月謝金 주소”하고 소리를 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오늘은 돈이 없다. 다음 날 줄테니 그냥 가거라”하신다. 나는 學校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몇번 더 타이르시다가 끝내는 회초리를 들고 오셔서 아랫도리를 때리신다. 그러면 나는 逃亡을 쳐서 東쪽의 簡易 사립을 빠져 달아난다. 그리곤 한참 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月謝金 주소’ 한다. 나는 또 逃亡쳐서 뛰쳐 나갔다. 이제는 事勢不得已하여 拋棄하고 곧장 學校로 달려간다. 授業時間 前에 擔任先生님께서서는 出席을 다 부르신 다음 授業料 未納者를 불러 세우신다. 모두 세사람이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가슴이 鼓動친다. 부끄러웠다. 級友들의 視線이 우리 세사람으로 集中된다. 先生님께서서는 “來日은 꼭 가지고 오너라” 하시면서 앉으라 하신다. 그렇지만 첫 時間은 授業料 생각때문에 공부고 무엇이든 어리둥절하게 보내고 말았다.

요즈음 이런 나의 經驗에 견주어 回顧해보면, 學父母되는 사람은 子女들의 士氣가 꺾이지 않도록 納付金을 제 때에 주어 보내야만 자녀들에게 勇氣를 심어주고 또 明朗性을 기를 수 있

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또 다른 一方으로 제때에 月謝金을 주어 보내지 못하신 그때의 아버님의 가슴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며, 또 옆에서 묵묵히 보고만 계시던 어머니의 속은 얼마나 애뒀으며 몰래 울으셨을가를 생각하니 이 대목을 써 내려가다가 나의 過去의 不孝했던 歷程이 날날이 머리에 떠올라서 나도 어찌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 내림을 堪當할 수가 없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릴 때는 自己의 固執대로 行하고 싶은 그 思考가 不孝의 原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後 한참이 지난 다음의 일이다.

이러한 環境에서 나는 成長하였다. 나는 幼時부터 狹心小膽한 편이었다. 그런 나의 性格과 關聯되어 記憶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다. 어릴적 우리집에는 부엌에 물을 많이 貯藏해 두고 밥도 짓고 飲料水로 먹기도 하는 커다란 陶器가 있었다. 둘레가 약 2.5m, 높이가 1m 정도 되는 커다란 陶器인데 이것을 물탱크로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어느해 여름날 나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들어가서 陶器 사발을 내려서 물을 뜨려고 하다가 그만 사발을 물탱크(方言으로 ‘물드무’) 밑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겁이 나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으로 달아났다. 그릇을 끄집어 올리면 될터인데 나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만큼 어리석었다고 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仰天大笑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즈음도 나는 닭의 목을 비틀지 못한다. 하물며 칼로 닭 목을 친다는 일은 더더욱 못한다. 이런 氣質(Temperamant)이니 오늘날까지 나는 큰 일을 하지 못하였다. 大端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기가 大膽한 사람도 하루 세끼 먹고 小膽한 人間도 하루에 세끼 먹고 살지 마는 平素 每日의 生活속에서 精神的으로 얼마나 萎縮했겠으

며 얼마나 優柔不斷한 生活을 했겠는가 돌이켜 보면 한심할 따름이다. 비록 나의 性格이 그러하였지만 比較的 深思熟考하는 편이라서 그리 큰 失手는 하지 않았다고 自負할 수 있다. 모든 일에 確固不動한 自信이 있어야만 일에 着手하는 性質(Quality)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普通學校를 卒業하고 그 해에 나는 上級學校에 進學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蔚山에는 高等普通學校가 없었으며 다른 學校도 없었다. 오직 하나 蔚山公立農業實修學校가 唯一한 中等學校였다. 卒業式에서 一等으로 優等賞을 받은 내가 그 學校에 合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식은 죽 먹기 보다 쉬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 해에 試驗을 보지 않았다. 만일 合格되지 못할 경우의 羞恥心을 내 스스로 堪當할 수 없을 것이란 判斷下에서였다. 나는 한 해를 쉬기로 하였다. 정말 지금 생각해 봐도 괴팍스런 行動이었다. 그러나 先天的으로 타고난 性格을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一年을 쉬는 동안 나는 열심히 復習을 하였다. 農繁期에는 모심기도 하고 보리도 베고 보리타작, 콩심기, 밭매기, 벼 脫穀等 집안 일을 틈틈히 도우면서도 공부에는 열심이었다. 그 다음해 3月, 나는 蔚山農業實修學校에 入學試驗을 치루어 4等으로 合格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別로 기쁜줄을 몰랐다. 大邱師範學校로 가지 못한 것이 恨스러웠다. 一年 동안 쉬면서 나는 中學校 入學試驗問題集을 求得해서 밤마다 열심히 풀어보았다. 全國의 師範學校, 高等普通學校, 農業學校 中 每日 한 學校를 골라 問題를 풀어서 뒷면의 解答과 對照해 보니 全部가 滿點이었다. 나는 全國 어느 中等學校에 가더라도 合格할 自信이 있었다. 그러나 東萊高普나 釜山商高, 大邱 등 어느 學校로 가

더라도 下宿을 해야 하니 그것이 걸림돌이었다. 下宿費가 每月最少限 白米 한 가마 정도 드는데 그 費用을 支出하려면 우리 집 食口들의 生活에 打擊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萬不得已 蔚山農業實修學校에 入學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못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蔚山農業實修學校에서의 生活은 順坦하였다. 당시는 戰時가 아니었기에 午前 中에는 教科學習을 하고 午後에는 實習作業이 있었는데 나는 誠實히 學校生活에 임하였다. 그럭저럭 2年을 마치고 1937年 3월 20日 卒業을 하였다. 내 나이 滿 16歲였다. 당시 蔚山에서 이 學校를 나온 사람의 수는 極히 적었다. 蔚山郡廳에 就職을 할 수도 있었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面事務所도 가기 싫었다. 그렇다고 당시는 就職할 만한 곳도 別로 없었다. 변변한 會社나 工場이 있을리 萬無였다. 苦悶 끝에 나의 進路를 選擇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決定한 곳이 바로 晉州師範學校였다. 以後 나는 晉州師範學校 臨時講習科를 修了하였다.

以上이 나의 學業 過程의 全部이다.

3. 나의 向路의 選擇

이제 나의 學校 進學의 길은 끝났다. 家庭形便上 도저히 더 이상의 學業이 용이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부터는 家事에 助力하고 農事 일을 하며 父母님을 도와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야말로 晝耕夜讀의 生活을 始作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주로 점심을 먹고 소를 몰고 隣近의 野山으로 가서 풀을 뜯기는 일, 철에 따라 콩밭, 보리밭 매기와 모

내기 등이었다. 어느 해는 17日間 繼續 모내기 作業을 한 때도 있다. 내집 모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모내기도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이웃끼리 서로 協力하여 集團活動을 하였다. 여름철에는 보리베기, 보리타작 가을에는 벼베기, 나락타작 등 닥치는대로 일을 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모기, 빈대, 벼룩과 싸워야만 했다. 나는 比較的 健康한 편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疲困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다.

벼룩 눈코 뜰 새 없이 지낸 나날들이었지만 나는 틈만 나면 나의 將來의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우리 兄弟姊妹는 동생이 한명 더 태어나서 모두 6男妹였다. (그후 4, 5年間 女동생 1名, 男동생 1名이 더 태어나서 結局 5男 3女の 8男妹가 되었다. 兄弟가 많은 것은 家門이 興盛, 繁昌하는 것이니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는 생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父母님의 家事와 農事일을 도우면서 父母님을 집에서 모시고 孝道를 다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人道的인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길을 따라서 生活을 한다면 10年後, 30年後의 將來에 나에게 逢着되고 展開되는 未來의 環境에 對해서 想像을 해 보았다. 農事만을 經營하면서 歲月을 보내고 있다면 發展性이라는 것은 秋毫도 可望이 없다는 것은 明若觀火인 것이다. 나는 이때부터 農事라는 職業은 自古로 東西를 莫論하고 奴隸라고 생각하기 始作하였다. 勿論 自給自足하기 爲한 自己選擇이기는 하지만 그 時期에는 公認된 小作農이 많았다. 國家에서 制度化한 奴隸는 아닐지라도 生活 그 樣態나 搾取되어가는 形便이 틀림 없는 奴隸라고 생각하였다.

自給自足하는 現在의 狀態로서만 滿足과 幸福으로 느끼고

앞으로의 發展과 財産 增殖이 되지 않는다면 그 結果는 萎縮, 縮小, 貧困의 順序로 轉落되는 것은 儼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언젠가 나도 結婚을 하고 子息들이 태어나게 될텐데 지금 環境에 應處해서 산다면 將次의 나의 處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다 자란 새는 父母를 떠나 날아간다’는 말과 같이 모든 動物과 植物은 結局은 母體를 떠나서 獨立하는 것이다. 나도 돈을 벌어 들여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卽 俸給生活者가 되고 싶었다. 前項에서 言及한 바 있지만 당시 蔚山에는 會社나 工場이 없었다. 官公署뿐이었다. 그것도 蔚山 郡廳, 邑面事務所, 警察署와 駐在所, 登記所, 金融組合(現 農協) 그리고 水利組合, 測候所, 穀物檢査所, 稅務署, 專賣廳 等이었다. 그 어느 하나도 나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그때 마침 나의 出身學校인 農業實修學校의 先輩인 H兄과 B兄, J兄 또 先輩는 아니지만 7歲쯤 年長인 S氏 等이 小學校 教員試驗에 合格하여 小學校에서 教員生活를 하며 活動 中이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도 그 길을 擇해야겠다’고 決意를 굳혔다. 나는 어머님과 相議하였다. “學校 先生이 되었으면 하는데 試驗 準備를 하자면 冊을 제법 많이 사야하니 돈을 拾圓 程度 마련해 주세요” 했더니 며칠 後에 쌀을 팔아서 마련해 주셨다. 나는 參考書籍 約 20券을 注文하였다. 1 週日 後에 冊이 到着하였다. 冊을 펼치니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다. 教員試驗 科目은 國語, 算數, 地理, 歷史, 美術, 體操, 音樂, 修身, 科學 等이었다. 나는 日課時間表를 짜서 내 房에 붙여 놓았다. 여름에는 아침 3時에 起床, 밤에는 11時에 就寢, 겨울에는 아침 4時 起床, 밤에는 11時 就寢으로 定하여 特殊사정이 없는 限은 반드시 이 時間表대로 공부하였다. 거기에 書道까지 包含시켰다.

공부를 하다 보니 追加로 冊 數十卷이 틈틈히 必要하였다. 어머님께 또 돈 얘기를 꺼내기가 罪스러웠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教科科目은 冊만 反復해서 읽고 筆記도 하여 全部를 차례로 暗誦할 정도로 열심히 하면 되지만 技能科目들의 實技學習이 頭痛거리였다. 實技學習은 直接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經驗을 쌓아야 했다. 이 實技는 내가 合格하기 爲한 條件이기도 하지만 現職에 들어서면 學生 指導에 必要不可缺의 道具인 것이다. 音樂같은 科目은 입으로 口唱을 해서 學生에게 範唱을 들려주어야만 하고 목소리도 아름답게 나와야 한다. 萬若에 範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병어리가 歌唱을 指導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말로서만 說明해서 될 問題가 아니다. 萬若에 그렇게 學生을 指導한다면 ‘風’字를 놓고 ‘나는 파담뽕해도 너는 파담뽕해라’는 式밖에 되지 않겠느냐 말이다. 그래서 나는 소 풀 뜯기러 가서 소리를 내어 노래를 每日 山에서 또는 들에서 마구 불러대었다. 남보기에 부끄럽다거나 廉恥, 코치 볼 것도 없었다. 남이 내 답답한 사정을 알아 줄 것인가! 소를 끌고 가면서도 오면서도 노래를 마구 불렀다. 부르다가 어느 대목에서 내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흥하면 그 대목은 3번, 4번 復唱鍊習을 하여 내 목소리를 矯正하기도 했다. 그러나 先得的인 나의 音色은 어쩔 道理가 없었다.

樂典도 數十番 反復하여 읽었다. 樂譜도 자주 그려보았다. 나는 오르겐을 배우기 始作하였다. 每日 母校인 大峴小學校에 갈 수가 없어서 나는 두꺼운 장판지 종이를 오르겐 音盤 넓이와 길이로 잘라서 鍵盤을 그렸다. 이것을 冊床 위에 풀로 붙이고 오르겐 鍊習法 冊을 보면서 運指法부터 배웠다. 數十번 反復했다. 나는 ‘風琴을 쳐지 못하면서 어찌 先生님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랴' 하고 뼈에 저리도록 생각했다. 그때의 小學校 音樂教科書를 1學年부터 6學年까지 6券을 사서 1學年 것부터 모조리 風琴 鍊習을 하였다. 6學年까지 6券을 全部 數十回씩 反復했다. 나는 冊床鍵盤에서 鍊習한 것을 午後 4時 或은 5時 頃 小學校에 가서 實物 風琴으로 해 보았다. 아주 잘 울린다. 日曜日도 갔다. 日曜日是 제법 1~2時間씩 계속 연습했다. 그런데 樂典을 살펴보니 長音階와 短音階라는 語句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說明은 없었다. 나는 끝내는 長音階라는 것은 3音과 4音 사이와 7音과 8音 사이가 半音程이라는 것을 알아 내었다. 卽 '미'와 '파' 사이 '시'와 '도' 사이가 半音程임을 드디어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短音階라는 것은 2音과 3音 사이와 5音과 6音 사이가 半音程이라는 것도 알아냈다. 卽 '레'와 '미' 사이 그리고 '솔'과 '라' 사이가 半音程인 것을 나 혼자서 알아냈다.

앞에서도 言及했듯이 나는 小膽狹心하다. 부끄러움도 잘 탄다. 資質과 實技 能力도 없이 뻔뻔스럽게 내가 어찌 教壇에 올라서서 아이들을 내려다 볼 수 있겠는가? 恒常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기에 열심히 오르겐 연습을 하였다.

滿 17歲가 되던 해 어느날, 나는 小學校의 옛 恩師인 쓰네모리(經森仁雄) 校長先生님이 朝鮮青年團에 加入하러 나오라 했다. 그래서 나는 그 團員이 되어 教練도 배우고 새로이 制定된 朝鮮青年團歌를 배웠다. 나는 집에서 冊床風琴에다 대고 그 노래를 연습했다. 물론 樂譜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노래를 들으면 저 노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어느 음에 該當된다는 것을 듣고 感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나는 '미솔도레'를 發聲해 보라면 正確히 그 高低를 發聲할 수 있는

實力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안되면 先生 資格이 없지 않느냐 말이다. 나는 靑年團의 노래를 冊床에서 風琴연습을 20番 30番쯤 연습해서는 이제 自信이 있다 싶어 어느 日曜日 午後 4時頃 母校에 찾아갔다. 教室마다 텅 비어 있었다. 마침 오르간이 골마루의 壁에 딱 붙어 있었다. 나는 椅子에 앉았다. 두 경을 열었다. 내 두 손을 鍵盤 위에 조심조심 얹으면서 페달을 밟기 始作했다. 靑年團歌의 노래가 그 가락 그대로 아름답게 울려 나왔다. 두 번, 세 번 反復하고 있는데 敎務室에서 R先生님이 나오시더니 무릇 感歎한 語調로 눈이 휘둥그래져서 “오르간을 언제 배웠어요?” 한다. 나는 말했다. “어제 저녁에 배웠어요” 했더니 異常하다는 듯한 表情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쨌든 나는 오르간 實技問題는 自信있게 解決하여 버렸다.

前記한 試驗科目外에 새로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으로 教育原理, 各科 敎授法과 教育心理 等の 科目도 있었지만 體育(그때는 體操)의 實技練習도 커다란 頭痛거리였다. 鐵棒, 平行棒, 뿔뜯, 앞구르기, 뒷구르기 등 다양하다. 鐵棒은 學校에 가지 않으면 없다. 마침 우리집 앞의 논 건너편에 우리 밭이 있고 그 옆의 山에는 큰 소나무, 중간치 소나무들이 듦성듬성 서 있었다. 나는 자세히 그 곳을 살펴보았다. 어디 대나무를 걸칠만한 適當한 나무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마침 알맞은 距離를 두고 두그루 나무가 서 있었다. 두 나무의 가지도 높이가 비슷하였다. ‘天佑神助다’ 하고 나는 기뻐했다. 지금은 나는 神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당시는 神의 存在 有無는 無分別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팔뚝보다는 가느다란 길이가 約 2m 정도되는 대막대기 하나와 2m 정도되는 새끼줄 두토막을 들고가서 대나무를 두 나무 가지에다 걸치고는 끝을

가지와 함께 새끼로 동여매었다. 이제 훌륭한 鐵棒이 되었다. 나는 흐뭇한 생각에 한번 매달려 보았다. 튼튼하면서도 가운데 쪽이 조금 휘어지는 느낌이다. 나는 會心의 微笑를 띠었다. 그리고는 ‘됐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나는 父母님께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하였다. 다 큰 子息이 되어 父母님의 바쁘신 일은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미친 놈(?) 같은 짓만 하고 있으니 정말로 罪스러웠다. 그러나 내가 選擇한 길이었으므로 絕對로 나는 中途下車할 수 없었다. 못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無可奈何이다. ‘燕雀이 豈知鴻鵠之志耶’ 이다. 내가 小膽狹心하다지만 나는 모든 일을 한다 하면 해내는 氣質(Temperament)이 있다. 時間表에 따라 철봉대로 갔다. 休息時間에는 철봉대로 가서 매달렸다. 턱걸이, 한다리 걸쳐 거꾸로 오르기, 다리 걸쳐 앞으로 구르기 등 내 나름대로 努力했다. 漸次로 技能이 익어가서 쉬워진다. 처음에는 제대로 되지 않던 것이 네 번, 다섯 번도 해낼 수 있었다. 나는 漸次로 自信이 생겼다. 다음은 높이뛰기 練習이다. 넓이뛰기도 練習해야 했다. 모든 技能이 완전히 몸에 베어 能熟하여야만 先生이라 할 수가 있지, 技能을 지니지 못하면 先生이라고들 말하지만 實은 가짜 先生밖에 되지 않는다. 남의 嘲笑를 免할 길이 없으리라. 높이뛰기, 넓이뛰기 연습方法을 나는 찾아내었다. 山에 소 먹이러 가서 이리저리 自生한 높이가 約 100cm에서 150cm 정도되는 나무만 보이면 約 15m 정도 助走를 해서 뛰어 넘는 연습을 했다. 가급적 더 높이, 가급적 더 멀리 뛰었다. 이것도 자리를 옮겨가며 하루에 十餘回를 뛰어 넘었다. 適當한 높이의 나무가 危險하지 않은 곳에 있는 것만 發見되면 높이, 멀리 뛰어보곤 하였다. 그러니 여름과 가을

까지 하루에 平均 5回 정도 뛰어 1年 中 5個月을 뛰었다면, 750回 뒀 셈이 된다. 500회도 좋다. 얼마나 強訓練인가 말이다. 나중에는 나의 가슴 높이 정도는 자신만만하게 뛰어 넘을 수 있었다. 잔디밭만 보면 입을 꼭 다물고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해보았다. 구르기할 때에 입을 다무는 것은 體操教授法이란 冊에서 읽었다. 입을 벌리고 구르다가는 자칫하면 이에 혀가 물리기 쉬우니 學生들에게 注意시키라는 說明이 冊에 쓰여 있었다. 體操를 始作할 때는 처음은 心臟에서 가장 먼 곳부터(다리, 팔, 목, 옆구리, 가슴 등으로) 始作해서 漸次로 心臟 가까운 部分으로 運動을 시켜야 한다고 教授法에 記錄되어 있었다. 이러한 原理를 모르게 되면 體操時間에 축구공을 던져주고서 ‘너희들 이번 時間에는 축구해라’ 또는 더치볼을 던져주고 ‘너희들 더치볼 해라’는 式으로 되기 쉽다. 어린이들은 좋아라고 歡聲을 올릴지도 모르나 教師는 自信心이 喪失되고 스스로 任務를 拋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음은 美術인데 이 美術 科目 中에서도 工作 科目이 골치 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特히 나에게 있어서 말이다. 工作에도 範圍가 넓어서 粘土, 대나무, 나무, 종이, 양철, 鐵系, 厚紙, 수수깡, 열매, 성냥개비工作 等 材料에 따라 얼마든지 發見된다. 심지어 簡單한 노끈꼬기도 있다. 술방울工作 等 物件에 따라 얼마든지 廣範圍하다. 나는 대충 몇 회씩 經驗을 쌓았다.

書道도 數 百枚를 써 보았다. 이렇게 體得을 하지 않고서는 나는 마음 弱해서 부끄러워 教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뻔뻔스러운 짓을 하기가 질색이었다. ‘良心이 있는 生活을 해야한다’는 것이 나의 信條였다. 能力없이 敎壇에 오른다는 것은 속임수요, 뻔뻔스러움이요, 自家撞着인 것이다. 따

지고 보면 罪惡이요, 人格喪失者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나는 생각하였다.

문득, 解放 直後의 教育의 狀況이 腦裏에 살아난다. 日本人 教師들은 日本으로 모두 돌아갔다. 教師의 數가 많이 不足하였다. 當場에 教師가 必要하였다. 그러니 普通學校 出身이라도 나이가 20歲~25歲쯤 된 사람을 採用치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文教部에서는 各道 單位로 教員養成所를 設立하여 教員을 養成했다. 期間은 6個月間으로 記憶된다. 나에게는 絶好의 機會였다. 그렇지만 나는 생각하였다. 어떻게 學生들 指導를 堪當할 것인가? 教科 指導는 冊을 研究하면 充分히 指導가 可能하겠지마는 實科 指導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무척 疑問이었다. 하기가 數三年後에는 다 資格을 갖춘 教師가 되었지마는...

4. 教員 試驗

나는 試驗 準備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恒常 두 가지를 念頭에 두고서 열심히 努力하였다. 첫째는 合格하는 것이 目的이었고 둘째는 教師로서의 資質과 實力을 갖추는 것이었다. 마침내 1938年 8월에 慶尙北道에서 主管하는 教員試驗이 公告되었다. 나는 나의 親舊인 H兄·B兄(두사람 다 作故하였음)과 함께 應試하기로 하였다. 나는 어머님으로부터 旅費를 얻어서 두 親舊와 함께 大邱로 向해 出發하였다. 大邱는 처음 방문이었다. 지금도 記憶에서 喪失되지 않는 '親和旅館'에 들렀다.

來日이 試驗이니 오늘은 大邱 市街地나 求景하자 하고 3인이 旅館 밖으로 나갔다. 店舖에는 햇사과가 가득 쌓여 있었고 생콤한 사과 香氣가 코를 찌른다. 新鮮한 香氣였다. 餘裕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함이 恨스러울 뿐이었다. 별 할 일도 없고 해서 旅館으로 돌아와서 夕食 後에는 일찍 就寢하였다.

아침에 일찍 잠이 깨었다. 오늘은 試驗日이라 일찌감치 朝飯을 마치고 3人是 試驗場으로 갔다. 試驗은 午前 9時 正刻부터 始作하여 國語, 修身, 算數, 國史, 地理, 教育學 등을 차례로 치뤘다. 무사히 마치고 旅館으로 돌아오니 저녁때가 되었다. 우리들은 一泊을 더하고 翌日 아침 汽車로 歸家하였다. 試驗은 別로 自信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伯母님께서 나를 보고 “안되었느냐?” 하고 물으신다. “結果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어떻게 아느냐?” 하고 나는 反問하였다.

約 一週日이 지난 後에 커다란 하드롱 封套가 집으로 도착하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보니 慶尙北道에서 到來한 것이다. 나는 재빨리 뜯어보았다. 內容인즉, 算數科 佳良證이었다. ‘佳良證’이란 것은 어느 科目이든 80點 以上이면 주는 것인데 다음에 試驗을 볼 때에는 그 科目만은 免除되는 惠澤을 주는 것이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算數 科目은 나의 自信있는 科目이었다. 서글프기 짝이 없었다. 나는 合格證일 것이라고 期待했었는데 이렇게 나를 失望시키느냐 하고 怨望스러웠지만 每事가 事必歸正인 것을 어떻게 할 道理가 없었다. 내가 해 놓은 대로의 結果가 아닌가 말이다. 그 佳良證도 親舊 두 사람에게는 한 장도 없으니 나는 그래도 自慰自安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決心했다. 臥薪嘗膽하면서 捲土重來를 期하기로 다짐했다.

공부는 또 繼續됐다. 實技能力은 이제 自信이 생겼다. 어린 이 指導는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工作作品들을 사랑房 大廳마루의 한쪽 壁面에 가지런히 陳列해 보았다. 할아버

지, 할머니와 父母님께서도 보셨다. 그러나 어느 어른도 입을 다물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마음 속으로는 ‘거기 무엇 먹을 것이 나오느냐? 精神 나간 사람같은 짓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철사로 만든 석쇠, 작은 솔방울에 대나무 가지를 잘라서 새의 입이라고, 머리라고 만들고 큰 솔방울로는 독수리 몸통이라고 하고, 종이에 솔방울 비늘을 한개씩 가지런히 붙인 것은 독수리의 날개로 몸통의 양 옆에 붙이고 대나무 가지 두 개로 발을 꽂으니 영판 독수리가 되었다. 그것도 大廳에 함께 陳列했다. 흙 作品인 할아버지, 할머니像도 陳列했다. 수수깡 作品, 종이로 접은 鶴, 새들도 陳列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꼭 미친 사람같은 짓이라고 누구나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싶을 정도였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目的을 爲하여 하는 正常的인 活動이라고 自負自處하고 있었다. ‘미친 사람같이 熱中하지 않으면 成功할 수 없다’는 것이 그 後의 나의 信條로 變했다. 그래서 其後 教師生活을 할 때에 實技指導에 있어서는 師範學校 5年 出身도 나에게서 따르지 못하였다. 그런 面에서 나는 뿌듯하게 矜持를 느끼곤 하였다.

1939年 4月에 慶尙南道에서 主管·施行하는 試驗實施要領이 公示되었다. 우리는 또 應試하기로 決定했다. 이번에는 一年先輩인 B兄이 함께 가기로 되어 모두 4名이었다. 매우 和暢한 初여름이었다. 보리 이삭이 일제히 피어오르는 季節이었다. 우리 一行 4人은 4月 22日에 釜山으로 갔다. 그리고는 大新洞의 어느 旅館으로 들어갔다. 翌日 4月 23日은 나의 將來 運命을 決定하는 날이다. 試驗場은 富民小學校 教室이었다. 그때의 試

驗 問題 中에서 教育學의 問題 하나는 지금도 記憶에 떠오른다. ‘하에바 다때, 다때바 아유메노 오야고꼬로’에 對해서 論述하라는 것이다. 우리 말로 풀이하면 ‘기면 일어서라, 서면 걸으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다. 아주 平易한 말이지만 서도 教育의 哲學을 內包하고 있었다. 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論述하기 始作했다. 父母의 子息에 對한 教育欲과 빨리 成長하도록 待望하는 欲望을 論하고 教師의 弟子에 對한 欲望도 父母의 子息에 바라는 慾心과 같아야 한다고 論述을 結論 맺었다.

우리는 試驗을 끝내고 밤 列車로 歸家하였다. 父母님께서서는 一言半句도 없으셨다. 나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럭저럭 焦燥한 歲月은 빠르게 흘러서 5月 13日이 되었다. 慶尙南道로부터 하드롱 封套 큰 게 하나 到達해 왔다. 나는 그러려니 하면서도 행여나 또 失望할까 조마조마하는 가슴을 鎮靜시키지 못하면서 開封하였다. 合格證이 나왔다.

나는 기쁘기도 하였지만 이제 앞으로 現職에 가서 어떻게 處身을 해야 할지 錯雜한 心情이었다. 또 別紙로 5月 17日 10時까지는 必히 慶尙南道 學務課로 出頭하라는 書類도 同封되어 있었다. 이 件에 關해서 어머님께서서는 “잘 되었다” 한마디만 하시고 할아버님과 아버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러나 內心으로는 기뻐하셨음을 나는 짐작하였다. 別家로 分家해서 사시는 叔母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면서 “今年 正月에 身數占을 보니 좋더라”고 말씀하신다. B兄 한 사람은 不合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小學校 先生님이라 하면 人格을 認定해주었고 社會的인 지위도 있었다. 大概의 사람들이 羨望하는 職業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쁨도 잠시였고 떠날 準備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골칫거리였다.

드디어 1939年 5月 17日에 慶尙南道 學務課로 갔다. H兄과 B兄과 3人이 갔다. 가서보니 合格者는 13名인데 全員이 集合되었다. 各 市郡 擔當 視學(現 獎學士)께서 自己가 擔當한 市郡에 配置될 사람을 찾았다. 나도 呼名되어서 그 視學에게 갔더니 發令狀을 交付해 주었다. ‘南旨南 小學校’로 任命 發令이었다. 나는 그 視學더러 “南旨가 어느 郡이냐”하고 물었더니 昌寧郡이라 하면서 참 좋은 곳이라며 添言하여 주었다. 나는 번개같이 먼 他郡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 올랐다. H兄은 機張 小學校였고 B兄은 蔚山郡內의 凡西 小學校로 各各 任命, 發令되었다. 나만이 먼 他鄉으로 發令되었다. 그러나 어쩔 道理가 없이 나는 赴任하기로 決心을 하고 집으로 歸家하였다. 5月 17日字로 發令되었다.

5. 나의 敎職生活(南旨南尋常小學校)

나는 5月 20日에 任地校로 赴任하기로 決定하고는 南旨南小學校 校長 앞으로 電報를 보냈다. ‘20日 到着, 잘 부탁함’이라고 물론 日本語로 電報를 쳤다. 그런 一方으로 나는 出發할 모든 準備를 서둘렀다. 準備라 해도 무슨 수도 없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어머님께서도 아무런 말씀도 않으셨다. 事實은 무엇을 어떻게 準備해야 하는지를 나의 父母님께서도 모르셨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님께 말씀 드려 于先 몇圓을 얻어서 蔚山 市內로 10km를 걸어 가서 첫째로 버드나무로 만든 고리짝을 하나 購入하고, 客地로 가면 밤에 덮고 자야 할 이불(寢具)이 必要하기에 市內에서 布木商을 經營하

고 있는 先輩를 찾아가 形便을 仔細히 說明하고는 이불 하나 만들 布木을 외상으로 하고 代金은 이 다음에 父母님께서 갚아 주시게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 先輩는 快히 應諾해 주었다. 나는 고리짝 안에 이불감을 넣어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이불을 만들어 달라해서 이불이 만들어졌다. 요(褥)는 없다. 그 時代는 요는 平民들은 잘 깔지 않았다. 이제 베개가 없다. 이웃집에 姻戚되는 兄嫂氏가 만들어 주었다. 그 다음은 衣服 準備이다. 衣服이라야 平素에 입던 作業服 저고리, 夏冬服(쓰메애리) 學生服과 夏冬服바지(作業服) 3장, 이것이 全部이다. 아무리 옷이 없다손치더라도 赴任해서 全校生에게 처음 人事할 때와 授業 中에 입어야 할 옷은 이 作業服으로는 威信과 體面이 서질 않았다. 나는 또 어머님께 말씀 드려 釜山에 가서 既成洋服店에 갔다. H兄과 같이 갔다. 黑色 學生服(쓰메애리) 卽 목쪽을 조여 끼우는 옷을 한 벌 샀다. 그리고 運動靴를 黑色으로 한 켤레 샀다.

그리고는 旅費를 몇圓 받아서 5月 20日 아침에 大邱를 向해 出發하였다. 平素에 내가 공부하던 冊은 고리짝에 다 넣었다. 그래도 고리짝은 가득 차지 않았다. 大邱에서 버스를 타고 馬山쪽으로 가다가 南旨에서 下車하였다. 午後 3時頃이다. 나는 고리짝을 어깨에 메고 學校에 이르렀다. 그때의 南旨南小學校 校長은 日本人 다나까쇼이찌(田中正一)였다. 나는 敎務室로 들어가서 校長에게 머리 숙여 공손히 人事했다. 그리고는 “바로 제가 李在萬입니다”하고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또 人事를 했더니 “오느라 수고 많았소”라는 말을 하고 人事는 마쳤다. 당시의 首席訓導이던 河斗學 先輩님이 나를 旅館으로 案内해 주었다.

1939年 5月 20日, 이 날로부터 始作하여 나의 教師(그때는 訓導)生活 11年 4個月, 校監 生活 2年 8個月, 校長 生活 32年 10個月의 總合計 46年 10個月의, 거의 半世紀가 되는 教職生活 이 連續되었다. 나는 初任校인 이 南旨南小學校(現 南旨初等學校)에서 學校事務와 學級事務 等 諸般 實務에 關해서 擔得하려고 무척 努力해서 거의 熟達했다. 처음에 그곳에 赴任하면서 南旨면 南旨이지 왜 南旨南이라고 하는지 疑訝했었는데 南旨에는 日本人의 尋常高等小學校가 있어서 그것은 南旨尋常小學校(現 東浦初等學校)라 일컬었고 우리 어린이들 學校는 南旨에다 또 南을 붙여서 南旨南이라 했다. 國權을 빼앗겼으니 이래 受侮 저래 受侮를 當하는 셈이었다.

나는 그 學校 어린이들에게 比較的 人氣가 있었다. 特히 내가 苦楚를 겪어가면서 體得한 實技能力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平常時 勤務할 때의 服裝이 너무 허술하고 窮乏해서 말이 아니었다. 月給 받아서 控除할 것 다하고 下宿費 주고 나니 남은 것은 別로 없었다. 既成服 바지는 1년에 두어벌 사 입었다. 이때는 日本이 領土를 侵奪擴張하려는 野心에서 中國을 無斷히 건드려 大東亞戰의 前哨戰인 支那事變이 한창인 때였다. 이때부터는 官公署 職員들은 國民服이라 하는 國防色 洋服을 입기 始作하였는데 모양은 作業服 같은 것이다. 그리고 物價는 서서히 오르기 始作하였다. 그 後로는 해마다 急速度로 物價가 昂騰하였다. 戰局이 逼迫해 갈수록 物資가 缺乏되고 稀貴해지기 때문에 物價는 치솟기 마련이다. 이것이 社會科學인 것이다. 그래도 日本人들은 俸給이 韓國人보다 60% 더 많았다. 그래서 日本人에게는 士氣와 勇氣를 북돋우어 주었다. 韓國人을 보면은 紀綱부터 잡으려고 하였다.

1940년도 그 學校에서 보내고 1941年 2月 卽 學年末이 가까워졌다. 首席訓導인 河斗學 先輩님은 日本人 田中校長으로부터 侮辱적인 言辭를 들었다고 해서 ‘오늘 午後 3時부터 職員會議가 있는데 한바탕 하겠다’고 몹시 벵르고 있던 참이었다. 마침 會議가 始作되었다. 暫間 後에 先輩님은 始作했다. “言辭마다 어째서 侮辱의이냐”하고 따진다. 그때는 몇 個月前부터 辭表를 내려고 覺悟하고 있던 참이었다. 나도 機會를 보아서 田中校長에게 質問을 했다. 이러니 韓國人 教師 두사람이 日本人 校長에게 대어드는 꼴이 되었다. 당시 教職員 數는 韓國人보다 日本人이 10名 더 많았다. 그렇지만 氣 죽지 않고 나도 한마디 했다. “校長先生님께서 長期出張 中이실 때는 學校에서 發送하는 諸般 公文書에는 校長先生님의 職印을 必히 捺印해서 發送해야 합니까”하고 質問했다. 다나카(田中)校長은 意味를 알아 들었는지 “아- 그것. 職印을 찍어서 發送함이 原則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公文에도 職印 捺印 없이 오는 公文도 있더라”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나는 “校長先生님이 不在時에는 職印을 首席訓導에게 맡겨야 할텐데 어째서 舍宅에 까지 가져가서 師母님께 맡기십니까? 校長先生님의 師母님은 學校職員이 아니지 않습니까?”하고 말했다. 참 어리석은 짓을 나는 저지른 것이다. 校長도 기가 막혔으리라. 그러나 나는 不義와는 妥協하지 않는 氣質이 이때 벌써 싹트기 始作해 있었다.

나는 1941年 그 해 4月 1日字로 南旨南公立尋常小學校의 鼓谷分教場(現 南谷初等學校)으로 轉補發令이 나서 그 分教場으로 赴任하였다. 本校와는 西北쪽으로 約 7km 떨어진 山 너머에 있었다. 나는 4月 3日에 赴任했다. 그 해에 새로이 分教場으로 改稱되었는데 그 前에는 簡易學校였었다.

1941年 陰 1月 8日에 나의 祖母님께서 71歲의 一期로 永逝하셨다.

6. 鼓谷分教場 時代

1941年 4月 3日부터 나의 分教場 勤務 生活이 始作되었다. 우리 나이로 22歲이고 滿으로는 20歲 때이다. 그 당시의 簡易學校는 2年制였는데 山狹地方에 設立된 學校로서 年令이 12歲에서 18歲 사이의 學生이 많이 就學하였다. 그러나 이 分教場도 國民學校와 마찬가지로 取扱되는 것이다. 그래도 2學年生中에는 13歲부터 16歲까지의 學生이 大部分이었고 1學年 中에는 滿 6歲부터 滿 12歲까지의 어린이가 많았다.

나는 크게 矜持를 느꼈다. 첫째로 내가 여기에서는 校長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日常的으로는 누구의 支配를 받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獨自的인 學校經營者로서 創意的이며 理想的인 教育을 시킬 수 있었다. 셋째는 아주 自由스럽게 自主的 經營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文化가 뒤떨어진 山谷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느낌도 들었으나 도리어 나는 흐뭇하고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오히려 滿足感을 느꼈다. 宿舍이 하나 있었다. 나는 簡單한 物件들을 宿舍으로 옮겼다. 溫突房이 두間이고 청마루도 한 間 있고 부엌도 있었다. 나는 냄비 하나,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접시 2개, 수저 한 모를 사서 自炊를 始作하였다. 말이 自炊였지 半은 먹고 半은 굶는 實情이었다. 굶을 때는 막걸리 두 사발을 마시는 것으로 한 끼를 때우곤 하였다.

學校 教室은 簡易學校 時代의 建物이어서 完全히 撤去해 南

旨面事務所로 모조리 신고 가 버렸다. 이제는 校舍도 教室도 便所도 없다. 그래도 授業은 始作해야 하겠는데 하고 나는 그 洞里를 둘러보면서 適當한 建物이 있느냐고 搜所聞해 보니 學校에서 3百m 떨어진 곳 卽 召峇里 마을에 15坪 정도의 倉庫가 있었다. 가 보았더니 될성 싶었다. 學生들을 시켜서 책걸상과 教壇, 教卓, 黑板 등을 옮기게 하고 모든 準備와 整理整頓을 하였다. 倉庫 지붕은 함석이었다. 나는 教育目標와 教育方針을 樹立하고 日課表를 짰다. 내가 滿 20歲이니 무엇을 못해 내겠느냐 말이다. 나는 本校 校長이나 先輩 先生님들께 問議하러 갈 것도 없고 가기도 싫었다. 그곳 簡易學校에서 그때까지 勤務했던 李德奉 教師는 年齡이 36歲인데 나와 交替되어 本校로 轉入해 갔다. 나는 意氣揚揚하였다. 호랑이도 무섭지 않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勤務信條를 案出하여 壁에 붙였다.

1. 時間을 嚴正히 지킨다.
2. 日課表의 變更을 嚴禁한다.
3. 어린이의 出席率을 100% 되도록 한다.
4. 遲進兒를 救濟하기에 努力한다.
5. 放課 後에도 補充授業을 한다.
6. 特히 體操教育을 더욱 強化한다.
7. 宿題는 學年에 알맞는 分量을 適當 3回 提供한다.

‘어디까지나 이 分教場에서 내가 主人이다’라는 認識이 確固不動하게 서서 搖之不動이었다. 모든 것이 自主의이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 그것도 본보기로 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나의 人格에 關한 問題이며 나의 自尊心을 스스로 毀喪시키는 結果가 된다고 認識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내가 한다. 企劃도 내가, 方針도 내가, 目標도 내가, 計劃도 推進도 내가, 實施도

내가 해야 한다. 反省도 내가 한다. 나의 가슴은 무엇이든 해 보겠다는 意慾으로 터져나갈 것만 같이 부풀어 있었다. 나는 아직 總角이다. 마누라도 없고 子息도 없다. 그러기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時節이었다. 해볼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學生들의 體力鍛鍊을 重要視하여 嚴冬雪寒에도 體操授業은 빼먹지 않았다. 나부터 體操바지를 희게 입고 白色運動帽子를 머리에 쓰고 위에는 白色의 긴 메리야스 上衣를 입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서 學生이 二列縱隊로서 있는 運動場으로 나가면 어린이들부터 緊張하여 精神을 바짝 차려서 해보고 싶은 意慾도 솟아 오르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에도 間或 體操時間에 보면 저고리도 벗지 않고 점퍼 차림을 하고 帽子도 쓰지 않아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리며, 심지어는 運動靴 뒤꿈치는 안으로 접어 넣고 어린이들 앞에 서서 팔뒤꿈치를 허리 뒤로 끼고 서 있는 모습을 어찌다가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을 定量制로 하였다. 턱걸이는 몇 번, 높이뛰기는 몇 cm, 넓이뛰기는 몇 歲는 몇 cm 等 이런 式으로 多少 無理하게 指導하였다. 여기 어린이들은 前述한 바대로 年齡이 8歲부터 15歲까지 分布되어 있으나 16歲도 1名이 있었다. 滿 12~3歲가 大部分이며 1學年에는 9歲, 10歲가 많았다. 體操 主運動과 整理運動을 마치면 바로 2km, 3km, 4km를 달리는 體力 鍛鍊에 突入하였다. 1km나 2km에서 體力이 氣盡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는 學生은 길 옆의 그 자리에서 쉬게 하고 堪當할 수 있는 學生은 3km고 4km고 目的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落伍者를 일으켜서 學校로 回校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는 물론 最後까지 學生들을 다독거리며 같이 뛰었다. 이래서 나는 그 地方 學父母님이나 有志 甚至於是 面事務所 職員에게

까지도 宣傳이 되어 나의 人氣는 大端하였다. 물론, 體操指導에 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方面에서 미친 사람같이 熱誠的이라는 것이다.

그럭저럭 1년이 經過하고 새봄이 되어 1942年 4月 1日, 新學期가 되었다. 教室 3個와 3間길이의 教務室 한 個, 化粧室 6間 등이 完工되어 우리 鼓谷家族들은 學校로 移住해 들어갔다. 그때 晉州師範 特別講習科 1年 修了生인 젊은 사람 한사람이 교사로 赴任해 왔다. 이제는 正規教室과 教務室에서 아주 快的한 經營이 되었다. 내 나름대로 教務室에 揭示物들도 精誠을 들어서 붙였다. 제법 理念을 밝혔다. 이때부터 나는 自主的이고 獨自性을 確立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倭政時代에도 文盲退治運動이 있어서 午後 7時頃부터는 夜學 指導를 해야했다. 教室 하나에 램프燈을 黑板쪽에 밝히고 公책과 鉛筆을 持參케 하여 열심히 가르쳤다. 日本말만 繼續 指導하니 실증을 낸다. 그래서 나는 奇拔하게 授業 중간 중간에 노래도 指導하였다. 日本 노래, 韓國 노래를 부르다가 또 算數 數字 쓰기를 가르쳤다. 이 夜學生들은 未就學한 男女들이다. 그 中에는 18歲, 19歲되는 處女들도 있었다. 瓜年된 處女들은 不學의 恨을 풀고자 하여 그야말로 熱誠的이었다. 缺席은 물론 없었다.

7. 晉州師範學校 臨時講習科 時代

그럭저럭 11월이 다 되어갈 무렵에 나에게 晉州師範學校 臨時講習科에 入學하라는 指示가 到來하였다. 慶尙南道의 指示이다. 12月 1日에 入學하라는 要旨이다. 나는 짐을 簡單하게 챙

겨서 11月 30日에 晉州로 出發하였다. 平素에 잘 신지 않았던 구두를 신고 南湄까지 給仕더러 짐을 自轉車로 실어다 달라고 나는 徒步로 南湄에 가서 馬山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馬山驛에서 또 汽車를 利用해서 晉州에 到着하여 一泊하고는 學校에 入學하여 日課를 마치고 下宿을 求하였다. 나의 同期 同鄉인 親友도 學校에서 모두가 왔다. 우리들은 반가워 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구두를 신으니 구두 끈을 꿰는 구멍에 붙은 쇠가 안쪽으로 불거져서 나의 양말 속의 발등을 걸을때마다 꼭꼭 찌시고 찌르니 炎症이 나기 始作하였다. 運動靴나 고무신이 있었다면 當場 사서 신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大東亞戰爭으로 擴戰되었다가 第二次 世界大戰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모든 生活物資는 品貴였고 더욱이 配給制度로 되어 있어서 구하기 어려운 形便이었다. 지금 같았으면 구두에 박혀있는 그 쇠붙이를 빼내어도 되는 것을 客地에서 알맞은 道具도 구할 수 없었고 適當한 時機에 가라 앉으리라고만 생각하고 每日같이 無理를 하고는 通學하였다. 그런데 12月 19日쯤 完全히 化膿하여서 不得已 親友들이 나를 결부축하여 病院으로 가서 施術하였다. 그 다음에는 구두에 붙여진 쇠를 잘라내었다. 手術後 발이 完全치 못하여 下宿에서 3~4日 쉬고 있는데 하루는 親友들이 찾아와서 來日부터는 겨울放學이기에 故郷에 간다며 함께 가자고 한다. 나는 워낙 痛氣에 시달렸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기가 싫었다. 休暇 中에 이 下宿집에서 발이나 完全하게 고치겠다 하고 親友들에게는 故郷에 잘 갔다오라 하고 보냈다. 그러던 나의 발은 하루가 다르게 差效가 나타났다.

親友들이 故郷으로 가고 난 翌日이었다. 점심을 먹고 누워 있는데 미닫이 房門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主人 아주머니가 말

하기를 “고향에서 누가 찾아 오셨소” 한다. 아마 午後 2時쯤 된 것 같다. 나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門쪽을 바라보니 아니! 우리 아버님께서 韓服 正裝에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관탕을 다 갖추어서 房안으로 들어오시고 있지 않은가! 얼굴 모습에는 愁心氣가 어려 보이고 근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보이었다. 나도 모르게 번개같이 일어섰다. “아버지! 어떤 일이 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아버님께서 “너의 발은 어떠하냐?” 하신다. “아버지, 이제 발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집으로 돌아가자 하신다. 나는 ‘예’ 하고 對答하였다.

나는 滿 21歲까지 살아왔지만 父母님의 그 깊은 뺨골 속에서 우리나라오는 거짓은 秋毫도 없는 眞濃의 純粹性 사랑을 體驗하기는 내 平生에 처음이었다. 눈물이 핑 돌더니 나도 모르게 房바닥에 떨어졌다. 몇 방울인지 모르겠다. 나는 下宿집 아주머니에게 人事드리고 아버님을 모시고 驛에 가서 蔚山으로 尙해 汽車를 달렸다. 저녁 무렵이 넘어서 집에 到着하였다.

그 後 晉州臨時講習科를 修了하고 1943年 3月 24日에 任地인 鼓谷分教場으로 歸任하였다. 그해 4月 1日, 學年初가 되어 다시 새 봄이 되었다. 내가 晉州로 떠난 후에는 本校에서 朴祥泰라는 나보다 5年 年長인 中堅 教師가 配置되어 있었다. 이제 教員 한 사람은 轉出하고 2人 職員이다. 나는 이 分教場에 到任한 後부터는 밤이면 讀書를 主로 하였다. 世界文學全集 全卷과 韓國文學全集 等を 가리지 않고 讀破하였다. 그 外에도 春, 夏, 冬 休暇 때는 그야말로 寢食을 잊을 때도 있었다. 내가 여기서 滿 3年間 勤務하는 동안 讀書量은 約 150卷이 넘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을에 居住하는 約 300石지기 地主되는 成

某氏가 自己 집에 와서 함께 寄居하자고 하신다. 나는 처음에 拒絶하였다. 罪悚스럽고 미안해서였고, 또 一面은 不自由스러움이 理由였다. 그러나 再三 請하기에 나는 그 집 사랑으로 들어가서 藪은 地主와 한 房에서 寢食을 함께 하였다. 나이는 나보다 5年 年長이었다. 宿食費도 없다. 여기 이 宅에서 滿 2年 가까이 머물렀는데도 나의 手中에 모아지는 돈은 하나 없었다. 第2次世界大戰이 深度있고 廣範圍해져 가니 諸般物資는 稀貴해지고 物價가 昂騰하여 每月 받는 月給 中 控除한 나머지 40~45圓 정도되는 돈으로는 謀策있는 살림살이가 되지 않았다. 가장 急한 것이 被服을 求得하는 일이었다. 지금 世上같이 나이론도 없었다. 被服의 壽命이 아주 짧아서 오래도록 입지 못하였다. 謂之曰 ‘스프’라고 말하는 ‘스테블화이버’라는 木質被服이 많았다. 그때 내가 洋服(國民服) 1着을 맞추는데 내 俸給이 45圓인데 옷은 한벌에 80圓 준 일이 있다. 內衣도 問題였고 外套도 問題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主人分 全家族에게 신세진 것은 정말 罪悚할 뿐만 아니라 부끄럽기 짝이 없다. 恩惠에 秋毫도 報答함이 없었으니 말이다.

8. 나의 結婚

이러한 生活을 하는 가운데 故鄉 집에서는 結婚 問題가 提起되어 書信이 來往하였다. 故鄉에서는 主로 從弟가 書信을 보내고 있었다. 17歲였다. 지난해 겨울 休暇 때도 故鄉에 갔을 때 어머님께서 婚談 말씀이 있길래 나는 小學校라도 卒業한 處女라야만 結婚하겠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다. 이번에 婚談이 오고 가는 對象은 바로 지금의 나의 妻, 處女시절의 金聖禧이

다. 그 時節에는 電話가 되지 않아서 主로 書信 往來였다. 나는 알아보았다. 卽 小學校는 卒業했느냐고 書信으로 問疑했다니 그렇다고 回答이 왔다. 그때는 맞선 보는 일도 드물었다. 나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좋다하고 承諾 書信을 보내었다. 드디어 1944年 陽 3月 14日, 陰 2月 20日에 農所面 泉谷里의 新婦宅에서 結婚式을 舉行하였다.

餘談이긴 하지만 나는 滿 18歲되는 初여름까지 집에서 祖父님 下에서 教化를 받으며 一般 常識도 많이 들어 배웠다. 祖父님께서 恒常 말씀하시길 ‘蔚山에는 鄉內집이 8家가 있고 鄉外집이 8家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었다. 鄉內집은 卽 향안집이라 말하며 그 家門의 存在를 蔚山에서 認定하고 있는 그런 家門이라고 말씀하셨다. 卽 양반이란 것이다. 그리고 鄉外집이라 하면 蔚山에 入鄉祖가 이미 鄉안집을 組織한 後에 入鄉하였거나, 아니면 그 前에 入鄉하였다해도 鄉內집에서 漏落된 家門에게 섭섭잖게 別稱하는 집(家門)이라고 할 수 있다. 婚事말이 있을 때부터 妻家쪽은 鄉內 8家의 한 집안인 高靈金氏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大陽門中은 慶州李氏라도 蔚山에서는 鄉外 8家 中の 하나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結婚하기 前부터도 鄉內집이거나 鄉外 家門이거나 門閥이 많아 100戶가 넘어서 集團的으로 居住하게 되면 歲月이 많이 흐를수록 그 家門의 門道와 風習과 傳統이 客觀的으로 아름답게 或은 아름답지 않게 形成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傳統 있는, 이름 있는 家門은 그 子孫들이 溫柔靜安하고 그 言과 行이 亂暴함이 없이 鄭重하며 眞理와 道에 어긋나지 않게 頓重한 生活을 하고 있음이 歷然히 눈에 보임을 우리는 目擊하기도 한다. 그래서 婚事를 이름에는 반

드시 相對 家門의 傳統과 그 來歷을 살펴보는 것이다.

女性은 自己가 出生한 家門의 傳統과 名譽를 所重히 생각하며 그 家風을 이어 받아 實踐躬行함에 게으름이 없고 安存하고 窈窕淑女의 婦德을 닦기에 餘念이 없으며 또 父母님께서도 그렇게 教導醇化하기에 힘쓰는 것을 家道의 자랑으로 생각하였다. 卽 賢母良妻의 資質을 갖추어 子女姪에게도 그렇게 教育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 家門을 살펴보면 言과 行에 있어서 다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現代社會에서 班常(양반과 상민)을 論함은 時代의 落伍요, 潮流의 逆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行動樣式으로나 言辭를 表出함에는 그 差異가 區分되어 나타나는 法이다. 그래서 婚姻을 함에 있어서는 無言 中에 그러한 家門을 찾기에 힘쓴다. 이러한 家門의 子女孫들은 半句非言도 汚損平生之德이라 하여 내가 半마디라도 말이 아닌 말이나 나쁜 行動을 한다면 나의 한 平生의 德을 더럽히고 損傷시키게 된다 하여 말과 몸을 操心하여 一平生을 두고 失言과 失行을 하지 않으려고 努力하며 또 그렇게 實現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家門의 出身인 사람도 亦是 그러하기에 努力하는 분도 많지만 失言과 失行을 不識不覺中에 非一非再하게 저지르는 境遇가 허다하다. 몸에 完全하게 習慣으로 베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모두가 隱然中에나마 良家와 婚姻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子孫에까지 影響을 미치게 되는 까닭도 있으니 말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그 사람 外家가 어디인가 하고 묻는 것도 一理가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門戶가 百戶를 넘으면 상놈이 없고 3代가 계속 無識하면 양반이 없다고 듣고 있다.

내가 結婚을 하게 된다니 學父兄님들은 시골의 貴한 돈을

내어 30錢, 50錢, 80錢, 1圓式 各自 나름대로 祝儀를 據出해 주었다. 大端히 感謝한 일이었다. 나는 1944年 陽 3月 14日(陰 2月 20日)에 結婚式을 올렸다. 結婚式을 마친 後 鼓谷으로 돌아가서 돼지 한마리를 잡아 地方有志와 學父兄을 接待해 드렸다. 모두가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축하해 주었다.

結婚 後인 1944年 4月 1日, 그 많은 情이 들었던 鼓谷 分教場을 떠나게 되었다. 蔚山 鶴城公立國民學校로 發令을 받아서 4月 4日에 赴任했다. 떠나오기 前에는 돼지까지 잡아 送別宴을 열어 주었고 路資도 보태어 주었다. 그 당시 鶴城校라 하면 지금의 兵營國民學校이다. 시골에서 이제는 都市에 나온 셈이다.

9. 鶴城(兵營)國民學校 時代

내가 鼓谷分教場에 가던 해인 1941年 陰 9月 28日에 나의 祖父님께서 73歲를 一其로 永逝하셨다. 나를 무척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던 할아버님께서 가시니 나의 슬픔도 大端하였다. 그러니 한 해 동안에 祖父님과 祖母님께서 다 棄世하신 것이다. 祖父님은 9日葬으로 치뤘다. 一年之內에 父母님 兩位分을 當喪하신 나의 아버님의 痛切한 心懷가 어떠하셨으며, 그 治喪 堪當이 어떠하셨는지 정말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였었다.

나의 鼓谷分教場 勤務 3年間은 實로 나의 自己啓發과 自我成長의 時代였다고 생각된다. 年齡적으로 完全 成熟期였으며 讀書도 나의 一生 中에서 最多讀하였고 어디까지나 自我的로 啓達한 時期였다. 그러기에 鶴城國民學校로 赴任하여서는 스스로 알아서 自律적으로 모든 일을 處理, 處身, 處世하고 싶었으며 또 그렇게 生活하였다.

그 해 가을에 내 妻가 于歸해 왔다. 1945年 봄에 우리 夫婦는 蓮岩洞에 있는 金某氏 宅의 사랑채를 빌려서 살림살이를 開始하였다. 學校 勤務는 愉快하게 消日되었다. 내 나이가 滿 26歲였으니 제법 世上의 쓴 맛, 단 맛도 본 셈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쓴 맛을 많이 보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事實이 그러했다. 豊饒한 家庭環境에 태어나서 모든 方面으로 順調롭게 成長하여 順調롭게 職을 擇한 사람은 알지 못하리라. 暴風雨의 쓰라린 맛은 그 經驗者만이 알 것이며 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쓰라린 過去의 苦生과 苦痛은 다른 누구가 實感할 수 있으랴. 누구나가 다 自己의 지난 날의 苦生과 苦痛이 가장 많았고 큰 것이었다고들 말하겠지만 말이다. 이래서 鶴城國民學校의 2年間 勤務는 순조롭게 보내었다.

이때는 1944年 4月이니 日本軍國主義가 스스로 저지른 第2次 世界大戰의 늪에 빠져서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또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進退兩難의 困境에서 갈팡질팡 허덕이고 있을 때이다. 學校 教育도 戰時體制로 突入했다. 精神教育을 시켜서 우리민족에 對해서 되지도 않는 日本人化하려고 血眼이 되어 있었다. 中國, 東南亞, 南方地域까지 擴戰해서 現地 物資를 掠奪強取해서 戰力에 補充해 가면서도 收拾을 할 수 없는 狀態에까지 이르렀다. 中學生 以上은 ‘報國隊’나 ‘徵用’에 差出하고 專門學生, 大學生은 學徒兵으로 徵用해 갔다. 그때 國民學校마다 青年特別鍊成所와 青年訓練所를 設置하여 教練을 시켰으며 女子에게는 一定한 年齡 以下는 婦女子, 處女할 것 없이 모아서 女子特別鍊成所를 竝設하여 戰爭을 爲해 教練을 하였다.

나더러 女子特別鍊成所를 擔當하라 하기에 나는 속으로 ‘이

제 너희들도 亡할 때가 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指導하면서도 이래서 무슨 效果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고 內心 疑心하였다. 國民學生들도 正常的인 授業은 하지 못하였다. 나는 滿 23歲의 나이로 5學年 女學生을 擔任하였다. 午前 中에는 授業을, 午後 부터는 校外 作業이다. 季節 따라 보리베기, 벼베기 등을 하였고 1945년에는 亦是 그 學班을 데리고 올라가서 6學年 女學生을 擔任하였다. 男學生 6名이 包含되어 있었다. 이때에는 日本軍은 모든 軍資가 貧乏하였으며 特히 油類가 枯渴되어 허덕이고 있었다. 1944년에는 守勢에 몰리다 못하여 漸次로 後退하고 있는 形便이었다. 기름을 補充하기 爲하여 山에 있는 소나무 기름을 짜내기 始作하였다. 큰 나무, 중간치 나무, 작은 나무 할 것 없이 나무 아래, 卽 뿌리에서 30cm 위에 톱으로 斜線으로 5mm 정도 깊이로 그어서 그것도 10餘줄, 20줄로 傷處를 내어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松津기름을 빈 甕통을 鐵絲줄로 매어 달아 收束하였다. 이것을 日本군의 전차, 탱크, 비행기,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不足하여 끝에 가서는 솔깅이 말라붙은 것까지도 모조리 톱으로 잘라 모아서 그것으로 또 솔기름을 짰다. 이미 到底히 그 列強國, 卽 美, 英, 佛, 中, 蘇를 相對로 하여 大戰을 遂行할 能力을 完全히 喪失하고 있었다. 그래도 自尊心은 있어서 日本은 끝내 버티려고 하였다.

이미 自己네들이 말하는 所謂 樞軸國들 中에서 伊太利는 벌써 屈伏하여서 白旗를 들었고 다음은 獨逸이 無條件 降伏하였고 日本만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아무리 버티도 結果는 뻔하여 未久不遠에 日本이 敗亡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感知할 수 있었다. 敗色이 宛然하게 나타났다. 美國戰鬪飛行機인 B29가 우리 蔚山 上空에 자주 出現하였다. 그러나 우리 韓國領土에

는 絶對로 爆擊하지 않았다. 大體로 이 二次世界大戰의 出發은 日本과 獨逸과 伊太利 3個國이 狹小한 自國의 領土를 擴張하려는 植民地奪取로 因해서 列強들은 保守主義로서 이들을 驅逐하려는 戰爭이었다.

1945年 5月, 美國은 日本의 나가사끼(長崎)에 原子爆彈을 다음 7月에는 히로시마(廣島)에 또 투하하였다. 決定的이었다. 이로써 日本의 두 都市는 悽慘한 廢墟가 되어버렸다. 1945年 8月 15日 正午를 期해 드디어 日本天皇 히로히토(裕仁)는 無條件降伏 宣言을 放送을 통해서 全世界에 流布하였다. 그 지긋지긋한 大戰은 終末을 告하였다. 우리 民族에게 그 어둡고 괴로웠던 밤으로부터 燦爛한 光明의 世界가 찾아왔다. 天地가 뒤집힌듯 하였다. 그 抑壓과 榨取와 蔑視로부터 解放된 것이다. 一時에 山河와 坊坊曲曲은 太極旗로 물결쳤다. 그렇게도 品貴하던 物資들이 어디에서 市場으로 쏟아져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쌀, 보리 等 五穀은 물론이요, 광목, 옥양목, 삼베, 비단, 명주 等の 布木이며 신발류 等 生活必需品이 洪水처럼 쏟아져 나왔다. 거리마다 歡呼와 興奮으로 가득찼다. 連日 太極旗를 흔들면서 거리마다 人波로 들끓었다. 그리도 많은 物資가 쏟아져 나왔지만 物價는 부르는 것이 값이었고 그것도 每日每日 昂騰하여 天井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올랐다.

統制와 抑壓과 規制에서 解放되었으므로 社會는 秩序가 紊亂하기 말이 아니었다. 한꺼번에 얻은 自由가 너무 넘쳐서 無秩序와 無法天地로 化해 버렸다. 恐怖마저 느껴질 地境이었다. 當然히 올 것이 왔기에 一時的인 過渡現象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學校의 日本人 教師들은 온다간다 말 없이 自己 나라로 逃亡해 가버렸다. 우리 韓國人 教師들은 6名이었는데 當分

間은 授業을 할 수도 없었다. 그저 事態를 收拾하기에만 奔走하였다. 8월이 지나고 9월에 들어 自體的으로 授業을 해 보려고 해도 우리글의 教科書도 없을 뿐 아니라 指導書도 없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于先으로는 黑板과 粉筆로서 한글의 母音과 子音의 읽기, 發音과 쓰기부터 指導하였다. 算數, 美術, 體操도 指導하였다. 손이 不足하였다. 그러저럭 9月 24日에는 全國的으로 一齊히 우리 教育을 實施하게 되었다. 그러나 教材 教科書는 全無狀態이다. 謄寫板에 몇 枚씩 찍어서 教師用으로 提供되었다. 狀況이 그러하다 보니 우리들 教職員들의 生活은 말이 아니었다. 物價는 치솟았고 糧穀도 稀貴하여 구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學校에서는 學父兄會를 組織, 結成하여 會長과 任職員을 選出하였다. 그리고 가을 運動大會를 10月 末頃에 開催하기로 決議하였다. 나는 目標를 設定하여 教職員會議에 그 印刷物을 配付하고서 1. 目的, 2. 方針, 3. 施行日字, 4. 總豫行演習日字, 5. 擔當部署 등을 發表하였다. 準備物도 마련하느라고 每日같이 奔走하였다. 各 學級當 種目數를 配當하고 騎馬戰, 遊戲 等도 學年別로 配當하였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4,5,6學年 女子의 遊戲 指導를 맡았다. 이 企劃은 모두 내가 앞장 서서 推進해 나갔다.

나는 遊戲를 처음 指導해 보았다. 每日 午後 3時부터 遊戲를 指導하였는데 完全 律動式으로 指導하였다. 全身을 고루고루 움직이는 動作을 指導하였다. 運動會 一週日 前에는 學生들의 양손에 太極旗를 들려서 연습을 시켜 보았더니 정말로 壯觀이었다. 1945年 11月 2日에 가을 運動會가 開催되었다. 내가 指導해 온 遊戲를 보여줄 때가 왔다. 約 200名의 女學生을 運動

場에 넓게 整列시키고서 遊戲를 하니 運動場 全體가 太極旗에
덮혔다. 물결 친다. 色이 絢爛하기 그지 없을뿐 아니라 旗를
휘두를 때마다 바람을 타고 스치는 소리가 ‘취-취-’ 하고 運動
場뿐 아니라 虛空 높이까지 메아리 친다. 學生들은 그 소리에
신바람이 나서 더욱 힘차게 휘두른다. 정말로 可觀이었다. 한
참 進行中인데 拍手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많은 觀衆들은 興
奮의 도가니에 빠졌다. 나는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었고 하나,
둘 하는 口令도 힘차게 나왔다. 두번째 되풀이를 하는 中인데
갑작스레 擴聲器에서 放送이 울려나왔다. “大韓의 딸들이여,
우리의 딸들이여!. 장하도다. 훌륭하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
모두 힘차게 拍手를 울립시다!” 한다. 場內에 一齊히 拍手소리
가 울려 퍼졌다. 그 마이크 목소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學
父兄 任員의 한사람이다. 平素에도 興奮을 잘하는 熱情의인 사
나이로 40歲에 가까운 K氏였다. 나는 指揮를 다 마치고 나서
觀衆에 人事하니 또 우렁찬 拍手가 터져 나왔다. 나는 遊戲하
던 學生들을 指定座席으로 돌려보냈다. 演技 途中에는 찬물을
끼얹은듯 조용하더니 이제 마치고 나니 자못 시끄럽다. 評價이
야기, 感歎이야기들이다. 中學年, 低學年의 遊戲도 있었다. 아
주 귀여운 遊戲였다. 亦是 潑刺한 太極旗 遊戲가 오늘 運動會
의 クライ막스였다. 午後 5時가 가까워서야 運動會는 閉幕되었
고 慰勞잔치 兼 夕食이 教室에서 베풀어졌다. 疲勞하였기에 夕
飯이 甘味로왔다. 珍莊洞에 居住하는 Y氏가 막걸리를 한잔 하
라고 勸한다. 나는 술은 마시지 않고 밥을 먹겠다고 말했더니
“으자자, 메주냄새 난다”고 말하였다. 촌사람이란 뜻이다. 나는
應酬했다. “當身은 누룩냄새가 난다”고 했다. 너의 어머니는
술장수를 했느냐는 뜻이다. 물론 우리 두 사람은 弄으로 한 것

뿐이다. 前述한 太極旗 遊戲는 ‘解放의 노래’ 라는 歌曲에 맞추어서 進行시켰다. 아주 제 格이었다.

歲月은 흘러 1946년이 되었다. 4월에 접어들기 前에 鶴城國民學校에서는 이번에는 學藝會를 해보자고 議論이 되었다. 3月 20日쯤 施行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3月 2日에 計劃을 全職員에게 발표하였다. 1. 日字決定(3月 20日), 2. 總種目數, 3. 學級當 種目 配定, 4. 女學生 舞踊 配定, 5. 演劇 配當, 6. 合唱, 獨唱 配定, 7. 讀書 配定, 8. 이야기, 9. 其他 始作·마침 人事 等の 配定을 하였다. 各 部署別 役割擔當도 發表하였다. 童話도 配定되었다. 나는 6學年 女學生班이기에 舞踊 한 種目を 맡았고 또 男學生도 6名 混合班이기에 演劇을 하나 맡았다. 舞踊은 ‘사자수’ 라는 8分의 9拍子の 歌曲에 맞추어 5人組가 舞踊을 하였다. 演劇은 先生님과 學生이 하는 ‘教室’ 이란 題目을 施演하여 많은 사람을 웃겼다. 나는 이때에 運動會와 學藝會들 다 어린이 生活에 必要하다는 것을 느꼈다. 運動會는 動的이어서 活潑한 精神과 機敏性을 길러주며 勇敢性을 涵養하여 彈力性있는 身體와 體力을 길러주는데 必要하며, 學藝會는 靜的이면서 溫和하고 柔順한 情緒를 陶冶하여 아름답고 넉넉한 心情을 涵養하는데 큰 도움이 됨을 알았다. 이래서 3月 20日에 學藝會는 開催되었다. 맨 먼저 1學年の 男子 어린이가 開會의 人事를 예쁘게 했다. 아주 조그만 꼬마를 세웠기에 모두 귀엽다고 큰 拍手을 보냈다. 霧圍氣는 그야말로 學校와 學父兄 母姊님과 渾然一體가 되었다. 對外的으로 學校教育의 理解를 돕는데 좋은 行事였다. 이 당시의 解放後 初代 校長 先生님은 金環鎮校長 先生님으로 年老하신 분이였다. 中間마다 拍手가 끊이질 않았다. 午後 4時頃에 6學年 女學生의 感謝하다는 人事말

로 끝 마쳤다. 大絶讚裡에 幕을 내렸다.

그해 卽 1946年 5月 17日字로 나는 大峴國民學校로 轉勤되었다.

10. 大峴國民學校 勤務 時代

나는 1946年 5月 20日에 大峴國民學校에 赴任하였다. 내가 滿 25歲인 때이다. 그때의 校長 先生님은 尹星桓 先生님이셨다. 新亭 尹氏이다. 나는 이제 故鄉이요, 母校로 온 것이다. 首席 教師는 金榮澣 先生님이셨는데 一週日 後에 西沙國民學校 長으로 昇格해서 轉出하셨다. 이제는 내가 首席이란 자리에 앉았다.

이 1946年 陰 1月 9日에 나의 長男 泰鍵이가 農所面 泉谷里에 있는 나의 妻家에서 出生하였다. 産後 치닥거리를 丈母님께서 해 주셨다. 大端히 罪悚하고 感謝할 따름이다. 나는 大峴國民學校에서 스스로 할 일을 찾았다. 할 일을 緩急을 가려서 處理하는 나의 이러한 性癖은 鼓谷分教場 勤務時代に 主人意識을 지니고 主我思想으로 業務와 建設을 企劃하고 推進한 것이 그 以後로는 完全히 習癖이 된 것이다. 尹校長 先生님은 나를 무척 信賴하여 주셔서 校內 一般 業務 뿐 아니라 學校經營 全般에 걸쳐서 나에게 맡기고 自己는 涉外 活動에 臨하셨다. 이때도 亦是 教職員의 報酬는 正常的이 아니었고 形式的인 命脈을 이어 갈 정도였다. 俸給만으로는 家族의 生計를 지탱해 갈 수 없는 實情이었다. 後援會長이신 沈鍾樹 氏와 相議하여 十匙一飯으로 白米를 據出하여서 故鄉 出身 教師는 除外하고 客地에서 오신 先生님께 分配하여 주다가 끝내는 不平이 있어서

面內 出身인 職員에게도 分配하여 주었다. 이것도 한갓 一時的인 糊口之策에 不過하였지 長期間 繼續될 수가 없었다. 教職員의 生活이 安定되어야 學校의 諸般 業務가 잘 推進되는 法인지라. 그래도 職員은 열심히 努力하였다. 每週 土曜日 午後 放課後에는 막걸리 한 잔으로 서로가 서로를 慰勞 激勵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相當한 效果를 發散하였다. 比較的 融和가 圖謀되어 團結이 잘되었다.

1946年度에는 教室이 4個 不足이었다. 그러기에 4學年 以下는 二部 授業을 하였는데 一週日 間隔으로 午前·午後로 交替 수업을 하였다. 그때의 蔚山郡守 率下에 있는 學校들은 근근이 教職員의 俸給이랍시고 形式的으로 支給하고 있었으며 一般 經常費는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教室을 建·增築할 財政은 確保할 수 없는 處地였다. 당시의 期成會長이셨던 沈種樹氏는 總會를 召集하였다. 잘 出席치 않으니 學生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서 父母님 中 한 분을 모시고 오라 해서 억지로 會議을 成立시켜서 進行하였다. 教室을 增築하자는 것이었다. 그것도 4個 教室 增築이다. 아무런 反應이 보이지 않는다. 大峴面長이신 沈煉求氏가 贊同 演說을 熱烈히 하시고 겨우 通過시켜서 그 豫算을 大峴面事務所에서 財産等級에 比例해서 告知書를 家家戶戶에 發付하였다.

그러나 納期日인 4月 30日이 되었지만 1割도 收金이 되지 않았다. 告知書 發付는 3月 中에 한 것이다. 이 期成會費는 學校에서 責任지고 徵收하도록 되어 있었다. 學校에서 學生들을 통해서 督促을 하여도 別로 效果가 없었다. 會長이신 沈鍾樹氏는 蔚山市內에 있는 大同工務社의 社長인 尹晚儀氏와 7月 30日까지 完功하기로 하고 教室建築 契約을 締結하였다. 1週日

以內에 增築工事が 始作되었다. 이제는 期成會費 徵收가 매우 바쁘게 되었다. 學生을 통하여 督促하여도 別無反應이었다. 工事は 10日마다 顯著하게 進陟되어 갔다. 會長은 學校에 와서 사정사정 付託을 한다. 할 수 없어 職員會議를 開催하여 協議한 結果 授業을 午前으로 마치고 점심 食事を 한 다음 各 擔當 洞里로 期成會費를 徵收하기 위해 出張을 나가기로 정하고 그 翌日부터 各 마을로 나갔다. 말이 낫으니 말인데 그때까지도 部落이란 말이 자주 使用되었다. 나는 모임에서 說明하였다. '部落이란 日本人이 韓國人이 살고 있는 單位 마을을 蔑視하여 侮辱的으로 부르던 말이니 우리는 앞으로 部落이란 말은 絶對로 使用하지 말고 마을이라고 합시다. 日本國內에서는 韓國人이 모여 사는 마을을 侮辱的으로 惟獨 「部落」이라 말한다. 卽 불쌍한 種族이 미끄러 떨어져서 살고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우리 民族을 업신 여기는 말' 이라고 說明했다.

그 翌日부터 當直만 남아 있고 全職員이 마을에 나가서 期成會費를 徵收하였다. 좀체로 잘 徵收되지 않았다. 徵收한 사람은 合算하여 그 內譯을 昭詳히 밝혀서 會長님께 納付하고 領收證을 받았다. 이 傳達 業務는 教師 各人이 적접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傳達 役割을 맡아 必히 領收證을 받아와서는 教師들에게 傳해 주곤 하였다. 約 1個月 동안 活動한 結果 80% 정도 收金이 되었다. 教室 工事も 豫想外로 빨랐다.

6月 한 달은 꼬박 徵收에 나섰다. 會長님은 그동안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해주었다고 하시면서 나를 보고 오늘 저녁 7時에 선생님 全員이 ○○飲食店으로 모이도록 하라는 付託을 하셨다. 會長님은 나의 아버님의 外四寸이 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는 陣外家 從叔이 되신다. 그날 저녁 7時에서 9時까지 모두가 愉快

하게 珍羞盛餐으로 배불리 和氣靄靄하게 잘 놀았다. 12名이 아니 14名이 이 정도 高級飲食을 먹었으니 그 代價가 은근히 걱정되어 나는 언지시 會長 아저씨께 “이 엄청난 費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그건 念慮할 必要없어. 한 달 늦게 工事費를 주면 그 利자가 얼마나? 이것은 施工業者에게 맡기면 돼” 하신다. 나는 깜짝 놀랐다. 亦是 教職界의 人間世界와는 別個世界에서 살아 온 분이 다르구나 생각되었다. 沈會長님은 青年時節에 蔚山郡廳과 昌寧郡 等に 두루 勤務하시다가 中年에는 大峴産業組合 理事로 오래 勤務하신 분이시다. 나는 오늘 크게 한 가지를 배웠다. 이 배움은 平生을 두고 잊지 않으리라. 나는 ‘내 돈 아니면 먹을 수 없고 누가 사주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다’ 고만 思考해 왔다. 그러저럭 7月中旬에 新校舍가 別個로 竣工되었다. 二部制 授業이 完全 解決되었다.

1947년에 접어 들었다. 나는 어느 學校에서 勤務하든지 獨自的 經營主가 되어서 恒常 첫째 內容充實, 둘째 條件整備, 셋째 人間關係調律 等 이 세 가지를 恒常 念頭に 두고 經營했다. 이 大峴校에서도 實質的으로는 내가 運營하는 것이다. 校長先生님은 學校의 代表로서 象徵的인 存在임에 틀림없지만 나는 運營者的인 役割 遂行者였다. 教室이 完備되어 大目的 條件은 爲先的으로 整備되었으니 이제는 또 內容充實에 들어 갔다. 正確한 日課運營의 時間 嚴守, 教科의 一方的 偏頗的 指導 嚴禁(代科授業 禁止), 時間의 定量 固守, 宿題 提供과 家庭學習 誘導, 研究授業 勵行, 研究 發表, 學力評價의 適時 施行 等に 注力하였고, 條件整備에 있어서는 室內環境 꾸미기와 清掃美化, 運動場의 諸條件 整備 그리고 人間關係의 調律을 爲해서는 運動會, 學藝會 等を 實施하고 會議 召集, 家庭 訪問, 教職

員 相互間의 慶事 祝賀, 慰勞 激勵會 等 多方面으로 神經을 動員하였다. 郡廳學務係에 提出하는 學校經營案과 教科經營案도 모두 내 손으로 起案 作成했다. 教務, 庶務, 經理, 授業, 起案 等 全般에 걸쳐 막힐 것 없이 東迎西擊으로 處理해 나갔다.

11. 溫陽國民學校 校監 時代

東奔西走하던 중 1949年 9月 1日字로 校監으로 昇格되어 溫陽國民學校 校監으로 發令되었다. 나는 簡單한 살림을 챙겨서 溫陽國民學校에 9月 3日 赴任하였다. 그곳에는 教職員 舍宅으로 韓屋式으로 된 家屋이 6棟 있었는데 우리 家族들은 맨 뒷편에 있는 舍宅으로 入住하였다. 얼마 안되는 移徙짐을 끌러 놓고 整理를 마쳤다. 校長先生님은 金○○氏였는데 그때부터 나는 校監의 役割이 매우 어려우면서도 重且大한 자리임을 깨달았다. 全職員間의 運轉유 役割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오직 公明正大로 打開해 나가는 것 뿐이라고 心案을 굳혔다. 나는 모든 業務에 있어서 緻密하게 計劃하고 進行하는 主義였다. 長의 位置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 卽 部下가 自己보다 어리석음을 반기면 반겼지 自己보다 한층 賢明한 것을 별로 달갑게 느끼지 않는 法이다.

이 金○○ 先生님이 郡學務係에서 配定되는 얼마 되지 않는 豫算이지만 이것을 어디에 使用하는지 教師들 中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取扱하는 先生님 한 사람만이 알 따름이었다. 學校 一般經常費는 學父父母姊가 期成會費로 每月 釀出하는 金額으로 아쉬운대로 充當하고 있는 편이다. 教員들 中에서는 校監인 나에게 經常費를 자주 舉論하는 사람도 있었

다. 그리고 이 學校에서는 期成會에서 出金하여 生活費로 補充充當되는 職員 厚生費가 그 당시로는 最下에 屬해 있었다. 傳統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職員에게 生計條件을 附與해 주어야 士氣가 오르는 法.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두고 보자 하고 있었다. 溫陽이 郡內에서 最下라고? 으흠.

이러던 中에 1950年 봄 4月 1日字로 釜山師範學校 卒業生 총각 세사람이 新規로 赴任해 왔다. 며칠 出勤하더니 어느날은 3名 모두가 出勤하지 않았다. 職員舍宅으로 가 보았다. 세 사람은 房에도 없었다. 林 先生님의 慈堂께서 그 집 앞에 계시더니 “그 사람들 山으로 올라 갔어요” 한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젊은 教師들의 思考方式이 서글프기 짝이 없었다. 林 先生 慈堂께서는 또 添言하신다. “그 사람들 쌀이 없어서 아침 밥을 못해서 굶었다구요” 한다. 敎職生活을 靑年 教師들은 浪漫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웬만치 廉恥를 아는 사람 같았으면 한 끼 굶었다고 學校에 나오지 않을 수 있나? 일단 나와서 事實을 校監에게라도 實吐나 하고 善處를 바랄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氣分 내키는대로 行動하는 것이었다. 自己의 身分이나 位置가 어떻다는 것도 忘却하고 있었다. 매우 껄뽀하였다. 그리고 俸給生活者는 自己가 알아서 自己人生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누가 살아줄 사람이 있느냐 말이다. 무슨 억지나 싶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郡內에서 最下라는 厚生費 水準, 이것도 한 번 집고 넘어갈 일이 아닌가. 이러한 事態가 發生하기를 내가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好機다 싶어서 그 3個 學班마다 教室을 찾아가서 어린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담임 先生님은 쌀이 없어 밥을 해 먹지 못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공부도 안되겠다. 그만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 드려라”하니 어린이들은 좋아라 歡聲을 지르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날은 金○○ 校長께서도 南倉 中學校 設立 認可 關係로 慶尙南道廳에 가시고 不在中이었다. 約 20分後에 南倉 市場거리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거리의 霧圍氣를 살피기도 할 兼 밖으로 나가 보았다. 나의 몇몇 親舊는 ‘올 것이 왔다. 最下의 厚生費가 뭐냐, 수치스럽게’ 하고 말한다. 조금 後에는 校門으로 가죽 점퍼 입은 사람이 어슬렁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直感的으로 刑事인 줄 알았다.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教務室에 들어오더니 校長을 찾는다. 道에 가시고 안 계신다고 했더니 校監을 찾는다. “내가 校監이오”했다. “오늘 先生님이 아침밥을 굶어서 學校에 出勤하지 않았다고요?” 한다. 나는 “그렇소”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소?” 한다. 나는 “모르겠소. 굶은 先生을 어찌 억지로 나오라 할 수 있겠소. 學校라는 곳은 오늘 몇 時間 못해도 來日 또 몇 時間 더 해서 量을 補充하면 되는 것이오”했다. 또 내가 어린이를 돌려 보냈다고 했더니 그 사람 말이 “民心을 驕亂시켜서 되겠소”한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을 問題 삼아서 떠들면 民心이 더욱 驕亂하지 않겠소”했더니 “알았소” 하고 나가 버린다. 이 事件으로 因해서 南倉거리는 곳곳에서 수근거렸다.

午前 11時 30分頃에 嚴九永 面長이 나더러 暫間 만나자고 하기에 나는 面長室로 갔다. 몇 마디 說往說來하다 面長曰 “우리 解決策을 摸索해 봅시다”한다. 나는 말했다. “이 일은 오늘 날까지 그렇게 放置할 일이 아닙니다. 南部中心面인 溫陽이 溫陽人心답지 않게 最下의 厚生費가 말이 됩니까. 내 自身이 厚生費가 탐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體面 維持가 되어야 하

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嚴面長은 우리 面에서 는 崔○○ 國會議員께서 左之右之하시고 있고 또 校長이 得人心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嚴面長은 그 자리에서 使喚을 시켜 東萊旅館과 南倉旅館의 두 女主人을 오라고 한다. 두 主人이 오니 協議를 한 後 學生들더러 來日 學校에 올 때 쌀 한 되씩 가져오도록 오늘 豫告하라고 한다.

나는 이 內容을 職員 全員에게 說明하였다. 그 翌日에 쌀이 約 5斗가 모여서 車鳳儀氏 宅에 保管하였다. 그 쌀은 客地生活을 하고 있는 女先生 3名에게 各 1斗씩, 總角先生 3名에게 1斗 그리고 校長先生님에게 1斗를 分配하였다. 그리고 며칠 後에는 育成會 任員會議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다시 論議를 하게 되었다. 前日에 會長께서 나보고 豫算案을 미리 作成해 놓으라는 付託을 받았다. 나는 厚生費는 全部 削除해 버리고서 經常費만을 產出해서 豫算을 作成하였다가 當日에 내어놓았다. “여기 왜 厚生費가 없어요” 한다. 나는 능글스럽게, 점잖게 말했다. “우리들 스스로가 厚生費를 얼마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는 것은 人事가 아닙니다. 주시는대로 받는 것이 禮義지요” 했더니 會長과 任員들은 “알았습니다” 하더니 破格的으로 月徵收額을 올리고 厚生費의 基本金도 大幅的으로 引上하고 家族手當도 多額을 올리되 3人까지만 支給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는 말했다. “家族이 三人 以上되는 사람은 校長 先生님 뿐인데 오늘 道에 가시고 不在中이신데 校監으로서 그것도 하나 圓滿하게 處理해 놓지 못하면 나의 體面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無可奈何이다. 그것으로 決定되었다. 이제는 郡內에서 遜色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溫陽國民學校 校監으로 在職 中이던 1952年 陰 1月 12日에

우리 內外에게는 새로운 運命의 轉機가 到來하였다. 나의 貴重하고도 貴重하신 어머님께서 永逝하신 것이다. 生活도 제대로 解決되지 않은 채 月給쟁이 한다고 客地로 돌아다니면서 父母님을 제대로 모셔 보지도 못하고, 孝道란 말은 나에게서 얼토당토 않는 不孝莫重한 罪人으로 되었으니 이 恨을 어떻게 풀까보냐? 父喪을 當했을 때는 ‘天崩之通’이라 하는데 어머님께서 別世하신 데는 무엇이라 表現하는지? 亦是 하늘이 무너진 느낌 그대로였다. 春秋가 겨우 55歲이시다.

이때는 나의 한 분 뿐인 兄님께서서는 伯父님께서로 入養되셔서 홀로 계시는 伯母님과 兄嫂氏와 함께 집을 새로 지어 分家하여 卍 살림을 하고 계셨다. 어머님의 別世는 우리 夫婦에게는 天地가 아득하고 캄캄한 現狀이었다. 나에게 이러한 悲運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꿈에도 몰랐다. 當하고 보니 오로지 昏夢할 따름이다. 精神을 차릴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슬프고 눈물이 限없이 흘렀으나 이윽고는 멎어 있을 뿐이었다. 아직 未成娶인 동생이 둘, 未出嫁한 女동생이 둘 있었다. 이때 내 나이가 33歲이고 내 妻의 나이가 28歲였다. 정말 恨이었다. 나의 季父님께서 溫陽國民學校 教務室로 들어오시기에 나는 直感으로 나의 運命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느꼈다. 季父님께서서는 그저 ‘집으로 가자’ 고만 말씀하셨다. 버스도 없는 時代에 30里길을 오셨다. 물론 德下에서 南倉까지는 汽車로 오셨겠지만... 우리는 汽車로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妻는 約 一週日 前에 故鄉집에 가서 있었다.

어머님께서서는 이불 밑에 눈을 감으시고 누워 계셨다. 나는 눈물이 瀑布水같이 흘러 내렸다. 號哭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모든 人情이 그렇겠지만 이러한 當喪時에는 처음에는 葉世하

신 그 조용한 모습을 바라 볼 때에 人生이 불쌍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울다가 다음에는 自己의 處地와 앞으로의 責務와 未成娶, 未出嫁한 동생들을 어떻게 堪當할까 하는 自己 處地를 생각하여 끝내는 더욱 슬피 울고 또 痛嘆하여 슬퍼하는 일이 있듯이 나 亦是 그러한 心情도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昏忘 中에도 精神을 차려서 葬禮를 準備하였다. 7日葬을 치렀지만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몰랐다. 그저 집안 어른들이 하시는대로만 따랐다. 葬禮를 마치고 나니 그저 허망할 뿐이다. 나의 人生도 뒤죽박죽이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添加記錄할 것은 내가 大峴國民學校에 勤務中이던 1947年 陰 11月 8日에 次男을 得男하였다. 昌鍵이라 이름했다. 年年生이다.

나는 어머님喪을 當하고는 나의 집 附近인 故鄉쪽으로 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52年 卽 母喪을 當한 그 해 5月 1日 字로 校長으로 昇進되어서 龍岩國民學校長으로 發令되었다.

그만 教職을 辭退하고 집으로 들어갈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으나 지금 집으로 還家한들 내 손으로 農事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미 내킨 바에야 生活이 되고 안 되고 간에 校長이라도 한번 經驗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思考를 終結시켰다.

나의 어머님께서 別世하시면서 人生의 虛無함과 會者定離等の 哲學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大宇宙自然의 作業에 關해서도 눈 뜨게 되었다.

나는 兄弟男妹가 5男 3女の 8男妹였는데 나의 兄님께서 既히 오래 前에 別世하신 伯父님 앞으로 入養되셔서 伯母님을 모시고 分家하셨고 나의 바로 다음 男동생은 1941年 日本으로 건너가서 中學校에 入學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945年 5

월에 日本軍 司令部에서 電報가 왔다. 그러나 中學校 學生이면서 動員 되어서 報國隊에 가서 勞動 中에 美國飛行機의 爆擊에 依하여 死亡한 것 같았다. 그러나 電報文에는 ‘ビヨウキデ シンダ病으로 죽었다’라는 內容이었다. 實로 青天霹靂이었다. 父母님의 顏色이 別안간 명주빛 같이 變하셨으며, 어머니는 房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누우셨다. 이런 일이 禍根이 되어서 活動은 하시어도 恒常 愁心氣 어리어 밝은 生活을 하시지 못하시더니 1年 2年 後에는 心火症으로 苦痛을 겪으시고 漸次로 惡化되시어 別世하셨다. 모든 事物이 ‘因緣生起因緣滅’이란 佛敎의 法則에 따라 母子間의 因緣이 맺어졌다가 子息된 사람이 죽고 나니 그 죽음이 또 因緣이 되어 어머니께서 苦痛 끝에 別世하시니 그 別世가 因緣되어 殘餘 子息이 또 哀痛하면서 나머지 處理를 또 말아야 하는 이와 같은 連鎖作用이 모든 人間에게 運命으로 逢着된다는 哲學에 나는 눈 뜨기 시작하였고, 無常에 對해서도 알만하였다. 그러나 大宇宙自然은 凡常의 이면서도 驚異롭게 神祕하게 不可思議하게 萬古不變의 眞理에 따라, 道에 따라, 法에 따라 流轉을 持續할 뿐이다. 이러한 喜怒哀樂과 憂思恐悲 等은 大體로 大宇宙 自然을 떠나서 人間關係 形成에서 부터 惹出되는 事實도 알만 하였다. 感情的인 諸般 變異는 人間 交互作用에서 發生함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12. 龍岩國民學校 校長時代

나는 1952年 5月 3日에 龍岩國民學校 校長으로 赴任하였다. 이때 나는 우리나라이로는 33歲였고 滿으로는 31歲이었다. 요즘 같으면 想像도 할 수 없는 젊은 校長이었다. 龍岩國民學校

는 우리 故鄉집에서 江을 하나 건너고 조그만 재(山)를 하나 넘어야 하는데 故鄉집에서의 距離는 約 6~7km 정도 되었다.

校長舍宅은 있었으나 아직도 未完成이라 入宅할 수도 없어서 나의 姨從 누님의 머릿房을 얻어서 移徙짐을 옮겨 놓았다. 나의 姨從누님은 快히 應諾해 주셔서 거기서 約 一年 生活하였는데 지금도 그때의 일을 매우 感謝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나의 누님은 바로 普通學校 同期인 金暘植 兄의 叔母님이다. 學校 校舍는 말이 學校였지 이것은 마치 거지 움막집 같았다. 당시의 龍岩國民學校 期成會長님은 朴龍澤 氏였다. 漢文을 修學하신 시골 선비이시고 古風을 많이 因習하신 분이시다. 그때는 教育區廳의 財政 自立도가 極히 貧弱한 時代였기에 學校 設立 認可는 나왔으며 教育廳에서 學校 校舍를 建築할 만한 能力이 없었다. 그러니 地方에서 보다 못하여 期成會를 組織하여 地域 負擔으로 校舍를 建築하겠다는 計劃이었다. 그 地方에서 家家戶戶에 配定 賦課한 期成會費를 收金한 一部를 가지고 校舍를 新築하다가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것도 定規 教室도 아니고 15坪짜리 教室이며 복도(골마루)도 없었다. 지붕은 짚으로 덮혀져 있었다. 나는 서글프고 기가 막혔다. 왜 그렇게 볼품 없는 學校를 希望했던가? 당시 나의 處地는 집과 멀리 떨어져서 客地로 갈 수 없는 形便이었다. 卽 어머님께서 別世하신 後이니 우리가 집 살림살이를 맡아야 할 形便이었기 때문이었다. 教室 기둥도 구불뚝한 통나무로 세워졌으며, 教室 바닥에 마루도 깔지 않고 가마니를 흙바닥 위에 간 채 學生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冊걸상도 물론 없었다. 學校에 教室 한 개 建築해 줄 수 없는 教育廳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도 可觀이요, 그 形便에도 地方 自體的으로 學校를 建築해 보겠다

는 것도 可觀이었다.

赴任해 보니 李仁燮 教師 한 사람이 있었다. 그때까지 계시던 孫性吉 校長은 兵營國民學校 校長으로 轉出하고 내가 그의 後任으로 赴任하였다. 孫校長은 解放直後에 教職者가 半數 以上 不足할 때에 教育界에 進入된 分 中の 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 學校의 形便을 볼 때에 나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束手無策이었다. 나는 고요히 며칠을 두고 思考에 思考를 거듭했다. 이 現實, 기가 막히는 이 現實은 嚴然히 나에게 賦與된 條件이었다. 打開하지 않을 수 없는 現實이기에 午前 中에 授業을 마치고 午後에는 期成會費를 徵收차 우리 두 사람은 손을 나누어 마을로 出張하였다. 日直도 두지 않았다. 給仕가 한 사람 徐祥圭라는 滿15歲 少年이 있었다. 이 少年을 두고 絶對로 學校를 비워서는 안된다고 타일러 두었다. 上部官署에서 누군가가 學校를 訪問해 온다 해도 나는 秋毫도 주저하고 두려울 것도 없었다.

이렇게 每日같이 出張 나가서 徵收해 온 會費로 爲先 마루 바닥을 깔고 지붕을 기와로 덮기로 하였다. 짚을 벗겨 놓고서 기와를 全部 지붕 위에 얹어 놓고 半쯤 덮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직 나는 出勤時間이 되지 않아서 舍宅의 청마루에 혼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期成會長 朴氏가 나와서 하는 말이 “비가 오는데 기와를 덮지 않으면 연목나무와 산자 얹어 놓은 대나무가 썩을텐데 校長은 어제 보고만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 “校長은 先生을 監督하고 學生을 教育해야 하는 사람이니 어디 비가 오면 기와장 덮으라고 보낸 사람이냐? 當身 期成會長은 무엇 하는 사람이요”

하는 말이 입술밖으로 나오려 할 때 나는 별안간 머리에 번개 같이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서라 會長은 年齒가 父母輩이나 된다’ 하고 꼭 참고서는 “예, 예” 하고서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기와를 덮은 일도 있었다. 그 후 1년도 채 안되어 나는 期成會長을 젊은 사람으로 更選해 버렸다. 이력저력 會費가 모이는 대로 舍宅을 도배하고 우리는 舍宅으로 移徙를 하였다. 姨從 누님 宅에 있을 때는 신세를 普通 진 것이 아니다. 그 집에는 누님 혼자 딸 하나와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모두 未成娶였다. 머슴을 데리고 農事를 짓고 있었는데 農酒를 채로 걸러서 머슴에게 한 사발 줄 때면 매양 나에게부터 한 사발 먼저 주곤 하였다. 여름철 더운 날 特히 日曜日이나 土曜日 午後에 한 사발을 마시고 나면 ‘神仙이 나로구나’ 싶을 정도였다. 이와 같이 厚待를 받고 보니 지금도 間或 그 姨從 누님의 생각이 난다. 어찌다 아는 사람에게 安否를 물어 보면 아직도 壯壯하시다고 하니 마음 반가웠다. 돌아 가시고 나면 꼭 내가 問喪하리라. 아니 살아 계실 제 한 번 往訪하여 問候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기도 한다.

舍宅으로 移徙를 하고 나니 마음이 多少 安定된다. 그러나 이때는 妻는 主로 故鄉집에 가서 있고 舍宅에는 나 혼자 獨守空房이 普通이었다. 끼니도 마음이 多少 安定이 되면 한 술 해 먹고 뒤숭숭할 때면 막걸리 한 사발로 점심이나 저녁밥은 공친다. 이러한 나의 生活은 無秩序했고 不規則의이었다. 그래도 授業만은 徹頭徹尾하였다. 그것은 나의 本分이요, 使命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한편으로 울타리에 죽제비나무 苗木을 사다 심었다. 傳達夫와 함께 龍岑國民學校까지 가서 “플라타나스”의 굵은 가지를 꺾어 와서 運動場 周邊에 심었다. 學生들이 혼

들고 매달려서 뿌리가活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플라타나스 뿌리 周邊에는 지름이 約 4m 되도록 흙을 起耕해서 1年草를 심어 가꾸고 그 周圍에는 큰 돌덩어리로 境界를 만들어 學生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指示하였다. 여기 시골 어린이들은 正直하면서도 柔順하여 先生님의 가르침에 잘 順應하였기에 플라타나스는 모두가 썩썩하게 活着하여 새 잎이 茂盛하였다. 그래도 또 이 가지를 學生들이 잘라 버리면 어찌 하나 念慮되어 줄곧 注意를 주며 ‘이 나무는 校長先生님의 나무가 아니고 여러분을 시원하게 그늘 지어 줄 여러분의 나무이다’ 하고 말해 주고 아침 朝禮 때 마다 물어 보았다. “運動場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나스는 누구의 나무입니까” 했더니 몇 사람이 손을 든다. 4學年 어린이에게 指名하여 對答해 보라 했더니, “예, 校長先生님 나무입니다” 한다. 하기가야 校長이 심은 나무이기에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또 이 “學校의 主人은 누구입니까?” 물으니 “校長先生님!”이라 말한다. 나는 “여러분이 主人이요”하고 바로 잡아 주었다. 나는 主人意識을 이제부터 徹底하게 涵養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後부터는 ‘이 學校는 누구의 學校이나? 책상은 누구의 책상이나? 저 黑板은 누구의 것이냐?’ 등을 每日같이 鼓吹시켰다. 이래서 3, 4年을 지나고 學年이 또 높아지니 主我意識이 제법 몸에 배이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일을 찾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運動場에서 무엇을 해야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풀을 매야 합니다”하고 對答한다. 아무 것도 아닌데 즐겁기만 하다.

1954年 10月이었다. 나와 個人的으로 만난 學父兄님 몇 사람이 運動會를 한 번 하자는 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좋지요! 하

고 말했다. 10月初에 期成會 任員會를 열어 運動會件을 協議했다. 10월 초에 期成會 任員會를 열어 運動會件을 協議했다. 더니 運動會를 하기로 全員 滿場一致로 通過되었다. 職員이 講師 한 사람까지 3人이다. 눈코 뜰 사이도 없이 運動會 準備에 약 2週間이 消日되었다. 나는 強調하였다. 演技 그 自體도 重要하지만 全體적으로 整然한 秩序와 짜임새를 重要視했다. 나는 그 後부터는 어느 學校에서나 運動會때마다 主슬로건을 내걸고 主要努力點을 議決해서 내걸어 놓고 恒常 이것을 念頭에 두고서 訓練을 시키도록 指示하게 되었다. 秩序와 規律과 敏捷性, 迅速, 正確 이러한 德目들이 主로 採擇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運動會가 틀에 맞게 進行되었다. 事後에도 評價가 좋은 便이었다.

가을 運動會가 시작되어 한창 進行 中일 때에 그 地方 出身인 地方有志이며 靑良面長도 지내신 K씨가 오셔서 來賓席에 앉으셨다. 年歲가 60歲가 넘으셨다. 暫間 앉았다가 영뚱한 소리를 한 마디 하신다. “校長! 보라, 저기 저 여편네가 運動場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지 않나. 저런 것을 그냥 보고 있나” 한다. 그 女子는 벌써 運動場 다 거쳐서 저쪽 가에 가서 서 있다. 내 말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 지나갈 줄 알았으면 미리 나가서 막을 것을, 몰랐어요”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작대기를 運動場쪽으로 쭉쭉 내밀면서 저렇게 되어서야 運動會가 제대로 되나 한다. 周邊 사람들이 一齊히 그 老人쪽을 보고 상을 찌푸린다. 이 老人의 氣質(Temperament)이 恒常 自己 잘 난척하며 自己 外의 다른 사람은 人間 取扱을 하지 않는 氣質인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들으니 이 學校를 建立할 당시에 期成會長을 選出하는데 K氏는 으레히 自己가 會長에 被選될 줄 알고 있었는데 B氏가 當選되었단다. 그 後부터는 이 學

校에 對한 感情이 좋지 않다고 한다. 校長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아주 小人다운 態度이지 않은가 말이다. 시골 學校에 가 볼라치면 이러한 小人輩들을 間或 볼 수 있다.

내가 이 龍岩校에 있을 때의 家庭生活은 말이 아니었다.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며 苦痛을 겪는 妻. 그것도 혼자 몸만으로 來往하는 것이 아니라 그 軟弱한 몸매에 아기 하나는 업고 하나는 걸리고, 머리에는 반찬 만든 것을 이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이다. 눈물이 날 정도였다. 이러니 나는 土曜日 午後에는 집으로 가서 휘 둘러보고 父母님께 相議할 것 하고는 日曜日은 쉬었다가 月曜日 아침 7時에는 집을 出發하여 途中에 나룻배를 건너서 山을 넘어 學校 가면 아침 8時 20分頃이 된다. 나는 龍岩校에 勤務하던 중에 3歲되는 3男을 저승으로 보내고 말았다. 一生을 두고 잊지 못할 우리 夫婦의 쓰라린 記憶이다. 나는 生活方針이 ‘事已過而勿思’ 하라는 말과 같이 이미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 또 생각하게 되어서 記錄하는 바이다.

나는 이 龍岩國民學校에서 4年 6個月 동안 在任하였다. 이 學校에서 在任하고 있을 때 福山國民學校 校長先生님으로 계시던 朴誠烈 校長先生님께서 學校 앞 道路를 걸어서 蔚山쪽으로 가시고 계셨다. 그때는 버스가 없을 때였다. 나는 教室에서 授業하다가 暫間 그 大先輩先生님을 만났다. “先生님, 어디 가셨다 이렇게 걸어서 오십니까?” 했더니 教育監 한 번 해 보려고 教育委員님들을 찾아서 邑面마다 다니는데 오늘은 溫山面의 教育委員을 찾아서 付託해 두고 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學校 앞에 있는 판자집 가게로 모시고 가서 “先生님 暫間 쉬어 가십시오”하고 막걸리를 대접했다. 나는 손에 묻은 粉

筆가루를 털고서 한 잔 들어서 勸했다. 다음 또 한 잔 勸해 드렸더니 辭養하시지 않고 다 드셨다. 以上은 더 마시지 못한다 하시며 일어서시고는 가셨다. 그 後 그 先生님은 蔚山 教育區 廳의 教育監으로 當選되셨다. 그해 늦가을에 龍岑國民學校의 校長으로 在任中이던 沈鏞植 校長이 大峴面長 選舉에 立候補 出馬한다고 辭表를 提出하였다. 新任 朴誠烈 蔚山教育監께서 나를 龍岑國民學校 校長으로 轉勤시켜 주셨다. 나는 辭令狀을 받으러 教育監室에 들어가서 人事를 하고 서 있었다. 朴誠烈 氏는 나를 보시고 “요즈음 작은 學校의 校長은 授業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李校長은 直接 授業을 맡아서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서 이번에 龍岑學校로 發令했으니 勤務를 着實히 잘 해 주시오”하고 말씀 하시고는 今年에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신다. “나는 37歲입니다”했더니 “젊은 나이구나. 可及的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하고 注意를 주셨다.

13. 龍岑國民學校 校長 時代

1956年 11月 7日자로 發令이 되었다. 나는 11月 21日에 龍岑國民學校 舍宅으로 移徙를 하였다. 내가 龍岑校에 있을 때인 1953年 11月 7日에 三男 亨鍵이가 出生하였다. 夫谷 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956年 陽 8月 13日에 長女 妍淑이가 出生하였다. 나에게서 첫 딸이다. 나는 ‘나도 딸 하나 생겼다’하면서 외치더라고 그 후 20年이 지난 후에 妻가 말을 해줘서 나의 記憶은 再生되었다. 移徙할때 妍淑이는 生後 3個月째인데 妻가 안은채 運轉臺 옆에 앉고 三男 亨建이도 그 옆에 앉고 나는 트럭의 높다란 짐짝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長男과 二男도 짐 위에

앉았다. 나는 “떨어지지 않게 車 모서리를 꼭 잡으라”하고 소리쳤다. 舍宅은 日本式 家屋이었다. 形便없이 荒廢되어 있었다. 그리고 敎舍 안팎을 둘러 보니 이것 亦是 大荒廢 그대로였다. 창문의 유리가 많이 깨어졌고 敎室 壁의 허물어진 곳으로는 개가 드나들 정도이며 청마루 바닥도 뚫어진 곳이 여기 저기 많았다. 案內해 주는 李完雨 敎師는 解放直後에 大峴國民學校에서 함께 勤務한 적이 있어서 自己도 무척 반가와했으며 나도 반가와 했다.

나는 建物의 內部와 外部를 巡視하고는 해야 할 일들의 緩急을 가려서 第一 먼저 할 일부터 腹案을 잡았다. 이 學校는 國旗揭揚臺가 東편에 있었다. 倭政時代에는 日本爲主의 敎育이었기에 國旗를 揭揚할 때도 日本宮城이 東쪽인 東京에 있기 때문에 東쪽에 揭揚하고 東方宮城을 向하여 東方遙拜를 하였다. 卽 東쪽을 멀리 바라보고 절을 했다. 解放된 지가 12년이 되었건마는 우리 民族이 國旗를 東쪽에 달고 國旗에 對한 敬禮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1957年 봄에 東쪽에 있는 그 國旗揭揚臺를 송두리채 파내어 北쪽으로 敎舍正面의 花壇 가운데로 移轉하였다. 그런데 워낙 등치가 크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줄다리기 하는 줄을 찾아와서 國旗揭揚臺의 콘크리트로 된 밀둥치를 감고 그 다음에는 지름이 約 8cm 乃至 10cm 되는 굵은 통나무를 그 밀둥치의 밑에 깔고는 全職員 9名과 6學年 男學生 30餘名을 붙여서 줄을 끌어 당기게 하니 그 큰 덩어리가 잘 움직였다. 國旗棒에도 10餘名이 붙어서 들고 따라오게 하였다. 나는 밀둥치 밑에 까는 나무를 뒤쪽에서부터 나오는대로 앞쪽으로 옮겨 가면서 밀둥치 밑에 차례로 끼워 주었다. 平地에서는 無難히 移動시킬 수 있

었다. 다음은 花壇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끌어 올리기가 難工事였지만 그것도 조금 올라가면 지렛대를 3個를 대고 고이면서 끝내 花壇 위에 올렸다. 구덩이를 아주 크게 파서 굵직굵직한 돌을 구덩이 밑바닥에 많이 깔고 시멘트와 모래를 混合한 콘크리트를 그 위에 많이 넣은 다음 國旗揭揚臺 밑둥치를 그 위에 밀어 넣고는 直立되도록 바로 세워서 흙으로 메워서 묻었다. 教職員 一同과 全校生이 쳐다보고는 모두가 흐뭇해 하였다. 나도 快哉라 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 서울이 있는 북쪽에 서 있다.

다음은 敎舍의 大幅 修理 工事이다. 기와를 새로 덮어야 했으며 청마루 바닥 修理, 壁 修理, 유리 修理, 塗色 등 할 일이 너무 많았다. 完全 改修 工事이다. 1957年 봄 3월에 學校修理 期成會를 組織하고 會長에는 龍淵里에 居住하는 金學守氏가 選任되었다. 그 後 나는 會長과 相議를 하였다. 教育 區廳에 가서 教育監님과 管理課長에게 學校形便을 報告하고 大幅 改修를 要請하기로 하고 管理課長에게 우리의 若干의 誠意를 表할 수 있도록 會長님께서 事前에 準備하시기로 하였다. 3月 中旬에 教育廳을 찾아서 教育監님께 報告하고 다음은 管理課長室을 찾아가 課長과 對面하던 중에 나는 “化粧室에 간다”하고 나왔다. 그 사이에 會長과 課長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課長님께 再三 付託하고는 우리 두 사람은 돌아 오는데, 會長의 말이 “아마 될 것 같다”고 한다. 約 10餘日 後에 修理工事를 準備하여 材料와 工事機具를 실은 트럭이 學校에 到着하여 이로서 工事が 進行되어 갔다. 敎舍의 荒廢度는 마치 누더기 옷을 꿰매는 것 같은 狀態였다. 썩은 마룻바닥을 뜯어내니 그 밑에 가로놓인 橫木까지 썩어 있어 말로는 形言할

수 없는 狀態였다. 기와는 全體를 바꾸어 덮었다. 總修理工事를 2個月餘만에 마쳤다.

어느날 봄이었다. 저녁을 먹고 舍宅에 있는데 洞里 개가 짖어대더니 李完雨 教師가 찾아왔다. 말하기를 학교에 있는 冊걸상을 마을의 靑年이 와서 훔쳐 갔다는 이야기였다. 몇 사람이 왔던가 물으니 3名이라 한다. 自己도 멀찌감치서 보았다는 것이다. 나는 뛰쳐 나갔다. 傳達夫를 데리고 오라 했다. 마을로 내려 갔지만 책걸상을 훔쳐간 사람이 거기 있을 리 없었다. 우리는 마을 거리에서 놀고 있는 어린 學生들에게 물어 보았다. “조금 前에 學校로 올라가는 靑年을 보았느냐”하고 물어 보았더니 “3사람 보았다는데 내려 오는 것은 못 보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 靑年 3名의 이름을 알아 내었다. 아마 내려 올 때는 學校 울타리 사이를 거쳐 논길로 해서 自己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翌日 出勤하여 그 3名의 靑年을 學校로 나오라고 呼出し켰다. 세 靑年을 訊問하기 始作하였다. “너희들이 순순히 自白하면 여기서 解決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長生浦 支署로 넘기겠다”고 말하였더니 順順히 自己들의 犯行을 自白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學校 卒業生이 아닌가? 母校를 사랑하며 母校의 施設物을 아끼고 母校의 發展을 돕는 것이 너희들의 道理가 아니겠는가? 이 學校가 어디 校長의 學校인가? 여러분 龍峯 사람들의 學校임을 銘念해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말하니 모두가 肯定的으로 받아 들였다. 나는 훗날을 爲하여 自白書를 받아 놓았다. 그 後로는 靑年들의 學校에 對한 思考方式이 確然히 달라졌다.

우리 夫婦는 여기 舍宅에서 四男 尙鉉이를 낳았다. 이것이

1959年이었다. 그리고 1961년에는 次女 貞美가 태어났다. 尙鉉의 生日은 陰 12月 10日이요, 貞美의 生日은 陰 5月 13日이었다.

나는 龍岑國民學校 勤務 4年 5個月이 된 1961年 3月 31日자로 三湖 國民學校로 轉補 發令되었다.

14. 三湖國民學校 校長 時代

나는 4月 3日에 三湖國民學校 校長으로 到任하였다. 여기서도 나의 할 일은 많았다. 이 學校에 가니 첫눈에 띄는 것이 校門에 門柱도 없었고 門짝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偶然히 文桀山쪽으로 가는 途中에서 아주 커다란 花崗石을 發見하였다. 저 花崗石으로 校門 門柱를 만들어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즈음 같으면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石工을 한 사람 求하여 現地로 採石作業을 하러 갔다. 門柱는 2개가 必要한데 4角型으로 잘라내어야 한다. 길이는 6尺이 되게 잘라 내었다. 大體로 門柱같이 만들었으나 막상 學校까지 運搬하기가 問題였다. 나는 소달구지를 하나 求했다. 洞里에 사는 學父兄 任員 몇 분이 自願해서 가겠다고 하여서 傳達夫와 5인이 굵다란 밧줄과 통나무 2個를 가지고 갔다. 山 중턱에 있는 돌을 山 아래 大路까지 굴러 내렸다. 다음으로는 달구지를 소에서 끌어서 뒤로 바짝 제껴 傾斜지게 하고서는 그 斜面을 利用하여 돌을 달구지 위로 끌어 올려 밧줄로 동여 묶었다. 이제는 學校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學校에 到着하여 돌 두 개를 내렸다. 그리고는 適當한 距離를 두고 구덩이를 두 개 깊이 팠다. 굵은 돌을 한 벌 깔고 콘크리트를 混合하여 구덩이에 넣고

는 돌 門柱를 밀어넣어 直立되게 세워서 세멘콘크리트로 문었다. 그렇게 하니 이제 멋진 門柱가 세워졌다. 그리고 內實을 充實히 하기 爲하여 研修會와 研究授業도 實施하였다.

이러던 중에 5月 中旬頃이 되었는데 나는 서울에서 開催되는 學校長 研修會에 1個月間 參席하게 되어 5月 21日에 出發하였다. 서울 三清洞 所在 公務員 研修院에 到着하였다. 1個月 研修인지라 多少 지루하기는 하였지만 보람도 있었고 또 새로운 知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그 中에서 지금도 記憶하는 재미있었던 것은 世界的으로 有明한 ‘아이스 쇼’였다. 나는 처음 보는 求景거리였다. 이 아이스 쇼團에는 韓國人 女性도 한 사람 끼어 있었다. 우리 研修生 校長團員은 全員이 觀覽에 參加하였다. 쇼團員은 大部分이 女性들이었고 男子들도 10餘名이 있어서 總員이 約 60名으로 大團員이었다. 主로 團體쇼였는데 프로가 바뀔 때마다 服裝도 華麗하게 바뀌곤 하였다. 神出鬼沒한 敏捷한 動作과 그 變化는 神奇함 그것이었다. 約 1時間 20分間 繼續되었는데 정말 恍惚境이었다. 36年이 經過되었는데도 아직 그때의 光景이 幻影처럼 아른거린다. 1個月의 研修를 마치고 모두 헤어져 떠날 때에는 아쉬움을 禁할 수가 없었다.

學校로 歸任하여 運動場에 들어서니 첫눈에 거슬리는 것은 運動場 구석구석에 茂盛해 있는 풀이었다. ‘學校長이 不在中에는 이다지도 變化가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하니 한심스러웠다. 당시 校監은 나보다 2, 3歲 年上인 사람이었지만 ‘主人意識이 問題로구나’ 하고 스스로 느꼈다. 角木과 5分짜리 板子を 購入하여 잘라서 花壇의 둘레에 木柵을 쪽 세우고 그 木柵에다 白色 페인트를 칠하였다. 이렇게 해서 學校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地域學父母님들의 學校에 對한 認識도 아주 달라졌다. 내 또래

되는 任員父兄들이 餘暇만 있으면 學校를 찾아왔다. 나는 막 걸리를 사오라 하여 대접하곤 하였다. 이러다 보니 나중에는 親舊가 되어 버렸다. 그때의 親舊였던 沈英贊氏는 熊村面 曲泉里에서 釀造場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經營하고 있다. 가끔 만나면 서로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學生들의 體育鍊磨에도 힘을 기울였다. 蔚山市內에서 열린 學校 對抗 競技大會에서는 刮目할만한 成績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 다음 해에는 4~5坪 되는 溫室을 하나 만들었다. 나와 傳達夫 두 사람의 合作品이었다.

이러저러 歲月은 흘렀다. 教育區廳에서 公文이 오기로 各學校間의 長短點을 取捨選擇하는 意味에서 姊妹學校를 結緣하는데 우리 三湖國民學校는 龍淵國民學校와 姊妹結緣하도록 짜여져 表示되어 있었다. 나는 研究한 끝에 三湖國民學校 學區內에 있는 屈火리에 所在한 甕기(甕器)工場을 찾아가서 “花盆을 大小間 合쳐서 50個를 學校에 寄贈해 줄 수 있겠소” 했더니 快히 應諾하면서 “10日 後쯤 와서 가져 가시오” 한다. 10日 後에 傳達夫와 함께 리어커를 끌고 가서 感謝하다는 人事를 하고 運搬해 왔다. 그 다음날 花盆 25個를 네 묶음으로 묶은 다음 버스에 싣고 龍淵國民學校로 갔다. 朴一浩 校長이 반가이 맞이해 주었다. 점심 대접을 받는 자리에 育成會長 李大有氏와 副會長인 金學守氏, 總務인 李末出氏가 함께 合席하였다. 이 席上에서 姊妹結緣의 趣旨와 目的이 說往說來하였다. 暫間後에 下直人事를 하고 우리는 三湖로 歸校하였다. 이 姊妹結緣으로 그 後에 學校가 얼마나 活性化되었는지 全體的으로는 잘 모르긴 하지만 別無成果였으리라는 생각이다.

당시에는 어디로 가든지 選舉로 말미암아 그 地域에서는 民

心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境遇가 있었다. 이 三湖地域도亦是 그런 傾向이 있었는데 나는 이쪽 저쪽도 加勢하지 않고 나의 本務에만 熱中할 뿐이었다. 이로서 三湖國民學校 在任 2年 6個月은 무사히 經過했으나 記憶나는 것은 궁둥이에 커다란 腫이 생겨서 約 10日間 큰 苦生을 한 적이 있었다.

別 事件없이 學校生活이 營爲되던 어느날, 우리 內外는 의논하였다. 우리 故鄉집에는 60歲가 넘으신 아버님이 계시고 代로 母親이 한분 계신다고는 하지만 남의 耳目도 있고 하니 집으로 合家를 해야겠다고 決定하였다.

드디어 1963年 9月 1日字로 나의 故鄉쪽인 龍淵國民學校로 轉補發令되었다. 地方에서는 돼지 한 마리 잡고 해서 送別宴을 盛大하게 베풀어 주었다. 지금도 記憶하면서 感謝하고 있다.

15. 龍淵國民學校 校長 時代

1963年 9月 4日에 龍淵國民學校에 赴任하였다. 이 學校는 龍岑國民學校로부터 分離되어 獨立된 學校이다. 내가 龍岑國民學校에 있을 때부터 分離한다는 說이 있었다. 당시 大峴面 出身인 沈鍾樹氏께서 自己가 教育委員으로 在任하는 동안에 大峴面內에 學校를 하나 더 新設함으로 해서 그만큼 名望이 더욱 높아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事實은 城岩里와 細竹 등은 마을에서 龍岑國民學校까지 5km의 距離이기 때문에 下級學年生들에게는 多少 無理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기에 沈教育委員께서는 이 地方에 居住하는 自己 親舊인 李大有氏와 金學守氏 등과 相議하여 龍淵國民學校를 設立하기로 推進하여 設立한 學校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龍岑國民學校 學生數는 半으로 激減되어

버렸다.

이 學校의 期成會長은 李大有氏였고 副會長은 金學守氏, 總務는 李未出氏였다. 이 세 분은 내가 龍岑國民學校 재임시절 부터 잘 알았던 分들이었다. 眞情으로 나를 歡迎하여 주셨다. 나도 따뜻한 나의 故郷에 돌아온 氣分이었다.

나는 집에서 버스로 通勤하였다. 每日 아침 出勤은 내가 恒常一番 出勤이었다. 主力點을 實力培養에 두고 條件整備에 힘을 쏟았다. 이와 並行하여 體力增強에도 힘을 기울였다. 特히 ‘한 學校 한 特技 養成’의 目標가 있었는데 이 學校에서는 排球를 特技種目으로 選定하였다. 過去에 龍岑國民學校에서 함께 데리고 勤務했던 某教師를 排球 指導 擔當教師로 맡겼다. 이 사람은 熱誠的으로 排球先手를 指導하여 實力이 日進月步로 向上되었다. 그래서 蔚山市內에서 다른 學校 選手들을 차례로 이기고 霸權을 잡았다. 다음은 梁山郡의 代表選手를 맞아서 決選 競技를 하였는데 우리 龍淵 選手가 越等하게 이겨서 勝利를 하였다. 그 해 가을에는 馬山에서 開催된 道大會에 出戰하여 보기 좋게 優勝하여 돌아온 일도 있었다. 그때 그 選手 中 아직도 두 選手의 얼굴이 確然하게 나의 記憶에 떠오른다. 그런데 이 某教師는 잘 하는 面도 있지만 性格이 頑強하여 他人과 融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孤獨的인 것이 탈이었다. 하기가야 어느 사람치고 性格上의 長短點이 없으라마는.

이 龍淵國民學校가 科學科 示範學校로 蔚山教育區廳으로부터 指定을 받은 일이 있었다. 學校의 名譽를 걸고서 잘 치러내어야 했다. 나는 基金을 마련해서 科學 擔當教師를 帶同하고 釜山으로 내려가 科學教具社를 찾아가서 科學器材를 約 50點 購入해 왔다. 그리고는 卓子 위에 넓은 板子を 깔고 새로 購入

해 온 器材를 올려 놓아 科學 擔當에게 台帳에 記載하도록 指示했다. 그런데 그 吳某教師가 가까이 다가서더니 아무 말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板子の 한쪽에 슬그머니 손을 대었다. 그러니 그 器材들이 와르르하고 教室 바닥에 떨어진다. 둘러섰던 全職員이 놀라서 뒤로 물러선다. 유리 器材는 大部分 다 부서졌다. 나는 泰然히 科學 主任教師에게 命令했다. 購入時 받은 領收證과 對照하여 부서진 것의 목록을 따로 작성하고 그 代金の 合計를 算出하라 하였다. 그 現場에 둘러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故意的 破損이라고 보았으며 또 故意가 아니었고 失手라 할지라도 該當 教師는 責任을 져야 마땅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吳某教師를 校長室로 불렀다. “이 責任을 吳先生님이 져야 하지 않겠소. 示範發表日은 臨迫해 오고 하니 來日이라도 다시 器材를 購入해야겠는데 校長으로서 내가 立替해서 爲先 購入해 놓고 다음 俸給때에 그 金額을 控除할테니 어떠하냐?”고 말했지만 默默不答이었다. 平素에도 그는 웃는 얼굴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곤 다음달 俸給에서 控除해 버리고 內譯을 詳細히 記錄해서 주었는데 그 後로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 해 가을에 吳某教師가 열심히 訓練시킨 排球選手들을 引率하여 馬山으로 출전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出發하기 前에 教務室에 와서 ‘잘 싸워서 이기고 오겠다’는 人事를 한 然後에 出發하는 것이 마땅한 道理인데도 不拘하고 玄關앞 運動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껄뻘해서 旅費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더니 어느 中堅 教師가 나가서 吳某教師더러 귀뜸을 하는 것 같았다. 世上에 排球만 잘하면 무엇하느냐 말이다. 學

校를 代表해서 出戰하게 되면 全教職員에게 人事를 하고 떠나 감이 禮儀이거늘 排球만 잘 할 줄 알고 禮儀는 몰라도 된단 말인가? 이것은 出戰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吳某教師에게 한 말이다. 차마 壯途에 오르는 選手나 引率 教師에게 그 자리에서 꾸짖기는 내 마음이 弱해서 못하였던 것이다. 이기고 돌아온 吳某教師에게 나는 峻烈하게 말했다. “學校 選手가 當身の 私兵이요? 公金으로 訓練시킨 學校 所屬 學生이 아닌가? 그렇게 無禮한 排球 指導는 우리 學校에는 必要가 없으니 앞으로 나의 方針을 따르려거든 排球指導를 繼續하고 아니면 排球는 그만 두어라. 네 멋대로 하겠다니 여기는 네 王國이 아니다” 했지만 또 默默不答이었다. 그 사람도 그러한 精神으로 살아가는 데는 苦痛도 많았으리라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러던 중에 蔚山教育長이던 尹某氏는 教育長職을 辭退하고 蔚山 선경직물주식회사의 副社長으로 들어갔다. 이 때의 尹某氏의 運勢는 旭日昇天의 氣勢였다. 그의 妻男인 李○○氏는 中央要職에 있다가 大統領 祕書室長으로 있을 時期였다. 尹의 後任으로 竹馬故友이자 教育界 出發을 나와 同年·同月·同日·同時에 한 大峴普通學校 1年 先輩인 아무개氏가 蔚州教育長으로 在任하다가 蔚山市教育長으로 到任하였다. 이 親舊는 本來부터 虛勢를 잘 부리며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親舊이다. 赴任한 얼마후에 나는 教育廳에 가서 ‘歡迎합니다’ 하고 人事를 올렸다. 亦是 威儀를 갖추려고 무척 애쓰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웃음 지었다. 그리고는 한번도 찾아가서 점심 대접을 한 일이 없었다.

어느 職業界나 윗자리를 모두가 탐내는 바이다. 係長보다는 課長, 課長보다는 局長, 局長보다는 道知事를 좋아하는 法이다.

敎職界같으면 敎師보다는 校監, 校監보다는 校長, 校長보다는 學務課長, 課長보다는 局長, 局長보다는 敎育長, 敎育長보다는 敎育監, 敎育監보다는 文敎部長官의 자리가 貪慾의 對象이 된다. 大體로 높은 職位가 될수록 아래로 많은 職員을 거느릴 수 있음은 물론이요, 豫算도 尙大해지니 그만큼 支配하는 範圍가 廣大해져 權力의 行事を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要是 上部階級에 있을수록 人事 行政權이 크고 執行 豫算이 크다는 것이다. 卽 人事權과 金錢 管理를 빼고 나면 아무리 높은 地位라 할지라도 허수아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는 思考해왔다.

드디어 1968년 9월 16日字로 나는 農南(現 松亭)國民學校長으로 轉補發令되었다. H 敎育長이 蔚山에 赴任한 後 校長 人事에 두루 손을 대어 校長 全體 人員數의 거의 90%를 本人의 意思를 不問하고 人事權을 發動하여 快哉를 불렀다.

내가 이 龍淵國民學校에서 勤務하던 中, 1968年 陰 5月 29日에 나의 父親께서 73歲를 一期로 別世하셨다. 午前 中에 큰宅에 가서서 노시다가 午後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머리가 아프시다’ 하시며 그만 돌아가셨다. 나는 그야말로 天崩之痛이라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서글픔과 人生의 虛無性을 느끼면서 痛哭하였다. 精神이 昏迷하여 어쩔줄을 몰랐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저럭 5日葬으로 葬禮를 치르고 나니 精神이 朦朧하였다. 닥쳐올 運命은 닥쳐오는 模樣임을 알았으며 人生의 無常함을 實感하였다. 弔旗가 72장이었는데 ‘死後에 이것이 무슨 所用이나’ 하는 느낌 뿐이었다. 그래도 大小家의 協力과 이웃분들과 學父兄님께서 誠意껏 도와주셔서 感謝하게 생각되었다.

16. 農南國民學校 校長 時代

나는 1968年 9月 20日에 農南國民學校에 赴任하였다. 移徙는 하지 않고 寢具와 自炊 道具 몇 가지를 가져갔다. 이 學校에는 電氣施設이 되어 있지 않았다. 宿舍에서 램프燈을 켜고서 살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나의 生活리듬이 흐트러지기 始作하였다. 長男 泰鍵이가 서울의 東國大學校에 在學中이었고, 둘째 昌鍵이가 釜山 東亞大學校에 在學中이었다. 두 아이의 登錄金과 每月의 下宿費와 雜費等 堪當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고 벅찬 일이었다. 이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午後 늦게부터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어느 누구를 怨望할 수도 없고 그저 저녁만 되면 술이 거나하게 醉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에 몸이 몹시 衰弱해졌고 끝내는 눕고 말았다. 가끔 기침도 하곤 하였다. 釜山에서 國民學校에 勤務하는 바로 아래 同生이 病院으로 가 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아우를 따라 釜山病院으로 가서 診察을 받았는데 肺炎이라고 하였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注射를 맞고 藥을 1週日分을 받아와서 每日服用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 約 45日間이 지난후 나는 學校로 나갔다. 教師들과 學生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이때 學校와 洞里에 電氣 施設을 하게 되었는데 學校 電氣 施設費用은 各마을에 負擔시켜 徵收 中이었으나 시골 사정上 그리 쉽게 徵收되지 않아 困難을 겪고 있었다. 그때에 H 教育長이 馬山 ○○國民學校長으로 轉任되고 새로이 朴一教育長님께서 蔚山 市教育長으로 到任해 오셨다. 며칠 後에 農南國民學校에 初度巡視次 오셨는데 教務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學校의 隘路 事項이 무엇이나?’ 고 물으시기에 나는 속으로 ‘이

제 살았다' 하고 '우리 學校에 電氣施設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問題입니다' 하였더니, '費用이 얼마나 必要한가'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35萬원이 必要하다"고 對答하였다. "내가 經費를 數日 內에 보내줄테니 電氣施設을 빨리 始作하십시오" 말씀하시기에 나는 머리 숙여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하고 人事를 했다.

그때 農南國民學校育成會長은 朴要翰氏였다. 나는 會長을 찾아가서 "數日 內에 任員會議을 召集합시다" 했더니 "무슨 議論하실 것 있습니까" 하기에 나는 이 快報를 報告하고서 "但 地方에 負課해둔 自體經費를 全部 收金하여 會長 名義로 銀行에 豫金해서 그 通帳을 教育長님께 보여 드려야만 支援金을 支拂해줄 것이라고 報告합시다. 萬若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收金이 잘 안될 것입니다"고 말했더니 會長은 "果然 그렇겠소" 하며 同意하셨다. 며칠 후 任員會議에 이대로 報告하였더니 그 翌日부터 徵收金이 續續 入金이 되어 一週日 後에는 거의 90% 收金이 되었다. 그래서 電氣施設 工事は 順調롭게 마쳤고 經費도 完全히 支拂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2個 教室을 增築하였다.

또 이해에 教育청 관내의 교사를 一齊히 塗色作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競進에 붙였다. 一等에 當選되면 賞金 30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全職員에게 塗色할 색깔을 募集했다. 採擇된 先生님께는 萬원의 賞金을 주겠다고 했는데 校監 以下 아무도 應募者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나는 校舍 全體를 白色으로 塗色하도록 塗色工에게 指示를 했다. 約 1週日 後에 塗色을 마쳤는데 審査 結果는 우리 學校가 1等이었다. 그래서 그 해 가을에 初中學校 校長을 選拔해서 서울地方으로 産業視察을 보내는데 塗色 競進會에서 1等を 한 나하고 2等を 한 孝

門學校 朴仁喆 校長이 함께 參加했다. 우리 一行은 15名이었는데 高速버스로 함께 서울로 갔다.

서울에 가서 OB맥주會社 工場을 見學하였는데 一巡하고 나서는 커다란 應接室로 案内되었다. 그런데 卓子 위에는 맥주가 3병씩 놓여 있고 안주도 여러 가지 놓여 있었다. 우리 一行은 목이 킬킬한지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맥주를 마셔댔다. 卓上 위의 맥주가 없으니 또 가져왔다. 나와 朴仁喆 校長과 大峴中學校의 金一八 先生님 3人이 한 卓床에서 즐곤 주거니 받거니 마셨다. 한 사람이 7병 정도씩 마시고 보니 배가 부르다. 그 다음으로 北岳山으로 車는 달렸다. 서울 市街가 한 눈에 들어온다. 술이 거나하게 醉해 오른다. 노래라도 한 곡 부르고 싶은 心情이었다. 그날은 旅館에서 1泊하였다. 달콤한 잠에 취해 熟眠하였다. 翌日에는 樂器工場(三益樂器)를 둘러보고 中途에서 몇 군데를 더 둘러보고는 午後 7時頃에 蔚山에 到着하였다.

前에도 言及했듯이 나는 그 後에 肺炎으로 因하여 45日間 病席에 누웠다가 出勤해서 그 間 밀렸던 公文을 훑어 보니 校舎의 塗色 競進에서 1等한 賞金이 30萬원인가 얼마인가 配定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校監이 아무개란 사람인데 나에게 그 件에 對해선 一言半句도 하지 않았고 그때 經理擔當인 아무개教師도 역시 그 用處를 일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나는 이 두 사람이 몹시 怪心하였다. 아마 두 사람이 分食하였으리라 짐작되었다. 뻔뻔스럽고 廉恥도 없고 良心도 없는 劣惡 敎職者임을 알게 되었다.

그 後 어느날인가 내가 電氣施設費 徵收 激勵次 마을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죽자 하나가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校監이 하는 말이 “오늘 金某氏가 갖다 놓고서 3,000원을 請求하고 갔다”는 것이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왔다. “이것을 왜 받았소, 돌려 보내주시오”하고 말했다. 그래서 돌려 보냈다. ‘學校에 微少한 經常費밖에 策定되지 않는데 이것을 學校 運營上 꼭 必要한데 使用해야지 外部人事가 自己 나름대로 物資를 投入하고서 金額을 請求하게 되면 도대체 어찌 校長이 自主的인 教育運營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平素의 나의 持論이었다.

그 後에 金某氏가 不滿을 품고서 教育廳에 가서 내가 通勤하고 있다고 고자질을 한 모양이었다. 나는 옛날에 勤務한 일이 있는 龍岑國民學校長으로 轉任發令되었다. 1970年 3月 1日 字 發令이었다. 나는 속으로 快哉를 불렀다. 그러면서도 教育區廳에 가서는 朴一教育長에게 不滿을 吐露하였다. “龍岑은 내가 前에도 있었던 곳이지만 그 당시에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얼굴을 들고 거기 두번째나 갈 體面이 서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먼 곳까지 通勤하기 보다는 몸도 健康치 않은 사람이 집에서 通勤하는 便이 좋으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해 드렸어요”하며 “거기 가시면 내가 行政的으로 여러 모로 도와 드릴테니 가서 安心하고 勤務하세요”한다.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웃으면서 “잘 付託합니다”하고 돌아왔다. 送別宴 席上에서 會長 朴要翰氏는 送別 人事로 “李校長님이 우리 學校에 오셔서 짧은 在任期間이었지만은 큰 일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는 두 教室을 增築하셨고 또 하나는 學校에 電氣를 架設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功務를 永遠히 잊지 맙시다”라고 紹介하니 一同이 拍手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부끄럽습니다”하고 정중히 人事를 하고 떠나 왔다.

17. 第二次 龍岑國民學校 校長 勤務 時代

나는 1969年 9月 3日에 龍岑國民學校에 赴任하였다. 몇 해前 그러니까 8年 前에 勤務하였던 學校이다. 그러기에 이 地域에는 母校인 大峴普通學校의 卒業生 先後輩가 많았으며 地域民 大概是 知面인 分들이 많았다. 그래서 孤獨을 느끼지는 않았다. 赴任하니 地域民들이 반가이 맞이하여 주었기에 마음 흐뭇하였다. 그런데 學校에 가보니 前任 校監이던 崔某氏가 學校의 債務가 約 20萬원 되니 나더러 와서 갚아 달라고 한다. 나는 斷乎히 拒絕하였다. “後任 校長이 어디 前任 校長의 債務를 整理하려고 돈뭉치 들고 따라 오라는 法이 있소. 起債까지 해가면서 學校經營 잘 하는 척 해 놓고는 後任者에 債務를 轉嫁시키는 法이 어디 있소” 하고 나는 反駁하였다.

教育廳에 가니 朴一 教育長께서도 前任 校監이 起債한 負債를 갚아주라고 했지만 나는 말하였다. “教育長님께서 債務를 償還하게끔 特別 支援을 해주신다면 債務 償還에 應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면 應할 道理가 없습니다. 앞으로 配當되어 나오는 前渡資金은 내가 學校를 運營하는데 使用해야 하며 債務 償還하라는 豫算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였더니 그만 말이 막히는 模樣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斷乎하게 不可함을 逆說하였지만 훗날 나는 前 校監의 負債를 미역 판 돈으로 어느 정도(約 囀)는 清算해 주었다.

그 당시 龍岑學校에는 마을에서 봄에 採取하는 미역바위(곽암:藿岩)에서의 利潤 中 한 몫을 받게 되어 있었다. 나는 이 돈을 利用하여 길다랗게 되어 있는 花壇을 로타리式으로 廻轉하면서 觀覽할 수 있도록 全面的인 改造를 하였다. 또 높은 花

壇을 무너뜨리고 콘크리트로 스탠드를 6段으로 만들어 完全히 改造해 버렸다. 外形 面貌가 一新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慶尙北道가 慶南보다는 教育의 內實이 앞서 가는 줄을 알았기에 家庭實習 期間동안 全職員을 2個組로 나누어서 交代로 慶州市內의 여러 學校를 巡察하고 環境整理 狀況을 스케치해서 오라고 出張을 命令하였다. 巡察을 마치고 돌아온 後에 나는 2週間の 期間을 設定하고 內部的 環境整理를 完成하도록 指示했다. 第一 잘 된 班은 賞金을 1萬원 支給한다고 約束까지 하였다. 二週間 동안 先生님들이 열심히 活動하시는 것을 보고서 나는 마음 뿌듯하고 모두가 믿음직스러웠고 든든해 보였다. 一週日이 지난 후에 걸직한 막걸리 파티를 베풀어 주었더니 모두 和氣靄靄하였다. 二週가 지나니 環境整理가 끝났다. 全職員이 合同審査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러한 훌륭한 솜씨를 우리 先生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發見할 수 있었다며 無限히 稱讚해 드렸다. 놀랄 정도로 變化하였다. 市內의 어느 中心學校 못지 않았다. 어느날 朴一 教育長님께서 學校로 오셨다. 一巡하시고는 깜짝 놀란 表情으로 많이 變했구먼요 하시더니 “다음달의 定例校長會議는 여기서 開催하도록 할터이니 그리 아시오” 한다.

다음달 4月 21日이 會議날이었는데 校長會議가 2時間 정도로 끝나고 나자 校長 先生들은 主로 環境 整理의 狀況과 外部의 花壇 設計 등을 求景하시면서 感歎詞를 連發하셨다. 그리고는 “花壇 設計는 어째서 이렇게 꾸몄어요”하고 묻기에 “이것은 都市를 버스로 지나다가 로타리의 花壇을 보고서 着想한 아이디어입니다”라고 對答하였더니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렸다. 점심 後에는 모두들 배를 타고 淸島(淸島)섬으로 떠나

갔다. 이때의 龍岑學校 校監은 鄭某란 사람이었는데 〇〇國民學校 教師로 있던 사람이 校監으로 昇進되어 와서 있었다. 이 사람은 첫눈에 印象이 별로 좋지 않았다. 모든 會議 日程이 끝나고 손님들이 出發할 때에 校監이란 사람이 나를 向해서 눈을 한번득거리며 하는 말이 “저런 뭘 하노, 손님이 나가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구두를 신고 나가는 참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손님을 餞送하고는 校監 鄭某를 校長室로 불렀다. 나는 峻嚴하게 始作하였다. “當身이 校監으로 昇進되어 몇 년 되었소. 不過 1年 남짓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버릇을 배웠소. 뭐 ‘저런 뭘 하노, 손님이 나가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不敬한 소리를 하는 校監이 이 天下에 當身말고 또 어디 있더냐? 순 상놈 같으니라구. 當身 南化洞 某氏께서 學校에 時計를 寄贈한다고 現金 貳萬원 寄贈하신 것 받아서 어떻게 했소. 當身 손에 들어간 돈은 全部가 當身 所有요? 그리고 每月 職員으로부터 俸給 控除해서 받은 親睦會費가 들어있는 豫金通帳을 가져와 봐요” 하고 高喊을 쳤다. 이어서 “當身の 教育者的인 基本姿勢가 바로 그것이나?” 하고 應接세트 卓子を 주먹으로 쳤다. “校長에 對한 말씨와 不敬한 態도와 公金과 私金을 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當身の 教育者的 基本姿勢인가?” 하고 소리쳤다. “即時 公金은 公金으로 正式 處理하시오. 다음 俸給날까지 整理가 되지 않으면 無條件 當身 俸給에서 控除할테니 그리 아시오” 했더니 “罪悚합니다”라고 한 마디 하고 나갔다.

나는 教育界에 約 46年 10個月間 在職하는 동안에 基本精神 卽 習性化된 教育者的 性品이 缺如된 教師나 校監을 더러 보았다. 教育者的 資質이 무엇이냐? 이것은 一言으로 表現하기

가 困難하다. 事理의 옳고 그름을 判斷하는 能力과 對人關係에 缺禮되는 言行을 絶對로 삼가며 良心의이고 正直性을 具有하고 每事 處理에 있어서 合理性과 合法性이 恒常 維持되어야 하며 衆人으로부터 嗤罵(치매-손가락질을 받음)를 當하지 않게 注意할 것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로 부터 首肯 받을 수 있는 言行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間或 教育界에 있게 되면 威信이 問題가 될 것이다. 現在에는 모든 分이 教育者의 基本精神 姿勢를 갖춘 分들이라고 짐작된다.

이러던 中 1976年 9月 1日자로 나는 德新國民學校長으로 轉補 發令되었다. 龍岑國民學校에 在任한지 족히 滿 6年만인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나는 校長으로 昇格된 後로는 龍岩, 龍岑, 三湖, 龍淵, 農南(松亭), 龍岑(2차), 德新 以上 7個校에서 勤務하게 되었는데 公교롭게도 변두리의 小規模 學校로만 轉轉하며 굴러 다니는 存在가 되어 버렸다. 當局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굴러 다녔는지 過去의 歷程을 살펴 볼 理가 없었고 또 그런 것은 關心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恨歎하면서도 스스로를 自嘲自笑하였다. 내가 나의 立地를 너무나도 等閑視했을 뿐더러 無關心한 닻이라 생각했다. ‘上部官廳과 上司를 자주 訪問하고 점심 待接, 夕食 待接 等 다른 사람은 자주 酒宴을 베풀기도 하는데 나는 무엇을 했느냐 말이다’ 하는 懷疑가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나의 삶에 自矜을 느끼기도 하였다. 나는 思想이 確固不動하게 確立되어 있었다. 나의 生活는 나의 俸給으로 살아 가야지 그 外 어떤 것에도 依存하기를 싫어 하였다. 늦으막에 金某校監께서 우리 學校로 赴任해 오셨다. 얼마후 蔚山에서 長期勤續한 校長이라 하여 내가 慶南

道教育會에서 主管하는 視察團에 蔚山代表로 參加하게 되었다. 出發當日에 金校監께서 封套 하나를 주시기에 ‘이러지 마세요’ 했지만 校門 밖까지 따라 나와서 주는 것을 나는 기어코 뿌리치고 떠난 일이 있었다. 나는 上司에게 阿諛苟容(아유구용; 남에게 아첨을 하며 구차스러운 짓을 하는 것)하는 것은 내 性格으로는 窒塞이었다. 그러니 누구를 怨望하리요. 요즈음 回顧해 보니 그런 사람이나 나나 사는 것은 매 한가지더라. 阿附 잘 하던 사람도 별 수 없이 살더니 차례로 가더라. 하기가 누군들 안 갈 사람 있으려만. 이렇게 나의 性格이 웅고집이었기 때문에 내 家族에게 얼마나 苦生을 많이 시켰는가를 回顧하니 家族에게 매우 罪스럽기만 하다.

이때 蔚山市內에서 市外로 轉出된 사람이 3人이었는데 나는 집도 절도 없는 德新으로, 朴一浩 校長(既히 作故)은 某處로, 金榮澤 校長(既히 作故)은 凡西로 轉動되었다.

18. 德新國民學校 校長 時代

나는 1976年 9月 4日에 德新國民學校로 赴任하였다.

나는 德新國民學校가 어디 있느냐고 電話로 問議하니 溫山面인데 아직 校舍가 新築되지 않아서 溫陽國民學校 校舍에서 授業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기가 막혔다. 나는 溫陽國民學校를 찾아 갔다. 가서 보니 溫陽國民學校의 校舍가 南向으로 北쪽에 一列의 校舍가 있고 運動場을 隔하여 南쪽에 教室 4個가 一列로 되어 있는데 이 南쪽의 一列校舍를 德新國民學校 몫으로 使用하고 있었다. 總 學生數는 136명이었다. 그때 校監은 金寅圭 先生님이었다. 午後에 校監이 學校 敷地에나 한번

가 보자고 한다. 나는 校監을 따라 徒歩로 德新까지 가서 學校敷地를 바라보니 풀이 5, 6尺 길이로 자라서 우묵하고 또 그 敷地가 平地로 整地되지 않고 西쪽이 回夜江쪽으로 기울어져 낮았다.

나는 校監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 어느 구멍가게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나의 姨從兄님이 와서 계셨기에 나는 人事를 올렸다. 그리고는 막걸리를 먹기 시작하였다. 차례로 一杯씩 하다 보니 나도 석잔 정도 마셨다. 큰 사발이었다. 선 채로 마셨다. 酒氣가 조금 올라 오기에 나는 서글픈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더니 姨從兄님인 李乘杰氏가 야단을 치신다. 卽 校長이 처음 여기 赴任해 와서 이래도 되느냐는 뜻이었으리라. 나는 “兄님, 나 이런 사람인줄 다 아셔야 합니다” 하고 나는 本意가 아닌 말을 했다. 나중에 言及하겠지만 人事行政은 바로 개차반이었다. 背後에서의 陰凶한 去來關係에 의해 左之右之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去來關係如何는 모르는 일이기에 無關心하였고 그런 나를 보고 나의 親知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열심히 努力하고 成果만 舉揚하면 榮轉될 수 있다는 信念을 나는 버리지 못하였다.

이 德新國民學校는 市內의 新亭國民學校와 同日同時에 認可를 得하였다. 마침 이때에 아무개教育長이 更迭되어 鄭教育長이 到任하였다. 이때 新亭國民學校는 벽돌을 짜 올리고 1層 스라브 工事を 할 판이었다. 그런데 德新國民學校는 建築할 꿈도 꾸지 않고 있었다. 地方의 學父兄님들은 나를 찾아와서는 “校舎新築을 언제 着工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말하기를 “建築은 教育廳에서 하는 일이기에 校長인 나로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事實로 뭐가 校長이 答답할 것 있느냐는 態度로 臨

했다. 그래도 學父兄들께서 함께 教育廳에 가보자는 것이다. 나는 拒絕하였다. 내가 教育廳에 함께 따라가면 ‘校長이 學校에서 勤務나 할 일이지 뭐한다고 地域民을 衝動하여 教育廳에 오느냐’ 할 것이 뻔한 일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나오자 地域民들은 끝에 가서 “來일은 5, 6인이 教育廳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한다. 나는 말하기를 “當身네들 가는 目的이 무엇이요, 그대로 말하십시오” 했더니 “우리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니 가르쳐 주시오” 하기에 “教育廳에 가시되 校長도 같이 가자고 해도 안가겠다고 하여서 우리들만이 왔다고 말을 하고 學校를 빨리 建築해 주시오” 하고 말하라 했다. 그리고는 “新亭國民學校는 同時에 認可를 얻어도 벌써 一層이 다 되어 가는데 德新學校는 왜 始作하지도 않고 있소”라고 말하라고 시켜 주었다. 그래도 確答을 하지 않을 때는 “이 事實을 써서 大統領께 陳情書로 한번 提出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라고 말해보시오 했더니 그 翌日에 教育廳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나는 들었다.

그리고 난 3日 後에 建築準備 器具를 실은 트럭이 學校로 들어왔다. 그 날부터 教室 앞을 자리를 定하고 基礎 구덩이를 파기 始作하였다. 그리고 材料는 續續 들어 온다. 地方의 有志 되는 사람들은 自己네끼리 모여 앉으면 ‘우리 學校 校長 머리가 普通이 아니라’ 고들 수근거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學校를 建立한 後에 나는 花壇區劃을 劃定하였다. 그리고는 블럭으로 區劃을 區分하여 세워 묻었다. 그리고 봄에는 약 1,200본 정도의 나무를 심었다. 여기 土質은 表土가 10cm 정도 덮혀 있고 그 밑에는 岩石(석돌)이 깔려 있었다. 學生들은 힘이 弱해서 곡괭이로 찍으면 곡괭이가 튕기고 하였다. 나는 教室로 回覽

을 돌려서 來日은 學生들이 登校할 때에 구덩이를 팔 수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登校하되 곡괭이나 삽, 괭이를 하나씩 들고 오도록 周知시켰다. 翌日에 學父兄들이 約 20名이 出役해서 구덩이를 終日토록 100個 정도를 팠다. 나는 學生 이름으로 出役한 사람을 點呼하고 집으로 보냈다. 午前 10時와 午後 3時 30分에는 막걸리를 한 말씩 提供해 드리니 모두 즐거워하며 마신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빵 한 개씩을 나누어 드렸다. 이렇게 하고 보니 그 翌日에는 約 30名의 學父兄님들이 出役해 주었다. 그래서 約 一週日 後에는 나무를 모두 심었으나 또 覆土가 없어서 앞쪽 山에서 흙을 파 와서 나무뿌리를 묻었다. 이와 같이 庭園樹와 樹蔭地 나무와 울타리 나무를 全部 심고는 물을 주었다. 뿌리 部分의 周圍를 5cm 정도로 파서 거기에 물을 많이 주었다. 그런데 그 해는 또 雪上加霜으로 비가 오래도록 내리지 않아서 물을 주어야 하는데 學生들은 軟弱해서 運動場 10m나 아래에 있는 물을 들고 올라 올 수가 없어서 學父母를 動員해서 물을 주었다. 여기에서 나무를 말려 죽인다면 이때까지 努力한 것이 水泡로 돌아가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해에 물을 5回 주었다. 다음 해 봄에는 모든 나무에 새싹이 터져 나왔다. 이때의 歡喜는 當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다음해는 溫陽面 望陽里에 있는 력키化學工場을 찾아가기로 하여 育成會長과 任員 4, 5名더러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제 條件 整備를 해야 하겠는데 聖雄 李舜臣 將軍의 銅像建立을 寄贈받자는 것이 나의 目的이었다. 모두들 ‘가보았자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나는 술을 한 잔 살테니 바람도 쏘이고 한번만 같이 가자고 해서 一行 5名이 望陽里的

럭키會社를 訪問하니 工場長은 出他 中이어서 課長을 만나 銅像 얘기를 했더니 忸不關이란 態度로 말이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서 갔다. 아침 出勤길에 들어가서 工場長더러 求乞하다시피 얘기를 했더니 工場長 曰 “나로서는 單獨으로 承諾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서울의 本社 社長을 내가 一次 訪問해서 付託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던지시 놀려 놓고는 돌아왔더니 그 다음날 工場에서 課長이 찾아 와서 “銅像 建立費가 얼마쯤이면 되느냐”고 묻기에 “100 萬원”이라고 했더니, “아아, 어제 午後에 本社 社長님께서 내려 오셨기에 말씀을 드렸더니 100萬원 이쪽 저쪽이면 해 주라고 하시더라”면서 일을 着手하라고 한다. 나는 머리 숙여 “感謝합니다”하고 人事를 하였다. “來日 現金을 드릴테니 會社로 오시오”한다. 本社 社長이 내려 왔는지 아닌지는 나는 알 必要도 없었다. 그 다음날 나는 會社를 찾아가서 手票 한 장을 받아서 돌아왔다. 翌日부터 나는 銅像 注文부터 먼저 했다. 그리고 施工者를 시켜서 像臺를 벽돌로 짜 올리게 했다. 이렇게 하여 銅像建立은 完工되었고 銅像 正面 像臺에 ‘럭키 蔚山工場 長 建立’이라고 板刻을 붙였다. 銅像 除幕式을 舉行하던 날에 李秉稷 教育長님과 럭키工場의 課長님께서도 枉臨해 주셨으며 나는 이날 感謝牌를 課長님께 傳達했다.

당시에 德新國民學校 運動場은 東쪽보다 西쪽便이 約 60cm 가 낮았기 때문에 降雨日이면 빗물이 西쪽으로 흘러서 흙이 파여져서 흘러내려가서 큰 골이 생겼다. 教育廳에 가서 相議해 보아도 忸不關焉으로 對答이 없었기에 ‘이것은 나를 試鍊해 보는 것이구나’ 생각하여 나는 溫山銅製鍊所를 찾아가서 總務課長님과 相議해서 運動場 整理를 付託 드렸더니 快히 應

諾하시었다.

翌日부터 블도저 1臺와 덤프트럭 1臺, 포크레인 1臺가 와서 整地作業이 始作되어 連 5日間에 걸쳐서 完了되었다. 나는 그 工事を 하는 途中에 教育廳에 上廳하여 이 工事 進行狀況을 教育長님께 報告드리고 “이 感謝함에 對해서 應分の 謝禮를 함이 좋겠습니다”했더니 教育長님께서 얼마를 도와줄터이니 油類代條로 傳達하라 하시기에 나는 感謝를 표하고 돌아왔다. 이 일은 이것으로 解決되었다.

다음은 運動場에서 校舎로 올라가는데 約 25m의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이 언덕에 콘크리트 스탠드를 8 階段쯤 짜기로 決定하고 銅製鍊所의 總務課長을 訪問하여 시멘트 200包를 寄贈해 줄 것을 付託했더니 承諾해 주셨다. 그러나 블록 代金과 모래 代金과 人件費가 必要하였다. 마침 德新 出身으로 釜山에 進出하여 成功한 사람이 있었기에 訪問하여 計劃을 說明하였더니 100萬원을 喜捨해 주셨기에 나의 이 計劃은 成就되었다.

나의 德新學校 勤務는 나의 一生을 두고 잊지 못할 困難의 時期였다. 現在의 德新은 버스가 10分 間隔으로 便利하지만 그때는 버스도 없었고 交通이 甚히 不便하였다. 雨天日이면 흙이 粘土라서 長靴를 신어도 粘土가 묻고 붙어서 발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東쪽에서 들어가도 4km요, 西쪽에서 들어가도 4km의 徒步 距離였다. 나는 德新에서 齷齪같이 努力했다. 여기 부임해서 3年 6個月이 經過하였다. 나는 教育長을 찾아가서 ‘나도 할 만치 했으니 蔚山 市內로 좀 내어 주시오’했더니 1980年 3月 1日字로 鶴城國民學校長으로 轉補發令되었다. 정말로 感謝하였다.

나의 德新國民學校時節은 정말로 진필구덩이 生活이었다. 이

리한 泥甯之苦(이렇지고-진필구덩이에 빠진 苦生)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苦役은 當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쓴 맛을 모르리라. 그래도 그 地域民과는 情이 들었다. 지금도 그 地方사람들은 나만 보면 그리 미워하지 않는다. 힘들기는 하였지만 나의 力量 發揮의 時期이기도 했다.

19. 鶴城國民學校 校長 時代

나는 1980年 3月 3日에 鶴城國民學校에 到任하였다. 校門을 들어서니 첫눈에 鐵製校門 한짝이 나뒹굴고 있어 나의 이마를 찌푸리게 하였다. 어쨌든 德新이란 우물에서 빠져나와서 大海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새로운 希望에 부풀어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6學年이 여섯개班이었는데 每週 月曜日에는 내가 1時間 授業을 맡기로 하고 日常生活 禮節과 말씨 等을 事例를 들어가면서 指導하였다. 그리고는 校門 앞은 諸車의 走行이 甚하여 危險하고 不安하여서 每日 아침 일찍 出勤하여 길 한가운데서 交通整理를 하기도 하였다.

이 學校의 運動場은 四角形으로 되어 있지 않고 西쪽과 南쪽 사이에는 他人의 발이 運動場을 約 200坪 以上 侵蝕하여 있어 매우 보기에 거슬렸다. 나는 教育廳에 가서 新任 教育長이신 尹大和氏를 만나 “學校를 一次 枉臨하셔서 現狀을 살펴 주십시오” 했더니 그 翌日에 學校로 찾아 오셨다.

나는 運動場의 狀況과 그 옆 발에 家屋住宅을 建築하는 것을 說明해 드리고는 지금 購入해야지 住宅이 全面的으로 建立된 後에는 買入이 困難함을 說明하였더니 教育長님은 肯定的으로 받아 들여서 그 田地를 買入하여 주셨다. 買入한 田地를

整地하고 울타리를 밖으로 내어 측백나무를 심었더니 四角이 만듯한 運動場이 되었다. 나는 快哉를 불렀다. 이 學校가 設立된지 10餘年이 되었건만 歷代 校長들의 생각과 關心이 미치지 못하였던 부분을 나는 赴任初에 關心을 갖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내가 모든 일에 進取的인 性格임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이 學校에서 施設한 것들을 回顧해 보면 콘크리트 벤치(椅子) 10餘個와 平均臺 10餘個를 造作하여 運動場의 周邊에 定立하였다. 이 벤치에는 어린이들이 앉아 놀기 좋게 樹蔭地 그늘 밑에 設置했더니 그 날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使用했으며 平均臺 위로는 어린이들이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教育長室을 찾아가서 尹 教育長님을 찾아 뵈었더니 ‘이번에 呂川國民學校 金 校長이 市內에서 滿期가 되어 郡部로 나가시게 되니 呂川校 後任에 누가 좋을지’ 하고 나에게 넌지시 귀뜸을 하신다. 이런 轉補나 校長 異動 事項은 教育長의 職權에 關한 것이지 함부로 外部人士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서슴지 않고 말씀 하시기에 “나같은 人間도 되면은 보내주십시오”했다.

그리고 며칠 후인 1983年 3月 1日字로 나는 呂川國民學校長으로 轉補發令되었다. 그 後 얼마 지나지 않아서 尹大和 教育長님께서는 心臟瓣膜症으로 急逝 하셨다. 大端히 痛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0. 呂川國民學校 校長 時代

1983年 3月 3日에 呂川國民學校로 赴任하였다. 校監이 두 사람이었다. 53學級이었으며 제법 큰 規模의 學校였다. 나는 어

는 學校를 가든지 꼭 해야 할 施設을 着眼하기를 잘하는 便이다. 校門에 들어서니 校門이 異常아름다운 感을 주었다. 學校 正門에서 30m 以上 떨어진 언덕배기 위의 道路邊에 校門柱 2個가 서 있으니 남의 집 大門같이 보였다. 나는 鐵材 校門을 만들어 바로 運動場 入口에 세웠다. 그랬더니 學校가 한층 더 아담하게 떠오른다. 그리고는 南쪽에는 블럭 담장을 쌓아 올리고 西便에도 담을 쌓아 올렸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 學校가 端正하게 보였다. 校門은 서 있고 담장이 없으니 보기가 좋지 않아서 教育長님께 말씀드려서 豫算을 얻어서 담장을 짜 올렸다.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整備하고 施設하고 하니가 勤務가 지루하지도 않고 日月이 잘도 흘러간다. 그러저럭 歲月은 잘도 흘러서 呂川校 勤務가 벌써 2年이 다 되어 가기에 나는 崔鉉集 教育長님을 어느날 찾아 뵈웁고 “내가 마지막 奉仕를 할 수 있도록 나의 母校인 大峴國民學校로 좀 보내어 주십시오” 하였더니 1985年 3月 1日字로 大峴國民學校로 轉補發令 되었다.

21. 나의 마지막 勤務地인 大峴國民學校 校長時代

나는 1985年 3月 2日에 大峴國民學校에 赴任하였다. 나는 이제 母校에 왔다. 그리고 이제 殘任 期間이 1年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매우 錯雜한 感情을 禁할 수가 없었다. 비록 이 場所는 아니었어도 나의 母校인 것은 分明하다. 내가 다니던 大峴普通學校의 古沙洞 그 자리에는 精油會社의 기름 탱크들이 자리잡고 있다. 果然 나의 敎職界의 마지막 奉仕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까 그러한 생각을 할 時間的 餘裕조차 없었다. 단 1年이 남았을 뿐이다.

나는 運動場의 條件整備부터 먼저 着手하였다. 傳達夫가 3名이 있었다. 나는 콘크리트 벤치를 먼저 造作하기로 決定을 하고 먼저 틀을 圖面으로 그려서 傳達夫더러 板子를 잘라서 틀을 만들게 하였다. 다음은 3分 鐵筋을 틀에 맞추어 切斷케 하였다. 이래서 하루에 여러 개의 다리를 콘크리트로 찍어 내었다. 그리고는 상부갈판도 틀에 넣어서 하루에 10餘장을 찍어 내었다. 約 一週日間 乾燥하면 다음은 볼트로서 組立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日後에는 이 벤치를 運動場 周邊의 여러 곳에 按配하여 세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平均臺를 콘크리트로 15個를 찍어냈다. 물론 內部에는 3分 鐵筋을 4條式 넣었으므로 부러지지 않는다. 이것도 運動場 周邊의 요소요소에 세웠다. 나의 一次 工事は 마쳤다.

다음으로 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運動場 東南便에 있는 約 120坪 정도되는 底濕地였다. 깊이가 1.5m 정도 되는 것이었다. 나는 研究를 한 끝에 精油工場(油公)으로 總務課長님을 訪問하였다. 이 學校에 精油工場職員분들의 子女가 많이 通學하고 있었다. 나는 課長님에게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埋築을 좀 해 주세요”했더니 “한 번 가서 現場을 보아야겠습니다”는 말씀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株)油工에서 課長님이 또 한 분을 帶同하고 學校에 와서 底濕地를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뛰어 나갔다. 人事를 하고 나니 課長님 말씀이 “여기 말씀이지요” 한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였더니 “뭐 별 것 아니군요. 해드리겠습니다” 하기에 나는 허리를 굽혀 “感謝합니다”하고 人事를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에 그것도 그 날 밤에 흠이 들어오기 始作하였다. 나는 기뻐서 午後 7時까지도 退勤하지 않고 있었더니 덤프 트럭이 3臺가 번갈아 흠을 실어 넣고 있었다. 9時쯤 되니 課長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메워서 整地作業까지 깨끗이 해 놓을테니 집으로 가세요”한다. 나는 “그래도 밤에 이와 같이 誠意를 다하여 일을 하시는데 所謂 主人이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말했더니 막무가내로 집에 가라 한다. 나는 退勤하였다. 집에서 寢席에 누워서도 現場이 선하게 보인다.

翌日 아침에 出勤해서 둘러보니 깨끗하게 作業이 完了되어 있었다. 歷代 校長이 하지 못한 것을 나는 해내었다는 自負心 아니 自誇心마저 가지게 되었다. 나는 電話로 感謝하다는 人事를 하였다. 그리고는 崔鉉集 教育長님을 訪問해서 報告 드리고는 “이제는 埋築된 바깥쪽에도 블럭 담장을 쌓아야겠으니 豫算을 200萬원 정도 配定해 주세요”하고 돌아왔다. 며칠 後에 豫算이 配定되었다. 이때부터는 모든 일에 自信이 생겼다. 블럭工을 불러서 請負式으로 일을 맡겼다. 基礎工事が 第一 重要하였다. 이로서 나의 第二의 着手가 끝났다. 다음은 화장실 全部를 水洗式으로 改造하는 作業이었다. 이 工事は 教育廳에서 主管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크게 神經 쓸 必要도 없었다.

다음은 校舍建物 全體와 운동기구까지의 完全 塗色이다. 이것도 請負로 맡겼다. 約 2週日이 걸려서 마쳤다. 學校가 新設 學校같이 보였다.

工事を 마치고 나니 나의 教職生活이 이제 磨勘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人生의 虛無함 그리고 지나간 일들이 走馬燈 처럼 腦裏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동안의 어렵고 고달팠던 일, 成就했을 때의 滿足感, 校庭에서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들 그리

고 이들이 어엿한 社會人이 되고나서의 再會 等等.

그러면서도 나는 時間 나는대로 停年退任式 날까지 6學年 학생들에게 禮節教育 等 人性에 관한 授業을 直接하곤 하였다.

내가 47年間の 教職生活를 마치고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나는 오직 ‘하면 된다, 努力해서 안되는 일은 없다’는 信念으로 모든 職務에 臨해 왔으며 또 그 結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해냈다’는 自負心을 가질 때도 많았었다. 그리고 教育에 있어서는 첫째, 努力하는 사람. 둘째, 됴됨이가 된 사람(人性教育). 셋째, 健康하고 豁達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에 教育目標를 두고 나 나름대로 全力投球하여 왔지만 그 結果에 대하여는 別로 滿足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22. 나의 停年退任式

1986年 2月 23日 午前 10時 30分 教職界를 떠나야 할 나의 停年退任式이다.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다. 나의 家族들도 다 모였고, 大小家 家族들도 다 모였고, 나의 6寸 妻男인 國會議員 金泰鎬 氏와 나의 妻族들도 다 모였다. 退任式은 講堂에서 舉行되었는데 崔鉉集 蔚山 教育長님께서 臨席해 주셨고 管內 國民學校長님과 地方有志와 學父兄 母姊님 및 親知분들 約 500名이 教室 3個 크기의 講堂과 複道까지 꼭 차서 立錐의 餘地가 없을 정도였다. 運動場에는 여러 形態의 車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 參席 손님 가운데는 나의 初任地였던 南旨南尋常小學校에서 처음 擔任했을 때 學生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白髮이 희끗희끗해져서 參석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參席해 주실 줄은 몰랐다. 나는 實로 感慨가 無量하였다. 退任式은

約 한 時間 넘어 걸렸다.

退任式이 끝난 後에도 나는 學校에 隔日制로 나가 보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校長이 學校에서 退任式을 마친 후 며칠 사이에 事故가 發生하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責任이냐’가 問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月 28日에는 昌原市에 있는 慶尙南道 教育委員會에서 道單位의 停年退任式을 가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매우 허전하다. 昌原에는 내 妻와 함께 갔다. 伴鷗洞에 있는 學父兄 某氏가 車를 내어 昌原까지 수고를 해 주셔서 무사히 갔다 와서 깊은 配慮에 大端히 感謝하게 생각하며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이로서 나의 教職生活의 大單元의 幕은 내렸다.

내가 15個 學校로 巡廻하면서 46年 9個月間을 勤務하는 동안에 上部官廳 人士님들과 各 學校의 學父兄 母姊님들과 各 機關長님과 그 地方의 有志 諸位分과 同僚 職員 여러 先生님 그의 여러분께서 不肖 저를 아껴 주시고 物心兩面으로 協助해 주신 恩功으로 大過 없이 幕을 내렸음에 對해서 眞心으로 感謝를 드린다.

昌原의 慶尙南道 教育委員會의 講堂에서 舉行된 合同 退任式에서는 感謝狀과 記念品을 退任者 中에서 最長期(46年 9個月) 勤續者인 내가 代表로 授與 받았다.

오는 途中에 車 中에서 나의 妻는 “지금까지 苦痛도 많았으나 오늘로써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기에 나는 妻의 손을 꼭 잡고서 “정말 苦生이 많았어요. 當身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그 間에 내가 잘 해주지 못하였던 것이 뼈 아프게 느껴지는군요. 眞心으로 謝過드리오니 容恕하십시오

오”하고 말했더니 내 妻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나는 손을 힘주어 흔들어 주었다.

停年退任辭

드디어 不肖 本人에게도 停年 退任이란 울 것이 왔습니다.

雨水의 節後가 엇그제 지났으나 아직도 殘寒의 차가움이 살갓에 스며드는 오늘의 이 날씨임에도 不拘하고 不肖 이 사람의 停年退任式에 平素에 제가 眞心으로 尊敬하옵는 崔鉉集 蔚山市 教育長님께서 光臨하여 주시고 또 우리 鄉土 出身인 金泰鎬 國會議員님과 各 機關長님과 教育界의 先輩님과 同志 여러분, 學父兄님, 母姊님 그리고 地方有志님, 同窓會員 여러분! 遠近間에 光臨해 주셔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親知 여러분 感謝합니다. 特히 이 자리에는 저의 初任地인 昌寧郡 南旨南國民學校에서 첫 擔任을 했던 그 당시의 學生이 지금은 60 歲를 넘어 半白이 휘날려 거의 저와 함께 늙어 가는 그분들 몇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實로 感懷가 無量 錯雜하면서도 아주 感激的입니다. 滿堂하신 貴賓 여러분의 이 歡待를 刻骨銘念하여 畢生의 記念으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教育長님의 過分하신 致辭와 激勵말씀과 또한 蔚山市初等教育會 宋彰復 會長님의 人情어린 祝辭 말씀 大端히 感謝합니다. 그리고 國會議員 金泰鎬 議員님의 祝賀 말씀 大端히 感謝합니다.

回顧해 보면 萬感이 多雜합니다.

지금부터 46年 9個月餘 前인 1939年 5月 20日, 이 사람이 滿

18歲 때에 고리작 하나를 동여 메고 初任之인 南旨南公立小學校에 赴任한 일이 엇그제 같이 생각됩니다.

때는 日本帝國主義가 東洋制霸의 野慾에 血眼이 되어 軍閥主義의 그 毒牙를 中國大陸에 뺨어 亞細亞를 禍亂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던 大東亞戰爭의 始初期였습니다. 不肖 이 사람이 당시의 教育界에 投身한 動機를 率直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저 好奇心에서였고 또한 生活을 解決하는 하나의 選擇的인 職業意識에서 出發한 것이 事實 그대로의 率直한 告白입니다. 그러나 數 三年 教職生活의 年輪이 더 해감에 따라 師道意識이 조금씩 씩트기 始作하더군요. 原罪意識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羞恥意識에 사로잡혀 天真한 어린이의 瞳孔과 마주칠 때에 두려움을 느끼곤 했지요. 특히 結婚하여 내 子女를 기르게 된 때부터는 이러한 羞恥意識이 더욱 強烈하게 頻度 높게 느껴지더군요. 그 理由는 여러가지 面에서 自身이 不足한 人間이란 點에서였습니다.

하늘에는 日光·月光·星光의 三光이 있고, 땅에는 高地·低地·平地가 있고 人間에게는 君·師·父의 三尊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 自身이 教職을 맡았다 하여 이 三尊에 該當된다고 自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衆人으로부터 敬拜를 받을 만한 自信心도 없었지요. 이 사람은 生得的인 愚鈍함과 懈怠性에다 後得的인 菲才淺學으로 因해서 哲學이 貧困하고 能力이 不足하여 지금에 와서 오로지 鈕우치는 바는 '내가 教育을 爲하여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하는 自省 뿐입니다.

오늘의 저의 退任式을 하는 이 時刻은 저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職業을 마무리하는 重且大한 時間이기 때문에 저 몽테뉴

가 말한 ‘나는 무엇을 알고 있나’ 라는 語句가 또 한 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果然 나는 무엇을 안다고, 무슨 人間됨이 되었다고 教育界에서 半世紀 가까이 몸을 담고 있었는지 自省해 볼 때에 하늘을 우러러 畏懼를 禁할 수 없고 옆으로 世人에 부끄러움을 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용케 버텨 나온 것은 神佛님의 大慈悲라고 생각하는 同時에 各界 各層 諸賢의 愛護 德分이라 생각하여 感謝드립니다.

옛 사람은 蜀나라로 가는 길이 險難하다 하여 ‘難之難之蜀道難’ 이라 하였습시다만 저는 ‘難之難之師道難’ 이라 어렵고 어려운 길은 스승의 길임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教職에 選擇된 人間으로서 道具的 知能教科에서나 技藝教科에 있어서 깊은 造詣와 指導能力이 多分히 要請됩니다마는 人間性 形成과 精神生活의 方向에 制動을 加하여 轉換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이의 心野, 곧 마음의 들판에 善한 變革을 일으키게 하는 作業은 抑壓이나 強制나 罰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以心傳心에서만이 可能하다고 느꼈습니다. 感化感得 作用이라 할까요. 心靈과 心靈의 去來作用이어야만 마음의 들판에 꽃을 滿發케 할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헤라클레스의 選擇은 아닐지라도 信仰的인 理念이 教職者의 가슴에 자리잡고 있어야 할 職業이 바로 教職이란 것을 늦은막에야 알게 되더군요.

理性이 完全히 몸에 배어야 할 職業, 教職! 파스칼은 말하기를 ‘人間이 人間을 볼 때에 信仰의 눈으로 보라’ 했으니 教職者가 弟子를 볼 때에 信仰의 눈으로 본다면 바로 心靈 教育이 이루어지리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師道之難을 한번 뇌

까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責任者로 있을 때에 事務的으로 매우 苦悶거리었던 것은 教師의 勤務平定에 等級을 매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等級을 매기는 일은 정말 難處했습니다.

다음은 社會에서 教育者를 볼 때에 人間 以上으로 보시지 마시고 또 人間 以下로도 보시지 말아야 한다고 強調하는 바입니다. 教育者는 母胎出生의 平凡한 人間입니다. 卽 孔子님, 孟子님, 소크라테스와 같은 聖人이 아닙니다. 孔子님, 孟子님이 계시던 時代가 어느 時代였습니까. 現在는 어느 時代입니까? 教師는 人間 以上도 아니며 人間 以下도 아닙니다.

但只 올바른 理性을 바탕으로 해서 熱과 誠을 다하여 教育하는 것입니다. 言必稱 ‘所謂 教育者’ 하는 我田引水格인 人士님들의 間或 侮罵的인 言辭는 매우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人間 以上の 待接은 받기가 싫었습니다. 人間 以下の 待接도 물론 싫지요. 그건 바로 侮辱이니까요.

제가 教職에 있으면서 아무런 成果도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그 間 學校를 도와주신 各 機關長님, 學父兄님 母姊님, 바른生活指導協議會 여러분, 同窓會員 여러분 그리고 地方有志 여러분, 教育界의 先輩同志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母校인 本校에서 勤務케 配慮해 주신 崔鉉集 蔚山市 教育長님께 깊이 感謝드립니다. 1年 동안 자리를 차지하여 母校를 爲하여 무엇을 했는가 물으신다면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未盡된 여러가지 일들을 泰山같이 많이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음을 罪悚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本校의 校監先生님과 職員 여러분 1年 동안 苦樂을 함께 하였습니다. 德識이 不足한 이 사람을 아껴 주시고 여러모로 協助를 잘 해 주신데

對해 깊이 感謝를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感情을 건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本意가 아니었으며 人間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至高한 德性으로 널리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健闘하심과 幸福하심과 榮達하시기를 心祝하는 바입니다.

學生 여러분, 몸 健康하고 모두가 열심히 努力하여 家庭에서, 社會에서, 國家에서 必要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玄關 앞에 새겨둔 바 대로 智慧, 正義, 勇氣를 지니고 굳건하게 자라고, 공부하고, 生活하며 母校를 더욱 榮光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느라고 勞苦가 많으신 本校 校監先生님과 職員 여러분, 母姊 會長님과 會員여러분, 大端히 感謝합니다.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青春을 고스란히 教育界에 두고 떠나갑니다. 아득한 消失點 저 멀리, 아니 消失의 99萬倍 보이지 않는 저 멀리서 ‘當身の 青春을 되찾아 가시오’ 하는 소리가 저의 귓전에 와서는 아주 가냘프게 속삭이곤 합니다. 그러나 내 青春을 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悠久한 時間 밖이요, 廣遠한 虛空이기에 이 虛殼만이 남은 肉身을 이끌고 그만 물러갑니다. 이제부터 저는 第三의 人生에 突入합니다. 남은 人生이 얼마가 되는지 未知數입니다. 本來 저는 胎生부터가 野人이며 生長歷이 또한 野人이었습니다. 앞으로는 野人生活을 즐기며 自由를 謳歌해 볼까 합니다.

“雲捲晴天에 皓月千里”라

구름 걷히고 푸른 하늘에 흰 달이 千里를 비추는데 閒雲野鶴을 벗삼아 水石間에 노닐고저 합니다.

이제 내 몸은 나에게 맡겨 주십시오. 敎職을 떠난다 해도 丘初心으로 間或 마음은 敎育界에 오락가락 蔚山敎育을 바라 보며 發展을 祝禱하며 敎育 同志 여러분의 健闘하심과 榮光을 祝願하겠습니다.

老敎師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滿堂하신 貴賓 여러분 두루 健康하시고 所願成就 萬事亨通하시며 길이 福樂을 누리시기를 心祝하면서 이만 停年退任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年 2月 23日 午前 11時 於大峴國民學校 校長 李在萬

이 草稿는 退任辭라 하기보다는 나의 敎職生活을 回顧 反省한 글이다. 退任辭에 갈음하기 때문에 以上으로 閣筆합니다.

나의 賞勳

1. 綠條勳章 1978年 5月 28日 大統領
2. 棟柏章勳章 1986年 2月 28日 大統領

23. 敎職生活과 家計

나의 敎職生活은 總計 46年 9個月 11日間이었다. 그런데 經濟的 物質的인 計算을 들어 論說하는 것은 점잖치 못한 일이지만 나의 敎職生活 中の 經濟生活은 그야말로 ‘거지生活’ 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日本の俗談에 ‘敎員과 거지는 3日만 하면 그만 둘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 말만 보더라도 모든 職業人이 滿足하든 그렇지 않은 現在로는 最上の選擇的 職業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그 現在로는 더욱 좋은 職業이 自己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내 自身도 그 職業에서 떠나도 될 좋은 職業이 나에게 遭遇되지 않았기 때문에 46年 9個月餘를 勤務하게 되었던 것이다. 滿足을 느꼈기 때문만은 絶對로 아니었다.

나의 敎職生活 첫 出發은 支那事變이 한층 더 擴戰되어 나가는 時期인 1939年 5月 20日이었다. 大體로 戰爭이나 事變이 勃發하면 物價는 치솟아서 昂騰하기 마련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日本國의 支配下에 있었기 때문에 經濟的인 影響이 컸었다. 그 支那事變이 大東亞戰爭으로 戰域이 擴大되었으며, 또 第二次世界大戰으로 世界化되었다.

物價는 種類에 따라 달랐지만, 食糧같은 것은 1年 동안에 倍額으로 昂騰하였으며 帛판에는 3個月마다 倍加로 오른 때도 있었다. 主로 신발과 被服類等 生活 必須品의 物價가 많이 치솟았다. 그리고 6. 25 事變이 터지자 物價는 또 치솟았고, 이와 같이 物價가 오른 만큼 俸給을 增額해 주기는 財政 形便上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었다. 한 번 올라간 物價가 下落하는 일은 한번도 經驗해 본 일이 없다.

朴正熙 大統領 時節에는 公務員들에게 現穀으로 家族數에 따라서 配給해 주었기 때문에 主婦님들의 이마의 주름이 펴지고 俸給者의 生活이 多少 活氣를 띄게 되었다. 이 配給은 每月 定日에 實施되었다. 그 後 全斗煥 大統領 時節부터는 公務員의 處遇가 제법 軌道에 오른 것 같았고, 物價를 잡았다는 것은 庶

民群像의 生活에 好影響을 주었다. 1997年 現在에는 公務員의 報酬가 어느 정도 正常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軌道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이다 보니 나의 敎職生活은 窮乏과 苦痛 生活 바로 그것이었다.(물론 餘他 全公務員이 同一한 條件이었으리라) 그러니 結婚 後에 나의 妻의 苦生과 苦痛도 形言할 수 없는 地境이었다. 그래도 妻는 一切 잔소리나 不平不滿을 表示하지 않았다. 나는 그 點을 지금까지도 매우 感謝하게 생각한다. 子女들의 學費때문에도 困難을 甚히 當했으며 子女들도 또한 苦生이 많았으리라. 그러나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나의 이러한 苦痛을 眞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田畝를 처분해서 어떻게 해 볼 생각은 秋毫도 해 본 적이 없다.

자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물을 처분하여 소모한다는 것은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대꼬바리(곰방대)로 담배를 피운다. 停年退任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려고 곰방대에 풍년초를 넣어 喫煙을 하였는데 완전히 習慣이 되어버린 것이다.

公務員職에 있는 사람은 報酬의 高下에 關係치 않고서 本務에 全力投球하여 國民이 秋毫도 動搖치 않도록 하여 國利民福을 助長하는 人間이 되어야 하리라. 公務員은 國家의 興亡을 左右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모든 公務員은 常時로 忍之, 戒之, 慎之, 警之할 것이며 國家·政府에서도 時宜에 適合한 報酬 方案을 銳意 考慮해야 할 줄로 생

각하는 바이다.

내가 이와 같은 窮乏한 敎職生活을 하던 중에 先妣의 喪을 當했고 後에 未成娶한 男동생 하나와 未出嫁한 女동생 둘을 結婚 시킬 때에 物質的으로 잘 해 주지 못한 점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섭섭하고도 미안한 마음 懇切하다. 그리고 父母님 살아 계실 제 孝道 한 번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하였음이 나의 畢生의 恨이 된다.

이러한 困窮한 敎職生活을 하는데 그 긴 歲月동안 짜증 내지 않고 새벽밥 짓고 도시락 準備 等 뒷바라지를 잘 해준 나의 妻에게 깊은 感謝를 드린다.

이러한 敎職生活이었지마는 나는 絕對로 後悔는 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 自身の 選擇이었고, 또 부처님께서 나에게 啓示 委託하신 業이라고 回顧할 때에 오히려 보람있는 生活이었다고 感謝할 따름이다.

이제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는 餘生을 우리 夫婦가 健康에 留意하면서 보람있고 즐거운 餘生이 되도록 努力할 따름이다.

이제 긴 담뱃대에 담배나 한 대 넣어서 물고 밖에 나가서 花盆이나 한 번 둘러 보자꾸나.

24. 退任 後의 나의 生活

退職한 後에는 結婚式 主禮를 자주 맡아서 했다. 이 主禮는 在職時에도 자주 맡아서 50回 정도 해 보았다. 주로 土曜日 午後이거나 日曜日 11時頃부터 始作되는데 때로는 土曜日, 日曜日 이 아닌 때도 間或 있었다. 한때는 太和禮式場에서는 내가 專屬的으로 主禮를 맡아서 土曜日에는 普通 한 件 或은 2件씩

이 있었고, 日曜日에는 午前 11時부터 시작해서 午後 3時까지 4件씩이나 맡은 일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主禮를 맡은 件數는 大概 800餘件이다.

또 每日 一定한 經營事가 없기에 每日을 無聊하게 消日하기가 딱해서 8個의 契 모임에 加入하였다. 그러니 每月 8회는 親舊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1994年 12月 17日(陰 11月 15日) 土曜日 12時에는 우리 夫婦의 結婚 50週年인 金婚式을 兼하여 나의 妻의 칠순 잔치를 新亭洞 所在의 올림피아 호텔 三層 大宴會室에서 開催하였다. 이것은 子女들이 期於코 해야겠다는 意思에 依해서 實施된 것이다. 우리 夫婦는 共히 還甲과 進甲잔치를 치루지 않았다. 事實은 그때마다 子息들이 宴會를 베풀겠다고 하였지만 우리 夫婦는 말하기로 “우리가 무슨 八字가 좋은 사람이냐, 또 社會的으로도 與件이 좋지 못하니 하지 말라”고 말렸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내 妻가 70歲이고 보니 子息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父母님의 還甲 進甲잔치도 한 번 베풀지도 못하였으니 이번에 어머니의 七旬마저 못하면 저희들은 社會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으며 父母님의 親舊분들을 모시고 술 한 잔 나누어 올리지 못하게 되니 千秋에 恨이 되겠습니다”하기에 우리는 默默不答했더니 이루어진 것이다. 손님께서 約 5百餘분이 參席해 주셔서 大盛況을 이루었다.

다음은 당시 ‘儒林 晚惺契’ 會長이신 林下 李樹福 先生께서 作詩한 金婚牌의 內容이다.

浮生人間未百年

七旬金婚白頭新

新亭今日佳宴席

遠客親近祝壽連

蘭玉滿庭獻酌處 班衣彩舞夕陽天
勸酌樽酒無窮樂 地上仙仙老自然

뜬 구름같은 세상 인간은 백년을 살지 못하는데
칠십에 금혼식을 올리니 흰머리카락이 새롭다.

신정마을에 오늘 아름다운 연회석이 베풀어지고
수연 축하하는 먼곳의 손님과 가깝고 친한 벗들 이어진다.

자손들이 뜰에 가득하여 술잔을 올리는 곳에
색색의 춤추는 옷들은 하늘에 비치고

잔을 권하는 한없는 즐거움은
지상의 신선들의 늙은 그대로더라.

그리고 1995년과 1996년 2年間은 別紙 世界旅行에 詳記했듯
이 世界旅行을 우리 夫婦가 同伴해서 다녔다.

25. 나의 號는 ‘春溪’ 이고 字는 ‘樂瑞’ 이다. 官名은
在萬이요, 宅號는 ‘泉谷宅’ 이다.

大體로 人間에게는 名號가 있어야 하는 法인데 이 名號에도
어릴 때에 부르는 兒名이 있을 수 있고 正式으로 戶籍上에 登
記되는 官名이 있다.

또 字號가 있다. 普通 字라고 하는데 男子가 成人이 되거나
또는 年歲가 많으면 함부로 官名을 부르기가 어색하므로 字를

부르는 것이 普通인데 이 字는 年長者나 平交間에서 서로 呼稱하는 것이며 年下者가 年上者의 字號를 부를 수는 없다. 字는 父가 짓는 것이 常例이다.

다음은 號가 있다. 號는 社會的으로 人望이 높거나 德識이 豐滿한 人格者에게 德識이 높은 어른께서 作號하는 法이다. 다음은 諡號이다. 諡號는 임금, 政丞 또는 儒賢들의 功德을 기려 죽은 後에 주는 이름이다. 그러나 現世에서는 그것과 關係 없이도 社會的으로 德識이 多少 높은 數多한 사람에게도 號를 붙인다. 이 外에도 別名이 있다. 구두쇠나 자린고비라고 하는 것도 別名이다.

또 宅號가 있다. 宅號는 보통 妻의 出生·成長한 洞里名을 따서 붙인다. 그러니 나는 泉谷宅이다. 내가 普通學校 1學年時節의 일이다. 그때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가마실(釜谷)이라는 7家口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서 學校에 다니는 사람은 나 한 사람 뿐이었다. 1學年을 마치고 3月 25日 부터 一週日間은 봄 放學이었다. 봄 放學을 마치고 4月 1日부터는 新學年이 始作되는데 一週日間の 放學동안 잘 놀다보니 이웃에 아무도 學校에 가는 사람이 없어서 나도 그만 學校에 가기 싫어졌다. 집에서는 學校에 간다 하고 나갔으나 途中에 있는 길다란 堤防까지 가서는 登校를 拋棄하고 堤防 위의 잔디에 앉아 놀아 버렸다. 잠시 뒤에 보니 저쪽에서 祖父님께서 韓服을 正裝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계셨다. 나는 祖父님께 들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는 시내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시내가 구비치는 쪽으로 가서 숨었다. 나는 祖父님께 發覺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서 午後 2時頃에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는 泰然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척하고 소리 높여 책을 읽

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祖父님께서 돌아오시더니 衣冠을 벗으시면서 ‘애 이놈’ 하신다. 그것으로 그날 밤은 말없이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에 登校하여 첫째 時間 授業을 하는 中인데 教室 出入門이 스르르 열리더니 祖父님께서 教室로 들어 오셔서 擔任인 崔文載 先生님께 가시더니 꺾속말로 몇 말씀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에는 擔任 先生님께서 “李在萬! 이리 나와” 하신다. 나는 ‘결국 當하는구나’ 생각하면서 教壇쪽으로 나갔다. 擔任 先生님께서서는 막대기를 들고 “너 어제 왜 學校에 안 왔어” 하신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事實 그대로를 말씀 드렸다. “며칠 放學이라 놀다 보니 우리 이웃에는 學校에 가는 동무도 한 사람도 없고 하니 혼자서 學校에 가기가 싫어서 途中에서 놀았습니다”하고 말씀 드렸더니 아랫 종아리를 걷으라 하시고는 無數히 때리신다. 나는 매 한 대 맞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怨望스러웠고 알미웠다. 나는 아픔에 못 이겨 실컷 울었다.

그 後 歲月은 흐르고 흘러 나도 世情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25歲때이다. 族譜를 다시 修譜한다며 ‘字가 무엇이냐 號는 무엇이냐’ 하기에 나는 字는 ‘樂瑞’이고 號는 ‘春溪’라고 해서 族譜에 올렸다. 字는 내 생각에 문득 떠올라서 樂瑞라 했고 號는 祖父님께서 人間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擔任 先生님과 相議하셔서 나를 罰받게 하신 일을 늦게나마 悔悟하여 봄에 시냇가 堤防에서 놀았다 해서 나의 號를 ‘春溪’라고 내 自身이 스스로 作號한 셈이다. 나의 祖父님께서 孫子를 人間 만들려고 생각하셨던 그 지극하신 精誠을 높이 받들기 爲한 나의 心情에서이다. 봄에 시냇가에서 놀았다 해서 ‘봄 춘’ 字와 ‘시내

계'字를 따서 '春溪'라고 하였다. 그리고 春溪는 거울에 얼었던 시냇물이 녹고 하니 萬事가 잘 解決된다는 뜻도 內包되어 있으니 얼마나 멋있는 號인가 말이다.

또 하나의 號가 있으니 '元堂'이다. 이것은 長男 泰鍵이가 서울에서 어떤 哲學家가 지어 주더라는 것이다. 나는 나의 號 '春溪'를 所重히 간직하고자 한다. 나의 이름은 그저 在萬이다. 兒名도 官名도 在萬이다. 이 在萬이란 官名은 나의 祖父님께서 作名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의 妻 金聖禧의 出生 生長地가 泉谷里이기 때문에 우리 夫婦의 宅號는 妻의 故鄉인 泉谷洞名을 따서 '泉谷宅'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일컬었다.

26. 果樹園 經營

나는 原始農耕法에는 몸서리가 쳐지고 실증이 났다. 밭農事의 경우 가을에 보리를 심고 여름엔 보리를 베어내고 콩심기를 하고 가을에 콩을 베어내고는 또 보리심기를 하는 이러한 農法이 在來式農法이며 어려운 살림살이에 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果樹園을 해보고 싶었다. 1962年 三湖國民學校 校長으로 勤務하던 時期였다. 3月 27日, 卽 學年末인 春期放學에 나는 大峴面 夫谷洞에 있는 約 2,000坪의 밭에 배나무 苗木을 심었다. 3年生을 210株 심었다. 種類는 '晚三吉'을 180株, '新號'를 20株, '長十郎'을 10株 심었다. 첫해에 새싹이 나와서 잎이 푸르고 새가지가 뻗어 나올 때에 나는 새로운 希望에 부풀었다. 藥을 쳤다. 다음해부터는 가지가 제법 많이 뻗어 나왔다. 3年째 되던 1964년에는 봄에 꽃이 피었다. 農藥을 1년에 5번 撒布하였다. 나무의 充實한 成長을 위하여 열매는

全部 따버렸다. 나무가 자라갈수록 일은 많아졌다. 4년째 되는 1965년 봄 3월 下旬에는 每日 人夫를 3, 4人씩 불러서 施肥를 하였다. 나무의 둘레를 半徑 1m 되도록 구덩이를 幅 30cm, 깊이 30cm되게 파고 벗짚 썩힌 거름을 많이 넣고는 그 위에 尿素肥料을 1리터씩 뿌려서 흙을 덮었다. 이 벗짚 거름은 벗짚에 다 鷄糞과 豚糞을 섞어가면서 겨울 내내 썩힌 것이다. 그 다음 해 부터는 施肥의 量을 漸次로 늘려야 할 판이 되니 8년째쯤 되니 나무 한그루當 벗짚거름이 가볍게 한 리어커 가까이 넣어야 하고 金肥인 尿素는 2리터를 넣어야 했다. 그리고 그 해에는 支柱를 세우고 굵은 鐵絲줄을 쳐서 배나무 가지를 철사줄에 따라 매어 달아야 했다. 그 해부터는 배를 收穫하기 爲하여 藥을 1년에 5, 6次로 撒布해야만 했고 病蟲害 防止를 위해 新聞紙로 만든 封紙를 열매마다 덮어 씌웠다. 이 봉지 씌우기도 처음에는 작은 봉지를 씌우고 2번째 봉지는 배열매가 成熟해도 봉지가 破裂되지 않을 정도의 큰 봉지를 씌워야 하니 1년에 2번 씌워야 했다. 그리고 이 봉지도 一部는 組合을 통해서 사고 一部는 新聞紙를 사 와서 집에서 만들었다.

이러고 보니 10년째 될 때 까지는 年年이 營農費만 支出되었고 收入은 全然 없었다. 아주 長期的인 計劃이어야 했다. 15년째 부터는 支出과 收入이 맞먹을 정도였고 그 다음해 부터는 多少間 收入이 조금씩 생겼다. 그러나 그 남은 收入이 있어도 15坪짜리 배 貯藏倉庫를 建築하고 보니 또 缺損이었다. 더욱이 모터 購入, 배 箱子 購入 등 連續的으로 物資購入이 必要했다. 監視所라고 해서 房 1間을 마련했다. 어느 해에는 여름 날씨가 長期間 가물어서 나무 한그루마다 둘레를 파고서 연못의 물을 揚水하여 밤에 계속 물을 주었다. 물론 머슴과 나 두

사람의 作業이었는데 밤에는 머슴은 잠자게 하고 나 혼자서 機械로 揚水한 물을 100m나 되는 호스로 나무마다 차례로 주었다. 한나무에 4分동안 물을 주고 보니 하룻밤 동안 물을 주어도 120株밖에 물을 주지 못했다.

이러고 보니 그 해 10月末에 秋收를 할 때에는 누구집의 果實보다 우리의 果實이 크고 色도 좋았다. 그 이듬해 과일을 모두 販賣하고 나니 總收入이 貳百八拾萬원으로 最高收入이 되었다. 現在 時價로 따지면 約 四千萬원인 셈이 되었다. 이와 같이 果樹園 經營을 할 즈음 精油工場과 石油化學工場團地에서 發生하는 公害로 因해서 到底히 果樹園 經營이 어렵게 되었다. 잎이 크게 자라지 않고 잎과 열매에 黑色의 斑點이 發生하며 열매의 光澤이 없고 黑綠色이 되며 열매가 굵지 않아서 投資해서 營農해 봤자 支出經費보다 收入金이 半도 되지 않을 뿐더러 作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1987년부터 耕作을 拋棄해 버렸다.

※ 反省 - '일땀질을 하려거든 果樹園을 하라.'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이 農事는 모든 것이 重量의 荷物自體이다. 거름 施肥도 重量이요, 果實(열매)도 重量이요 하니 運搬하기가 여간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다. 나의 妻도 果樹園을 하는 동안에는 奴隸같은 生活이었다. 人夫들의 점심과 새참 準備, 배 運搬, 굵기의 選別, 꼭지 除去, 保管管理, 出荷 等 苦生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금도 回想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이제는 果樹園하고는 作別이다. 벌써 11年째 休作인 狀態이다.

27. 新亭洞으로 移徙

1976年 5월에 長男 泰鍵이가 現金 貳百八拾萬원을 가지고 와서 “適當한 땅을 하나 購入해 주십시오”하기에 나는 무척 반갑게 생각하였다. 나는 新亭洞에 居住하고 있는 四寸妻男인 金翼鎬氏에게 “宅地를 하나 物色해 주시오”하고 付託했더니 現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紹介해 주었다. 坪當 價額을 알아보니 參萬圓式이라고 하기에 宅地는 面積이 넉넉해야 한다고 判斷하여 100坪을 購入하겠다고 해서 100坪을 分割해서 參百萬圓을 주고 移轉登記를 마쳤다. 그리고 3,4年 동안 그대로 두고 經過하였다. 당시에 夫谷洞은 公害가甚해서 다른 곳으로 移住를 해야겠다고 나는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1979年 長男 泰鍵이가 와서 이야기를 듣고는 “그 土地에 住宅를 建築하십시오”하기에 資金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더니 一部를 負擔하겠으니 建築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500萬圓을 가지고 왔기에 工事を 始作하였다.

그 후 공사가 진행 중에 再次 500萬圓을 提供해 왔고, 完工段階에 접어들어서는 칼라 알루미늄샷시를 전부 大田의 會社에서 製作, 運搬하여 왔다. 建築工事が 1980年 1月 初旬頃에 竣工되었기에 1980年 1月 11일에 이곳으로 移住해 왔다.

여기 番地는 新亭2洞 679-8番地이다. 舊 大峴面 夫谷里 22番地가 나의 出生地이며 成長하고 居住한 곳이었으나 工業地가 되어서 前後 周邊에 工場이 無數히 入住하여 公害 關係로 이제는 마을 全體가 撤去되고 없어졌다. 나는 마을이 撤去되기 約 13年前에 移徙를 하였다.

얼마전 나의 出生地인 夫谷洞의 내가 살던 집을 둘러 보았

는데 벽은 떨어져나가고 풀은 우묵하게 자라서 을씨년스러웠으며 나의 故鄕의 자취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人生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28. 祖父母님과 伯父母님과 父母님의 墓所 移葬

夫谷洞에 계시던 祖父母님과 伯父母님, 父母님 6位의 墓所를 1994年(甲戌年) 上天(冬) 10月 1日에 斗西面 西河里 山으로 移葬하여 모셨다.

본래 蔚山 南區 夫谷洞의 山地는 祖父母님께서 구입한 山地였는데, 지금은 公業지역으로 지정되어 동네가 모두 철거되고 墓所도 언젠가는 移葬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兄님이나 나는 墓所 移葬 관계로 오랫동안 많은 苦悶을 하여 왔으나 마땅한 山地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였었다. 더욱이 나의 몫으로 된 山地는 이미 軍部隊에 대부분이 매각된 상태에 있었으며 兄弟姊妹들 중에서는 우리 父母님을 移葬해서 모실 자리는 내가 별도로 山地를 買入하여 모셔야 된다고들 말하고 있었다. 事實 나는 兄弟姊妹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부터 父母님 墓所를 移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山地를 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으며, 나의 兄님은 兄님대로 山地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心血을 기울여 오고 계셨다. 그래서 兄님 在和씨는 여러 곳을 物色한 끝에 이 斗西面 西河里의 山地를 買入하시게 되었고 이와 비슷한 時期에 나도 慶州郡 梁南面 水念리에 조그마한 山地를 하나 買入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의 兄님께서서는 이와 祖父님과 伯父님(형님의 養父母)과 함께 우리 父母님도 한 곳

으로 移葬해 모시자고 懇曲히 말씀하시기에 내가 西河里 山地를 둘러보니 나의 마음을 끝만한 好地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兄님의 정성과 노고 그리고 이미 買入 完了된 상태임을 勸案할 때 그런 내색은 할 수 없었다. 또한 나의 子息들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시하며 ‘먼 훗날의 直系後孫들을 생각하여 아예 우리가 구한 山地에 별도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비록 養子로 入養하긴 했지만 親父母님을 모시고 싶어하시는 兄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子息들의 主張도 타당한 말이었다.

나는 深思熟考 끝에 별도로 모시기로 하고 兄님께 말씀드렸더니 怒發大發하시면서 ‘그렇게 따로따로 移葬해 모셔 놓으면 他人 보기에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하시면서 너무나도 頑強히 말씀하시기에 나는 결국 내가 買入한 山地를 두고도 兄님의 의사에 順從하여 이 斗西面 西河里 山地에 같이 移葬하여 모시게 되었다. 兄님께서는 이 山地를 買入한 후 중장비를 동원하여 田畚의 정지작업을 監役하시는 등 많은 勞苦를 하셨다. 尊石의 글씨는 내가 祖父님으로부터 글을 배웠기에 잘 쓰던 못 쓰던 孫子인 내가 써야겠다고 생각하여 내 손으로 글을 썼다. 그리고 移葬 費用과 重裝備 動員費用, 尊石, 碑石 등과 石築費用은 兄님과 내가 共同負擔으로 하여 長男을 시켜 돈을 傳해 드리면서 ‘큰아버지, 이번 일에 정말 勞苦가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올려라 하였다. 이로서 6位분의 移葬을 마쳤다.

29. 結婚式 主禮辭 一例

『오늘 날씨가 典型的인 韓國의 봄 날씨입니다. 百花가 爭發하는 季節, 이러한 좋은 날을 卜日 하여 新郎 李00君과 新婦 金00嬢의 結婚式을 올리게 되었음을 이 主禮는 眞心으로 먼저 祝賀를 드립니다. 自古로 ‘結婚은 生民之始요 萬福之源’이라 말하여 子息을 낳아 기르는 始作이요 一萬가지 福樂이 여기서 부터 비롯된다고도 말했으며 또는 二姓이 好合하여 設家繁昌이라 卽 두 姓氏가 서로 좋아서 結合하여 하나의 家庭을 이루어서 子孫이 繁昌해 나가는 出發이 바로 結婚인 것입니다. 新郎과 新婦가 祖上 代代로 이어 내려와서 태어났듯이 앞으로 또 代를 이을 아들, 딸을 낳아서 繼繼承承 먼 훗날까지 家系를 이어주어야 할 責務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大宇宙 自然의 攝理인 것입니다.

이러한 責務를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사랑이요, 두번째가 和樂이며 셋째가 믿음이 前提條件인 것입니다. 또 以上の 前提條件이 中斷됨이 없이 또한 평생동안 變質되지 않고 持續되어야 하며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그 濃度가 짙어져야 하며 그 和親의 密着을 더해 감으로써 夫婦의 和樂과 幸福이 永續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첫째로 오늘 두분이 夫婦로 結合되게 한 因緣을 所重하게 생각할 것이며 大宇宙 自然에 百年토록 感謝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因緣生起因緣滅이란 不二의 眞理를 理解하며 因緣을 感謝하게 생각하십시오. 둘째로는 忍耐로 살아 가십시오. 어떠한 境遇에도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孔子님께서도 ‘夫婦가 참고서 살아 나가야 百年을 偕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째로는 日月年이 지

나고 더할수록 사랑이 깊어져가야 합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서로의 人格을 尊重해야 합니다. 어떠한 境遇라도 相對方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픈 傷處를 주는 言動은 平生토록 삼가하십시오. 네번째로는 서로는 거짓과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父母님께 孝道하십시오. 그래야만 家庭에 平和가 維持되는 것입니다.

以上 다섯가지를 刻骨銘念하고 躬行하여 두분 夫婦는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되어 白髮이 되도록 一萬가지 福樂을 즐기면서 幸福하게 百年偕老하시기를 祝禱하면서 이만 主禮辭를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 本人이 1983년부터 1994년까지 約 800雙의 結婚式 主禮를 맡아 보았지만 그 後 間或 聞所聞하니 잘들 幸福하게 살고 있다고 하여 마음 한편으로 흐뭇하였다.

30. 蔚山南部警友會 結成 大會辭

『오늘 平素에 尊敬하옵는 南部警察署長님을 비롯하여 貴賓 여러분을 모시고 蔚山南部警友會 結成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同時에 會員同志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貴重한 時間과 場所에서 우리는 過去에 對한 回顧를 해 봄과 同時에 現在를 考察하며, 또한 未來 指向像을 그려보는 것도 또한 無意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릇 警察의 職務는 여러분께서도 十分 理解하시다시피 社會의 安寧 秩序를 維持保全하는 責務가 重且大함과 同時에 人間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先鋒의 役

割인 것은 分明한 事實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社會를 莫論하고 善과 惡의 鬪爭狀態를 持續하고 있습니다. 過去의 歷史가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 現狀은 不動인 實情입니다. 아니 未來도 善惡의 相關가 繼續될 것입니다. 우리 警友會員一同은 過去에도 善의 便에서 善을 鼓舞助長하면서 惡은 斷乎히 膺懲粉碎하였으며 未來에도 善을 顯揚鼓吹할 것이며 惡은 決斷코 打擊滅殺할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過去에 警務一線에서 眞理에 立脚한 破邪顯正의 大道를 걸어 왔습니다. 警察 業務가 一般社會의 一部 市民이 外形上으로 볼 때에 威壓的이고 또는 奢侈스러운 職務라고 보기 쉬우나 其實은 그러한 職業이 絶對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體驗하였습니다. 때로는 親切한 奉仕者요, 案内人이요 때로는 犧牲的인 職務인 것입니다. 無私爲公이 警察의 服務信條라는 點은 過去나 現在, 未來를 相通하여 生活信條인 同時에 永劫不變의 眞理인 것입니다. 우리 會員一同은 過去의 우리의 服務理念이 이러한 無私爲公의 姿勢에서 秋毫도 離脫한 點이 없었다고 스스로 自負感을 禁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警察人은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난 적은 없었고, 두 사람이 한사람으로, 세사람이 두사람으로 人生의 生命의 數가 줄어든 적이 흔히들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犧牲的인 職業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本意 아니게 誤解를 받거나 大衆의 沒理解속에서 허덕인 바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點보다는 人類社會에 高次的인 附加價値를 增大形成시킨 點이 더욱 多大하였음에 우리 退役한 警察人은 지금도 矜持를 가지고져 하는 바입니다. 特히 6.25動亂 前부터 蠢動하던 共匪들과 6.25事態 당시에 赤匪 掃蕩戰에서 우리 戰友가 共匪賊徒들에게

受侮犧牲되었음이 무릇 幾何며 共匪徒黨에게 男便을 或은 어 버지를 或은 아들을 잃은 卽 아픈 슬픔을 안고 오로지 忍耐와 苦痛을 참으며 意志로서 살아가는 家族이 무릇 幾何입니까? 모두가 이제는 지나간 過去일 뿐입니다. 이러한 卽저린 心情과 心靈上의 傷處를 무엇으로 報償하여야 하며 報償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裂身報國하고 他界하신 先輩, 同僚 戰友 諸位께 깊이 머리 숙여 哀悼의 痛情을 表함과 同時에 길이 冥福을 빌면서 遺家族 여러분께 眞情어린 慰勞를 드리는 바입니다.

同志 여러분! 지금은 第五共和國의 大道가 眼前에 展開되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過去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眞理를 逸脫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現時點에서 眞理를 信奉하며 또한 實踐行動함으로써 民主, 福祉, 正義 社會 具現에 앞장 서기를 여러분과 함께 刻骨 다짐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同志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結束은 우리들만을 爲한 結束이 絶對로 아니라는 點을 各自가 깊이 省察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國民의 結束의 一環一部라는 것을 銘念하여야 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結束은 그 目的은 우리만의 幸福과 繁榮을 目的하는 것이 아님을 滿天下에 闡明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라에는 滅私忠誠할 것이며, 社會에는 眞實한 奉仕者가 될 것이며 人間에게는 至誠과 사랑으로 引導하며 도울 것을 또 한번 盟誓합니다.

現職 警察官 여러분, 못난 우리들이나마 上述한 바 저희들의 未來指向 精神을 따라 名譽로운 奉仕者가 되어주시며 榮光스러운 職務 遂行人이 되어 주시기를 祝禱하면서 이만 大會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春·溪·漫·步

1982년 2月 25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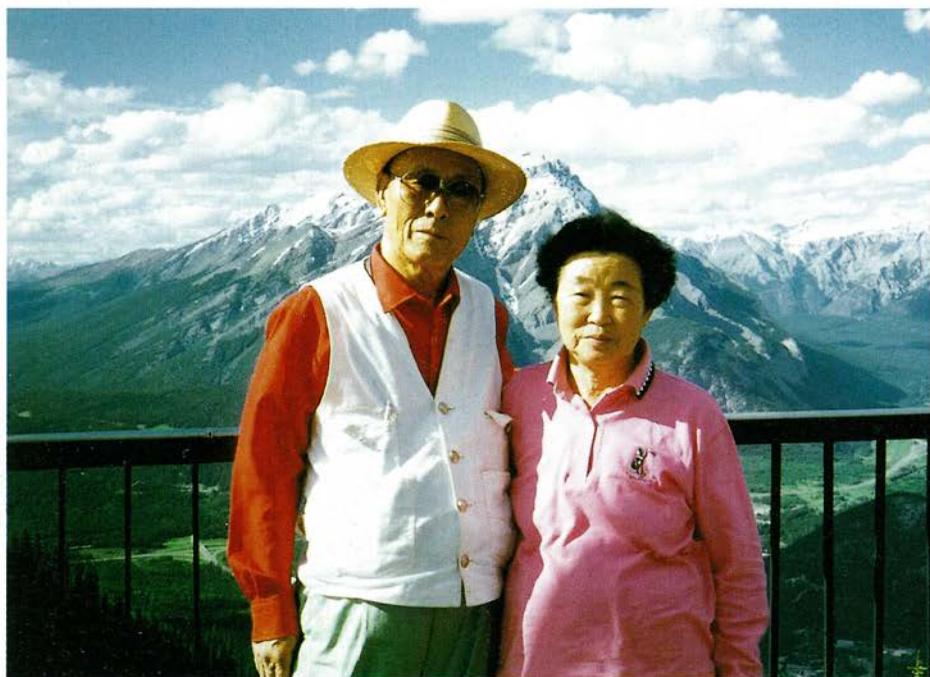
蔚山市 南部 警友會長

※ 委囑을 받아서 草稿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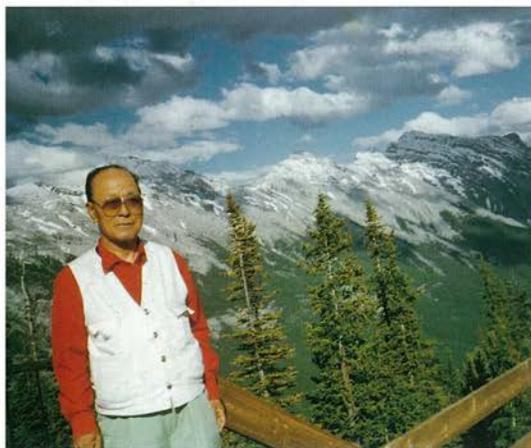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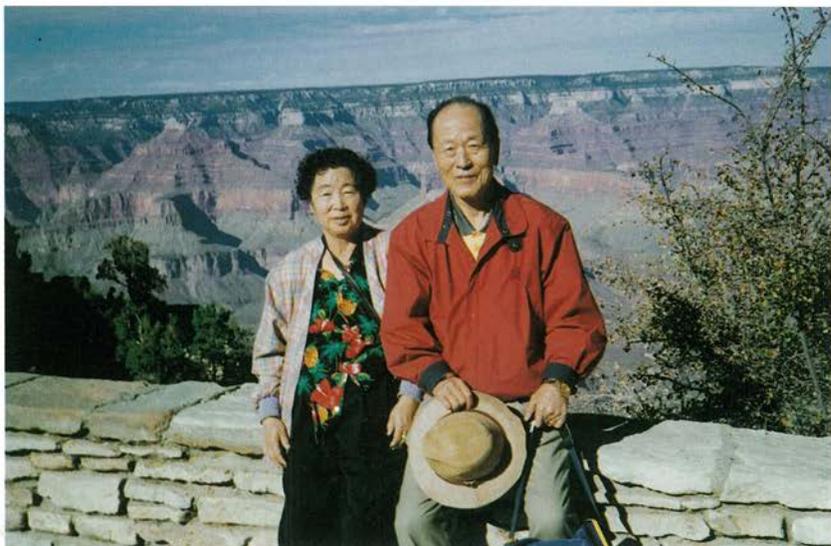


아내와 함께 한
海外旅行의
追憶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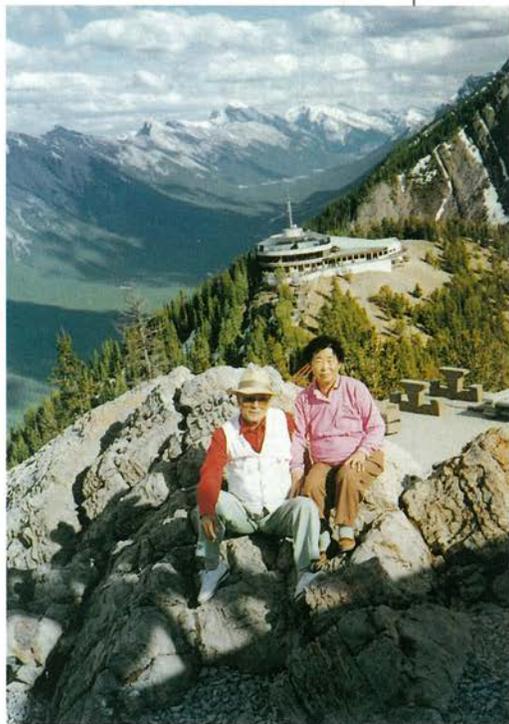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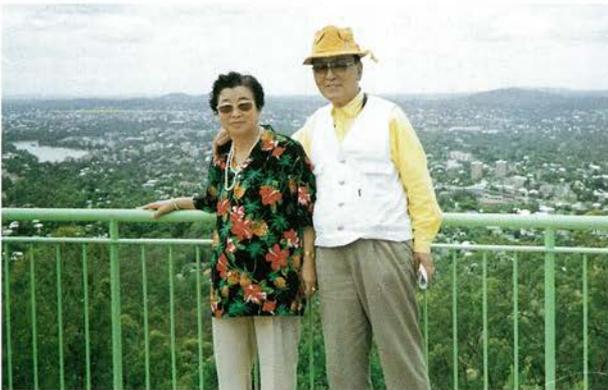


등뒤로 薩摩富士(사쓰마 후지)산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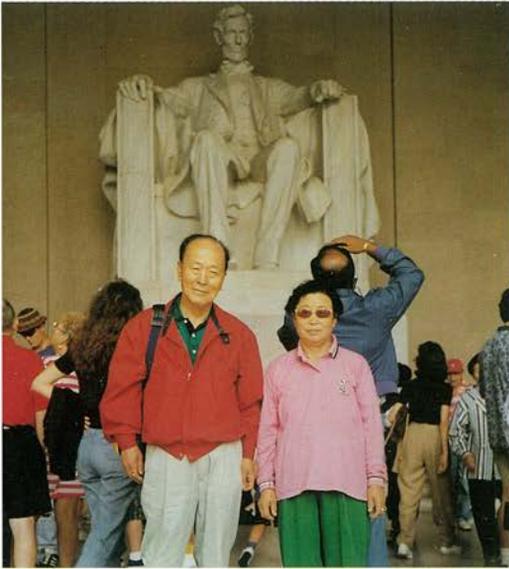


美國 旅行 中
雄壯한 로키산맥의 모습을 보며
自然에 대한 敬畏를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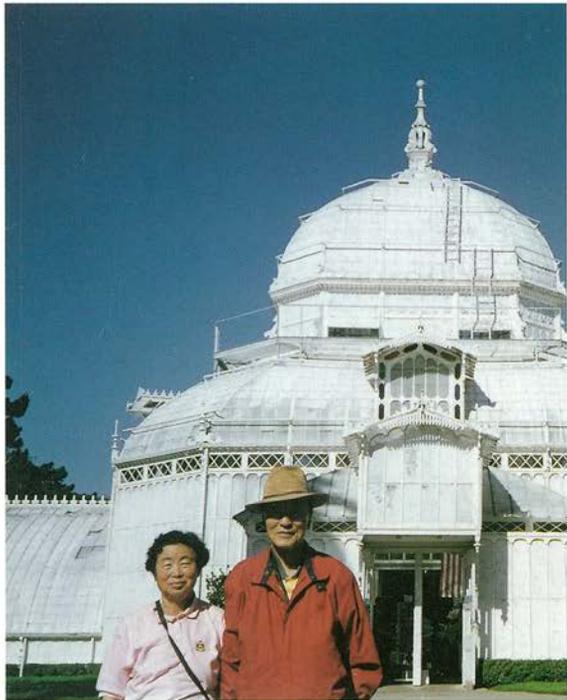




· 나이아가라瀑布 아래를 遊覽하며 (中-左)
 · 캐나다 쪽에서 본 나이아가라瀑布 (中-右)
 · 등 뒤로 멀리 샌프란시스코市街가 보인다.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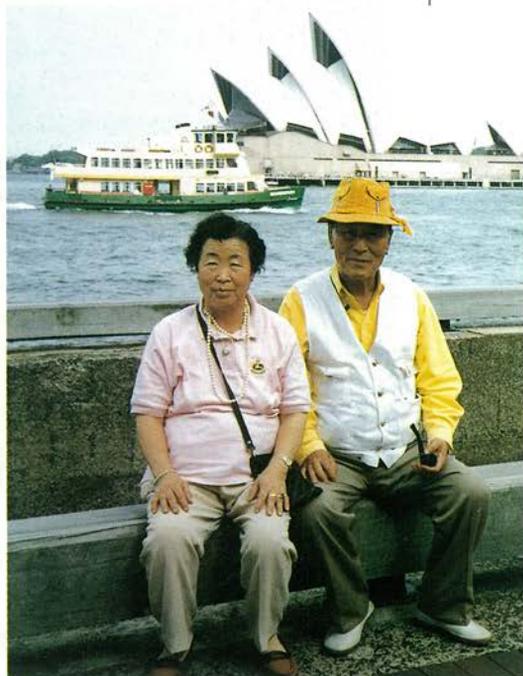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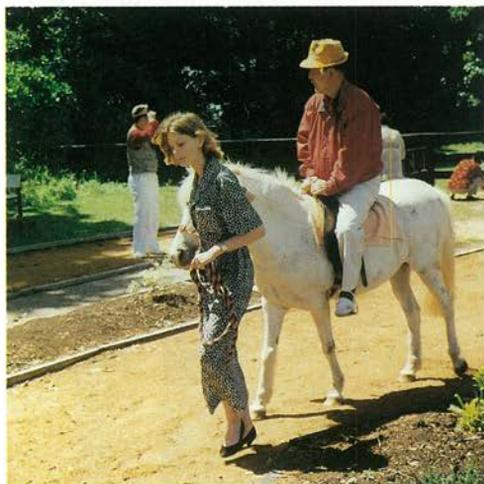
-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上-左)
- 워싱턴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며 (上-右)
- 左側 뒤로 샌프란시스코의金門橋가 보인다. (中)
- 워싱턴 기념관 앞에서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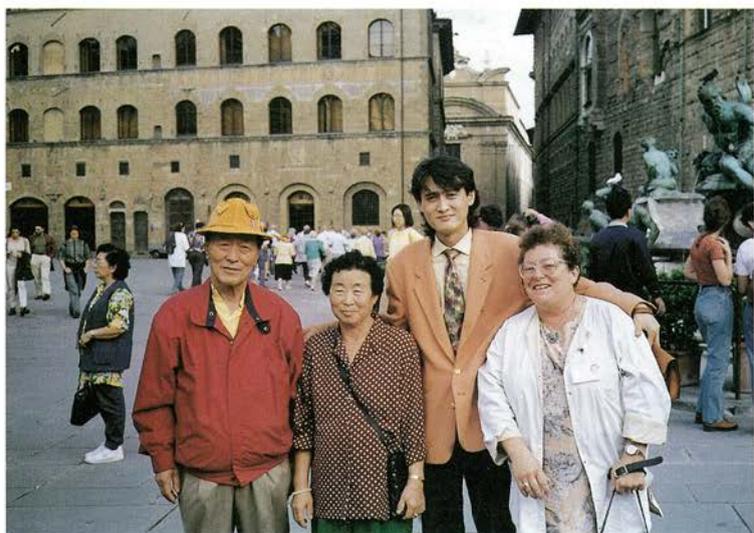


· 록키산맥에서 에이크와 정답게 포즈를 취하며(上-左) · 뉴욕의 유엔
 本部 앞에서 朴校長과 함께(上-右) · 백악관 앞에서 十數年間 韓國의 統
 一을 熱望하고 있다는 外國人과 함께(下)





· 하와이에서, 뒤로 보이는 마을이
 恰似 우리나라 地圖와 비슷하다.(上)
 · 濠洲의 「아보카도」 農場에서
 (下-左)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下-右)



·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風車 앞
에서(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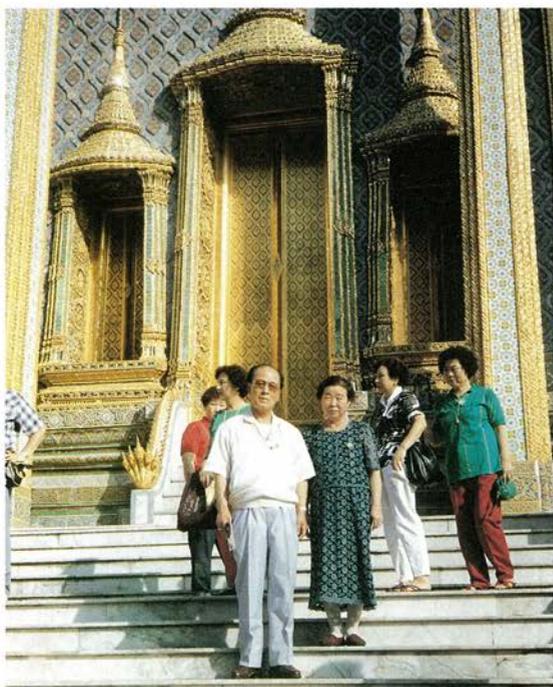


· 中國 天安門과 萬里長城 에서





· 中國 天安門과
 萬里長城 에서
 (左) · 중국의
 두만강 다리
 앞에서(上·右)
 · 白頭山
 天池에서 비를
 맞으며 포즈를
 취해본다(下·左)



· 日本 南九州의
 薩摩富士(사쓰마
 후지)산을
 배경으로
 (上)

· 泰國
 傳統寺院에서
 아내와 함께
 포즈를 취하며
 (下)

해외여행기 (海外旅行記)

우리夫婦는
結婚한지 50년이 넘게 經過되었지만
그간 겪어온 風霜과 苦生,
貧困과 雜多한 苦痛等은
그 누구에 比해서도 酷甚한 것이었다.
우리夫婦는 막내딸을 結婚시킨 後로는
海外旅行을 되는데까지 해보려고
決心을 하였다.
50餘年 同苦同痛했기에 國內旅行이건
海外旅行이건 말할 것 없이
나는 妻를 恒時同伴하기로
마음 먹었다.



1. 第一次 海外旅行 (일본)

큰 女息이 日本東京大學에서 碩士課程은 마치고 博士課程을 履修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日本에 滯留하고 있을 때에 한번 日本에 오셔서 巡遊하고 가십시오”하는 要請이 數次에 걸쳐 있기에 우리 夫婦는 日本觀光을 하기로 決定하였다.

◦ 1985年 8月 1日

여름 休暇 中이었다. 나 自身이 停年退任을 하기 1年前이었다. 우리는 짐을 簡單하게 꾸려서 金海空港에 到着하였다. 出國手續을 마치고 日本 成田空港까지 票를 購入하여 飛行機에 搭乘하였다.

8月 1日이었다. 海外旅行은 오늘이 처음이다. 나는 어린이 마냥 가슴이 두근거렸다. 飛行機는 서서히 움직이더니 離陸하였다. 저 아래로 바다가 보인다. 내 妻는 窓 쪽에 앉아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가 日本에 가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다.

드디어 日本의 陸地가 보였다. 成田上空에 이르러서는 서서히 旋回하더니 不息間에 着陸하였다. 出國手續節次를 마치고 나갔다. 큰 女息이 마중을 나와 주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

르겠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東京市內로 들어갔다.

그때는 큰 女息이 東京道內의 시부야구(澁谷區) 매구로쵸(目黒町)에 있는 海外 留學生 寄宿舍에서 自炊生活을 하고 있었다. 우리 夫婦는 그때까지는 自炊生活을 하는 줄은 전연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夫婦는 “왜 自炊를 하고 있느냐? 공부하는데 支障이 되지 않느냐? 下宿費가 비싸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일본 政府에서 지급하는 每月의 獎學金으로 생활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下宿이란 때로는 不便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오히려 自炊生活이 편하고 自由로와요” 한다.

우리 夫婦는 여기 寄宿舍에서 며칠을 合同生活을 하기로 작정하고 짐을 풀어 整理를 하고 보니 벌써 午後 2時가 넘었다. 점심時間이 經過했다. 母女는 점심 準備를 하고 있었다.

이 海外 留學生 寄宿舍는 다른 나라에서 日本으로 留學오는 外國學生이 宿食하는 場所이다. 出入하는 學生들의 모습이나 言語를 들어 보니, 黑人도 있었고 白人도 있었고 臺灣人도 있었다. 점심準備가 다 되어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는 午後에는 觀覽할 코스 등을 정하고서는 休息을 取하기 爲해서 누웠더니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

◦ 8月 2日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8時 조금 지나서 우리는 淺草에 갔다가 우에노(上野)公園으로 가기 爲해서 2層 버스를 탔다.

上野公園은 日本에서도 有名한 公園이다. 國立公園이다. 現代美術館과 國立博物館 등 여러 建物들이 잘 配置되어 있어서 調和를 이루고 있다.

噴水臺의 물이 힘차게 시원스럽게 물을 뿜어낸다. 잠시 서서

求景만 하여도 등의 맘이 식는 것 같다. 建物は 外觀만을 대충 볼 따름이지 그 內部는 보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없었다. 樹木과 花草는 정말 잘 整理되어 있어서 觀客으로 하여금 빨리 떠나지 못하게 한다.

百濟 近仇首王때 日本에서 應神天皇이 아라다와케 등을 보내어 學者와 書籍을 請하자 近仇首王의 孫子 辰孫王과 王仁이 함께 論語 10卷과 千字文 1卷을 가지고 日本으로 건너가 오오진(應神)天皇의 太子를 가르쳐 日本에 天文學을 일으키게 했으며 王仁의 後孫들은 西部 日本의 高內(河內)에서 살았다는 王仁의 碑石이 上野公園內에 서 있었다. 정말 百濟時代로 돌아간 사람이 되어 感慨가 無量해서 그 碑石을 背景으로 하여 寫眞을 撮影했다. 리쿠기엔(六義園)은 정말 日本式으로 잘 꾸며진 庭園이었다. 纖細하고 女性的인 숨씨였다. 연못에는 고기와 자라새끼들이 놀고 있었다.

다음은 큰 女息이 博士學位 공부를 履修하고 있는 東京大學을 찾았다. 이 大學은 第二次 世界大戰 終戰後講和會議 때까지만 해도 東京帝國大學이라 불렀으며 日本國內에서도 主軸의 大學일 뿐 아니라, 世界的으로도 有名한 大學이었다. 이 大學의 正門이 빨간색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學校를 아까몬(赤門)이라고 하며 이 學校 出身者를 아까몬대(赤門出)라고, 卽 '빨간門 出身'이라 했으며 많은 優秀한 人材들을 輩出한 學校이다. 여기 出身들이 帝國時代에 政治, 經濟, 産業, 文學, 藝術, 外交 등 多方面에서 中軸 役割을 했으며 大東亞戰爭 등 大小事變들은 이 大學出身들이 考案 企劃한 바가 큰 것이다. 黃河 물을 소가 먹으면 피가 되고 毒蛇가 먹으면 毒이 된다고 말했듯이 優秀頭腦와 實力있는 者가 善良하게 活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 다음은 同大學의 圖書館을 外觀만 둘러 보았다. 대충 둘러 보고는 그만 赤門을 나섰다.

다음은 이계부꾸로(池袋)로 갔다. 여기서는 代表될 만한 곳이 '선샤인 빌딩'이다. 높이가 60층인 高層建物이다. 에리베이터로 60층까지 올랐다. 東京市內가 東西南北할 것 없이 一目에 들어온다. 全部가 平野都市이다. 저 멀리는 집, 建物로 차 있어서 消失點이 되어 끝은 볼 수 없다. 정말 可觀이다.

◦ 8月 3日 日光(닛코)

오늘은 아침밥을 7시에 먹었다. 더운 季節이라 시원한 아침 일찍부터 活動하기 위해서이다. 아사구사(淺草)驛에서 汽車를 타고 갔다. 日光까지 가는 途中의 道路 左右邊에는 全部 都市의 連結이었다.

이윽고 닛꼬(日光)에 내렸다. 먼저 '쥬-젠지코(中禪寺湖)'는 제법 널찍한 湖水이다. 다음은 '개곤노다끼(華嚴之瀧)' 瀑布이다. 學校에서 배울 때는 雄壯할 것이다 했는데 와서 보니 가느다란 물줄기가 제법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는 '도오쇼오구(東照宮)에 둘러보았다. 아주 燦爛한 建物이었다. '쥬젠지(中禪)' 절에 들어가는 大門채는 二層으로 되어 있었으며 온통 빨간 塗色이었다. 이 東照宮은 日本 '에도바쿠후(江戶幕府)'의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建立했으며 그의 墓도 저 뒤편에 있다. 人傑은 가고 없고 山川만 依舊하다. 우리 一行은 午後 좀 일찍 宿所로 돌아 왔다.

◦ 8月 4日

明治神宮으로 갔다. 이 日程은 큰 女息이 짜맞춘 것이다. 電

車를 타고 갔다. 내려서 보니 樹木이 많았다. 스기木(杉木)이 제멋대로 자랄대로 자라서 꼭대기가 가물가물할 정도로 높이 자라서 두 세 사람이 팔을 벌려야만 겨우 안을 정도로 굵고 큰 나무들이 탐스러웠다.

이 明治神宮은 現 日本王의 曾祖父 되는 사람이起居하던 場所로서 그 당시 西洋文物을 받아들여 所謂 明治維新을 導出해낸 말하자면 自己나라 사람들이 '英主'라고 말하는 사람의 宮이다.

다음은 日本王이 居住하는 皇居를 찾았다. 옛날에는 宮城이라 불렀는데 第二次大戰 終戰後부터는 民主主義의 影響을 받아서인지 皇居라 일컫고 있다. 東京道內가 水平線같은 平地인데 이 皇居자리는 높지도 않는 丘陵地이다. 둘레에는 아름다리 바위들로 높이가 12, 3尺 되게 石築을 堅固하게 築城하였고, 그 城의 바깥쪽 땅에는 빙 둘러 가며 깊게 壕를 파서 물을 恒常 3m 정도로 깊이 채워둔다고 한다. 그러니 外侵을 當할 憂慮가 없는 것이다. 숲이 우거진 가운데 二層집 皇居의 白色壁이 鮮明하게 떠올라 보임이 幽邃한 맛을 자아낸다. 이 皇居를 出入할 때는 壕 위로 놓여 있는 다리를 利用하여 出入한다. 다리가 두 개로 二重으로 되어 있다.

暫間 걸어오는 途中에 道路의 한 가운데서 젊은 青春男女가 路上쇼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서서 뛰는 놈, 앉아서 뛰는 놈, 누워서 回轉하는 놈, 구르는 놈, 空中回轉을 하는 놈, 가지 각색으로 차례로 演出하고 있었다. 車輛通行도 없었다. 아주 熱中해 있었다. 우리 一行은 많은 사람과 함께 심심풀이로 한 참동안 求景하였다. 물구나무서기, 마루運動도 하였다. 길바닥에 毛布를 깔아 놓고 演技를 하는 中이었다. 젊은 男女가 스트

레스를 풀고 있는 것 같았다. 白人도 있고 黑人도 出演하고 있었다. 물론 黃色人도 놀고 있었다. 時間가는 줄 모르고 求景했다. 다음날은 피곤하여 하루 쉬었다.

◦ 8月 6日

오늘은 딸아이가 ‘하꼬내(箱根)’로 가보자고 하여 朝食을 마치고 8時頃에 出發하였다. 電鐵를 타고 이윽고 달리니 漸次로 山間쪽으로 접어 들어간다. 山間을 들어가기 前에 버스를 또 바꾸어 탔다. 山허리를 따라 굽이굽이 돌아서 20고비 정도를 돌아 어느 場所에서 멈추었다. 여기서부터는 케이블카로 갈아 탔다. 아래로 내려다 보니 險峻한 山봉우리들이 솟아 있어서 서로가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 萬若에 떨어진다면 하고 생각이 미쳤을 때에 소름이 끼쳤다. 케이블카는 천천히 山마루 넘어서 이번에는 山아래쪽을 向해서 내려 간다. 山의 여기저기에서 溫泉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다. 우리는 케이블카에서 내렸다. 그 附近의 空氣가 후끈거렸다.

한 곳을 가니 溫泉에 달걀을 익혀서 팔고 있었다. 어떤 달걀은 겉 껍질이 새까맣게 탄 것도 있었다. 四方에서 溫泉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점심을 먹었다. 우리들의 점심은 언제나 김밥 아니면 簡單한 도시락 등으로 아침에 집에서 만들어 온 것이다. 물도 집에서 水筒에 가득히 넣어 왔기 때문에 不足은 없었다. 점심 맛이 꿀맛이었다.

四方을 둘러보니 景致는 아름답고 空氣는 맑았다. 大自然의 作業에 한번 또 神祕를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나 神仙이 산다고 하는 閩風瑤池라고는 말하기

싫었다. 또 神仙이 산다고 하는 丹丘라고도 나는 말하기 싫었다. 우리는 午後 3時30分쯤 되어 케이블카를 탔다. 箱根溫泉은 日本에서도 有名한 溫泉이다. 山기슭마다 여기 저기 別莊인듯 住宅인듯 하얀 壁과 기와지붕, 아니면 스라브지붕이 보인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5時가 되었다.

◦ 8月 7日

오늘은 가마구라(鎌倉)가 目的地이다.

日本에는 電鐵이 많았다. 電鐵이 지나가는 道路 위 空中에는 電線이 지나가고 그 電線에서 電氣를 電鐵 위 꼭대기로 받아들여서 車가 進行하는 것이다. 오늘도 電鐵을 타고 ‘가마구라(鎌倉)’로 向했다. 이 鎌倉라는 곳은 옛날에 ‘바꾸후(幕府)’가 있었던 곳이다.

이 鎌倉에도 寺刹이 많았고 神宮도 있다. 連長寺와 ‘하찌만구(八幡宮)’가 차례로 눈에 띈다. 莊嚴하고 嚴肅한 모습들이다. 그러면서도 아주 精巧한 솜씨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충대충 보고 넘어갔다. 다음은 鎌倉宮에 이르렀다. 露天大佛坐像 등을 보고 ‘애노시마(江島)로 갔다.

마린랜드로 옮겼다. 여기에 들어가니 돌고래쇼를 하고 있었다. 日本으로 들어온지 벌써 7日째 되니 疲勞라기 보다 多雜하고 混迷한 것 같아서인지 그것 참 불만하다고 느껴져서 우리는 椅子에 걸터 앉아서 보기로 했다. 사람의 命命과 指示에 잘 따르고 있다. 조금도 失手나 잘못이란 없고 재주를 잘도 부린다. 時時로 拍手소리가 터져나온다. 우리는 끝마칠 때까지 求景했다. 約 30分 經過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水族館으로 갔다. 물개와 其他 여러가지 水族들이 많이 보였으나 우리는

물개쇼에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서 많은 時間을 보냈다. 그 물개쇼를 마치고 나니 拍手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개도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人事를 하고는 양쪽 지느러미로 拍手를 친다. 모두들 계속 박수를 쳤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이깨다(池田) 冰店'으로 들어가서 冷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등의 땀을 식혔다. 그리고 곧 밖으로 나와서 海邊가로 나가서 太平洋 바다 바람을 쏘이면서 "저 건너 아득한 太平洋을 건너면 美國이란 나라가 있는데 우리들 한 平生에 한번 가 볼 수 있을까?"하고 생각이 미쳤을 때에 그것은 到底히 不可能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우리 夫婦는 "에라, 太平洋 바닷물에 손발이나 한번 씻고 가자"하면서 양말을 벗고 발도 씻고 손도 씻고는 바위에 앉아서 손발을 말렸다. 그리고는 또 江島神社를 둘러보고서 午後 4時半頃에 出發하여 5時30分이 되어 宿所로 돌아 왔다. 7時頃에 夕食을 먹으니 아주 밥맛이 있었다.

• 8月 8日

오늘은 筑波科學博覽會를 찾았다. 아침을 먹고 8時 50分頃에 집을 나서서 驛에 나가서 票를 샀다. 여기 日本에서는 賣票人이 없고 票는 全部 自動販賣를 하고 있다. 돈을 投入口에 넣고 보턴을 누르면 票가 自動的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처음 보는 것이 되어서 神奇하였다. 우리는 車에 올랐다. 暫間後에 '쓰꾸바(筑波)' 驛에 到着했다.

驛舍 밖으로 나가니 온통 人山人海였다. 몹시 붐비고 있었다. 人波 속을 뚫고서 먼저 富士通과비리온에 들어 가려는데 여기는 로프로 通路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通路에 先着順으로

一列로 줄을 서서 순서대로 入館하고 있었다. 좁은 空間에서 많은 사람들을 줄 세우기 위하여 그 通路도 一直線이 아니라 꼬불꼬불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우리 家族 3인이 入館하려면 아직도 우리 앞에 待期하는 사람이 150名 정도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하여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던 내 妻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파비리온에 들어가버린 것 같았다.

‘아뿔싸 이것 큰일났구나’ 하면서 우리 父女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까 생각 끝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 場所로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생각하니 저 사람(妻)이 日本語로 通話할 줄은 알지만 結局 우리를 찾아 오지 못하면 어쩌나 몹시 걱정이 되었다. 돈도 한 푼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宿所의 住所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으니 큰일났구나 싶어서 몹시 걱정되었다. 내 딸의 얼굴이 白紙張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 얼굴 또한 마찬가지로 變해 있었으리라. 어떻게 해 볼 方法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장 걱정스럽고도 不安한 時間이 흘렀다. 이윽고 15分쯤 지나고서야 入口쪽에 내 妻의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 父女는 ‘저기’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반갑고도 기뻐다. 호통치고 꾸짖기 보다는 반가움이 앞섰다. 우리 세 사람은 만나서 얼싸안았다. 그러니 自己(妻)는 파비리온館內에서 본 이야기를 한다. 觀覽人은 얼핏 잡아서 3萬名은 넘을 듯한 數字가 되어 보인다. 日本人, 韓國人, 中國人, 白人, 黑人들이 混雜을 이루고 있다. 내 妻는 우리더러 들어가자고 한다. 나는 내 妻를 찾았으면 되었지 이제 求景은 안해도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하도 졸라서 이번에는 三人이 함께 손을 잡고 들

어갔다. 入口에서 선그라스를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適當한 자리에 三人이 나란히 앉았다. 선그라스를 모두 썼다. 또 滿員이 되었다. 演出이 始作되었다. 宇宙創造와 人間의 生成過程 등을 보여주었다. 재미있는 듯도 하고 그저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觀覽하는 동안에도 졸전의 놀란 일이 떠올라서 보는 등 마는 등 하였다.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앞서다가도 모처럼 여기까지 왔다가 볼 건 다 보고 가자는 생각도 뒤따랐다. 우리는 밖에 나와서 점심도 시락을 먹었다. 暫間 休息을 取하는 동안에도 우리 딸은 놀랐던 일이 자꾸만 머리에 떠오르는 모양이다. 되풀이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海外 旅行中에 注意事項 등을 說明해 주었다.

우리는 다시 ‘마쓰시다(松下)’ 館에 들어 갔다. 多樣的 展示品들이 奇怪해 보였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說明書를 다 읽어 볼 時間도 없었다. 다음으로는 先進國들의 展示館들을 대충 들어가 보았다. 美國, 蘇聯, 英國, 프랑스, 中國館 등만 둘러 보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였다. 各國館이 大同小異하였다. 워낙 人波가 複雜하였다. 나는 天性이 高요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思索을 좋아하는 性格의 所有者일지도 모른다. 빨리 여기 霧圍氣를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더니 三人이 모두가 同感이라 하며 意見이 一致하였다. 그래도 時間은 벌써 午後 3時가 넘어서었다. 우리들은 午後 4時쯤 出發하여 6時가 지나서야 집에 到着하였다. 夕飯을 먹으면서, 또 夕飯을 마치고도 우리는 오늘의 놀랐던 이야기를 하다가 9時30分이 넘어서야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 複雜하고도 한 平生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하루였었다. 얼마나 놀랐던 하루였던가.

◦ 8月 9日

오늘은 ‘요코하마(橫濱)’ 쪽으로 갔다.

요코하마는 日本에서 가장 큰 港口都市이다. 그것도 國際的인 大港口이다. 이 港口를 거쳐서 유럽 各國과 美洲 各國과 阿洲, 濠洲 等地로 大船舶들의 出入이 恒時 끊일 새가 없다. 오늘도 埠頭에는 山더미 같은 배가 서로 비집고서 닻을 내리고 있었다. 이 港口는 貿易港인 同時에 漁港도 兼해 있다. 우리는 漁港쪽으로 옮겨가니 그쪽 골목에는 飲食店도 많이 있었다. 우리는 한 食堂에 자리잡고 도시락을 處分하고 副食도 몇 가지 사 먹었다. 이 요코하마(橫濱)는 東京都의 外港에 屬한다.

우리들은 몇 군데를 더 다녀보았다. 별 것은 없었다. 우리 夫婦는 8月 15日이면 日本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韓國 생각이 腦裡에 자꾸만 떠오른다. 우리는 午後 6時 지나서 宿所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는 女息으로부터 明日의 日程을 說明들었다. 그리고 來日은 자기가 개인적인 불일이 있어서 同行案内를 못하게 되어 罪悚하다며 우리 夫婦만이 ‘후지산(富士山)’을 갔다 오라고 한다.

◦ 8月 10日

朝食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電鐵驛에 到着하여 女息이 地下鐵車票를 사서 주면서 이 票를 가지고 있으면 올 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票를 저쪽에 가서 내어주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女息과 헤어져서 車에 올랐다. 車에 오르니 座席이 없었다. 그러나 앉아 있던 日本人 男女들이 서로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우리 夫婦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感謝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 人事를 하고 앉았다. 이러한 精神文化는 배울만한 先進의인 紳士文化라고 마음속 깊이 感銘했다. 그리고 앉아 있는 乘客의 大部分은 冊이나 雜誌나 新聞을 읽고 있었다. 雜談하며 騷亂하게 떠드는 사람은 求景할 수가 없었다. 이것 또한 앞서가는 精神文化이구나 하고 首肯하면서 內心 내 自身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初等學生, 中學生들은 成人과는 判然이었다. 서로가 對話하면서 손짓 발짓해가면서 떠들어댄다. 어린이의 天性은 우리나라나 日本이나 마찬가지로나 생각되었다.

드디어 富士山 아래에 到着하였다. 우리는 걸어서 山을 오르기로 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우리는 雨備를 준비하지 못하였다. 비를 맞으면서 걸었다. 富士山 중턱에 이르니 비바람이 몰아쳐서 앞을 가리어 到底히 더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는 妻더러 “돌아갑시다”하니 妻도 그러자고 해서 下山하기 시작하였다. 山자락 아래까지 내려오니 비바람은 弱해졌다. 妻가 頂上까지 오르지 못함을 아쉬워하기에 “거기까지 갔다 온 것도 부처님의 恩功이라 생각하고 感謝해야죠”하고 말했다.

富士山은 부채의 손잡이를 위로 하여 세워둔 模樣을 하고 있는 日本에서 第一 높은 山(3,776m)이다. 日本 ‘시즈오카(靜岡)縣’ 과 ‘야마나시(山梨)縣’에 걸쳐 있는 山으로, 休火山이며 ‘코니데(konide)’ 식 成層火山으로 頂上 內部는 噴火口이며 最高峰은 ‘쓰루기가(劔峰)’이며, 氣象觀測所가 있다.

우리 夫婦는 山 밑에 내려와서 도시락을 먹고 나니 차가 到着해서 車에 올랐다. 車안에서 나는 日本人 男子에게 質問을 해 보았다. “나는 韓國人입니다. 觀光으로 貴國에 왔습니다. 그런데 墓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異常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

말이 “大端히 부끄럽습니다. 祖上을 崇拜하는 孝心이 不足해서 죽으면 火葬을 해서 그 殘骨만을 모아서 洞里 가까이 있는 共同墓地에 埋葬하고 峰頭도 없이 碑石만 세웁니다” 한다.

나는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다. 謙遜하면서도 비웃는 말같이 들렸다. 나는 始作한 김에 또 물어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政府의 施策입니까? 法令에 依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니 “國民 모두가 스스로 自發的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다. 事實 마을 附近에 共同墓地가 자주 보였다. 우리 韓國의 習俗과는 哲學的으로나 人生觀으로나 差異가 큼을 알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明堂자리라 하여 大統領이 나올 자리, 國會議員이 나올 자리, 千億富者가 나올 자리, 地方長官이 나올 자리, 子孫이 興盛하게 많이 날 자리 등을 云云하며 漠然하게 期待하는 僥倖思想은 정말 웃다가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도 日本에 國務總理가 나고 長官도 나고 國會議員도 나고 地方長官도 나고 하는 것은 共同墓地 가운데도 明堂자리가 있어서인가? 나는 모르겠다. 美國의 歷代 大統領들은 모두가 明堂자리의 後孫들이란 말인가. 可笑롭고도 可觀이다.

우리는 起居하는 집으로 돌아와서 長女에게 갔다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다 10時가 훨씬 지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 8月 11日

오늘은 ‘쿄도(京都)’로 갔다. 우리는 電鐵을 탔다. 아침 7時 30分이었다. 벌써 日本 旅行이 11日째이다. 그래도 내 妻는 疲勞한 氣色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부처님께 感謝를 올렸다. 7時 42分 신간센을 탔다. 京都까지는 時間이 꽤 걸렸다. ‘쿄도(京都)’에 到着하니 午後 1時 頃이 지났다. 숙소에 짐을 가져다 놓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코류지(廣隆寺)’를 먼저 찾았다. 들어서니 門樓가 二層으로 되어 있어서 雄壯美를 나타내고 있다. 境內에 들어서니 莊嚴한 모습이다. 日本 國內의 여러 寺刹들 中에는 規模가 巨大한 것이 상당히 많다. 日本에서도 옛날 한 時節 佛教가 盛했던 것을 짐작케 한다.

다음은 ‘닌나지(仁和寺)’를 찾았다. 亦是 門樓가 二層으로 雄壯하다. 境內에 들어서니 넓직한데 樹木이 適所에 잘 配置되어 定植되어 있었다. 大雄殿도 巨創하게 다듬어져 있다. 또 妙心寺를 찾았다. 規模는 大同小異하다. 境內의 妙心寺 退藏院을 찾았다. 妙心寺 法堂의 天井의 畫題가 有明하다고 한다. 그 附近의 庭園들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마음을 誘引함에 足하다. 妙心寺內에는 옛날의 沐浴湯이 남아 있었다.

다음에는 龍安寺를 찾았다. 入口의 大門에는 “六玄山 龍安寺”라고 큰 글씨로 쓰인 세로로 된 看板이 걸려 있다. 다음은 킨가꾸지(金閣寺), 다음은 기요미즈대라(清一水寺), 다음은 京都 타위에 올라갔다. 東西南北이 一目瞭然하게 九通十達로 街路가 整然하게 잘 整備되어 있다. 亦是 옛날의 都邑地然하게 보인다. 많은 寺刹들과 여러 景觀들을 찾고 雅趣로운 庭園과 樹林들을 두루 巡覽하다 보니 時間은 빨리도 지나갔다. 숙소에 가서 쉬었다.

◦ 8月 12日

아침밥을 마친 後 오늘은 나라(奈良)를 向해 떠났다. 午後 9

時頃에 집을 나섰다. 9時30分頃에 電鐵로 出發하여 西로 西로 奈良를 向해 車는 달린다. 우리는 下車하여 ‘야꾸시지(藥師寺)’를 찾았다. 山門을 들어서니 三層木造塔이 눈길을 끈다. 아주 纖細한 작품이다. 大雄殿과 其他 附屬建物 등을 둘러 보았다. 全體의 構造가 짜임새가 있고 調和를 이루고 있다. 庭園의 나무들도 손질이 잘 되어 있어서 建物과 잘 어울려 있다. 우리는 대충 둘러보고는 다음 ‘도쇼다이지(唐招大寺)’로 옮겨 갔다. 鬱蒼한 숲이 우거진 그 안쪽에 佛堂이 幽邃한 姿態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음은 ‘호류지(法陵寺)’로 갔다. 木造四層塔이 우리들을 마중해 주었다. 境內의 夢殿이라 이름한 六角建物이 모습을 자랑하면서 우리들을 마중해 주었다. 어느 절을 가보나 절다운 風趣를 자아내고 있었다. 大雄殿안으로 들어서니 둥근 기둥이 巨大하다. 기둥마다 붉은 色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이 ‘도쇼다이지(唐招大寺)’의 바로 옆에 있는 中宮寺로 갔다. 한 바퀴 둘러서 다음으로는 東大寺로 갔다. 절의 이름 그대로 雄壯한 절이었다. 대충 둘러 보고는 밖으로 나왔다. 여기 奈良에는 사슴이 많아서 이 거리 저 거리에도 사슴이 떼를 지어 다닌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빛은 秋毫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親하게 사람을 따른다. 먹이를 주시오 하는 듯 머리를 앞으로 쭉 빼기도 한다. 菓子나 빵을 주면 반갑게 받아 먹고는 더 달라고 한다. 人鹿이 不二라 더불어 사는 世界임을 實感나게 한다. 사람의 손을 핥기도 한다. 이 ‘나라(奈良)’는 優雅한 庭園美를 풍기는 都市이다. 그러기에 奈良는 古色도 燦爛한 都市로서 한번쯤 餘暇를 즐길만한 都市이다. 이곳 저곳 求景하다보니 時間은 빠르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벌

써 午後 3時가 지났다. 우리는 서둘러 驛으로 가서 車에 올랐다. 鐵路邊의 遠近의 都市들, 山野 등이 調和를 잘 이루고 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서 夕飯을 맛있게 먹었다. 주고 받는 이야기, 그러다가 10時쯤에는 就寢에 들어갔다.

◦ 8月 13日

오늘은 '오사카(大阪)'로 向했다. 아침 8時 조금 지나서 호텔을 出發하였다. 9時에 京都를 出發하여 10시경에 大阪에 到着하였다. 그리고는 大阪城에 다달았다. 城밖에서 大阪城을 우러러 보니 까맣게 보인다. 우리 一行은 바로 城안에 들어가서 오르기 始作했다. 頂上에 오르니 四方이 一目千里로 탁 트여 보인다. 亦是 大阪市の 全景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저 끝이 消失點으로 되어 그 以上 그 너머로는 보이지 않는다. 온통 집들 뿐이다. 大阪은 工業都市이다. 工場들의 굴뚝이 林立한 곳이 많았다. 우리는 城의 頂上에서 階段을 차례로 내려 오면서 各層을 仔細히 둘러 보았다. 이 城樓를 日本人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管理·保全을 잘해 내려온 것이라 생각하며 感歎을 禁치 못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城이 많이 散在해 있었으나 城樓 하나 남아 있는 곳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정말로 哀惜하게 느껴진다. 日本과 우리나라와의 精神文化는 古今을 通해서 늘 우리나라가 뒤져 있는 것 같다. 물론 모든 方面을 통 털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本願寺의 第八世蓮如上人이 '이시다(石田) - 現大阪城의 땅'에 坊舍를 經營하면서 그의 便紙에 비로소 大阪이라는 地名이 보였다고 한다. 이 城은 壬辰倭亂을 일으킨

‘도요도미히데요시’가 城을 築城하기 始作하였다 한다. 要는 天守閣이란 樓閣까지 豊臣秀吉이 이룩하였다. 城壁을 쌓아 올린 巨大한 바위와 돌들을 보고야 日本人의 築城技術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大阪 타워에 올라갔다. 亦是 大阪市街의 全景이 한 눈에 들어온다. 四方을 돌아보니 廣大한 平野에 建物들이 뿅뿅히 들어서 있다. 都市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 大阪市에는 日本國內에서도 韓國人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후에 ‘비아코(琵琶湖)’로 갔다. 우리 夫婦는 韓國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意識하면서 車에 올랐다. 十餘日이 지나고 보니 지금까지 觀光한 모든 것들이 走馬燈같이 腦裡를 스친다. 視聽한 것들이 漸次로 잊혀져가는 듯도 하였다. 우리는 ‘오오쓰(大津)’에 到着하여 車에서 내렸다. 琵琶湖가 저기 展開되고 있다. 큰 湖水이다. 湖水물이 아주 깨끗하게 藍色을 나타내고 있다. 湖水周邊을 둘러보니 四方이 모두 都市로 되어 있다. 周圍全體가 連結된 都市를 形成하고 있다. 하얀 壁, 노란 지붕, 슬라브지붕 등, 가지가지의 色相이 잘 어울려서 보기 좋게 비치고 있다. 湖面에는 돛단배가 自己갈 길을 찾아 오고가고 한다. 우리는 摩托船을 타고서는 甲板 위의 椅子에 자리잡았다. 飲料水를 사서 한 瓶씩 마셨다. 내가 꿈에 그려 보던 神仙이 산다는 곳 丹丘가 바로 여기구나. 閩風瑤池가 바로 여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湖水의 眞味를 맛보았다. 넓은 湖水이기에 저쪽 먼 건너편은 가물가물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面積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지 못했다. 遊覽船은 約 10餘km쯤 둘러서 돌아왔다. 湖上에도 飲食

店이 있었다. 우리는 食堂에서 아이스크림, 사이다 등을 먹고 마셨다. 果然 仙境이라 말하고 싶다. 東京까지 오고 가는데 時間이 많이 걸린다. 우리는 2時間 동안 湖畔을 즐기다가 午後 3時頃に 閩風瑤池를 떠나기 싫은 아쉬움을 남기고는 오후 四時頃に 出發하여 숙소에 돌아오니 8시가 조금 지났다.

◦ 8月 14日

오늘은 歸國하는 날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점심을 마치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거푸 담배를 피웠다. 燒酒도 한 瓶 마셨다. 午後 4時頃に 우리는 空港을 向해 出發했다. 空港에서 午後 5時 40分에 搭乘하기에 딸에게 몸 健康하고, 學業에 成功하라 하고 搭乘했다. 離陸했다. 태풍이 심했다. 約 1時間 조금 더 지나서 金海上空에 이르렀으나 濃霧와 風雨가甚하기 때문에 大阪으로 되돌아간다고 機內放送이 나온다. 一行 모두는 啞然失色하였다. 그러나 自然이 하는 일인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午後 8時 조금 지나서 日本 大阪 空港에 着陸했다. 空港廳舍에 들어서니 큰 딸 아이가 待期하고 있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핑 고였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日本人의 旅館을 우리 딸이 案内해 주었다. 飛行機가 大阪으로 回航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니 태풍이 심해서 혹시나 하고 공항에 물어서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

모두 호텔로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空港으로 나갔다. 8時 30分에 出發하기 때문이다. 우리 夫婦는 搭乘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快晴했다. 金海에 着陸한 것이 9時 35분이

다. 나는 한숨을 ‘휴’ 하고 내쉬었다. 우리가 택시를 잡아 타고 蔚山 집에 到着하니 ‘내 집에 왔구나’ 하는 安堵感이 들었는데 大門 房門이 열려 있고 아들·며느리가 와 있었다.

■ 後記

우리 夫婦는 平素에 말하기를 우리 한 平生에 日本求景이나 한번 하겠느냐 하면서 不可能할 걸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實現되었다. 15日間을 父母를 따라 다니며 案内하고 說明하고 한 내 딸이 아주 대견스러웠다. 妻도 귀엽다고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한다.

그러면 日本에 가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그 사람들의 精神文化라고 말할 수 있다. 그 親切性, 그것이 바로 商術인지도 모른다. 顔面 表情부터가 微笑를 짓고 상냥한 눈빛과 動作으로 親切하게 사람을 相對하는 것은 본 받을만 했고, 百貨店에서 物件을 고르다가 사지 않고 나와도 不平 한 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드시는 物件을 具備 못하였음이 몹시 罪悚합니다. 이 다음에는 마음에 드시는 物品을 準備해 두겠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安寧히 가십시오” 한다. 어쨌든지 對人生活에 있어서 人情味 넘칠 만큼 洗練되어 있다. 어느 곳에 가니 ‘길을 물으세요, 親切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팻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은 그네들의 勤勉性이랄 수 있다. 自己男便이 大學教授, 會社社長, 또는 億萬富者인 사람의 婦人일지라도 工事現場에 나가서 소쿠리로 모래나 자갈 흙 따위를 運搬하는 등의 勞動을 하고서 賃金を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通來하는 곳에 60歲가 넘은 듯한 老婦人 三人이 가지런히 나즈막한 木板椅子에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의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 정말 聖스러운 모습이었다. 우리는 “老婦人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苦生을 하십니까?” 물으니, “우리는 아직 健康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람있는 生活이 되며, 우리가 돈을 벌어서 世界旅行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對答을 한다. 고개가 스스로 숙여짐을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公衆道德이 徹底함이 文化人다웠다. 路面이나 화장실 內에서 담배 菸草 하나 求景할 수 없었으며 休紙조각 하나 보이지 않는다. 택시 技士는 微笑를 지으며 “이랏샤이마세(어서 오십시오)” 라고 人事를 하고 내릴 때는 “아리가도오 고자이마스(감사합니다)” 라고 人事를 한다. 物質文明만이 앞서 간다고 해서 文化人이 될 수 없다. 精神文化와 物質文化가 並進해 나가야만 正常的인 發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에 속임수가 생기고 瑕疵가 發生하고 崩壞가 생기고 破損이 생기며 事故가 發生하기 마련이다. 施工者, 管理者, 利用者의 善良한 精神文化가 앞서야 하느니라. 卽 建設과 破壞의 反復이 아닌, 오직 建設 前進만을 爲한 精神과 物質의 兩文化가 並行前進함이 發展의 要件이다. 우리 모두는 銘念해야 할 것이다.

2. 第二次 海外旅行

(東南亞細亞 - 臺灣, 홍콩, 泰國,
싱가폴, 말레이시아 5個國)

내가 1986年 2月 23日에 나의 母校인 大峴國民學校에서 停年 退任式을 마치고 3년이 지난 후 우리 夫婦는 東南亞細亞 5個國을 巡遊하길로 決定하였다. 海外旅行은 日本 다음으로 이번이 二次가 되는 셈이다.

◦ 1989년 12월 21일

우리 내외는 午後 3時 30分에 金海空港을 出發하여 午後 4時 20分頃에 서울 金浦空港에 到着하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亞洲 觀光會社의 案内로 가게 되었는데 教育界의 同志인 朴仁喆 校長先生님의 內外分과 함께 四人이 蔚山에서 同行으로 出發하였다. 飛行機 票를 購入하고 出國手續도 마쳤다. 서울 金浦空港出發이 오후 6時 55分이었다. 우리 一行은 서울에서 15名으로 合流되었는데 午後 6時 45分에 搭乘하여 6時 58分에 出發하였다. 外界를 내다보니 漆黑같은 밤이다. 우리는 一行끼리 談笑를 하면서 時間을 보냈는데 나는 未知의 世界를 찾는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躍動하였는데 내 妻도 무척 기뻐는지 興奮하

고 있었다. 香港到着이 午後 9時 50分인데 機內에서 夕食을 받았다. 메뉴는 불고기와 밥이었다.

드디어 香港(홍콩)에 到着하였다. 現地 가이드가 出迎해 주었다. 이 空港 이름이 카이탁 空港이라고 한다. 버스로 호텔에 到着하여 宿泊을 하였다.

12月 22日 아침 6시에 우리 夫婦는 起寢하여 8시에 朝飯을 마쳤다. 午前 9시에 버스로 出發하여 海洋公園, 리필스베이, 타이거 밤 가든 등을 둘러 보고는 韓人食堂에서 中食을 取하였다. 海上에 船舶을 利用한 中國人食堂은 名實共히 豪華燦爛 그것이다. 香港은 阿片戰爭의 結果 1842年 南京條約으로 英國이 領有하게 되었고, 1860년에는 九龍半島와 스톤카터섬이 合併되었는데 이 香港섬과 九龍半島의 防衛上 1898년에 香港領域擴張條約에 依해서 紐우데리토리를 領有하게 되고 또한 香港을 155年間 租借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997年 7月 1日을 期해서 中國으로 返還하게 된다. 面積은 1,034平方km, 人口는 4百5萬名(1971年)으로 中國人이 大部分이며 歐美人이 約 2萬名이다. 1972년에 九龍半島와의 사이에 海低터널이 開通되었다. 英國政府가 任命하는 總督이 統治하고 있다. 英國의 東洋經營의 起點이 되었다. 慾心 많고 進取性 있는 英國人, 可觀이로다.

各種 工業이 盛하고 中繼貿易이 活潑하여 觀光地로도 有明하다.

午後 6시에 夕食을 마치고 호텔에서 就寢하였다.

◦ 12月 23日

아침 7시에 起寢하여 8시에 朝飯을 마쳤다. 空港으로 向하여 버스로 出發하였다. 11時 45분에 香港에서 出發하는 飛行機가

있다. 泰國의 방콕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一行은 午前 11時 35분에 搭乘하였다. 마침내 11時 45분에 飛行機는 離陸하였다. 午後 1時 30분에 방콕 돈무양空港에 到着하였다. 우리는 바로 船舶을 利用하여 빠타야로 向했다.

이 빠타야는 海水浴場으로 有明한 곳이다. 各國에서 休養차 모여 드는 곳이다. 우리나라에 駐屯하고 있는 美國軍人들도 休暇를 내어 많이들 온다고 한다. 水上놀이도 各樣各색으로 多様하다. 헬리콥터에서 줄을 드리워 海上의 보트에 連結하고 사람들이 타고 있는 보트를 헬리콥터가 끌고가면 보트는 쏘살 같이 물 위를 가로지른다. 우리 一行은 船舶을 타고는 午後 4時 30分頃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버스로 호텔에 到着하였다. 夕食은 中國食으로 하였다. 10時頃에 就寢하였다.

◦ 12月 24日

아침 8시에 朝飯을 마치고 珊瑚섬 一帶를 觀光하였다.

泰國은 佛敎가 盛行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大寺院 높은 등근 塔 위에 올라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 中途에서 내려왔다. 國王이 居處하는 宮殿 앞을 지나가 보았다. 곳곳에서 뱀장수가 코브라를 가지고 쇼를 하는데 피리 소리에 따라서 코브라가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침 코브라와 족제비도 아니고 쥐도 아닌 족제비만한 動物과 싸움을 붙였는데 족제비 모양같은 動物이 고개를 들고 있는 코브라의 목을 물어 자르는 것을 보았다. 네발 動物의 勝利였다.

泰國은 印度支那 半島의 거의 中央部에 位置한 立憲王國이다. 오래도록 獨立을 維持해 온 나라이다. 고무 栽培는 有名하고 世界에서도 손꼽히는 쌀 輸出國이기도 하다. 住民의 75%는

타이族이지만 中國人이 380萬名이라 한다. 稻作은 年 3毛作을 하였으나 近年에는 政府에서 2毛作을 獎勵하고 있다 한다.

우리는 버스를 利用하여 中食을 마친 後 泰國民俗村을 둘러 보았다. 男子 2名이 붙어 싸우는데 윗저고리는 벗고 팬츠만 입고 拳鬪 兼 발차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를 'Kick Boxing' 이라 한다. 또 한편에서는 3, 4人이 대나무 막대기 뛰어넘기를 하고 있었다. 그저 그런 것이었다.

여기 泰國은 常夏의 地帶라 그런지 國民性이 懶怠해 보였다. 大概 男女가 13~14歲면 結婚한다고 한다. 그런데 壽命이 짧아 50歲 內外까지 밖에 못 산다고 한다. 全 人口의 93%가 小乘佛敎徒로서 約 24,000個의 寺院이 있고 176,000名의 僧侶가 있다고 한다. 小乘佛敎가 國敎로 定해져서 國王을 佛敎의 守護者로 하고 있다. 佛敎는 住民의 生活에 깊이 浸透하여 男子는 滿 20歲가 되면 一定 期間 削髮하고 寺院에 들어 가는 慣習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寺院은 社會生活의 中心을 이루고, 住民의 集會場이며 病院, 養老院 役割도 하고 있다. 鑛物로서는 朱錫 生産은 世界 第4位이다. 水路가 잘 發達되어 있어 通運에 널리 利用되고 있으며 首都인 曼谷市는 鐵道가 放射線으로 뻗어 있으며, 曼谷의 '돈무앙 空港'은 國際港空路의 重要한 中繼地이며 東南아시아와 世界各國을 連結하는 國際空港이다. 午後에는 '농눅빌리지'를 觀光 後 曼谷으로 歸還하여 夕食을 마치고 호텔에서 就寢하였다.

◦ 12月 25日

아침 8時에 朝飯을 取하고 專用버스로 出發하여 다시 배로 갈아 타고는 水上市場을 一周하며 觀光을 즐겼다. 水上市場이

란 江위로 작은 小舟에 과일이나 菜蔬類를 싣고 江上을 오르내리면서 팔고 있었다. 物件을 사는 사람도 小舟를 타고 江上을 오르내리면서 物件을 사곤하는 것이다. 아주 原始的이었다. 主로 日常 食生活에 必要한 物品들이 主였다. 우리 一行은 바나나를 한 덩어리 샀다. 아주 열매가 작은 것이다. 우리는 나누어 먹었다. 他國에 왔으니까 별별 짓을 다 해 보는 것이다. 배에서 내렸다. 버스로 寺院, 王宮을 둘러 에메럴드寺院을 둘러보고는 中食을 取하였다. 韓食을 배불리 먹었다.

우리는 다시 돈무양 空港으로 버스를 달렸다. 午後 4時 50분에 曼谷 돈무양空港을 出發한다. 우리는 4時 40분에 飛行機에 搭乘해서 午後 4時 50분에 曼谷를 離陸하였다. 우리는 機內에서 夕食을 받았다. 쇠고기와 빵으로 맛있게 배를 채웠다. 午後 9時 10분에 싱가폴에 着陸하였다. 버스로 호텔에 到着하여 就寢에 들어갔다.

◦ 12月 26日

아침 7시에 起寢하였다. 午前 8시에 朝飯을 맛있게 取하였다. 버스로 出發하여 센토사섬을 求景하고 머라이언 公園을 한 바퀴 둘러보고 韃夷 山頂에 올라 싱가폴 市街를 보니 高層建物들이 보기 좋게 屹立하여 競爭을 하는 듯 보였다. 다음은 國立植物園을 둘러 보았다. 韓國은 한창 겨울인데 여기는 百花가 亂發하여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果然 듣던대로 거리는 깨끗하였다. 담배꽂초 하나 休紙 하나 보이지 않는다. 꺾은 꽃 하나 버려도 罰金, 성냥개비 하나 버려도 罰金이라더니 거리 全體가 秩序整然하고도 티끌 하나 보이지 않는다. 罰金 때문이라기 보다는 싱가폴 國民들은 오랜 訓練을 通하여 이제

는 完全히 몸에 베인 習慣化된 生活이라고 본다. 意識의 構造부터가 깨끗하게 再構成되어 있는 狀態이기에 形式으로 生活化되고 있다. 이러한 깨끗한 곳에서는 내 스스로부터 담배꽂초 하나 버리려는 생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싱가폴의 市街는 바둑판같이 整然하게 整備되어 있었으며 面積이 狹小하기 때문에 高層建物이 많은데, 이는 옆으로 계속 뻗을 수 없기에 위로 空中으로 높이 建物이 솟아 오르게 된 것이다. 이 싱가포르(Singapore)는 東南아시아, 말레이半島의 最南端에 位置하는 英國聯邦內의 獨立共和國으로서 조호르(Johore)海峽을 사이에 두고 말레이시아와 隣接하고 있으며 地名의 由來는 12~13世紀에 이 땅에 투마시크(Tumasik)라 불리는 港口都市가 繁盛하여 때마침 이 섬에 이른 印度王子가 ‘싱가프라(산스크리트-Sanskrit-어로 獅子의 거리라는 뜻)’라고 부른 것에 비롯된다고 傳한다. 赤道의 直下에 가까우며 月 平均氣溫은 1월이 26.1°C, 6월이 28°C로 季節的인 變化가 적은 常夏의 나라이다. 人口의 74%가 中國人이며 그밖에 말레이시아인 14%, 印度人과 파키스탄人이 8.5% 등이다. 1819年 英國人 레플즈(T.S. Raffles)가 당시 이 섬을 支配하고 있었다. 조호르 王國의 首席司法官과의 사이에 英國 商館 設立의 約定을 締結하고 다음 해 싱가포르의 自由港 宣言을 發表하고 英國이 東洋 貿易의 據點으로 삼았다. 이어서 1824年 네델란드와의 條約에 依하여 英國의 말레이半島 支配가 確立되었다. 1867년에는 페낭(Penang), 말라카(Malacca)와 함께 英國 直轄 植民地로 되어 自由貿易港으로서 發展하였다.

싱가포르(Singapore)市는 싱가포르섬의 南岸에 있는 싱가포르共和國의 首都이며 東南아시아의 代表的 貿易港으로서 延長

約 5km의 海岸線에 따라 8個의 大埠頭가 있고, 도크, 倉庫 等의 港灣 施設이 잘 整備되어 있다. 生 고무, 주석, 鐵物, 팜오일 (Palm油), 코브라 等의 大 中繼貿易港이며 南洋漁業의 根據地를 이루고 있다. 住民의 80%는 中國人으로 大中國人商街를 形成하고 있다. 面積은 80km², 人口는 199萬名(1972)이다.

夕食을 마치고 호텔로 歸還하여 就寢하였다.

◦ 12月 27日

7時에 朝食을 始作하였다. 朝飯을 마친 後 오늘은 말레이시아를 가기 爲하여 버스로 出發하여 國境을 지나 조호바루에 到着, 觀光하였다. 國境을 通過할 때는 旅券만을 提示하였다. 슬탄寺院과 말레이시아 國王의 宮殿을 外形만을 살펴 보았다. 그 앞의 잔디밭 廣場에 앉아 暫間 쉬면서 말레이시아인의 民家을 하나 撮影하였다.

싱가포르에 돌아와서 中食을 取하고 茱甯새 公園을 散策한 다음 악어農場으로 向하였다. 그 흥칙스런 악어 數十 마리가 놀고 있었다. 내 妻에게 악어 핸드백을 하나 사 주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오차드 거리를 둘러 보았다. 이 차이나타운은 中國人의 集團 居住地인데 外形이 비슷비슷하며 우중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中國人들은 여기 뿐 아니라 世界 어디를 가든지 外樣이 모두가 이와 비슷하며 不潔해 보인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財產 增殖欲은 確固不動하며 儉素 節約 生活을 習性化하여 家口當 貯蓄額은 놀랄 정도라 하며 數十億 惑은 數億 정도는 다 預蓄하고 있다고 한다. 보라! 英國人, 英글로색슨 種族들! 싱가포르도 悠悠히 占有한 것을 보라! 그 얼마나 能小能大한 능구렁이인가? 自己네들이 必要하

다고 생각되는 것은 結局은 손아귀에 넣고마는 그 齷齪스런 執念! 그렇게 해서 地球上 世界를 舞臺로 하여 그네들이 活動하는데 不便함이 없도록 만들어 두었다. 싱가포르도 英國人의 所有가 되어버렸다. 偉大한지고 英國人, 英글로색슨族! 그래서 그대들은 繁榮하는도다.

우리는 午後 4時 30분에 싱가포르 空港을 出發하여 臺灣으로 向했다. 이번 東南아시아 5個國 旅行中 最終 目的地이다. 午後 8時가 가까워 臺灣에 到着하였다. 臺北空港이다. 우리는 버스로 호텔에 到着하여 夕食을 마치고는 就寢하였다.

• 12月 28日

아침 8時 30분에 朝飯을 마치고 버스로 出發하여 市內觀光에 들어갔다.

첫째로 찾은 곳은 中國古宮博物館이다. 蔣介石 總統이 中國本土를 毛澤東에게 넘겨 주고 이곳 타이완(Taiwan)으로 쫓겨올 때에 못 잊어서 챙겨서 가지고 온 中國의 國寶級 寶物에 該當되는 文化遺產들, 古美術品, 藝術品, 彫刻品 等 一切를 陳列해 둔 곳이다. 이곳에 所藏하고 있는 遺物의 數가 얼마나 많은지 每日 다르게 바꾸어 陳列한다 해도 모두 陳列하려면 25年이 걸린다고 한다. 처음에는 絢爛하여 一括적으로 두루 한번 살펴 보고는 部分的으로 特異한 것들은 再次로 注意깊게 살펴 보았는데 事實인즉 特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玉돌을 彫刻하여 만든 彫刻品은 神祕感마저 감도는 神의 作品이라 느껴지며 어떤 種類의 彫刻品은 一世 當代에 完成하지 못하여 父子 二代에 걸쳐서 完成했다는 珍貴品도 있었다. 到底히 人間의 作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옥들로 만든 屏風도

보였다. 果然 古代中國人中에는 彫刻家도 많았던 模樣이다. 나는 그저 感歎詞만 發할 뿐이었다. 美國 대통령 트루먼이 蔣介石을 보고 “저 屏風은 時價가 얼마나 됩니까?”하고 물으니 蔣介石이 對答하여 曰 “失禮입니다마는 美國土를 다 준다 해도 팔지 않습니다”하고는 두 사람이 꺄꺄 웃었다고 한다. 보니 그 屏風은 玉들로 만들어져 접도록 되어 있다. 그 屏風面에도 纖細한 彫刻으로 구멍을 뚫을 곳은 뚫어서 彫刻을 하였다. 全體的으로 보아서 感慨無量하였다.

다음으로 中正記念館에 들었다. 中正이란 蔣介石의 雅號이다. 그러니 蔣介石記念館이다. 蔣介石의 一生·一代記的인 物品과 그 行蹟이 歷歷하다. 다음은 忠烈祠를 둘러 龍山寺로 갔다. 모든 樣式이 中國 냄새가 난다. 純粹한 石造建物이다.

다음은 夜市場을 둘러보니 가지각색의 음식물을 팔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高山族이 살고 있는 山의 中허리까지 올랐다. 烏來(우라이) 高山族이 사는 곳이다. 여기서 高山族 아가씨들의 춤을 求景하고 내려 오다가 烏龍(우룽)茶 한 봉지를 샀다.

오늘은 午後 4時 飛行機로 歸國해야 한다. 우리 一行은 臺北 空港으로 버스를 달렸다. 午後 3時 50분에 飛行機에 搭乘하여 4시에 離陸하였다. 午後 7時 좀 지나서 서울空港에 着陸하였다. 우리 夫婦와 朴校長 内外는 空港 밖으로 나와서 旅館에서 一泊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 8시에 起寢하여 飲食店을 찾아서 簡單한 朝飯을 마친 다음 택시로 서울 市內를 들어와서 高速 터미널에 到着하였다. 蔚山行 버스가 10時 10분에 있었다. 우리 一行 4人是 高速버스로 蔚山에 到着하니 午後 3時 가까웠다. 朴校長 内外分과 下直을 하고 우리 夫婦는 무사히 歸家하

• 李在萬 自敘傳

였다. 이번의 旅行期間은 8泊 9日間이었다.

3. 第三次 海外旅行

(中國)

◦ 95年 7月 27日

아침 食事を 하는등 마는등 하고서 짐을 꾸려서 아침 8時에 택시를 타고서 新亭洞의 太和호텔 건너편에 있는 太和江邊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金海空港으로 가는 空港버스가 있기 때문이다. 마침 버스가 왔기에 우리 夫婦는 버스에 올랐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朴永鎭 先生님 夫婦와 함께 蔚山人이 모두 8인이 一行이다. 버스는 順調롭게 달려서 9時 50분에 金海空港에 到着하였다.

우리는 國際線 一層 亞洲觀光集結所로 갔다. 여기서 우리 一行 29名 모두가 合流하였다. 가이드의 說明을 듣고서 우리는 미리 점심을 먹었다.

正午가 지나 12時 20분에 飛行機에 搭乘하였다. 나는 平素에 敎職生活를 46年 10個月이나 經歷했기에 時間觀念은 徹頭徹尾 한지라 飛行機 離陸 時間인 12時 30분이 되자 지금 出發하려니 하고 기다렸으나 5分, 7分, 8분이 지나도 飛行機는 뜨지 않았고, 12時 40분이 되어서야 飛行機는 離陸하기 始作하였다. 約 2時間 後에 上海 虹橋國際空港에 到着하였다. 韓國과의 時差가 1時間이기 때문에 現地時間은 午後 1時 30分이다. 入國手

續을 마치고 一行은 버스를 타고 臨時政府廳舍를 訪問하였다. 아주 보잘 것 없는 木造建物이었으나 歷史的 意義는 큰 것이다. 다음은 虹口公園을 찾았다. 그리고 梅停을 둘러 보았다. 이 虹口公園은 尹奉吉 義士의 投彈事件이 있었던 곳이다. 卽 1939年 4月 29日, 이 公園에서 日本의 白川大將을 비롯하여 野村等 日本軍인이 集結하여 日本天皇의 生日을 祝賀하는 演說中이었던 壇上을 向하여 尹奉吉 義士는 爆彈을 던졌다. 이로 因하여 白川大將이 死亡하였고 野村은 失明하는 同時에 크게 負傷하는 等 阿修羅場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 場所를 유달리 感懷 깊게 바라보았다. 다음은 徒步로 魯迅 先生의 墓所와 銅像을 求景하고는 韓國苑食堂에서 夕食하였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虹橋賓館으로 가서 우리 내외는 2712號室에 投宿하였다.

• 7月 28日

朝食 後에 豫園을 찾았다. 亦是 東洋的인 優雅한 雅趣를 풍기는 庭園이다. 그러나 面積은 廣大하였다. 다음은 玉佛寺로 向하였다. 이름 그대로 純粹한 아름다운 玉으로 만든 佛像이다. 마치 살아서 곧 움직일 것만 같다. 웃을 것 같다. 아름답고도 빠진 곳이라곤 없는 精巧하고도 纖細한 曲線美, 그야말로 藝와 美의 極致요, 連日 보고 鑑賞하여도 그 자리를 떠나기 싫을 것 같다. 人間의 作品이 아니라 神을 認定하지 않으면서도 神의 作品이 아닌가 疑心할 정도로 地上 最優秀傑作品이다. 나는 妻의 손을 꼭 잡았다. 珍品이란 表示이다. 다음은 黃浦江을 찾았다. 그리고 저쪽에는 東方明珠라고 하는 TV放送塔이 雄姿를 보이고 있다.

上海는 中國의 江蘇省 東部に 있는 中國最大의 都市이며 人口는 1090萬이다. 揚子江河口의 南岸에 있다. 支流인 黃浦江과 吳松江의 合流點에 있는 貿易港市로서 重化學工業이 發展한 都市이다. 名稱은 옛날 黃浦江으로 흐르던 크리이크 上海浦에서 由來된 것이며 面積은 5,800km²이다. 揚子江에 依해 形成된 江南 델타(delta)地帶에 있으며 地形은 낮고 平坦하여 水路가 縱橫無盡으로 開通되어 있다. 年平均 氣溫은 16°C이며 溫和한 氣候이다. 黃浦江을 따라 바닷가(上海半島)가 行政府의 中心部이고, 이와 直交하는 南京路가 商業의 中心部이다. 宋代末인 1267年 上海鎮이 設置되면서부터 貿易港이 開港되었으나, 明代에서 清代에 걸쳐 航海에 關한 各種 禁令이 생겨 貿易港으로서의 發展은 停滯狀態에 들어갔다. 17世紀에 이르러 禁令이 解除됨으로써 再次 貿易港市로서 活況을 보이기 始作하였다. 19世紀에 들어서서 阿片戰爭의 結果 南京條約에 依해 歐美 여러 나라에 開港하고 港市로서 急速한 發展을 했다. 그러나 한편 1845년에 英國, 1848년에 美國, 1949년에는 프랑스 등의 租界가 設置되고 植民地 都市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淸日戰爭(1894~1895) 後는 外國資本에 依한 工場이 增加하였다. 1932年 排日運動이 激化됨에 따라 日本軍이 派兵되었으며 第1次 上海事變에 이어 第2次 上海事變을 거쳐 第2次大戰 終末까지 日本軍의 占領이 계속되었다. 1949年 中共軍에 依해 占領되어 上海人民政府가 成立되었으며 그 後 植民地色彩는 一掃되었다.

午後 4時 30分 上海發 飛行機로 出發하였다. 延吉까지는 西海를 거쳐서 다음은 北韓上空을 거쳐서 갔다. 中國과 北韓과는 航空協定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午後 7時 40分頃에 延吉에

到着하였다. 空港에서 버스로 非鋪裝道路를 달려서 東北亞大酒店 호텔에 들었다. 夕食은 韓食이었다.

◦ 7月 29日

호텔 朝食 後 小型 버스 2대에 一行이 分乘하고는 白頭山을 向해서 出發했다. 延吉市를 빠져 나오니 벌써 非鋪裝道路이다. 가는 細雨가 내리기 始作하였다. 車는 덜커덩거리면서 간다. 따지고 보니 延吉에서 白頭山쪽으로 가는 길은 延吉에서 西南 쪽으로 가는 셈이다. 왜 上海에서 白頭山을 通過해서 延吉까지 가서 또 白頭山으로 도로 돌아 오느냐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白頭山쪽에 가까운 滿洲땅에는 飛行機가 着陸할 곳은 延吉밖에는 없었기 때문임을 늦게서야 알았다.

時間이 꽤 오래 되어서 松江津에 到着하여 여기서 점심을 먹었다. 12時이다. 食事を 마치고 또 車는 出發하였다. 道路는 屈曲이 甚하였다. 午後 4時頃에 山門에 到着하였다. 이제 傾斜가 多少 甚해지는 것 같다. 나는 아침에 出發할 당시에는 豫想을 하였다. 白頭山 近處에는 높은 山들이 여러 개 있을 것이며 또 森林이 鬱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白頭山 가까이 이를 때까지 높은 山은 없었다. 그저 丘陵地같았다.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 높은 山이 없는 것은 이 地帶全體가 高地帶이고 또 山頂들이 따로 따로 없고全體가 하나의 山頂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山峰들이 높이가 多少의 差異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鬱蒼하리라 믿었던 大森林은 보이지 않고 흔히들 보는 平凡한 山과 같이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사시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滿洲落葉松 등이 密林은 아니고 드문드문 散在되어 있다. 白頭山은 咸鏡南北道에서 滿洲로 걸쳐 있는

國境地帶에 있는 높이 2744m의 우리나라 第一의 高山이다. 長白山脈이 속해있는 中國에서는 長白山이라 한다. 이 山頂은 中國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다.

白頭山 속의 最高峰은 兵使峰이라 하는데 칼데라(caldear)호로 된 못인 天池가 있다. 傾斜가 甚해지자 頂上을 高度 約 500m 정도 남겨놓고 우리는 지프차로 바꾸어서 6名씩 分乘하여 올라갔다. 버스는 힘이 드는 模樣이다.

이 山은 오를 수록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山이다. 풀도 없는 山이다. 이래서 山名을 白頭山이라고 했던가 생각했지만 다음에 記述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北韓쪽에서 白頭山의 南麓을 올라가면 森林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쪽으로 갈수 없는 民族의 恨이여! 傾斜가 더욱 急해진다. 頂上을 約 80m 정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지프차에서 내렸다. 비는 제법 내린다. 거기다 頂上이 가까우니 바람은 더욱 强하게 불고 있으니 그야 말로 暴風雨이다. 傾斜가 急하다 보니 빨리 오를 수가 없다. 눈앞은 白白하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조차 없다. 다른 사람은 지프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다. 6名만이 登頂을 試圖하는 셈이다. 두어 걸음 기어 올라 가서는 한 걸음 뒤로 미끄러져 내려 오고, 한 걸음 기어 올라가서는 半걸음 뒤로 미끄러지는데 손으로 잡을 풀 한 포기 없다. 그저 한다는 것이 양쪽 손바닥을 땅에다 密着시켜서 힘을 주어 누르면서 기어 간다. 地表가 모래인지라 이것이 方法이다. 準備해 간 비닐 雨衣를 입고 머리에도 덮고 오르지만 워낙 바람이 세고 보니 머리에 쓴 것은 벗겨지고 목덜미 쪽으로 물이 스며든다. 그래도 내 妻는 나보다 두어 걸음 앞서 기어오르면서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손을 잡고 오라고 한다. 나는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 잘못하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미끄러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萬若에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가서 멈출지, 아니면 惑 저 밑바닥 無底奈落(저승)에 떨어지면 큰일이다 생각했다. 나는 頂上까지 오르기를 斷念하고 後退할까 하고도 생각하였으나 여기 數千里까지 와서 白頭山 登頂을 못하고 故郷으로 가면 大丈夫 男兒가 무엇 할 말이 있겠느냐 생각되어 期於코 오르기로 다시 마음 먹었다. 그러자 위에서 “이제 다 왔다. 조금 남았어요” 한다. 나는 勇氣를 내어 마지막 피치(pitch)를 올렸다. 반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끝내는 頂上에 올랐다. 더 오를래야 오를 곳이 없다. 眼前視界에는 온통 비바람으로 뽀얗다. 우리 내외는 더듬더듬하여 바위 위에 앉았으나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날려 갈까봐 겁이 나서 오래도록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저 아래쪽을 視線만 보내면서 저 아래가 天池 못이다. 나는 몇 번이고 萬歲를 부르면서 양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였다. 여기까지 오른 것만 해도 所願의 一部는 達成했다 하면서 나는 妻더러 내려가자 하여 두 사람은 조심 조심 내려 왔다. 추위에 떨며 우리는 번개같이 車 안으로 들어갔다.

내려갈 때에는 빠르다. 半쯤 下山했을 때에는 眼前的 視界가 100m까지 잘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妻의 손을 꼭 잡았다. 이 白頭山은 第3期末의 火山活動에 依하여 톨로이데(tholoide)가 形成되었고 後에 中央部가 陷沒되어 칼데라호로 變하였다. 天池의 물은 北方으로 排出되어 松花江을 이루며 東쪽으로 豆滿江, 서쪽으로 鴨綠江의 根源을 이루고 湖畔에는 溫泉이 솟고 있다. 山體는 높이 約 2,000m의 蓋馬高原에 놓여 白馬岩이라고 하는 알카리 粗面岩의 粘土가 豊富한 熔岩의 流出을 몇번이고 反復한 火山으로 山허리는 칼데라를 形成함에 앞서 噴出된 듯

한 輕石이 堆積하여 白色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白頭山이란 이름이 나왔다 한다. 기슭은 後에 噴出한 臺地玄武岩으로 덮여 있다. 중국에서는 淸朝의 發祥地로 白頭山을 높이 崇拜하며 韓國에서는 檀君始祖의 傳說로 有明하다. 1712年 李朝의 代表와 吉林省 總管이 天池의 東南 4km地點에 韓國과 中國의 境界線을 表示한 境界碑가 세워져 있다. 우리는 長白山의 ‘운봉원촌’에서 하룻밤을 宿泊하였다. 저녁을 먹었다. 물론 朝鮮의 食堂이었는데 親切하게 對해 주었다. 不足한 것은 얼마든지 補充해 주었다. 호텔에서는 마침 停電이 되어 가느다란 촛불 다섯 개를 밝혀 주었다. 몹시 疲倦하여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다.

◦ 7月 30日

아침 5시에 起寢하여 또 버스로 延吉을 向하여 出發하였다. 아침은 호텔에서 먹었다. 龍井里에 도착하여 운동주 先生墓, 해란강, 일송정을 둘러보고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는 또 버스로 달려서 圖門에 到着하였다. 물론 延吉을 거쳐서 오면서 점심食事を 하였다. 圖門은 우리나라 最北端인 南陽市에서 豆滿江이 건너다 보이는 中國 滿洲 都市이다. 圖門에서 보면 豆滿江을 南으로 건너서 南 쪽에 있는 都市가 北韓의 北端인 南陽市이다. 우리는 豆滿江橋를 바라보며 건너지 못하는 恨을 달래면서 바라만 보았다. 다리는 넓지도 않고 좁은 다리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豆滿江橋를 背景으로 하여 寫眞을 撮影하였다. 그리고는 버스로 다시 延吉로 되돌아갔다.

延吉에서 夕食을 마쳤다. 우리는 北京을 가기 爲하여 延吉飛行場으로 버스를 달렸다. 午後 6時 15分頃에 飛行場에 到着하

였다. 어디로 가든지 화장실 出入이 苦衷이었다. 時間에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좀 참고 보자 하다가는 다음 停車할 때까지 時間이 멀면 또 참는 것이 진짜 苦痛스러웠다. 午後 7時 30分頃에 飛行機에 올랐다. 이번에도 出發 時間인 午後 7時 45分 定刻에 뜨지 않았다. 드디어 7時 50分 되니까 飛行機는 出發하였다. 나는 즐기 시작하였다. 내 妻도 즐기고 있었다. 午後 9時 15分에 北京에 到着하였다.

우리가 飛行場 出口에 나가니 벌써 버스가 待機하고 있었다. 一行은 ‘화평반점’이란 호텔에 到着하였는데 호텔은 比較的 高級이었다. 잠은 언제 잤는지 눈을 뜨고 보니 아침이었다.

◦ 7月 31日

호텔에서 朝食을 마쳤다. 午前 8時 30分에 集合하여 버스로 萬里長城으로 달렸다. 거의 近處까지 이르러 車에서 내렸다. 걸어서 萬里長城 城壁 위로 올라서니 그 時代의 사람으로 되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높이는 한 길이 넘을 정도로 約 210cm 이고 넓이는 택시 2臺가 同時에 지날 수 있을 정도였는데 巨大한 돌로 짜서 올린 石築城이었다. 萬里長城의 總長은 6,350km라 하며 北京의 북쪽 山海關에서 始作하여 西 쪽으로 멀리 뻗어 간수성(甘肅省)의 자위관(嘉峪關)에 이르는 城이다. 本來 蒙古族의 南侵을 막기 爲하여 建設된 要塞線으로 世界的인 大土木工事이다. 秦始皇이 建設한 것으로 생각하나 現在의 長城은 中國古代의 것이 아니다. 秦代의 長城과 그 前 戰國時代 20個의 土侯國이 쌓은 長城을 連結해서 새로운 規模로 세웠던 것이다. 戰國時代에는 지금의 산둥성(山東省)에 齊의 長城, 허난성(河南省)에 楚의 長城, 산시성(山陝城)에 魏의 長城,

허베이성(河北城)에 燕의 長城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秦代에 이르러 以上과 같이 여러 長城 中 中國北部에 있던 것을 利用하여 새로 城을 쌓았는데 그 位置는 仔細하지 않고, 現在의 長城보다 地方에 位置하였으리라 推測된다. 秦代 以後의 長城의 修築은 또 不斷히 行하여져 南北朝 時代로부터 隋에 이르는 사이에 大略 現在의 長城의 位置가 定해진 것이다. 그러다가 明代에 이르러 北邊 防衛에 苦心을 한 나머지 長城修築을 爲하여 多大한 努力을 기울이게 되었다. 明代에는 北邊防衛를 爲하여 9個의 防衛地區로 나누고 이것을 9邊이라 불렀으며 明은 全時代를 通하여 長城의 修築에 重点을 두었다. 現在 남아 있는 長城은 堅固하며 明代에 修築된 것으로 推測된다고 한다. 우리는 各各 나름대로 萬里長城 위에서 이리저리로 다녀 보았다. 나는 約 80m쯤 걸어 가보고는 되돌아 와서 城 위에서 내려 왔다. 車에 올라서 다음 行先地로 달려 갔다. 明13陵, 이 화원 등을 보았다. 中國의 옛날 文化施設이나 現代의 文化施設을 莫論하고 그 範圍나 規模가 雄壯 巨大함을 느꼈다. 大陸性氣質에 依한 것이다.

明朝宮闕을 求景하였다. 이것을 紫禁城이라 한다. 宮의 모든 建物들이 大規模로 어마어마하기 짝이 없었다. 아름답디 圓柱 기둥들이며 巨大한 宮闕들이다. 庭園을 通하여 가니 큰 大門채 집이 있어서 그 집을 通過하니 또 巨闕이 여러 棟이 나타났다. 그 庭園을 通過하니 또 거대한 大門채가 있어서 그 大門을 通過하니 亦是 巨大한 집채들이 여러 棟 보였다. 이와 같이 커다란 대문을 몇 棟을 지나고 또 巨闕이 나오고 하여 몇 번 되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다시 되돌아 나갔으면 한 번 세어나 볼 것을 나갈 때에는 오던 쪽이 아니고 뒤쪽으로 빠져 나

갔기 때문에 세어 볼 수가 없었다. 아마 7, 8차 되풀이 되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뜰에는 뜰마다 全面을 돌로 만든 벽돌을 박아 두었다. 벽돌 두께는 四方 약 20cm 정도인데 길이가 1m 정도인 것이 길이 대로 땅에 박혀져 있었다. 그러니 벽돌이 地下 1m 아래까지 박혀 있는 셈이다. 거기에다 周圍는 담장이 높다랗게 쌓여 있다. 이는 어찌다가 叛逆者들이 담장으로는 攻擊해 오지 못하고 밖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오지나 않을까 하여 그것을 막기 爲하여 돌벽돌을 땅에다 빈틈없이 박았다고 한다. 얼마나 用意周到한 準備였던가 말이다. 아무리 그렇게 防備를 해두었지만 이 明나라는 朱元璋이 揚子江 下流에서 일어나 元을 쫓고 明나라를 세웠으나 276年만에 亡하고 淸나라가 들어섰다. 이 明朝의 宮闕을 보고 나는 깊은 感懷에 잠겼다. 王의 宮闕이 이다지도 어마어마하게 大規模로 넓은 터에다 몇 萬坪인지 모르겠으나 廣大한 面積에다 雄壯하고 巨大한 宮闕들을 빼곡이 5,60棟을 建築하고 거기다 豪華燦爛한 裝飾과 施設을 다 갖추었으니 그 宮中の 帝王一族의 生活이 얼마나 奢侈의 極을 다 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人間社會에 있어서 經濟의 原則은 一者의 利는 他者의 損이라 했는데 王室에서 極致의 豪華奢侈를 할 때에 百姓의 生活은 窮乏悽慘했을 것은 明若觀火인 것이다. 宮室에서 酒池肉林의 每日이요, 數多한 蒼生들은 草根木皮의 每日이 아니었겠느냐 말이다. ‘燭淚落時에 民淚落이요, 歌聲高處에 怨聲高’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 分明하다.

나는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겠다. 大概 教職生活 時節 때부터였으리라. 不公正한 人事問題 等 秩序와 法則에 어긋나고 逆行되지만 爲先 甘味로움에 취해 貪財 滿足을 느끼는 大膽無雙

한 人間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나는 不義와는 妥協할 줄 모르는 氣質의 所有者이다. 그래서 恒常 弱者同情便이다. 宮闕과 百姓과의 사이의 담장이 너무 높고 너무 堅固하면 王室과 百姓間은 멀어만지는지라. 王權을 잡은 者가, 또는 大統領이 國民의 苦痛을 모를 때 또 알려고 하지 않을 때에 民心은 支配者로부터 離脫되는 것이 社會의 이치이다. 모름지기 支配者, 帝王은 百姓과 더불어 먹고 입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宿食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王은 王답게 威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恒常 마음 쓰임이 百姓을 親子息같이 憐憫해야 한다는 말이다. 王室이 豪華와 奢侈를 極하면 自然히 國民으로부터 收奪이 甚해지느니라. 그로 해서 百姓의 民心은 王을 싫어하고 王室의 滅亡을 所望하게 되는 것이다. 王室이 亡하게 될 때에 民心은 다 떠나는 것이요, 새로운 王室이 들어서려고 할 때에는 民心이 모여든다. 왜냐하면 새 王은 우리를 잘 살게 해 줄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왜 이다지도 길게 쓸데 없는 소리만 하고 紀行文은 안 쓰느냐고 하지 말라. 紀行이란 색깔, 모양, 美醜等만 보고 듣고 쓰는 것도 좋지만, 內容面 卽 精神的 面도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의 教養의 糧食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恒常 考慮하여 그 由來와 結果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明나라가 276年만에 亡한 理由는 前述한 대로 王室을 미워하는 國民이 많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王室에서만 다 하고 百姓들은 굶주리고 헐벗었기 때문이다.

夕食으로 맛있게 불고기를 먹었다. 아주 滿足하였다. 호텔에 到着하였다. 虹橋賓館이란 호텔이다. 아주 高級호텔이다. 오늘 出發日로부터 5日째이니 多少 疲困하여 곧 잠들어 버렸다.

◦ 8月 1日

昨夕에 일찌감치 잠이 들어서인지 오늘은 5時 30분에 잠이 깬다. 호텔에서 朝食을 마치고는 버스를 타고 오늘의 觀光에 나섰다. 첫번째로 天安門을 찾았다. 이 廣場은 넓직하다. 中國이 社會主義가 되고 부터인지 廣場 곳곳에 社會主義的 宣傳文看板이 巨大한 글씨와 그림으로 揭示되어 있다. 毛澤東의 肖像畫도 天安門에 걸렸다. 寫眞을 몇 장 撮影하였다.

中國의 모든 施設이 그러하듯이 餘裕가 있어 보이며 廣大雄壯하다. 亦是 大陸다운 氣質의 票徵이다. 먼 앞날을 내다보는 것 같다.

中食을 마치고는 午後에도 몇 곳을 더 둘러 보고는 午後 6時頃에 虹橋飛行場으로 갔다. 北京이란 都市는 中國에서는 베이핑(北平)이라고 하며 中國의 首都이다. 北緯 39°27' 東京 116°23', 海拔 44.38m, 華平平野의 北端에 있어 華, 滿, 蒙의 支掌點에 있는 軍事, 政治의 要地로서 멀리 戰國時代의 燕 以來 遼, 金, 元, 明, 清 等 中國 古代로부터의 故都이며, 城 內外에 많은 商店이 모여 繁華하다. 人口는 約 1060萬으로 名勝古蹟이 많고 學術, 藝術의 中心地로 漢文化를 代表하고 世界美術都市의 하나이다. 大行山脈의 西山을 바라보는 부채 모양의 平坦한 沖積層 위에 자리 잡아 城內外에는 景山, 滿壽山, 王泉山 等 展望이 좋은 山이 있고, 城內에는 什利海, 北海, 南海 等の 못이 있으며 國民은 水道물 보다 地下水를 더 많이 使用한다. 大陸性 氣候로 寒暑의 差가 甚하여 平均氣溫은 1月 零下 45°C, 7月에는 26°C이다. 옛날에는 主로 消費都市이었는데 最近에 飛躍적으로 發展하여 機械製造, 化學, 食料品 等の 近代工業이 興盛하다. 西山에는 無煙炭의 埋葬量이 豊富하고, 石景山의 銑

鐵은 有明하다. 紫禁城은 明清 때의 王宮이며 前述한 대로 豪華燦爛 雄壯 그대로이다. 北京의 옛 이름은 薊(계)이다. 周나라 때 召公을 薊에 封하여 國名을 燕이라 하였다. BC 三世紀末에 燕은 秦始皇에 征服된 후 約 1000年間 薊城은 東北邊境의 政治軍事上 重要的 位置에 있었다. 隋의 煬帝가 高句麗를 侵略할 때 이곳을 前進基地로 삼았고 唐의 太宗이 來侵할 때에도 軍事的 根據地로 삼았다. 唐나라 末葉때에 契丹族이 城을 占領하여 南京(燕京)이라 하고 遼라는 國家를 建立, 12世紀初에 女眞族이 金나라를 세우고 燕京에 都邑을 定하였다. 그 뒤에 100년도 못 되어 蒙古族이 이곳을 掠奪하여 大都라 이름하고 元나라를 세웠다.

1368년에는 明나라가 南京에 都邑하였는데 1420년 成祖 永樂帝가 다시 이곳 北京에 都邑을 定하고 北京이라고 하였다. 明의 뒤를 이은 淸나라도 1644年 以後 滅亡할 때까지 이곳을 國都로 하였다. 이어 中華民國이 成立한 뒤 이곳을 首都로 하였는데 北伐에 成功한 뒤 首都를 南京으로 옮기고 이곳을 北平이라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서 記錄하고자 한다.

우리 一行이 吉林省 延邊 附近 어디에선가 中國 白頭山 熊大製藥有限公司란 곳을 訪問하였다. 이곳은 곰을 길러서 熊膽을 大量 生産하여 製粉, 製丸하는 곳이다. 들어서니 넓은 廣場에 담장을 쌓고 그 넓은 廣場內에 곰을 約 50마리를 놓아 飼育하고 있었다. 널직한 建物 안으로 들어가니 製造室, 實驗室, 事務室 등 여러 室이 있었다. 그 곳을 지나서 또 앞으로 가니 곰을 한 마리씩 우리 안에 넣어두고 기르는 것이 十餘 마리 있었다. 앞쪽에는 발이 근근히 하나 나올 만큼 鐵창살을 여러

개 세워 막아 튼튼하였다. 그 마지막 구석에 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다. 亦是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으니 安心이라고 생각하여 호랑이를 좀 가까이서 보기로 하고 여러 마리의 곰 우리 앞을 차례로 지나가는데 한 마리의 곰만 더 지나면 호랑이의 우리다. 나는 조심조심 마지막 곰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내 바른편 어깨 卽 팔의 윗部分을 뒤에서 잡아 끌었다. 뒤를 돌아 보니 아무도 없었고 곰들만 내 바른편에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아차 곰이 앞발로 내 팔을 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만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해 보았다. 내가 호랑이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危險하니가 더 앞으로 가지 말라는 信號였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말 感謝한 일이다, 아니면 그 곰이 自己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니 그저 장난으로 툭 한번 쳐 봤는지 그 후로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로서는 풀리지 않는 큰 수수께끼이다. 어쨌던 고마운 곰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感謝하다.

中國에는 廣告나 宣傳公示 等에는 中國人은 漢字 專用인데 요즘은 어려운 漢字 卽 劃數 많은 글자는 全部 略字를 使用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不可解한 글자가 많았다. 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 虹橋(橋), (2)安樂(樂), (3)出發(發), (4)環(環)境, (5)郵(郵)電(電)局, (6)總(總)工司, (7)中華(華), (8)白頭(頭)山, (9)果樹(樹)枝木, (10)衛(衛)生

以上 몇 가지만 列舉해 보았다.

中國은 알다시피 共產主義 國家이다. 오히려 社會主義 國家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社會相의 霧圍氣가 그렇게 緊張되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딱딱하게 또는 搖亂스러운 空氣는 느낄

수가 없었다. 그저 市民의 表情들은 모두가 明朗하고도 밝아 보였다. 그 理由를 나는 생각해 보았다. 二次 世界大戰까지만 해도 中國大陸은 封建社會였고 資本主義國家였다. 그야말로 貧富의 差異가 極甚하였고 富者는 土地를 몇 十萬坪 몇百萬坪 아니 한 고을 全體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資本이란 土地가 主였고 一次 產業時代의 末期에 가까웠다. 그러니 總 國民의 5% 정도도 되지 않는 上流階層이 土地의 8~90%를 占有하고 있었고 餘他 90% 以上の 國民은 小作農 아니면 雇傭人, 奴隸生活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矛盾된 社會속에서 二次大戰의 終戰後 毛澤東의 指揮下에 中國이 社會主義 國家로 化해 버렸다. 現地 가이드에게 나는 質問해 보았다. “中國이 社會主義 國家로 移行되었는데 現行 內容을 簡單히 說明해 주세요” 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中國은 社會主義國으로 된 以後 國土 全部는 國家 所有가 되었고 建物은 賣買할 수도 있으며 強制的 勞動같은 건 없다 한다. 墓所는 一切 쓸 수 없으며 無條件 火葬을 하여야만 하며 萬若 埋葬하는 일이 발각될 때는 어마어마한 罰金刑에 處해진다고 한다. 그의 말에 依하면 預蓄된 金(돈)은 子息에게 물려줄 수 있다 한다. 要約하면 土地로 因하여 貧富의 差別이 形成되었기에 根本적으로 土地의 私有만은 拔本塞源한 셈이다. 그러니 中國國民은 奴隸에서 解放된 셈이고, 또 너도 나도 平等해졌고 自由生活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리의 行人들도 自由로와 보인다. 요사이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 사람들 중에 간혹 男子들은 옷저고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이 보인다. 이곳 農村도 收入이 늘지 않으니 大體로 農事일을 싫어하고 都市로 빠져 나가 막노동이라도 하여 現金生活을 하려는 傾向이 많아졌다고 한다.

滿洲一帶에는 農作物에 옥수수밭이 많았고, 果樹園도 더러 보였는데 主로 사과나무였다. 中國의 6泊 7日의 旅行을 以上으로 마치고 8月 2日 夜 12時 50分 飛行機로 上海를 出發하여 金海飛行場에 午後 3時 50分 到着 歸國하였다. 여기에도 朴永鎭 先生님의 아드님이 와서 待期하고 있었다. 우리 夫婦도 便乘하여 무사히 歸家하였다. 午後 6時 20分이었다.

■ 後記

旅行이라 하면 視聽覺的으로 눈과 귀의 滿足만을 취한다는 것은 感覺的인 滿足일 따름이며 人間의 精神 內面的, 卽 말하자면 靈的인 充實을 얻는 바가 없다면 平凡한 動物的 行步에 不過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그 具體像들을 하나 하나 或은 대충 살피면서 그 由來와 그 原因, 理由 등을 따지고 보는 것이 價値있는 旅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卽 歷史的인 背景과 研究가 必要한 것이다.

이것으로 大略 記하고 우리 夫婦의 第三次 海外旅行 紀行을 마친다. 나는 紀行文이란 文字는 쓰지 않기로 한다. 文이라면 學者의 글이라야만 文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다.

4. 第四次 海外旅行

(유럽)

꿈에도 그리던 우리 夫婦의 유럽 旅行을 이번에 實現하게 되었다.

◦ 1995年 9月 14日

우리 夫婦는 午後 1時 30분에 집을 나서서 택시로 蔚山 空港으로 달렸다. 우리는 서울行 航空票를 購入했다. 出發時間은 午後 3時 25分이다. 트렁크 하나와 손가방 하나씩을 들었다. 우리는 午後 3時 15분에 搭乘하여 서울에 到着하니 午後 4時 15分이었다. 마침 둘째 사위인 辛 書房이 空港에 出迎하여 待期하고 있었다. 반가웠다.

우리 夫婦는 乘用車에 同乘하여 서초洞의 둘째딸 집으로 가서 1泊하기로 하였다. 夕飯 後는 일찌감치 就寢하였으나 유럽으로 마음은 달리고 있었다. 아침에는 5시에 起寢하여 簡單한 朝飯을 마치고 6時50분에 집을 出發하였다. 辛 書房이 金浦空港까지 태워다 주었다. 感謝함을 느꼈다. 金浦空港에 到着해서도 間食거리 등을 사서 주는 등의 細心한 配慮를 받았다. 우리 夫婦는 辛 書房도 出勤을 해야 하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午前 8時 定刻에 飛行機를 搭乘하려고 出口를 나가는 우리 夫婦의 모습을 보고서야 손을 흔들면서 잘 다녀 오십시오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도 亞洲觀光會社의 引率案内로 유럽 旅行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金浦空港 出發 時間은 午前 10時 15分이니까 아직도 餘裕時間이 많았다. 우리 夫婦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第1廳舍 2層으로 올라가서 신한은행 앞에서 一行 모두와 集結하였다. 蔚山에서 온 사람은 우리 夫婦 뿐이었다. 이번에 우리 유럽 旅行팀은 21名이다. 案内 引率 責任者는 우리들 旅券을 蒐集하여 出國節次를 마치고 票를 사서 나누어 주었다. 많은 時間을 이리저리 廳舍內를 돌아다녔다. 화장실에도 夫婦 서로가 勸誘하여 갔다 오기도 하면서 時間을 消費하였다.

午前 10時에 우리들은 飛行機에 搭乘하였다. 英國 런던으로 가는 것이다. 午前 10時 16分頃에 飛行機는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約 5分 동안이나 미끄러지더니 드디어 뜨기 시작한다. 이제 런던으로 飛行한다. 한참 동안을 지나서 下界를 내려다 보니 雪景이 보인다. 아마 시베리아 上空을 通過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機內에서 즐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갔다 오기도 하였다. 이윽고 잠이 들었다. 잠이 깨어 時計를 보니 내 時計는 午後 5時 55分이다. 드디어 英國의 上空에 다다랐다. 現地 時間으로 午後 3時 15分에 런던 空港에 着陸했다. 런던 空港에서 午後 5時 15分에 다른 飛行機로 갈아타고 파리로 向했다. 午後 7時 20分에 파리에 到着하여 荷物을 찾으려 했으나 到着하지 않았다고 한다. 不得已 우리는 空港에서 짐이 到着할 때까지 待機하였다. 午後 10時 20분에야 荷物을 찾았다. 그리고 호텔로 移行하여 夕飯을 取하고는 就寢하였다. 허리데이호텔인데

밤 11時 30分이었다. 오늘은 9月 15日인 셈이다.

◦ 9月 16日

호텔에서 6時에 起寢하여 朝飯을 마치고 8時에 버스로 市內觀光을 했는데 第一 먼저 루블博物館을 찾았다. 外形부터가 매우 雄壯하고도 規模가 어마어마하게 큰 建物이다. 全體가 石造建物이다. 本來 이 建物は 軍事的 要塞가 目的이었으나 이후 루이時代에 宮殿으로 使用되었다가 베르사유宮殿을 새로이 建築하여 移宮을 하고 이 建物は 植民地에서 奪取한 遺物을 展示하기 위해 博物館으로 使用되고 있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서 爲先 建物の 內部 構造부터 살펴 보니 天井이 아주 높고 기둥이 모두 圓柱型 石柱인데 아주 크고도 長大하였으며, 또한 壁面과 天井의 裝飾과 治粧은 纖細한 솜씨로 이루어져 있었다. 所藏된 內容物들은 珍貴한 寶物들이 많았으며 그저 열렸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感歎詞만을 發할 따름이다.

다음은 專用버스로 세느 江邊을 달렸다. 세느江은 파리 市街地를 흐르는 江이며 이 江에 걸쳐져 있는 다리(橋)는 32個라고 하며, 江南은 教育村이고, 江北은 商街라고 한다. 소르본 大學도 江南에 있다. 노트르담 寺院을 둘러 보았다. 이곳은 거리가 아주 깨끗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現地에 와서 보니 그렇지도 않다. 담배 꾀초가 군데군데 散在해 있었고 쓰레기, 休紙 조각도 더러 보인다.

사람을 만나면 ‘봉쥬르’라고 人事를 한다고 한다. 다음은 파리하면 생각나는 에펠탑을 구경하였다. 1789년에 프랑스 革命이 發生하고 그 記念으로 100年 後인 1889년에 이 탑이 建造

되었다고 한다. 높이가 320m이고 總重量이 7000톤인 巨大한 塔이다. 다음은 콩코드 廣場이다. 和合과 調和를 意味하는 廣場이란다. 誠心聖堂을 찾았다. 다음은 몽마르뜨 언덕, 상제리제, 오페라하우스 등을 둘러보고는 夕飯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허리데이 호텔이다.

◦ 9月 17日

아침에는 일찍 잠이 깨었다. 5時이다. 유럽과 우리나라와의 時差는 8時間으로 우리나라 時間이 빠르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時計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아침 7時에 朝飯을 마치고는 亦是 버스로 8時 15分에 出發하였다.

베르사유宮으로 向했다. 이 宮殿은 루브르宮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루이 14世가 建造하여 移宮을 했다 한다. 全 建造物이 代理石造이며 總 面積이 3千坪이라고 하니 그 規模가 어 마어마함을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갈 정도이다. 圓柱 기둥이 크 고도 높다. 代理石이다. 이렇게 燦爛陸離한 宮殿이 아니고서는 大프랑스를 統治하기가 힘들었던 것일까? 國王의 威嚴은 宮殿의 雄大巨創함에서부터 始作되는지 모르겠으나 國民 全體로부터 多大한 膏血을 짜내어서 한 사람의 豪奢를 爲하여 消費했다 함은 果然 迷昧한 시대의 作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도 그 王朝가 長久한 歲月을 維持해 나갔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中食을 取하고 잠시 休息을 하였다. 버스는 午後 2時 頃에 北으로 向해서 달렸다. 午後 4時頃에 벨기에 國境을 通過하여 벨기에로 들어 갔다. 이곳 유럽에 와서는 國境을 지날 때에는 國境의 標示도 뚜렷하게 해 놓은 것도 없고 또 國境을 守備하는 軍隊나 警察도 配置되어 있지도 않아서 마치 이쪽

발이랑에서 저쪽 발이랑을 건너가는 氣分이었다. 森嚴한 警戒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벨기에는 國土가 3萬5千km²이니 우리나라 南北을 呑킨 것의 約 6分之 1도 안되는 작은 나라이며 人口는 1,000萬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 벨기에까지는 全部 平野의 連續이었다. 國境地帶의 발이 地平線을 이룬다. 이쪽 발과 저쪽 발 사이가 國境이다. 드디어 벨기에의 首都인 브뤼셀에 到着했다. 그랑프랑스, 오줌싸개 銅像 등을 觀覽後 암스텔담으로 向發하였다.

네덜란드國은 面積이 約 42,000km²이고 人口는 1,500萬名이다. 또 هول랜드라고도 한다. 運河가 많은 나라이다. 홀(hole)은 구멍 卽 運河를 上空에서 보면 구멍같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 렌드(Land)는 땅(地)이다. 卽 هول랜드란 구멍이 많이 뚫린 땅이다. 여기 암스텔담 市內만도 運河가 600個라고 한다.

‘네덜’이란 말은 낮다(低)는 말이며, ‘란드’는 땅 즉 ‘낮은 땅’이다. 이 네덜란드는 바다보다도 낮은 땅이라 하고 山이 없다. 第一 높은 山이 340m라고 한다. 그래서 물을 퍼내는 風車가 많은 나라이다. 이 나라는 牧畜業이 盛하여 牛皮가 우리나라에 輸出되고 있다고 한다. 年間 國民所得은 13,000弗이니 잘 사는 나라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世界 各國으로 進出한 例가 많다. 美國, 中國, 東南亞細亞, 유럽 各地는 물론 이요, 그 痕迹은 記錄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에 民族性이 活動的이며 進取的임을 알 수 있다. 암스텔담에는 아직도 나막신을 製造하는 工場이 있었다. 나는 記念으로 나막신을 한 켤레 購入했다. 치즈를 만드는 工場도 求景하였다. 내 妻는 치즈를 2個 購入했다.

中食을 取하고 12時 50분에 암스텔담을 출발하여 버스로 獨逸을 向해 出發하여 午後 4時 20분에 킬른에 到着하였다. 킬른 大聖堂을 觀覽하고 어둑어둑할 무렵에 로렐라이 언덕에 이르렀는데 이 보잘 것 없는 언덕이 어찌 그리도 有明해서 그 이름이 韓國에까지 전해졌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킬른이란 都市는 人口가 98萬名의 都市이며 로마의 植民地로 屬해 있을 때 네로皇帝의 出生地라고 한다. 라인江邊이다. 午後 8時 로렐라이언덕 後便에 있는 宿所로 가서 1泊을 하였다.

◦ 9月 19日

아침 5시에 起寢하였다. 나는 平素에 집에서 午前 4時에는 잠이 깨는 편이다. 朝飯을 마치고 午前 7時 35분에 호텔을 나와 버스로 出發하였다. 괴테 生家를 訪問하여 内部의 遺物들을 돌아 보고 市廳舍, 퇴머 廣場 등을 둘러 보았다.

다음은 하이델베르그로 向發하여 夜 12時 30분에 到着하였다. 600年前의 古城이 저만치 바라다 보인다. 600年 前에 또 '내노라' 하는 英雄이 있었던 模樣이다. 그 英雄이 지금은 어찌 되었느냐 말이다.

이 都市는 大學 都市인 同時에 藝術의 都市이다. 人口는 17萬名이다. 그 古城 아래로 매카江이 흐르고 있다. 다음은 스위스의 취리히로 向發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宿泊하였다.

◦ 9月 20日

스위스의 밤은 밝았다. 快晴한 날씨이다.

朝食을 마친後 루체른 向發, 루체른 到着後 카펠다리, 頻死의 사자성 등 市外 觀光後 中食을 마쳤다. 루-텔 時計店을 들

러서 價格을 알아 보니 우리 돈으로 幾百萬元 짜리가 最下이고 幾千萬원짜리도 있었다. 루-텔에서 中食을 取하였다.

다음은 알프스의 名峰인 티틀리스로 버스를 타고 向하였다. 가는 途中에 알프스山에서 여름철 동안 放牧하였던 牧牛 무리들이 數十마리가 떼를 지어서 一列縱隊로 서서 목에 단 방울 소리를 땡그렁거리며 오고 있는 모습을 發見하였다. 우리 一行은 버스에서 내렸다. 소들은 右側 通行이고, 우리 一行들은 左側에 一列로 서서 求景하였다. 1年中에서 이와같이 소떼가 下山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 우리는 運 좋게 볼 수 있었다. 땡그랑 땡그랑 요란스럽다. 소의 목에다 或은 빨에다 花環을 걸어서 恰似 凱旋하는 將軍의 氣分이다. 땡그렁 쩡그렁! 여름 동안 풀도 많이 먹고, 송아지는 中소가 되고 中소는 큰소가 되고 어미소는 새끼를 낳아서 모두가 健康하게 돌아오는구나. 祝賀합니다.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牧童들이 中間마다 달라붙어 따라 온다. 그야말로 壯觀이다. 一行 모두가 無意識的으로 拍手를 쳤다. 우리들은 소떼를 다 보내고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山자락 가까이 到着해서 우리들은 모두 내려서 케이블카에 올랐다. 그리고는 눈이 덮혀 있는 티틀리스峰의 頂上에 내렸다. 約 20m를 더 걸어서 올라 頂上에 섰다. 온통 눈이다. 우리 夫婦는 萬歲를 불렀다. 山頂을 타고 暫間 30m쯤 가니 兩쪽 壁쪽은 空空 얼은 泮泮한 冰壁이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길을 왔다 갔다 해 보았다. 約 10分 동안을 冰峰에 머물렀다가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下山하여 버스에 올랐다. 우리는 알프스의 티틀리스峰에 올라갔음을 平生의 記念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버스는 오늘 宿泊地인 伊太利의 밀라노로 向했다. 午後 3時에 버스가 루텔을 出發하여 午後 6時 30분에 밀라노에 到着하였다. 이 밀라노는 伊太利 北部의 代表的인 大都市로서 人口가 250萬의 都市라 한다. 午後 8時 40분에 호텔에 到着하여 1泊을 하였다.

◦ 9月 21日

밀라노의 아침이 밝았다.

맨 처음 찾은 곳은 밀라노 聖堂이다. 여기 유럽 一帶는 그리스도 文化圈이기 때문에 教會, 聖堂이 많으며, 서로의 聖堂이 저 聖堂보다는 이 聖堂을 더 크고 雄壯하고 威容있게 設計 築造하려고 競爭을 한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規模가 크고 纖細한 精巧로움을 加味하고 있다. 이 聖堂도 그러한 點을 벗어나지 않아 壯大하다. 레오날드銅像 앞에서 우리 夫婦는 記念撮影을 하였다.

다음은 스포르제스코城을 바라보며 지나서 다음으로 두모오 聖堂, 라 스칼라 오페라를 觀光한 後, 午後 2時에 휘일라델휘이아에 到着, 中食을 하였다. 여기가 플로렌스이다. 시노리오廣場을 둘러서 백기오宮殿을 觀覽한 後 밤11時頃 로마에 到着하여 新羅館에서 韓食을 夕飯으로 맛있게 먹었다. 밤 12時에 홀리데이 호텔에 들어서 就寢했다.

9月22日

로마의 아침이 밝았다. 우리 夫婦는 새벽 5時가 되기 前에 눈을 떴다. 오늘은 로마市內를 觀光하는 것이다. 朝食을 8時 30분에 마치고 9時에 專用버스로 호텔을 出發하였다.

바티칸 博物館과 6千坪이라는 패트로 大聖堂을 둘러서 살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外形이면서 또 그 內部였다. 파티마 敎皇廳大博物館의 天井이 約 400坪이라는데 그 天井의 天地創造란 內容의 그림은 미켈란제로의 傑作이라 한다. 미켈란제로는 이 그림을 그렸기에 有明해졌는가 아니면 有明한 畫家였기에 이 天井 그림을 그렸는가? 아마 두 가지가 다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伊太利의 소나무는 그 잎이 細長하며 오데라스코라고 하였다. 海外로 여러 날을 돌아다니다 보니 우리 韓國의 優雅하고도 豊肉한 소나무가 그림기도 하구나!

다음은 愛泉이라고 하는 トレ비噴水を 찾아갔다. 스페인廣場을 둘러 보았다. 그 다음은 네로 皇帝가 殘忍性을 좋아했다는, 지금은 廢墟가 되어 殘骸만 남아 있는 圓形競技場을 둘러 보았다. 그 時代의 네로 皇帝의 暴君像이 떠오른다.

오늘 밤은 로마에서 1泊하기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으로 聖페드로聖堂을 살펴 보았다. 포르로마노, 콜롯세움 등을 살펴 보았다. 夕食 後 홀리데이 호텔에 宿泊하였다.

9月 23日

朝食 後 市内觀光을 나섰다. 버스로 午前 9時에 出發하여 파올로 聖堂을 찾았다. 外形이나 內部가 雄壯하고 纖細함은 이 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은 버스를 달려서 異色的이면서도 神奇한 ‘까따꿈베’ 地下墓地를 찾아가 보았다. ‘까따꿈베’라는 말은 ‘暫間 쉬어 간다’는 말이라 한다.窟안으로 들어가니 左右壁에는 層層마다에 조그만하게 箱子式으로 되어 있는 흙으로 된 선반같은 것이 보인다. 여기에다 그 옛날에 죽은 者의 骸骨을 두었었다

고 한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東洋이나 西洋에서나 骸骨處置는 항상 문제였던 것 같았다. 그窟 안은 꽤 넓어 보였다. 우리는 급히 밖으로 나와 버렸다.

伊太利에는 香나무가 많았다. 다음은 로마 空港으로 移動하여 로마를 出發하여 런던으로 向하였다. 로마 空港 出發이 午後 6時 30分이고, 런던 到着이 午後 8時 50分이었다. 로마의 空港名은 레오날드다빈치 空港이라고 한다. 飛行機는 英國 飛行機였다. 'British Air Ways' 였다. 런던에서 夕飯을 마치고 홀리데이 호텔에서 宿泊하였다.

◦ 9月 24日

런던에도 날이 밝았다. 地球는 如前히 돌고 있는 模樣이다. 朝飯을 마친 後 버스로 出發하여 윈스턴민스터 寺院을 찾아 보았다. 버킹검 宮殿을 外形만을 둘러 보고는 大英博物館으로 들어섰다. 아주 巨大한 博物館이며 世界에서도 第一가는 博物館이다. 歷史적으로 오래된 珍奇한 寶物들의 總蒐集場所인 것이다. 各國別로 別館으로 陳列되어 있는데 矽실리아 文明館에는 이란 이라크의 2,800年前의 文化藝術品들이 展示되어 있다. 그야말로 珍奇한 寶物들이다. 그리스館, 古代의 文化藝術品들을 어찌 이다지도 齷齪같이 많이 蒐集했을까 하고 驚歎할 따름이다. 어쨌든 英國 사람들, 卽 英글로 색션族들은 일찍부터 눈을 世界로 돌려 五大洋 六大洲를 두루 涉獵하여 챙길 것은 모두 다 챙기고 取할 것은 다 取하고 가질 것은 다 가진 先見의 明이 透徹한 民族이었음을 分明히 깨닫게 하는 偉大한 種族임에 틀림없다. 그 珍貴한 寶物들을 손에 넣기 爲해서는 琉璃 그릇이나 구슬같은 兪값의 物件으로 誘引하여 毼어서 얻었

을 것으로 짐작된다. 手段 方法이 卑劣하다 하더라도 取하고 싶은 것을 取하였음이 얼마나 賢明하고도 伶俐한 民族이 아니던가. 크게 感歎할 따름이다. 博物館內를 둘러 보니 數없이 陳列된 그 많은 文化遺産을 다 둘러 보기에는 싫증이 날 정도였다. 오래된 屍身을 處理한 方法을 살펴보니 韓國式으로 麻布를 使用하여 屍身 全體를 감아서 一部分도 보이지 않게 묶어둔 것을 보고는 世界의 여러 나라가 屍身 處置方法이 비슷함을 느꼈다. 한쪽에는 키가 70cm 정도되는 어린 아이의 屍身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裸體로 눕혀져 있었는데 옆으로 누워져 있었다. 몇千年이나 되었는지 바싹 말라서 脯가 되어 있었다. 보기가 凶했으나 博物館內이기에 無可奈何이었다.

다음은 國會議事堂을 바라보았다. 템즈江의 江邊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늘도 저 議事堂에서 그 능구렁이들이 또 무슨 酬酌을 하고 있을까 하고 推念해 본다.

다음은 타워 브릿지를 바라보면서 하이드 파크를 둘러 暫間 休息을 取하였다. 템즈江은 런던을 흐르는 江이다. 이 江에 걸쳐진 다리는 17個라고 한다. 英國의 國會議事堂은 1880년에 建造되었으니 100년이 훨씬 지났다고 하며 世界에서 近代民主主義가 가장 먼저 施行되었으며 國王은 象徴의으로 君臨할 따름이지 統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國會議事堂內에는 房이 1,100個가 있다고 한다.

英國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다. 하이드 公園에서 中食을 取하였다. 世界의 到處에 英國民 種族을 퍼뜨려 놓은 앵그로 색션族, 정말 쳐다 보아야 할 偉大하고 尊敬받을 만한 民族이다. 이제는 그 民族을 본받으려 해도 앓을 만한 땅이 없지 않느냐 말이다. 英國人이 다 先手를 쳐서 占有해버렸으니 말이

다.

午後 7時에 호텔에 들었다. 來日은 韓國으로 歸國하는 날이다. 우리 夫婦는 짐들을 트렁크 안에 챙겨 넣고 손가방 등을 잘 整理하여 두고 10時頃에 就寢했다.

9月 25日

런던의 날은 또 밝았다. 오늘 아침 朝飯은 8時에 끝냈다. 우리들은 짐을 챙겨서 空港行 버스를 탔다. 아침 8時 30分 出發하여 9時에 空港에 到着하였다. 午前 10時 25分에 런던 空港을 離陸하였다. 나는 機內에서 ‘무사히 서울로 歸國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祈禱를 올렸다. 우리나라 時間으로 아침 7時20分에 서울에 着陸하였다. 約 12時間이 넘게 所要되었다. 우리들은 廳舍에 들어서 荷物을 찾기 위해 나오는 짐들을 살펴 보았다. 끝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우리 夫婦의 짐은 나오지 않았다. 係員에게 問議를 해 보았더니 런던으로부터 連絡이 왔는데 荷物 하나가 빠졌으니 다음 機便으로 보내준다는 消息이라 한다. 어찌 運 나쁘게 우리 夫婦의 트렁크만이 런던에 남았는지 모를 일이다. 係員은 말하기를 트렁크 열쇠를 맡겨두고 蔚山의 住所와 姓名을 함께 明記해 두고서 蔚山으로 내려가서 집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나는 住所와 電話番號와 姓名을 큰 글자로 써서 열쇠와 함께 係員에게 맡겨 두고 우리 夫婦는 午前 10時 蔚山行 飛行機를 타고 집에 무사히 到着하였다.

翌日 27日에 서울에서 아침 9時에 電話가 왔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서울 空港의 係員이라 한다. 나는 무척 반가워서 우리의 짐은 어찌 되었소 하고 물었더니 오늘 아침 8時 코오롱 高速버스로 發送하였으니 낮 12時 30分에 高速버스 터미널에 가

서 짐을 찾으란 기쁜 消息이었다. 나는 버스 到着 豫定時間보다 15分 정도 일찍 터미널에 나가서 기다렸다. 이윽고 코오롱 高速버스가 到着했다. 나는 다짜고짜로 버스 트렁크 쪽으로 갔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트렁크가 紙函으로 잘 包裝되어 왔다. 나의 住所와 姓名이 뚜렷하게 나의 눈에 들어 왔다. 나는 짐을 찾았다. 열쇠도 달려 있었다. 나는 짐을 끌어내어 놓고 技士에게 感謝하다는 人事를 하고는 택시에 싣고 집에 와서 內部를 살펴보니 아무런 異常도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感謝드리고 果然 世界는 하나이로군 하면서 感歎을 하였다.

나는 神仙이 사는 곳 卽 丹丘가 어딘지 모르지만 神仙도 人間이 想像해 보는 存在에 不過하며 實物은 없다. 따라서 丹丘란 곳도 實在하는 곳이 아니다. 亦是 神仙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閔風瑤池도 實在하지 않는, 人間이 부질없이 想像하는 곳이다. 이번 유럽 旅行 中에 스위스의 알프스山 가까이에 있는 ‘루제른’ 湖水는 나로 하여금 ‘여기가 所謂 말하는 丹丘이며 閔風瑤池로구나’ 하는 歎聲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나 스스로가 나의 妻와 함께 神仙이 된 氣分이었다.

5. 第五次 海外旅行

(하와이 美國 西部)

우리 夫婦는 美國旅行을 한번 해 보고 싶던 中에 마침 기회가 있어서 함께 가기로 決定했다.

◦ 95年 10月 19日

아침에 집에서 起床하여 7時에 朝飯을 마치고 우리 內外는 트렁크와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마침 택시가 있기에 잡아타고 太和 호텔 앞까지 가서 내렸다. 잠시 後에 金海 空港行 버스가 왔으므로 우리 夫婦는 버스에 올랐다. 蔚山發은 午前 9時 正刻이었다. 金海空港에 到着하니 10時 30分이었다. 比較的 順調롭게 到着했다. 金海空港 出發은 午後 1時 30分이었다. 우리 一行은 1時 20分에 搭乘했다. 1時 30分에 金海를 離陸했다. 午後 2時 25分 서울에 到着하여 空港 第一廳舍의 二層에 올라 兵務申告所 앞에 모두 集合하였다.

亞洲觀光會社에서 우리의 引率責任者로 이경운氏가 到着해서 우리들의 旅行手續節次를 밝아주었다. 서울 出發은 午後 4時 55分이다. 우리 夫婦는 簡單하게 點심을 먹었다. 午後 4時40分에 飛行機에 搭乘하여 55分에 出發하였다. 하와이로 가는 것

이다.

드디어 하와이의 호놀룰루 國際空港에 到着했다. 現地 時間은 午前 8時 10分이다. 우리는 空港 建物を 빠져 나갔다. 現地 가이드가 出迎하고 있었다. 夕食은 機內에서 먹었고 아침 食事도 機內에서 待接을 받았다. 機上에서 새벽 2時頃에 太平洋의 日出을 보았다.

하와이는 全體 섬의 數가 大小를 합쳐 132個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中에 人家가 있는 섬은 8個라고 한다. 하와이의 原住民들을 ‘포리네시안’이라고 하는데 ‘섬나라 사람’이란 뜻이다. 우리가 飛行機에서 내리니까 現地 가이드는 우리들의 목에다 花環을 만들어서 걸어 주었다. 그리고 하와이의 人事方法을 가르쳐 주었다. 손을 하나 들어서 가운데 손가락 세個는 굽히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完全히 펴서 ‘알로하’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原住民의 말로서 ‘健康, 安寧, 반갑습니다, 幸福 等を 빈다’는 뜻이라고 한다. 사랑이란 뜻도 있고 ‘알로하’라는 말은 하와이의 別名이기도 하다.

우리는 봉고車에 올라탔다. 폴리 바람山을 보고는 이몰라니 宮殿을 둘러보고 카메하메하 銅像(하와이 聖人), 편치볼, 噴火口, 國立墓地 等を 둘러 보았다. 國立墓地에는 돌에 彫刻을 해서 덮어 두었다. 午後 1時頃에 우리는 梨花亭이라는 食堂에서 韓食으로 점심을 먹었다.

州廳舍를 둘러보고는 호텔에 들러 自由 時間, 休息 時間을 가졌다. 午後 6時에 夕食을 마치고 포리네시안의 舞踊과 魔術을 觀覽했다.

◦ 10月 20日(韓國時間)(木)

아침 8시에 朝食을 마치고 봉고차를 타고 다이아몬드 헤드, 카할라 高級住宅地를 經由하여 하나우마 베이, 中國人 모자섬, 포리네시안 民俗村을 觀光한 後 北쪽 海岸을 따라 사탕수수밭, 파인애플 農場, 眞珠灣 등을 觀光하고, 오하우섬을 둘러보았다. 海岸에서 도시락 비슷한 것을 받아서 中食을 했다. 食事 中에 새들이 사람 가까이 온다. 밥알을 던져 주니 반갑게 주워 먹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氣色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새들도 人·鳥가 不二의 關係임을 認識하고 있는 것일까? 더불어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夕食 後에는 호텔에 投宿했다. 이 하와이에는 年間 觀光客이 600萬名이 모여든다고 한다. 포리네시안民(原住民)은 元來는 30萬名이었는데 現在는 3萬名이라 한다. 그렇게 減少한 것은 英國의 政策的 手段에 依한 것이라고 한다. 可恐할 일이다.

宿所는 와이키키 호텔(Wai kiki Resort Hotel)이었다. 이 호텔은 大韓航空 所屬이어서 그런지 親熟感이 들었다. 海外旅行中에는 太極旗만 보아도 반갑고 우리 同胞를 만나도 무척 반갑다. 亦是 人間에게는 祖國이 强健하게 存在해야 함을 實感하였다.

午後에는 홀라쇼를 보면서 夕食을 마쳤다.

◦ 10月 21日(金)

하와이의 와이키키(Waikiki)는 고래잡이로 始作된 마을이란 다. 다이아몬드헤드(火山盆地)이다. 그 다음으로는 山 頂上에 가까이 가서 저 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마을을 바라다 보니 그 마을의 地勢가 恰似 우리나라 地圖와 꼭 같이 보인다.

朝飯을 들고서 空港으로 갔다. 午前 8時30분에 로스엔젤레스로 向하는 飛行機를 搭乘했다. 드디어 호놀룰루 空港을 出發하였다. 호놀룰루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는 약 8時間이 걸린다. 現地 時間으로 午後 16時 33분에 로스엔젤레스에 着陸했다. 夕食을 마치고 午後 9시에 호텔에 돌아오니 제법 疲勞를 느낀다. 우리 一行은 韓食으로 저녁 食사를 하고 10時頃에 취침했다. 로스엔젤레스 郊外의 호텔이었다.

◦ 10月 22日(土)

朝食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차이나타운, 할리우드, 비버리힐즈, 유니버살 스튜디오 등을 觀覽하면서 中食을 먹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夕飯을 마치고 空港으로 나갔다. 午後 9時 15분에 로스엔젤레스를 離陸하여 午後 10時 15분에 라스베가스에 到着하여 호텔에 投宿하였다.

◦ 10月 23日(日)

아침 8시에 朝飯을 마치고 輕飛行機에 搭乘하여 그랜드캐년의 그 險惡한 山嶺을 觀覽하였다. 깊이 파인 險한 溪谷이 여러 개가 나타난다. 그랜드캐년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랜드캐년은 그 規模가 雄壯하다. 여기가 콜로라도江의 上流라고 한다. 콜로라도江의 길이는 總 445km라고 한다. 이 그랜드캐년의 溪谷 깊이가 1,600m라고 하며 總 길이가 16km라 하니 우리나라 里數로 四十리가 된다. 年間 500萬名의 觀光客이 모여든다고 한다. 소나무도 보인다. 여기는 아리조나州에 屬한다고 한다. 라스베가스란 말은 ‘草原의 마을’을 뜻하는 스페인語라고 한다.

展望臺에서 또 觀光을 즐겼다. 그리고는 輕飛行機로 그랜드

캐년을 出發하여 라스베가스까지는 飛行時間은 한 時間 걸렸다. 午後 6時에 韓定食을 먹었다.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一泊을 하면서 우리는 쇼를 觀覽했다. 美女들의 쇼였다. 半裸體로 音樂에 맞추어 댄스를 하는 쇼였다.

우리夫婦는 賭博場에 들었다. 여기 賭博場은 美國政府에서 公的으로 許可한 곳이다. 우리夫婦는 한 사람이 5달러씩을 가지고 해 보았다. 대다 잃었다 하다가 모두 다 잃어버렸다. 우리 두 사람은 10달러씩을 또 넣고 해 보았더니 대다 잃었다 하더니 끝내는 다 잃어 버렸다. 나는 本來 賭博을 싫어하는데 美國에 왔다가 追憶거리로 한 번 해 보았다. 이 집 經營主가 自己가 이겨서 많이 따 먹도록 措處를 해 두었겠지 하고 늦게나마 깨달았다. 그만 호텔에 돌아와서 就寢을 했다. 時計를 보니 저녁 11時였다.

• 10月 24日(月)

朝食 後 버스를 타고 라스베가스 空港으로 出發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出發 時間이 午前 9時 25分이다. 우리는 午前 10時 56분에 샌프란시스코에 到着하였다. 約 1時間 30분이 所要되었다. 飛行機도 中型이며 橫으로 座席數가 5個씩 놓여 있었다.

우리가 내리니까 버스가 待期하고 있었기에 이 버스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市內 觀光에 들어 갔다. 먼저 金門橋를 찾았다. 우리夫婦는 寫眞을 撮影했다. ‘金門橋(Golden Gate Bridge)’는 그 길이 2,825m, 支柱 사이는 1,270m이고 두 줄의 케이블을 支持하고 있는 塔의 높이는 約 227m이다. 鋼鐵製造橋. 다리바닥에서 鐵塔 끝까지 높이는 90m, 水面에서 다리 바닥까지는

170m, 와이어로프의 굵기는 直徑이 92.4cm, 使用된 와이어 數는 25,072個, 다리의 設計 施工者는 1870年生인 ‘조세프 비 스트라우스(Joseph B Strauss)’라 한다. 赤色の 防睛劑가 푸른 하늘色과 잘 調和되고 있다. 와이어 로프의 굵기가 半徑 92.4cm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개의 와이어를 뭉쳐서 크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 金門橋는 샌프란시스코 市街와 골든게이트 海峽을 사이에 두고 北쪽의 마린 半島를 連結하는 懸垂橋이다. 그리고 金門公園, 트윈 파크, 차이나타운 등을 觀光하면서 途中에 中食을 取하였다.

午後에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베이브리지’를 구경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베이브리지(San Francisco oakland Bay Bridge)’는 美國의 샌프란시스코灣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샌프란시스코 ‘페리빌딩(Ferry Building)’의 南쪽으로 부터 灣안의 ‘예르바부에나(Yerbabuena)’섬으로 連結되고, 여기서부터 터널을 뚫고 다시 對岸의 오클랜드에 이른다. 全長 길이가 13.5km, 1936년에 竣工되었다 한다. 아주 意慾인 結果였다. 저 멀리 가물가물 보일 뿐이다.

午後 6시에 夕飯을 배불리 먹고는 호텔에 들어 밤 10時頃에 就寢했다.

◦ 10月 25日(火)

午前 8시에 朝食을 마치고 버스로 國立公園인 ‘요세미테’를 찾았다. 이 溪谷은 길이가 相當히 깊고 긴 골짜기였다. 요세미테(Yosemite) 國立公園에는 巨大한 樹木들이 많이 있었는데 其中에는 3千年生 나무도 있었다. 이 요세미테 公園은 옛날부터 인디안들의 根據地였다고 한다. 海拔 1,500m인 高地帶이다.

이 地帶에는 ‘워드우드’라는 나무가 많았다.엘 키피탄 바위 等 요세미티 國立公園을 하루종일 觀光하고는 호텔로 돌아가 夕飯을 마치고 就寢했다.

◦ 10月 26日(水)

오늘은 歸國하는 날이다. 아침 8時에 朝飯을 들고는 짐을 整理하여 버스를 타고 空港으로 달렸다. 空港에 내려 出國手續을 끝마치고 暫間 쉬었다. 午前 11時 20分에 서울行 飛行機에 搭乘하였다. 11時 35分에 離陸하여 午後 5時 10分에 서울에 到着했다. 우리는 6時 蔚山行 飛行機票를 미리 買入해 두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搭승할 수 있었으며, 蔚山 空港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에 到着하니 午後 8時 10分 前이었다.

■ 後記

以上으로 7泊 8日間の 하와이와 美國 西部의 旅行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 夫婦는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음을 먼저 부처님께 感謝드리고 大宇宙 自然에 對해서도 精誠껏 感謝를 드렸다. 飛行機와 機長님과 乘務員 여러분과 引率者 여러분과 現地 各地 가이드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 드리는 바이다. 뒤치닥거리를 해준 우리의 子女들에게도 感謝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번에는 總 經費가 一人當 139萬원이니 우리 夫婦의 總額이 278萬원인 셈이 된다. 그리고 旅行記를 쓰면서 美國의 重要都市의 歷史的 事實이나 政治, 經濟, 社會에 關하여는 言及하지 못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記述하니 많은 참고가 되기 바란다.

하와이(Hawaii)는 美國 50個州 中の 한 州로서 ‘포리네시아 (Polynesia)’ 群島의 北端, 美國 本土로부터 西쪽 3,000km의 太平洋上에 東南으로부터 北西로 약 530km에 걸쳐 散在한 大小 20個의 火山列島이다. 그 中 重要的 섬은 ‘하와이’ 섬, ‘마우이 (Maui)’ 섬, ‘몰로카이(Molokai)’ 섬, ‘오아후(Oahu)’ 섬, ‘카우아이(Kauai)’ 섬, ‘라나이(Lanai)’ 섬, ‘니하우(Nihau)’ 섬, ‘카홀라웨(Kahoolawe)’ 섬 等の 8個 섬이다. 主島는 호놀룰루이며 火山의 形態를 明白히 남긴 것은 以上 8個 섬 뿐이라고 한다. 密林에 싸인 海蝕崖나 峽谷이 뛰어난 風景을 나타내는 곳도 많다. 하와이섬은 하와이 諸島中 가장 큰 火山섬이다. 캘리포니아 寒流(California 寒流)를 받아 年中 約 半은 北東 貿易風의 勢力下에 있으므로 熱帶에 位置함에도 不拘하고 海洋性 및 亞熱帶的 氣候를 나타낸다. 住民의 殆半은 他國에서 移民은 사람들과 그의 後孫들이며 南유럽人과 日本, 中國, 韓國, 필리핀 等 아시아人이다. 主要 產業은 特殊한 自然環境을 活用한 農業과 觀光이다. 사탕수수와 파인애플의 大規模 栽培는 하와이 農業의 主軸으로서 사탕수수는 美國 市場의 擴大 및 美國과 互惠條約에 의하는 輸入稅의 免除에 依해서 急速히 發展하였다. 커피, 쌀, 바나나도 主要 農產物인데, 소, 羊의 牧畜도 行하여진다. 工業은 製糖, 통조림 公業이 盛하며 聚落은 거의 全部 農園이나 港口에 關係되어서 分布되었다. 하와이 諸島는 1778年에 發見되었고, 1810年에 ‘카메하메하(Kamehameha)’ 1世에 依하여 獨立되었는데 以後 이 섬은 美國과 極東을 맺는 太平洋上의 通商과 捕鯨의 寄留地로서 發展하였다. 1840年代에는 英國 및 프랑스와 在住 美國人과의 사이에 그 歸屬을 에워싼 紛爭이 있었으나 結局 獨立이 維持되었다. 19世紀 後半에는

사탕수수와 파인애플의 農園 栽培가 成功하고 製糖業이 繁榮하면서부터 亞細亞人을 包含한 外國移民이 增加하였다. 製糖業이 打擊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다시금 美國과의 合併論이 擡頭하였고 翌年 女王이 卽位하고 國粹的 憲法制定을 企圖한데서부터 革命이 일어나 共和國으로 發足하였다가 1897년 美國과 併合條約이 맺어져서 翌년에 하와이가 美國의 主權下에 들어갔으며 1900년에는 美國의 準州로 되었다. 政府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知事(任期 4年)와 3名의 最高裁判判事, 2部制의 議會等으로서 構成되며 1名의 代表를 合衆國 議會에 보내고 있었으나 1959年 3월에 50번째의 州로서 昇格하는 案이 美國國會를 通過하였다. 面積은 16,707km², 人口는 約 80萬名이다.

로스엔젤레스(Losangeles)는 美國 西部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西南쪽에 있는 都市. 市の 區域은 南北으로 約 80km, 東西 約 50km, 面積은 約 1,164km²에 이르며 美國 都市 中에서 가장 넓은 地域을 차지하고 있다. 市가 北部 산가브리엘 山의 南쪽 비탈에서 西部와 南部 海岸까지의 廣大한 地域에 걸쳐 있다. 市街는 大體로 整然하고 바둑板 모양을 이루며 市街의 急速한 擴大에 따른 自動車의 激增에 對處하기 爲하여 옛 市街를 整理해 넓은 道路와 大規模의 駐車場이 建設되었다. 西部海岸에서 東쪽 20km에 있는 低地帶에 位置한 동네 地域은 市の 中心으로서 32層의 白堊의 市廳舍를 비롯해서 聯邦 및 州政府의 廳舍, 中央郵遞局, 法院, 記錄保管所, 市立圖書館, 株式去來所, 公益市場, ‘유니온 퍼시픽(Union Pacific)’, 鐵道終着驛 등이 있다. 그 南쪽에 ‘프라자’라 불리는 附近은 市の 發祥地로서 멕시코領 時代의 建物이 남아 있으며 멕시코人 거리, 中國人 거리, 日本人 거리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最近에 많이 모여 살기 시작한 韓國人 거리(추정 約 7萬)도 생겼다. 低地帶에 있는 동네 地域에서는 몇 줄기의 高速道路가 放射하여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多少나마 獨立的 商業 地區가 成長하였다. 特히 西쪽의 월사路邊에는 큰 商店, 데파트 商街가 나란히 서 있다. 이 거리에 있는 한코크 公園에서는 先史時代의 巨獸의 骨格이 發掘되어 注目을 끌기도 했다. 西北部의 ‘헐리웃(Hoolywood)’, ‘비버리힐스’에는 廣大한 映畫 스튜디오가 있으며 高級住宅 地區이기도 하다. 또한 ‘비버리힐스’에는 캘리포니아 大學 分校가 있어 有明하다. 그밖에 公園들이 많아 市의 北쪽 山 기슭에는 15 km²에 이르는 ‘그리피드(Griffith)’ 公園이 있으며 그곳에는 動物園 其他의 文化的 享樂 施設을 갖추고 있다. 또 市外 南쪽에는 ‘사우드(South)’ 캘리포니아 大學과 競技場 그리고 歷史, 科學, 美術 博物館이 있는 ‘엑스퍼지션(Exposition)’ 公園이 있으며 北東쪽 ‘윌슨(Wilson)’ 山(1,725m)의 頂上에는 大望遠鏡으로 有明한 天文臺 등이 있다. 市外로 나가면 東쪽엔 예로부터의 住宅地가 펼쳐 있으며 南東部와 南部에는 로스엔젤레스 江邊에 工場地帶가 펼쳐져 있다. ‘산페드로(San Pedro)’와 ‘윌밍턴(Wilmington)’에 있는 港灣은 延長 25km의 岸壁을 가지며 한꺼번에 40隻의 큰 배를 碇泊시킬 수가 있다. 1971年 2月 로스엔젤레스를 中心으로 한 캘리포니아 南部 一帶에 매그니튜드 6.521의 大地震이 있었다. 市 및 周邊 諸 都市에서는 近年에 各種의 近代 工業이 크게 發展하였다 한다. 重要한 工業은 航空機, 自動車 組立, 製造, 石油精製, 映畫필름, 고무製品, 化學藥品, 衣類의 製造, 造船, 靑果, 肉類, 水産物의 食品加工, 機械, 電子器具, 家庭用品의 製造 等이다. 그러나 近年 이

들의 工場이나 自動車의 急增에 依한 大氣汚染으로 因한 ‘光化學 스모그(Smog)’ 現象이 심하여 그 防止策이 檢討되고 있다.

1781年 캘리포니아 總督 돈 페리페 데 네베가 兵士, 修道士를 植民시킨 것이 市의 起源으로 포르시운쿨라의 ‘나의 엔젤레스 女王의 동네’라 命名되었다. 1846年 美國海軍에 占領되었는데 당시의 人口는 1,000名도 되지 않는다. 이어서 일어난 ‘고올드 러시(Gold rush)’와 1876年の 사우던퍼시픽(Southern Pacific) 鐵道の 開通에 依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1870年の 人口는 5,728名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19世紀末부터 農業의 進歩를 발판으로 하여 着實한 發展을 始作하였으며 다시 1891年 石油 噴出을 契機로 하여 以後 飛躍的 繁榮을 繼續하게 되었다. 20世紀에 들어서서 急速히 發展하여 1901~1950年 사이에 人口는 14倍로 늘고 1951~1970年에도 約 80萬名이 增加하였다. 特히 第2次 世界大戰 以後의 膨脹은 눈부신 바가 있다. 1920年 以來 周邊 地域 例컨대 北西部의 헐리웃, 東部의 아란브라, 南部의 윌밍턴, 산페드로를 編入하여 廣大한 市域을 形成하면서 아울러 西部의 비버리힐스, 산타모니카, 가로바시와 北部의 글렌데일르, 산페르난도 등의 都市를 包攝하고 파사테나, 롱비이치 市와의 錯雜한 境界線을 이루면서 接하게 되었다. 이들 周邊都市를 包含한 人口는 750萬名을 넘으며 그 넓이에 있어서도 美國 第二의 大都市圈을 形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눈부신 發展을 가져오게 된 要因은 20世紀에 들어와서 大規模의 油田開發, 파나마運河의 開通(1914)과 산페드로港의 築港에 依한 海運의 進展, 헐리웃을 中心으로 한 映畫製作의 隆盛, 交通路의 充實에 따른 觀光, 休養客의 增加, 柑

橘類의 栽培와 그 加工業의 發展, 最近에 있어서 機械, 化學工業, 特히 航空機工業, 造船業의 隆盛 등이 이 都市의 發展 理由 等이다. 이와 같은 繁榮의 基本的 條件으로서 豊富한 石油 資源과 함께 이 地方의 좋은 氣候條件들이 이 都市를 發展시킨 要因이 된다. 氣候는 年中을 通하여 흐린 날은 10日 前後, 年降雨量은 369mm로 大部分은 12月~3月 中에 오며, 平均 氣溫은 1월에 12.8°C, 8月 22.7°C라 하는 溫暖晴朗한 地中海性 氣候라 한다. 이 氣候는 健康에 매우 좋으며 映畫 製作, 精密工業을 하기에 알맞다고 한다. 乾燥氣候 때문에 用水의 確保에 는 非常한 努力이 投入되었다고 한다. 1913년에는 北쪽 380km 에 있는 오웬스湖의 물을 끌어 오는 산 페르난도 水道가 完成되고, 1934년에는 이것을 160km 延長하여 모노베이슨을 水源으로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코로라도江의 물을 애리조나州의 '파아카(Parka)' 댐 및 '후우버(Hoover)' 댐으로부터 이끌어 오는 水路가 完成된 後부터는 飲料, 工業用水, 나아가서는 周邊 地域으로의 灌溉用水도 充分히 確保되었다고 한다. 人口는 約 2,781萬名이다(1970).

샌프란시스코(Sanfrancisco)는 美國 캘리포니아州(California 州) 中央部, 太平洋에 面한 大都市, 샌프란시스코灣의 入口에 있으며, 北쪽에는 世界에서 가장 긴 金門橋가 있다. 넓이 1500m의 金門海峽에 면하여 좋은 港口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亞細亞, 오스트레일리아 方面의 航海路의 起點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數個의 大陸橫斷鐵道도 여기에서 終結되므로 美國 屈指의 大貿易港이라고 한다. 輸出品은 石油, 穀物, 과일, 木材, 棉花 等이며, 輸入品은 茶, 커피, 설탕, 生絲 等이다. 또 農產物 加工, 造船, 機械, 製紙 等の 工業도 行하여지며 市街에는 大빌

당이 櫛比하여 ‘마켓(Market)’街를 비롯한 수 많은 道路가 서로 交叉하고, 金門公園, 其他의 公園, 學校 등이 있다. 1906년에 大地震이 일어나 火災의 被害는 있었으나 곧 復興되었다고 한다. 中國人, 日本人, 韓國人을 비롯한 其他의 亞細亞人이 많이 居住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人口數는 約 72萬名이며 都市 全體의 人口는 350萬名이라 한다.

■ 結論

1. 美國이나 하와이에서 實權을 잡고 行政, 政治를 運營하는 民族은 ‘앵글로색슨(Anglo Saxon)’族이다. 卽 英國人이다. 5世紀에 獨逸의 北西部에서 부리타니아에 건너간 게르만인의 한 派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英國人種族을 앵글로색슨이라고 通稱한다. 人種的으로는 北方系에 屬하고 長身, 白色, 金髮, 碧眼에 좁고 높은 코 등의 肉體의 特徵을 가지며, 일찍부터 바이킹(海賊) 노릇을 많이 行하였다. 그 時代에 海賊들로부터 被害를 입은 사람들이나 國家들은 바이킹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盜賊들이다 날強盜다’라는 等 興奮的으로 叱咤罵倒하였겠지만 그 時代에 있어서는 弱肉強食 時代로서 强者가 主人이요, 弱者는 屈從하던지 아니면 對敵해 보다가 敗北하여 도망치던가 아니면 죽는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8~10世紀間에 바이킹이 盛行되었다 한다. 西유럽이 그들의 活動 舞臺였었다. 덴마크系, 노르웨이系였으며 그 外의 나라와 民族도 이에 놀아났다. 當한 나라와 民族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 優勢한 武器와 強健한 人力의 所有者가 勝者가 되는 것이었다. 現代에서도 方法은 다를지언정 그렇지 않은가.

그래도 近世에 와서는 國際機構가 있어서 各國이 監視라도 하고 있으며 諸般 問題는 거의가 國際的으로 解決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바이킹 行世는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國際的으로도 無法天地였기 때문에 先攻을 하는 强者가 王이었다. 이러한 種族의 後裔들이 要地를 모두 차지하고 땡땡거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물론 英글로색슨 族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全體的으로 보아서 强하게 잘 發展하고 있고 福된 좋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캘리포니아州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慾心 많은 美國人인지라 이 캘리포니아도 멕시코의 領土였다는데 美國과 멕시코는 戰爭에서 美國이 勝利해서 美國의 領土가 되었다고 한다. 하와이도 本來는 獨立國家였는데 美國政府가 삼켜버렸다니 정말 英글로색슨 種族이 偉大하다고나 할까.

이 美國人들은 自然環境을 잘 保存하기 위하여 最大의 努力을 傾注하는 同時에 또한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全國民의 福祉 增進을 꾀하고 있음을 볼 때 정말 偉大한 種族이라고 나는 感歎을 금할 수 없었다. 모든 環境과 人工的인 事物들이 合理的이었고 科學的이었고 妥當性 있게 經營되고 있었다. 可嘆可驚이었다.

하와이! 웃저고리 하나 더 끼워 입어도 더 덥지 않고, 웃저고리 하나 벗어도 더 춥지도 않은 좋은 氣候! 하와이의 氣候! 알로하 오에!

6. 第 6次 海外旅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피지)

◦ 1995년 12월 13일(수)

우리 夫婦는 넓은 世上을 두루 求景해 보고 싶었다. 마침 亞洲觀光會社에서 濠洲와 뉴질랜드 2個國을 觀光하는 商品이 있다 해서 出發하기로 決定했다. 이번에는 親舊인 朴仁喆 校長先生님 內外分, 朴永鎭 先生님 內外分과 함께 蔚山에서 6명이 가게 되었다. 우리는 트렁크와 손가방 1個씩을 들고 出發했다.

午後 2時에 집을 出發하여 택시로 蔚山 空港에 到着하였다. 午後 3時에 蔚山空港을 出發하여 午後 3時 50분에 서울空港에 到着해서 空港 新廳舍 2層의 朝興銀行 앞에 一行 全員이 集結했다. 隨行案内員인 朴海新氏가 待機하고 있었다. 이번의 旅行은 7泊 8日間으로 一人當 經費가 129萬원씩이니 우리 夫婦 合計는 자그마치 258萬원이다. 出國申告와 賣票 等を 引率 責任者가 다 해주었다. 濠洲의 시드니行 飛行機는 午後 8時에 서울 出發이다. 우리는 午後 7時 50분에 搭乘했다. 겨울이기 때문에 벌써 日沒한지 오래다. 午後 8時를 몇 分인가 지나서 出航하였다. 空中에서 내려다 보니 都市의 電燈불이 燦爛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暫間 이제는 밖을 내다 보니 漆黑같이 어두웠다. 機

內에서 夕飯을 주는데 洋食이었다. 우리 夫婦는 甘味롭게 먹었으나 妻는 量이 많다고 하면서 餘分을 나더러 먹으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廉恥없이 다 處分해 버렸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우리 夫婦는 座席에 놓여 있는 담요로 무릎을 덮고 잤다. 이윽고 잠이 깨어서 손목 時計를 들여다 보니 아침 6時였다. 機內에서 朝飯이 提供되었다.

◦ 12月 14日(木)

午前 8時에 濠洲 시드니에 着陸했다. 우리는 機內에서 一泊을 한 셈이다. 밖으로 나가니 現地 가이드가 出迎하고 있었다. 버스도 待期하고 있었다. 우리는 乘車하고 市内를 觀光하기 위해 出發했다. 맥쿼리포인트를 둘러보고 더들리페이시, 캠프 그, 리블베이 등을 觀覽하였다. 그리고는 船舶을 타고 다링하버로 갔다. 여기에서 船上 中食을 하였다. 뷔페食이다.

遊覽船을 둘러서 오페라하우스를 바라보니 그 지붕이 妙한 模樣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美術館을 살펴 보았다. 그 다음은 皮革工場을 둘러 보니 가지各色 皮革物이 많이 生産되고 있다. 여기 濠洲는 乳牛, 羊, 말 등의 牧畜業과 酪農業이 盛行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皮革工場이 盛業中이었으며, 製品도 大量으로 生産되고 있었다. 羊毛를 材料로 한 이불과 담요, 방석, 잠버, 조끼, 外套, 帽子, 장갑 등 多様な 被服類가 많았다. 나는 羊毛조끼를 하나 購入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265,500원을 주었다. 새끼羊의 가죽이 좋다고 하니 나는 그것을 購入했다. 그리고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이름은 '옥스포워드코아라'라는 호텔이었다. 저녁 食事は 뷔페式으로 배불리 먹었다. 韓

國은 겨울인데 이곳은 여름이다.

◦ 12月 15日(金)

아침 5시에 起寢하여 6時 30분에 朝飯을 마치고는 7時 30분에 버스를 타고 호텔을 出發하여 空港으로 가서 飛行機로 시드니를 出發하여 午前 10時 50분에 부리스베이에 着陸하였다. 이 부리스베이는 濠洲의 세번째로 큰 都市라 한다.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얼리벌리시 植物園을 찾아갔다. 노안파크內에 있는 植物園이다. 許多한 熱帶植物이 陳列되어 있으며 自然 그대로의 野生 植物園이다. 精巧하게 손질을 잘 해 놓았다. 우리는 잘 整理되어 있는 散策길을 따라서 一周하였다. 쿠타展望臺를 둘러보고 보타닉 가든, South Bank 등을 觀光하고 中食을 하였다.

다음은 골드코스트로 向하였다. 생츄리 마을, 메인비치 등을 둘러보고 夕食을 한 다음 호텔에 들어갔다. 호텔名은 도라베롯치 호텔이었다. 우리 夫婦는 26層을 配定 받았다. 골드코스트는 海邊인데 海水와 沙場이 아주 情趣的이었다. 이 골드코스트까지는 브리스 베인에서 150里라고 한다.

◦ 12月 16日(土)

아침 7時 起寢하여 8시에 朝飯을 먹고 午前 9시에 버스에 乘車하여 과일 및 植物農場인 아보카도 農場을 訪問하였다. 이 農場에서 案内者의 說明을 들은 다음 中食을 하였다. 이 農場에서 말을 타고 約 30m를 갔다 왔다 하였다. 내 妻도 한번 타 보겠다 하여 타 보라고 하니 말에 올라서 亦是 30m 距離를 往來하고 내렸다.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서 記念으로 가방

안에 넣었다. 돌이 좋아서 보다는 그저濠洲돌이라서 記念으로 가지고 왔다.

다음은 動物園으로 갔다.濠洲의 動物인 kang아루가 許多하게 보였다. 우리 夫婦는 記念으로 kang아루와 함께 寫眞을 撮影하려고 kang아루 가까이 接近하니 kang아루는 逃亡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 夫婦에게 微笑를 지으며 가까이 와 주었다. 우리 夫婦는 kang아루 등을 만지면서 寫眞을 撮影했다. 人獸가 不二라 親密感이 들었다. kang아루와 헤어지기가 嫌嫌하였다. 그리고는 나무 위를 쳐다보니 ‘코알라’라는 작은 動物이 나무가지 위에서 놀고 있었다. 아주 귀여운 動物이었다. 크기는 강아지만하였다. 그 다음은 野生鳥類 保護區域을 두루 둘러 보았다. 커림빈 野生動物 保護區域이다. 그 다음은 車를 다시 타고는 브리스베인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브리스베인에 到着하여 서울食堂에서 夕食을 하였다. 쇠고기 불고기를 배불리 먹고 滿足했었다. 그리고 午後 6時에 우리의 宿所인 노보테 호텔에 들어서 하룻밤을 푹 쉬었다.

◦ 12月 17日(日)

午前 7時에 起寢하여 朝飯을 마치고 7時 55分發 飛行機로 브리스베인을 出發하여 뉴질랜드北島의 오클랜드로 向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는 太平洋 南西端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大陸과 그 屬島로 이루어져 있다. 1788年 英國의 流刑植民地로 建設되고, 以後 國土의 開發은 英國의 流刑囚(大概是 政治犯) 그리고 英國으로부터의 自由 移民者들에 依하여 行하여졌다.

先住 오스트레일리아 原住民은 文化가 낮기 때문에 全然 無

視되고 逐出되었다. 그 殺戮의 歷史는 크게 詛呪받아야 마땅할 것이었지만 本國과 地球上의 對稱點에 가까운 大陸에 오로지 白人만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은 注目할 만한 價値가 있다. 오늘날도 1850年代의 골드러시 때에 移民한 中國人 採鑛夫의 一部 子孫이 있을 뿐이며 毅然히 有色人種의 移民을 拒否하는 白濠主義를 繼承하고 있다. ‘勞動者의 天國’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나라에 이웃 아시아인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賃金の 덩핑과 生活 水準의 低下를 招來할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오랜 歲月의 經驗에 뿌리 박은 이런 생각은 意外로 强하다.

그러나 英國 聯邦에 屬하고 英國 本土에만 눈을 돌리고 살아온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 內外의 情勢는 第2次 世界大戰 前後부터 크게 變하여 왔다. 그들의 亞細亞 輕視 意識이 稀薄해지고, 極東 地域을 近北이라고 부르게 되었듯이 亞細亞로 눈을 돌리고 極東 오세아니아를 包含한 地域에서 그 國家 存在의 意義를 發見하려고 하는 態度로 바뀌어 가고 있다.

五大洋을 支配하던 母國 英國의 威信은 過去의 것이 되고, 經濟的으로도 英國의 눈은 EEC(Europe Economic Community: 유럽 經濟共和國)로 向하여지고 있다. 그런 點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가 現在 取하고 있는 姿勢가 理解된다.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손에 依하여 本國보다도 높은 生活水準과 勞動條件 그리고 社會 保障을 樹立할 自信도 있고, 巴야흐로 本國과의 羈絆(기반-굴레)을 벗어나서 獨自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軍事的으로는 廣大한 國土에 比하여 人口가 적다고 하는 事實에 依하여 國防上的 危機感이 强하고 1951年 美國, 뉴질랜드와 앤저스(ANZUS:太平洋安全保障)條約을 맺었다.

美國과의 關係는 經濟的으로도 密接하게 되었고, 最近에는

美國 資本의 進出이 顯著하다. 國內의 經濟構造도 羊毛과 綿을 主産物로 하는 農牧業에 鑛業을 加한 1次産業으로부터 鐵鋼, 自動車, 化學工業을 代表로 하는 工業國으로 高度化되어 가고 있다. 韓國의 約 35倍가 되는 廣大한 國土를 가지고 있으나 1,800萬의 人口는 大陸의 南東部에 偏在하여 있어 '空白의 大地'라고 할 수 있는 部分이 얼마나 넓은지 想像할 수 있다. 國土의 三分之一은 人間의 居住가 전혀 不可한 沙漠이고 다른 三分之一도 물이 不足한 乾燥地帶로서 文字 그대로 乾燥大陸이다. 起伏이 적은 單調로운 國土로 大陸 東쪽 沿岸의 高地地域도 '隆起準平原起原'의 '高原狀'의 땅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殆半은 海拔 1,000m 以下이다. 大陸 最高峰은 '코지어스코(Sciusko)'山으로 海拔 2,230m이다. 大陸의 中部로부터 西部는 廣大한 臺地地域으로 방패 모양을 하고 있고, 大陸의 殆半을 차지하는 地體 構造上의 核心을 이룬다. 高地와 臺地地域사이의 大陸 中東部는 廣大한 一連의 低地를 이루고, 有名한 大鑛井 盆地가 있다. 99%가 移住한 유럽 民族이 차지하고 있다. 그 中 95%가 英國系이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獨逸이 그 다음이다. 原住民의 人口는 植民地 開拓 당시에는 15萬~35萬이라고 하였는데 1970年에는 45,000名이었으며 混血을 合쳐서 8萬餘名으로 減少되고 있다. 殆半은 原住民 保護區域인 北部地方內에서 居住한다.

이 大陸은 1770年 英國의 '쿡(J. Cook)'이 大陸의 東南에 到達하면서 부터이다. 美國의 獨立을 契機로 하여 1786年 英國은 이곳에 美國을 대신하는 새로운 類型의 植民地로서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eles)의 建設을 決議하고 1788年 1月 26日 필립(A. Philiip)이 이끄는 最初의 船隊가 '시드니

(Sydney)'灣으로 들어와 最初의 植民地를 建設하였다. 오늘날 까지 1月 26日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날'로 되어 있다.

브리스베인을 아침 7時 55분에 出發한 飛行機는 午後 1時 55분에 北뉴우질랜드 섬의 飛行場에 到着하였다. 곧 버스를 타고 에덴 동산을 찾았다. 195m의 언덕이었다. 그리고는 博物館을 찾았는데 섬나라의 風趣가 풍기는 博物館이었다. 特異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市內를 여기저기 돌렀는데 南國의 情趣가 물씬 풍겨 온다.

우리들은 夕食을 마치고 와이푸나(Waipuna) 호텔 311號室에서 就寢하였다.

◦ 12月 18日(月)

아침 7時에 起床을 하였다. 8時 30분에 朝飯을 마치고 9時에 버스로 出發하였다. 반딧불로 有名하다는 石灰동굴인 와이도모 洞窟로 갔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좁다란 굴 속의 물 위로 배가 들어간다. 이 배는 櫓를 저어서 通過하게 되어 있다. 洞窟의 天井에는 많은 반딧불이 반짝거리고 있다. 別로 神通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타우포였다. 타우포 湖水로 가까이 갔다. 湖水는 제법 큰 것이었다. 여기 저기에 비치 파라솔이 散在해 세워져 있다. 우리는 農場 內에 있는 食堂에서 中食을 하였다. 다음은 地熱 發電所를 둘러서 硫黃溫泉으로 向하였다. 그리고는 羊皮工場을 찾았다. 各種 製品이 豊富하게 生産되고 있었다. 다음은 번지점프 地域을 觀光하고 夕食을 마치고 호텔을 찾아서 들어갔다. 호텔 이름이 큐어리티(Quality)이다. 午後 10時頃에 就寢에 들어갔다.

◦ 12月19日(火)

아침 6시에 起寢을 하였다. 오늘은 저녁에 서울로 歸國하는 날이다. 午前 8시에 朝飯을 마쳤다. 그리고 버스로 로토루아로 向發했다.

마오리族의 民俗村인 와카레와레와의 間歇泉을 찾았다. 溫泉水가 繼續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따금 쉬었다가는 또 나오고 하는 溫泉이다. 그 附近 一帶는 地下에 溫泉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溫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다. 어느 한 곳에는 진흙바닥이 북적북적하면서 흙이 溫泉水에 밀려서 북작거리며 움직이고 있다. 또 그 옆에 10m 떨어진 곳에는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찜질 바위라 하여 그 평평한 盤石위에 앉으니까 溫突 장판 房에 앉은 것처럼 엉덩이가 뜨끈뜨끈하여 온다. 住宅의 어느 한 房에 이런 自然 溫突 盤石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好奇心을 가져 보았으나 家庭집 밑으로 물이 흐르면 健康에 害롭다는 先入感이 떠 올라서 아차 그럴 必要가 없지 하고는 卽刻 미련을 벗어 던졌다.

‘까마떼 까마테’라는 말은 여기 原住民들이 옛날에 敵과 싸우러 나갈 때에 士氣를 북돋아 주는 말로서 ‘죽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歡呼했다고 한다. ‘까마떼 까마테’, 죽지는 않는다!

마오리族의 쇼를 觀覽하였다. 健康한 男女의 춤이다. 男子들은 上衣를 발가벗고 아래도 팬티만 입고서 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힘차게 두들기면서 뛰고 하였다. 新鮮한 맛이 없었다. 키위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갔다. 이 마오리族은 人事를 할 때 서로가 코 끝을 마주 붙여서 人事를 한다고 한다.

博物館을 찾았다. 옛날의 沐浴湯도 있었다. 다음 羊의 쇼를 求景하였다. 잘 訓練된 개가 羊의 등을 밟고서 여러 마리의 羊

을 지나간다. 한쪽에서는 羊털을 깎고 있는데 한 마리의 羊털을 모두 깎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매리노라는 것은 優秀한 羊털을 말한다. 한쪽 廣場에는 數十마리의 羊떼들이 놀고 있는 것을 한 마리의 개가 나가서 羊을 쫓고 또 쫓아서 一定한 우리 안으로 몰아 넣는 것을 興味롭게 바라보면서 動物의 訓練技術에 感歎하였다.

다음은 ‘두유리’ 라는 곳을 찾아 果樹園 農場을 갔다. 農場도 볼 겸 그곳에서 中食을 하였다. 쇠고기로 맛있게 배를 채웠다. 그리고는 저쪽에 ‘하바부리지’ 를 바라보며 海水浴場을 通過하였다. 淸鮮한 海水色이다. 그리고는 鹿茸商店에 들렀다. 많은 量의 가지각색의 鹿茸들이 陳列되어 있었으나 나는 別다른 興味를 느끼지 못하였다. 午後에는 쇼핑 時間을 넉넉하게 얻었으나 우리 夫婦는 양털 이불을 한장을 購入하고는 그만 두었다.

오후 5時 30분에 夕食을 꼬리곰탕으로 배를 채웠다. 뉴우질랜드에서의 마지막 食事인 것이다. 그리고는 버스 技士인 뉴질랜드人과 記念寫眞을 撮影하였다. 이제 뉴질랜드의 日程도 다 마쳤고 우리는 오클랜드 空港으로 버스를 달렸다. 서울行 飛行機는 午後 8時 出發이라 한다. 우리 一行은 午後 7時 50분에 搭乘하였다. 午後 8時에 飛行機가 出發하기 爲하여 오클랜드 空港을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는 나도 모르게 뉴질랜드 빠이 빠이! 오클랜드 빠이 빠이! 를 외치며 손을 흔들면서 窓 밖을 내다 보았다. 내 妻도 빠이 빠이! 하고 외친다.

뉴질랜드(New Zealand)는 南太平洋의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의 南東쪽 約 1,920km 地點에 있는 두 개의 큰 섬과 그 屬島를 包含한 英聯邦內의 自治國으로서 社會保障制度가 充實하고 羊毛, 肉類, 酪農製品을 輸出하는 높은 水準의 國

民所得國이다. 國旗는 紺色 바탕의 깃폭 오른편 上部의 4分の1에 ‘유니온 잭(Union Jack)’이 그려져 있고, 그 周圍에 南十字星을 나타내는 赤色の 별(星)이 네 個 있다. 面積은 26萬 8,676km², 人口는 約 286萬名(1970)이고 首都는 ‘웰링턴(Welington)’이다.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된 나라로서 面積 15萬km²의 사우드섬(南島)과 11萬5,000km²의 노오드섬(北島)이 主島이다. 平野는 적고 河川이 짧으며 急流이다. 南島는 길이 850km 폭 280km이며 남 ‘알프스(Alps)’에 높이 3,764m의 ‘쿠크山(Cook山)’을 비롯하여 3,000m의 높은 山이 17個 있다. 그 南部에는 冰河와 冰河湖, 여러 가지의 冰蝕地形이 많다. 섬의 南쪽은 ‘피요르드(Fiord)’式 海岸이며, 쿠크 海峽에 面한 北海岸은 리아스(Rias)式이다. 西海岸에는 絕壁이 많고 東海岸은 이 나라 最大의 ‘켄터버리(Canterbury)’ 平野가 있다. 北 섬의 南部는 南 알프스의 延長으로 丘陵地가 많으며 北半球는 이것과 直交하는 火山이 높이 2,803m로 北島에서 가장 높으며, ‘에그몬트(Egmont)’ 火山은 높이 2,522m의 活火山으로서 火山湖, 溫泉 등이 많다.

氣候는 亞熱帶性으로 오클랜드 半島 以外는 全般的으로 海洋性 氣候이고, 偏西風의 影響을 받아 여름은 溫和하고 겨울은 따뜻하다. 年平均 氣溫은 南部가 10°C, 北端은 15°C로 氣溫의 差異는 적다. 降水量은 地形의 制約을 받아 사우드 섬에서는 西海岸이 年平均 2,000~3,000mm, 東海岸의 大部分이 6,000~9,000mm로 差異가 많고, 北島는 1,000~2,000mm 이내이며 內陸 地方도 降水量이 많다. 人口 密度는 1km²當 10名에 不過하고 人口 10萬名 以上の 都市는 웰링턴(24萬 3千名), 오클랜드, 클라이스터처치 등이다. 東洋人의 移民이 禁止되어 있다.

그러나 英國의 國籍을 가진 者는 入國에 制限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航海者 ‘타스만(Tasman)’이 1642년에 發見하여 1769년에 쿠크 一行이 上陸하였고, 1792年頃에 英國의 捕鯨船이 南島의 西海岸에 基地를 만들었다. 또 1814년에는 原住民의 그리스도敎化를 目的으로 英國의 ‘마아스든(S. Marsdden)’이 移住하여 와서 1820年代에는 宣敎業績이 많았다. 英國領에 編入된 것은 프랑스의 뉴질랜드 進出에 刺戟되어 1839년의 뉴질랜드 會社가 上陸하면서부터 具體化되어 1840년의 마오리 酋長과의 와이탕기(Waitangi) 協定에 依하여 實現되었다.

그러나 이 會社가 土地를 移民者에게 賣却하였기 때문에 1843~1848년에 一次, 1860~1870년에 二次 마오리 戰爭이 일어나서 原住民의 數가 急速度로 減少되었다. 移民의 急增은 사우드 섬의 金鑛 發展을 契機로 한 ‘골드러시(Gold rush)’ 때이며 이로 因하여 사우드섬에 移住하는 사람이 急增하였다. 그중에서도 中國人 勞動者가 急增하여 1881년에 東洋人 入國制限法이 制定되었다. 二次 마오리 戰爭 終結로 原住民의 保護와 參政權이 實現되었으나 植民自治體制은 1852년에 公布하고 뉴질랜드 基本法을 制定한 以後부터였으며, 1856년부터는 總督 아래에 責任制內閣과 兩院이 實現되었다. 그러나 原住民의 參政權 附與조차 植民地에서는 例外가 되었다. 1877년에는 自治制度가 改革되고, 1889년에는 男子에게 普通選舉制度가, 또 1893년에는 女子의 參政權이 實現되었다.

港灣勞務者가 中心이 된 1890년의 大同盟罷業 以後 1891년에 工場法이, 1894년에 産業調停仲裁法, 1898년에 國民養老年金法, 1903년에 國立火災保險法 等 一連의 社會立法이 實施되어 最低賃金制와 하루 8時間 勞動 等 現代的인 勞動法이 制定되고,

1908년에는 土地法에 依한 自營農民의 育成이 試圖되었으며, 1911년에는 母子扶助法이 實施되었다. 1907년에는 自治領으로 되었으며, 第1次 世界大戰 때에는 오스트레일리아軍과 더불어 그리스 上陸作戰에 參加하여 英國과의 關係는 오늘날에도 亦是 密接하다.

住民의 大部分이 英國系이기 때문에 社會生活도 英國의 傳統을 받아서 生活意識이 强하며 運動을 좋아하고, 信仰은 그리스도教이다. 社會保障制度는 老, 廢, 病, 失業, 多子 等 여러 面에 걸쳐 保障되어 있다. 教育은 義務教育制度로서 19歲까지는 中等教育도 無料이고 大學에서도 授業料는 없다.

마오리族도 政治, 教育, 宗教, 社會保障, 勞動 等 모든 面에서 平等하며, 그 75%가 그리스도教徒이고 傳統的인 民俗도 잘 保存되어 觀光의 對象이 되고 있다. 國民 1人當 所得은 13,000弗이라 한다.

우리 一行은 午後 8時에 오클랜드를 出發하여 翌日 새벽 午前 6時 45분에 서울에 到着했다. 11時間이 걸렸다. 서울 金浦 空港을 午前 9時 15분에 出發하여 金海空港 到着이 午前 10時 10분이었다. 金海發 午前 11時 버스로 蔚山着이 12時 30분이었다.

우리 夫婦는 갈 때에도 機內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올 때도 機內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니 現地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통해 5泊을 한 셈이다. 돌아올 때는 피지島에 着陸하여 約 45分後에 離陸하여 서울로 歸着하였다. 이로써 7泊 8日의 우리 夫婦의 濠洲, 뉴질랜드 旅行은 무사히 마쳤다. 부처님께 感謝드립니다.

偉大한 英글로색슨人이며, 그대들은 오스트레일리아도 先手

• 李在萬 自敘傳

를 쳐서 占有하였구나! 그리고 뉴질랜드에도 先手を 쳐서 占有하였구나!

7. 第 7次 海外旅行

(캐나다, 美國 東部)

◦ 1996年 6月 24日

月曜日 午前 8時頃에 朴永鎭 先生님 夫妻分이 아드님의 乘用車로 우리 집까지 來中을 와주었다. 우리 夫婦는 感謝하게 同乘하고 亞洲觀光 事務室로 向하여 出發하였다. 亞洲觀光 事務室은 우리 집에서 東便으로 約 400m 距離에 있다. 雲霧가 자욱하고 細雨가 내리고 있었다. 蔚山空港에 갔더니 飛行機가 뜨지 않는다 하여 8時 30分頃에 그 車를 그대로 타고 金海空港까지 달렸다. 午前 10時 10分頃에 空港에 到着하였다. 서울 行 飛行機가 11時에 떠난다. 우리 一行 四人은 朴 先生님 師母님이 烹쳐 온 主먹밥을 1個式 나누어 먹었다. 主먹만 한 것을 한 개 먹고나니 배가 불렀다. 이것이 오늘의 점심인 셈이다.

10時 50分頃에 飛行機에 올랐다. 11時에 離陸하여 12時 3分에 서울에 着陸했다. 飛行機 말이 났으니 말이지 國內外線을 莫論하고 數十次 타 보았어도 定時定刻에 離陸하는 飛行機는 한번도 없었다. 이어서 空港 버스를 타고 國際線인 第二廳舍에 到着하여 二層에 올라가서 一行인 6名과 合流하였다. 그리고 보니 우리 一行은 5雙의 夫婦이니 10名인 셈이다. 出國 手續節次를 마치고는 金밥으로 中食을 마치고 午後 2時 30分 出

發, 美國 샌프란시스코로 向하였다. 처음 計劃은 캐나다의 밴쿠버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 멋대로다 싶어서 마중 나온 가이드 미스 柳 에게 물어 보았더니 不可避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10時間 10分을 所要하고 우리 時間으로 밤 12時 40分에 샌프란시스코 空港에 到着하였다. 現地 時間으로 午前 8時 40分이었다. 現地의 日字는 우리나라보다 1日이 늦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25日이지만 여기는 오늘이 24日인 것이다.

다음은 캐나다의 밴쿠버로 午後 1時 30分 飛行機로 出發하게 되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飛行機가 延着되어 午後 2時 30分에 出發하였다. 飛行機는 아주 小型으로 橫列 4名式 앉는 座席數였다. 말이 午後 2時 30分 出發이지 離陸하기는 午後 3時 定刻이었다. 캐나다의 밴쿠버 空港에 到着한 것이 午後 4時 30分 定刻이었다. 機內에서 簡單한 點심이랍시고 도시락을 받았는데 飲食이 形便없는 粗食이며 또한 싸늘한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海外 旅行을 여러 차례 다녔지만 이와 같이 粗雜한 飲食 待接은 처음 받아 보았다. 먹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치워 버렸다.

밴쿠버는 캐나다의 西端, 太平洋쪽에 있는 캐나다의 第二의 都市로서 交通의 要衝地이며 人口가 300萬이 되는 大都市이다.

첫번째로 '퀸 엘리자베스 公園'에 到着하여 約 25分間 散策, 觀覽하였는데 面積이 總 1,200,000평이나 되니 大體 重要 部分 만을 살펴 보고 다음은 '라이온주게이트橋'와 록키山脈을 水源으로 하여 밴쿠버 市內를 흐르는 '프레저江'을 바라보며 通過하였다. 참나무가 主로 많았다. 높이 20m乃至 30m로 直線으로 뻗은 나무들!

다음은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을 求景하고, 호텔에 到着하여

306號室에 房을 잡았다. 저녁食事は 韓食店에서 해물탕을 먹었다. 昨今 兩日間に 내 妻는 泄瀉와 함께 腹痛으로 큰 困辱을 치렀다. 夫婦 同伴하는 海外旅行에는 健康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切實히 느끼곤 하였다. 또 한 가지는 一行으로부터 落伍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함이 重要하다. 萬若에 어긋나서 落伍가 되어 早速히 發見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觀光이야 하던 말던 財産 第特號인 妻를 찾아내는 것이 第一 重要的한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호텔을 出發하기 前에 帽子와 服裝의 색깔을 잘 銘念하고 보고서 따라오고 또 찾기로 約束하곤 하였다. 밤에 睡眠을 잘 取하지 못하였다. 새벽 3時 40분에 잠이 깨어 旅行 日記를 整理하였다.

◦ 6月 25日 火曜日

우리나라에서는 낮이라서 活動할 時間인데 이곳은 밤이라 卽 晝夜가 우리나라와 反對인지라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서 困辱을 치렀다. 밤 12時頃에 겨우 잠을 請하였다. 그리고 또 잠이 깨어보니 새벽 2時였다. 잠은 영영 오지 않아 새벽 4時 20분이 되어 窓門이 뿌영기에 커튼을 걷고 보니 벌써 날이 환하게 밝아 오고 있었다. 여기 現地 時間은 섬머타임 時間으로 4時 20분이니까 正常的으로는 새벽 3時 20分인 셈이다. 날이 밝아오는 것은 異常하다. 緯도가 높기 때문에 北極에 가까운 까닭일까. 北緯 49° 라던가?

아침 食事を 부페로 하고 8時에 봉고車로 曼谷버 섬으로 向하였다. 이 섬은 南韓의 三分之一이 넘는 큰 섬이라고 한다. 큰 遊覽船에 乘船하였는데 1層 2層에는 버스, 트럭, 택시할 것 없이 無慮 400臺를 싣는 큰 船舶이었다. 3層과 4層에는 遊覽客

이 約 2,000名 乘船했다. 約 37km를 航進하여 부리티쉬 콜롬비아 州에 到着하였다.

빅토리아公園 卽 부차-드 가든에 이르러 人工的으로 栽培한 數千種의 燦爛陸離한 그 樹木과 花草를 보니 그저 感歎의 소리만 發할 뿐이었다. 寫眞을 5, 6枚 撮影한 다음 中國 食堂에서 부페로 中食을 하였다. 그리고는 午前에 下船하였던 곳으로 되돌아 와서 그 遊覽船을 다시 타고 밴쿠버로 回航하니 午後 5時 20分頃이었다. 多少의 時間이 있어서 여기 저기 賣店을 둘러보니 터무니 없는 高價品이었다. 우리 夫婦는 아무것도 購入하지 않았다.

新羅會館이라는 韓國 食堂에서 쇠고기 불고기로 식사한 후에 宿所인 호텔로 돌아 왔다. 이 호텔에서 二泊째를 맞이하는 셈이다. 여기 밴쿠버에서는 每 食事を 마치고 나갈 때에는 食卓위에 1달러式 팁을 얹어 두고 나가야 한다고 가이드는 말하였다. 정말 疑訝스러웠다.

◦ 6月 26日 水曜日

午前 6時에 起床하라는 現地 가이드의 昨夜의 說明이 있었다. 7時에 아침 食事を 하였다. 밴쿠버를 飛行機로 出發하여 켈거리로 向하였다. 時間은 午前 10時 30分 出發이었다. 每番 飛行機는 定刻에 離陸하는 法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 밴쿠버를 出發하는 飛行機는 10時 32분에 離陸하였으니 比較的 正確한 出發이었다. 午前 11時 35分頃에 켈거리에 着陸하였다. 이 飛行機도 橫列로 座席이 5個 配列되어 있었다. 飛行 中에 機內에서 窓 밖을 내다보니 下界에는 록키山脈이 北쪽에서 南쪽으로 뻗어 있었다. 南으로는 美國에까지 말이다. 날씨는 淸明하였다.

白雪은 마치 山頂마다 牛乳를 부어 놓은 것 처럼 보이고 산 골짜기까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눈 위로 솜덩이같은 몽게구름이 덮고 있었고 햇살을 받은 눈과 구름은 눈부시게 反射되고 있었다.

드디어 켈거리에 着陸했다. 켈거리의 人口는 80萬이며 韓國人은 35,000餘名 居住한다고 한다. 市街地는 海拔 1,000m이며 88年 冬季 올림픽 開催地라 한다. 現地 가이드 金氏가 마중 나와 있었다.

록키山脈의 最高峰은 록슨山으로 3,954m라고 한다. 켈거리는 北緯 57°이다. 캄차카 半島의 中間 部分과 맞먹는 緯度이다. 캐나다를 東西로 지르는 高速道路는 8,000km로서 世界 最長距離라고 하니 壯觀이다. 봉고차를 타고 밴드 公園으로 向했다. 途中에 미네왕카 湖水가 靑綠色으로 비치고 있었고, 록키山脈은 봉우리 마다가 하나의 巨大한 岩石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途中에 山羊들이 나타났다. 老羊들이었다. 다섯, 여섯 마리가 道路面에 나타나서 悠悠히 걷고 있었다. 사람을 보아도 秋毫도 恐怖를 느끼는 氣色은 없고 오히려 사람 가까이 와서 먹이를 주세요 하는 表情이었다. 꽤 나이가 많은 듯 뿔의 밑 둘레가 約 20cm는 되어 보인다. 새끼가 딸린 것도 있었다. 손바닥에 菓子を 얹어 놓으니 親熟하게 와서 먹는다. 전나무들이 直線으로 뻗어 密林을 이루고 있었는데 굵기는 그렇게 굵지 않아 둘레가 20cm~30cm, 굵은 것은 40~50cm 정도되는 것이 主를 이루고 있었다. 제법 큰 것은 둘레 60cm 정도되는 것도 간혹 보였다.

두제크 湖水가 미네왕카 湖水와 瓶의 목만한 사이를 두고 물이 서로 交流하고 있었다. 매우 淸淡한 물이었다. 玉色을 띤

파란물이다. 이따금씩 ‘레이크’라는 검은 褐色의 사슴들이 나타나곤 하였다. 다람쥐들이 停車해 둔 車밑으로 요리조리 들락거리기도 하였다. 山羊떼들이 5, 6 마리가 路面에 나타나서 그중에 한 마리는 내 곁으로 와서 먹이를 달라는 듯 내 손끝을 핥기도 한다.

벤프 마을에 到着하였다. 人口가 約 七千名인데 年中 觀光客이 350萬名이나 찾아 온다고 한다. 1995년에는 韓國人도 40,000名이 왔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록키山脈의 頂上 가까이까지 올라가서 徒歩로 氣象觀測所까지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溫泉水가 있는 곳으로 가니 男女가 混湯을 하고 있었다. 어찌 그리도 肉富한 男女들인지 모르겠다. 回路에 賣店 몇 곳을 둘러보고 호텔에 와서 저녁 食事を 했다. 연어고기 구이가 特味였다. 벤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 6月 27日 木曜日

새벽에 호텔의 窓門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萬事는 自然에 맡길 일이지 人間이 어떻게 해볼 道理가 없지 않은가! 아침식사는 8時 30분에 호텔 食堂에서 부패食을 하였다. 나는 主로 과일과 菜蔬를 取했다. 그리고는 陽傘을 準備해서 우리 夫婦는 一行 6名과 봉고車에 올랐다. 비는 조금씩 내렸다.

9時 30분에 호텔을 出發하여 午前 11시에 ‘포레인 湖水’에 到着하였다. 다음은 ‘빅토리아山(3,474m)’ 아래에 있는 ‘빅토리아 湖水’에 到達했다. 그 어느 湖水나 靑色이 어리게 水面이 맑고 거기다가 周邊의 高山들이 頂上에는 白雪을 이고 山허리 자락에는 白雪이 넓적 넓적하게 군데군데 깔려 있는 것이 湖

水에 倒影되니 眞實로 仙境이라 할 수 있다. 여기 록키 山脈에는 山중턱까지만 잣나무가 密林的으로 되어 있고 그 以上은 岩骨 그대로인데 山頂과 山 골짜기에는 冰雪로 덮여 있다.

더욱 봉고차를 몰아서 萬年冰原이라는 콜롬비아 大冰原에 이르렀다. 본래 우리는 봉고차로 왔지만 콜롬비아 大冰原에 이르기 約 3km 앞에서 現地運營 버스를 갈아 타고 約 3km를 달린 후 다시 내려서 雪上車에 올라탔다. 이 雪上車은 타이어 크기가 한 아름 굵기인데 1個에 日貨로 百萬엔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돈으로 約 7백 5십만원인 셈이다. 굵고 큰 타이어였다. 여기 冰板은 두께가 300m라 하니 얼마나 긴 歲月을 두고 冰積된 것인지 알 수 없다. 雪上車로 約 200m를 덜컹거리며 目的地에 가서 내렸다. 바로 콜롬비아 大冰原이다. 한쪽엔 우리 팔뚝만한 冰板이 녹아서 冰水로 흐르고 있었다. 一行은 가이드가 길어주는 冰水를 큰 컵에 한 컵씩 받아서 거기에다 洋酒를 小컵으로 한 잔씩을 섞어 쇠고기 肉脯와 함께 천천히 쉬어가면서 山頂 한 번 바라보곤 한 모금, 눈 한 번 보곤 한 모금, 冰板 한 번 보곤 한 모금, 각시 한 번 보곤 한 모금, 친구 한 번 보곤 한 모금, 그만 다 마셔 버리니 모든 周圍의 壯觀과 山頂雪과 어울려서 그야말로 仙境에서 노니는 神仙이었다. 神仙을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 내가 바로 神仙이로다. 나는 별안간 ‘萬歲!’ 하고 兩手를 치켜 들고 외쳤다. 내 妻는 빙그레 웃었다.

나는 켈거리에서 冬節 帽子를 하나 買入했다. 캐나다貨로 69 弗짜리인데 美貨 50달러를 주었다. 나는 록키 山脈을 둘러보고서 캐나다國에 온 本錢은 이제 빠졌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에헴’ 하고 큰기침을 하였다. 이번에 캐나다와 美國東部

地方의 總旅費는 公式的으로 負擔한 것이 一人當 229萬원이니 우리 夫婦分은 合計 458萬원이었다. 現地 가이드의 말에 依하면 오늘 우리가 마신 雪氷水는 150年前의 얼음이 녹은 물이라 나…….

다음은 ‘아사마카冰原’에 다달았다. 이 冰原은 높이가 3,450m인 ‘스노우돔’ 山에 있었다. 여기의 氣溫은 最低가 零下 70°C이고 最高가 零上 30°C라니 100°C間을 오르내리는 氣溫差이다. 現地에서 스테이크 點심을 먹었다. 캐나다의 록키 山脈附近은 잣나무가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이 冰原의 周邊에 있는 잣나무는 키도 크지 않은 100~150cm이고, 줄기도 굵지 않으나 平均 樹齡이 300年 乃至 450年이라 한다. 一年에 나무가 生長할 수 있는 期間이 45日間뿐이기 때문이라 한다.

다음은 ‘데이트 湖’을 거쳐 ‘보우 湖’에 갔다. 이 ‘보우 湖’는 켈거리 市를 흐르는 水源이다. 우리는 봉고車를 달리는 途中에 숫곰을 한 마리 發見하고 車에서 내려 카메라에 담았다. 그 놈은 黑色인데 무게가 족히 150kg은 되어 보였다. 다람쥐는 數 없이 많았다. 사람과 親熟하여 사람 가까이 오는 놈도 많았다. 朴永鎭 先生님은 가까이 온 놈을 한 마리 덩싹 움켜 잡았다. 짹짹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놓아 주었다. 自然保護運動이 一般化되어 國民의 習性으로 되어 있다. 人山不二요, 人獸가 不二의 境地이다. 人生과 自然은 完全히 不二의 關係로 틀어 잡혀 있었다.

午後 8時 30분에 켈거리에 到着하여 韓國館에서 쇠고기 불고기로 저녁 食사를 하였다. 主人과 人事를 하고 보니 麗水가 故鄉이란다. 까마귀 발톱 雪山과 보우 江을 보면서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이제는 이 나라 生活에 익숙해져서 잠도 適

時에 잘 자곤 한다. 보우 강의 ‘보우’라는 말은 인디언의 말인데 활을 만드는 나무를 求한다는 말이라나…….

◦ 6月 28日 金曜日

午前 5時 50분에 起寢하였다. 快晴한 날씨인데 벌써 東天에는 太陽이 5m 정도 솟아 있었다. 여기 켈거리에는 해가 빨리 뜨는 셈이다. 8時 30분에 朝飯을 먹었다. 켈거리 綜合大學內的 體育大學을 둘러보고는 쇼핀 百貨店을 둘러 보았다. 나는 妻에게 말하였다. ‘우리나라 物品이 質 좋게 잘 나오고 價格도 여기의 半額 정도로 싸게 살 수 있으니 여기서는 아무 것도 사지 맙시다’ 했더니 妻도 그러자고 하였다.

다음은 보우 강과 이드 강이 合流되는 곳과 카우보이들의 競技場을 멀찌감치 求景하였다. 켈거리 市街도 저 멀리 보인다. 다람쥐들이 떼를 지어 왔다갔다 한다. 中食은 韓國食堂에서 도가니湯으로 滿足해야 했다. 朴永鎭 先生님이 韓國에서 여러 瓶 가져왔다는 眞露 燒酒로 술잔이 來去來去하면서 두어 잔씩 마시면서 愉快하게 談笑하였다.

午後 1時 30분쯤 켈거리 空港을 向해서 봉고車로 달렸다. 到着하고 보니 午後 3時였다. ‘토론토’로 가는 飛行機 出發 時間이 午後 4時 30분이라 한다. 一行은 右往左往하면서 쇼핑센터를 出入하였다. 午後 4時 正刻에 飛行機에 올랐다. 搭乘 前에 檢索臺에서 所持品을 檢索하는데 내 차례가 되니 별나게 뻐뻐하고 벨이 울리었다. 팔목 時計까지 檢索器 가까이 가니 뻐뻐하고 울렸다. 甚至於是 조끼의 金屬 단추까지도 뻐뻐거렸다. 민망스러운 地境이었다.

午後 4時 50분에 離陸하였다. 機內的 橫列 座席數는 7席으로

中型 飛行機였다. 機內에서 스테이크 夕食을 받아서 나는 정말 맛있게 먹어치웠다.

午後 10時 10분에 토론토 空港에 着陸하였다. 가이드가 마중 나와 있었다. 버스便으로 호텔에 들어서 317號室을 配定받아서 짐을 풀고 日記를 썼다. 토론토는 人口가 350萬인데 韓國人이 五萬名 정도 居住한다고 한다. 토론토라는 地名은 인디언語인데 人口가 많다는 뜻이라고 한다. 토론토는 캐나다의 東端의 主要 大都市이다.

◦ 6月 29日 土曜日

이번의 캐나다와 美國 東部地方 旅行 中에는 出發日로부터 今일에 이르기까지 밤에는 熟眠을 取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昨夜에는 제법 잠을 잔 셈이다. 따지고 보면 여기의 밤은 韓國의 낮이니까 잠이 잘 안오는 模樣이다. 그러다가도 낮에는 觀光車內에서 또는 飛行機內에서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였다. 오늘은 아침 4時 35분에 잠이 깨었다.

午前 6時 30분에 호텔에서 朝食을 하고 8時 30분에 ‘나이아가라 瀑布’를 向해 봉고車로 出發하여 10時頃에 到着하였다. 雄壯하고 莊嚴한 瀑布인지라. 大自然의 偉大하고 神祕的인 作品에 驚異를 滿喫하였다. 連續的으로 大轟音이 天地를 震動하며 그 巨大한 蒼空을 가르는 大泡沫雲은 뿌영게 視界를 흐리게 한다. ‘나이아가라’라는 말은 인디언 말인데 ‘天動치는 물소리’라는 뜻이란다. 인디언들도 表現은 잘도 한 셈이다. ‘안개 속의 淑女’라는 배를 타고 美國 瀑布 아래까지, 그리고 캐나다 瀑布 아래까지 둘러왔는데 船上에서는 미리 靑藍色의 雨衣를 입었으나 그 壯大한 泡沫에 依해 옷이 多少 젖었다. 美國

瀑布는 江 건너 正面에 있었고 캐나다 瀑布는 나이아가라 江을 따라 右側에 있었다. 나이아가라 江물이 흘러 내려 오다가 巨大한 높은 낭떠러지에서 쏟아지는 것이 나이아가라 瀑布이다. 나이아가라 江은 ‘이리湖’로부터 水源을 이루고 있다. 瀑布는 높이가 56m이고 水量은 세계에서 最多量이며 이보다 더욱 큰 瀑布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한다.

11시에 데이블록에서 自由 時間이 있어서 記念寫眞을 撮影하고 韓食을 점심으로 하였다. 이 나이아가라 瀑布를 求景하고 나는 캐나다에 온 本錢은 다 빠졌다고 마음 속으로 외쳤다. 午後 1時頃 나이아가라 周邊 名所, 水力發電所, 나이아가라 庭園과 世界最小의 教會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소용돌이 등을 觀覽하고 午後 3時 30분에 國境을 通過하여 美國 버팔로에 到着하였다. 버팔로에서 午後 6時 15분에 飛行機로 出發하여 워싱턴에 着陸한 것이 午後 7時 8분이었다.

캐나다는 領土가 세계에서 第一 넓으며 韓國의 약 45배라 한다. 그러나 實用價値가 있는 땅은 全體面積의 7.5%에 不過하다고 한다. 1892年 英國으로부터 獨立하였으며 總人口는 3,000萬名이며 70個 國語가 通用되고 있으며 이 中에 美國人이 47% 居住하고, 亞細亞人이 50萬名 정도 移民해 있다고 한다. 國旗는 가운데에 白色 바탕에 赤褐色 丹楓 나무잎을 그려 넣고, 左側에는 卽 西쪽에는 太平洋, 右側 卽 東쪽에는 大西洋을 同一한 赤褐色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國旗는 初等學校 四學年生이 圖案한 것이라 한다. 全體 人口 3,000萬에 ‘온타리오州’의 人口가 약 1,000萬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 首都는 캐나다 東部に 있는 ‘오타와’이다.

캐나다에 있는 都市들은 高層建物は 少數이고 單層建물이

大部分이었다. 亦是 地域이 廣濶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住宅과 住宅 사이에는 綠蔭이 많았다. 都市 全體가 그야말로 田園都市였다. 人間과 自然이 아주 잘 調和를 이루고 있다. 캐나다는 工業國이라기 보다는 農水産國인데 主로 밀 農事, 果樹園(포도), 山林, 製鐵, 漁業 等이며 工業으로는 電子製品이 有名하다.

◦ 6月 30日 日曜日

午前 5時 20分 起寢하여 7시에 朝飯을 마쳤다.

워싱턴은 美國의 首都이며 人口는 가이드의 말에 依하면 分明히 60萬이라고 들었는데 집에 와서 百科大辭典을 찾아보니 89萬이라고 되어 있다. 이 辭典도 出刊된지가 21年이 지났으니 얼마나 人口가 더 增加했을까. 90萬은 넘었으리라. 내가 가는 귀가 좀 멀다보니 90萬하는 소리를 60萬이라고 들었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田園都市이다. 그리고 閑暇로운 都市이며 숲과 家屋이 混成된 都市이다. 호텔에서 아침 食事を 마치고 로비에 내려가니 피아노가 있었다. 나는 가까이 가서 不知不覺中에 뚜껑을 슬그머니 열고 椅子에 앉았다. 내 손이 鍵盤 위에 올랐다. 나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를 흥겹게 演奏하였다. 어디선가 拍手소리가 들려왔다. 右便으로 보니 西洋婦人네들 5,6名이 拍手를 치고 있다. 앞쪽에서는 韓國人 婦女子들이 拍手를 치고 있다. 물론 우리 一行의 婦人들도 끼어 있었다. 내 아내도 있었다. 世上에 나같이 피아노 솜씨가 劣等함에도 拍手를 치는가 하고 나는 興奮했다. 그러나 周圍를 意識하지 않고 신나게 鍵盤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한번 더 되풀이 반

復해서 두드렸다. 보는 사람들이 그 曲 뿐인가 할까봐 다음은 ‘서울 가는 十二列車’를 쳤다. 왜 그뿐이라! 또 있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拍手 소리는 數三次 더 울렸다. 나는 그만 두었다. 오늘 저녁에 또 쳐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少時節에 教鞭生活을 하면서 익혀 둔 것이다. 오늘은 보람을 느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美國에 와서 本錢 건졌다!’ 라고 두 번, 세 번.

美國과 캐나다를 連結하는 다리는 30個라 한다. 워싱턴은 北緯 45°에 位置하며 美國의 首都이다. 美國初代 大統領인 ‘워싱턴’의 이름을 붙인 都市이다. 워싱턴 市街를 흐르는 江은 ‘포도맥 江’이며 인디언語인데 ‘사랑의 江’이란 뜻이라고 한다. 이 江의 南쪽은 버지니아州이고 北은 워싱턴市이다. 여기에도 캐나다와 같이 丹楓나무가 많다. 호텔에서 뷔페食事を 했다.

봉고車を 타고 ‘알링톤 國立墓地’를 訪問하였다. 알링톤에 있는 墓地이다. 이곳은 밤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낮에는 날이 맑아서 나무들이 잘 자란다고 한다. 소나무도 더러 있었다. 이 墓地에는 존 F. 케네디 大統領의 墓도 平民的으로 모셔져 있다. 本人의 所願이었단다. 그리고 ‘永遠한 불꽃’이라고 불리우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이 불은 가스供給으로 永遠히 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 候補로 大統領 競選 過程에서 暗殺 당한 그의 아우 로버트 케네디의 墓所도 옆에 있었는데 이 墓所는 ‘永遠한 샘터’로 불리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두 兄弟를 잃은 그들의 어머니가 세웠다는 碑에는 悽絶하고 哀痛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心情이 句句節節 陰刻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 兄弟分の 墓 앞에서 默念을 謹嚴하게 올렸다.

다음은 링컨 大統領의 記念館으로 갔다. 아름답리 기둥이 36

個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美國이 36州이기 때문이다. 雄壯한 건물이다. 다음은 韓國動亂 戰死者 墓地를 訪問하였는데 6.25 韓國戰 때 戰死한 美軍은 54,246名이고 UN軍의 總 戰死者는 68,833名이라 한다.

다음은 '제퍼슨 大統領記念館'을 訪問하였는데 白堊館을 向해 있는 建物이다. 제퍼슨이 大統領時에 美國聯邦憲法이 制定되었다. 다음은 워싱턴 大統領記念塔을 求景하였는데 높이가 195m라고 한다. 그 다음은 國會議事堂으로 갔다. 72年만에 完功되었다 하며 들어가는 兩側에 丹楓나무가 멋지게 줄지어 서 있었다.

中食을 갈비탕으로 한 다음 쇼핑을 간단히 하였다. 저녁 食事は 서울食堂에서 韓食을 먹었다. 호텔에 가서 나는 신나게 피아노를 또 쳤다.

◦ 7月 1日 月曜日

朝飯을 마친 後 워싱턴 廣場에 있는 워싱턴塔을 쳐다보고는 宇宙博物館과 美術館을 觀覽하였다. 워싱턴發 午後 5時 20分 飛行機로 午後 6時 10分에 뉴욕에 到着하였다. 가이드인 金君이 마중 나와 있었다.

뉴욕을 흐르는 江은 '허드슨江'이다. 맨하탄은 섬이었지만 뉴욕의 中心部이다. 人口는 750萬이라고 한다. 그러나 流動人口가 750萬이니 合計 1,500萬 人口이다. 夕食後에 호텔에 들어서 환기를 하려고 房窓門을 열어 놓았다. 約 10分 後에 房을 살펴보니 모기떼가 벽에 새까맣게 붙어 있었다. 기겁을 하고 가이드에게 말했더니 아래방으로 案内를 해주어서 우리 夫婦는 아랫방으로 옮겨서 就寢을 하였다.

◦ 7月 2일 火曜日

朝食은 호텔 뷔페로 때웠다. 링컨 터널을 通過하여 맨하탄島 卽 뉴욕의 中心街를 訪問하였다. 허드슨 江을 건너면 맨하탄 이다. 맨하탄 江은 이 江을 發見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江이란다. 유엔본부가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엘리베이터로 80層까지 올라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바꾸어 타고 86層까지 올랐다. 록펠러 센터는 그 附近 모두가 록펠러의 土地이며 建物들이었다. 뉴욕은 英國人 ‘뉴욕 公爵’의 이름을 붙인 都市란다. 처음에는 네덜란드인들이 살았는데 美國이 宣戰布告를 하자 和蘭人들은 逃亡갔다고 한다. 聖公會堂은 150年 前부터 建築中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未完成이다. 雄壯하면서도 纖細한 工事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뇌까렸다. ‘宗教의 威力은 雄壯해야만 發露되느냐?’ 고.

그렌트 將軍墓는 記念館 內에 있었다. 이 그렌트 將軍은 美國南北戰爭時에 北軍의 將軍으로서 北軍의 勝利를 이끌어 내고 美國 18代 大統領이 되었다. 할렘街는 多空家地帶라 빈집이 많다. 1,000坪이나 되는 센트럴에서 中食으로 갈비탕을 먹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總 103層 338m란다. 航空母艦이 보인다. 맨하탄 海低터널의 길이는 2,200m로 허드슨江 밑을 通過하는 길이이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86層에서 模形 엠파이어스테이트를 39달러를 하나 주고 샀다. 콜럼비아 大學이 맨하탄에 있다.

午後 5時頃에 맨하탄을 빠져 나와서 夕食을 마치고 호텔에 들었다. 이 호텔에도 로비에 피아노가 있어서 나는 氣分내키는대로 쳤다. 한 서너 曲 치고는 멋적어서 그만 두었다. 이제 는 잠도 제대로 잘 자는 셈이다. 오늘은 가이드를 졸라 大西洋

邊에 가서 손을 씻었다.

◦ 7月 3日 水曜日

오늘은 朝飯 後 베라자노橋를 向하였다. 길이가 4km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十里길이다. 여기 뉴욕에는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먼저 들어왔다 한다. 맨하탄에는 스테이튼아이랜드區, 부르크크리區(黑人區:黑人이 90%)가 있다. 113年前의 다리인 부르크린부릿지(橋)는 맨하탄으로 건너는 다리이다. 소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가 많다. 그리고 갈대도 많다. 이 맨하탄에 UN本部가 있다. 밧데리 파크(파크는 公園이다)의 大砲를 求景하고 自由의 女神像을 찾았다. 높이가 52m인 이 女神像의 左手엔 獨立宣言書, 右手엔 蠟燭이 들려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午後에는 自由時間이 많았다. 女神像 模形도 하나 샀다. 쇼핑 時間이 많아서 이리저리 다녔으나 살만한 것이 없다. 午後 6時 30분에 저녁食事を 쇠고기 불고기로 뉴욕의 마지막 食事を 하였다. 그리고는 봉고車로 뉴욕 空港에 到着하였다. 午後 11時 40분에 飛行機에 搭乘하였다. 우리나라 코리아나航空社의 飛行機이다. 믿음직하다.

午後 11時 50분에 離陸하였다. 서울로 가는 것이다. 途中에 알라스카의 앵글릿지에 着陸하여 約 45分間 머물렀다. 새벽 4時 10분에 다시 搭乘하여 4時 30분에 離陸하여 韓國時間으로 午前 6시에 서울에 到着하였다. 서울에서 午前 8時 40분에 出發하는 飛行機로 午前 9時 20분에 蔚山空港에 到着하였다. 空港에는 朴永鎭 先生님의 아드님이 乘用車로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는 그 車에다 트렁크를 싣고 함께 타고 오다가 우리 집에 먼저 내려주었다. 우리는 眞心으로 感謝하다는 人事를 하였다.

이로서 캐나다와 美國 東部 旅行은 무사히 마쳤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飛行機로 17時間 걸렸다. 韓國으로 7月 5日에 歸國했다.

■ 후기

大宇宙 自然의 存在와 展開

내가 海外旅行을 始作한 것은 停年 退任을 1年 앞둔 1985年 8月 1日부터 8月 16日까지의 日本旅行이 처음이었다. 당시 큰 女息이 東京大學에서 博士過程을 履修中이었는데 日本에 滞在하는 동안에 우리 夫婦더러 日本에 遊覽次 꼭 오십시오 하는 數次의 要請이 있었기에 갔던 것이다. 金海空港을 出發해서 東京의 成田空港에 내려서 東京의 名聲있는 곳들을 둘러 보았다. 첫째로 皇居와 二重橋, 明治神宮, 東京塔, 茨城의 筑波 엑스포, 箱根山, 銀坐, 橫浜을 둘러 보고 富士山, 日光東照宮, 大阪, 京都, 奈良 등을 求景하고 8月 14日 大阪航空으로 金海上空에 이르니 雲霧가 비와 겹쳐서 着陸 不可能이라 하여 大阪까지 되돌아가서 日本人 旅館에서 一泊한 後 8月 15日에 金海로 歸國하였다. 大阪에 回航했을 때에 女息이 金海에 着陸 不能이란 뉴스를 듣고 大阪空港까지 또 마중 나와서 日本人 旅館까지 案内를 해주었다. 무척 고마움을 느꼈다.

2次는 停年退任을 하고 1989年 12月에 東南亞細亞의 臺灣, 香港, 싱가포르, 泰國, 말레이지아, 마카오 등 6個國이고, 3次는 1995年 7月 中國의 上海, 長白山, 延吉, 北京, 上海로 해서 歸國

한 것이다. 白頭山을 中國에서는 長白山이라 한다. 長白 瀑布도 보았다. 露天溫泉이 김을 뿜었다.

4次는 유럽이다. 서울發 런던着하여 프랑스 파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바티칸宮, 로마, 런던을 둘러 런던에서 12日만에 서울로 歸國했다.

5次는 1995年 9월에 하와이, 美國 西部의 로스엔젤레스,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를 둘러 서울로 歸國하였다. 8泊9日間이었다.

6次는 1995年 12月 13日 서울 出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등 튀지國을 거쳐서 서울로 歸國하였다. 8泊9日間이었다.

7次는 캐나다와 美國 東部地方으로 11泊 12日이었다.

地球의 表面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또 蒼空을 8,000m 또는 12,000m 높이로 날으면서 大宇宙 自然의 廣大高遠함을 實感하였다. 물론 飛行機를 數十次 타고 날으니 自然 大宇宙의 無限한 存在와 展開에 對해서 神祕하고도 不可思議함을 느꼈다. 偉대한 存在가 太初에 어떻게 이루어져 形成되었음인지 永遠히 不可思議하며 풀 수 없는 神祕이다. 그러나 造物主가 만들었다던가 神의 作業으로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最近 數年前부터 造物主나 神을 認定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아나크사고라스는 말하기를 ‘太陽은 物質體’라고 말했고, 프로타고라스는 ‘神은 알 바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샤프트르르는 ‘神은 죽었다’고 確言했다. 나는 體驗的으로 모든 것을 綜合해 보고 드디어 神을 否定하게 되었다. 그저 太初부터 大宇宙 自然일 따름이다.

自然과 人間의 調和와 不二關係

海外旅行의 結果로 얻어진 나의 信念은 ‘大宇宙 自然 속에 生存하는 人間은 아주 極히 微細한 存在的 動物’이라는 것과 同時에 ‘人間은 地球의 寄生蟲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自然의 惠澤으로 因하여 人類가 存在할 수 있음을 攄得했다. 衣食住가 모두 自然으로부터 取得되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美國에서는 自然保護가 徹頭徹尾하게 履行되고 있었으며 萬若에 自然毀損者가 있다면 最下 五,六百萬원 정도의 罰金이라니 可知인 것이다. 이 나라의 國民 모두는 自然保護에 關하여 通念的이며 意識化되어 習慣化되어 있었다. 人間과 自然이 더불어 存在하고 있으며 不二의 關係임이 歷然하였다. 自然 中の 野生動物이 人間에게 恐怖心 없이 接近하여 먹이를 要求하는 親熟한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情景이며 不二의 關係로 調和를 이룸을 보고 共生共同體임을 切感하였다.

民族과 地域環境과의 遭遇는 運命이다.

어느 民族의 祖上이 어느 地域環境에 遭遇하여 터를 잡는다는 것은 그 民族의 子子孫孫에게 永遠한 運命을 決定짓게 하는 것이다. 우리 韓國은 國土가 狹小하여 우리 民族은 숨 막힐 地境이다. 그렇다고 祖上을 탓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祖上들이 터를 잘못 잡았다고 본다. 우리들은 自然資源도 缺乏한데 태어나서 困境에 處해 있는데 比해 中國과 濠洲, 獨逸과 프랑스, 뉴질랜드, 英國, 캐나다, 러시아, 네덜란드, 브라질 등 諸國

들은 그 祖上들이 天惠의 廣濶한 大地, 自然物資의 豊富한 地域을 占하여 長久히 開拓 發展시킬 餘地가 많았다. 領土가 多少 狹小한 國家도 있으나 人口가 稠密치 않고 稀少하여 將來가 有望한 處地에 놓여 있다. 터를 잘 잡은 祖上님들의 恩澤이며 地球表面을 잘 選擇한 餘德이라 할 수 있다.

東洋의 道德觀과

西歐人 特히 英글로색슨의 民族觀의 比較

東洋에서는 運命論的인 精神文化가 古代로부터 支配的으로 傳來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因果應報라는 眞理를 強調하며 어느 한 사람의 오늘의 非道德的 惡業에 대하여 오늘 即時로 그 罪科와 業報가 그 사람에게 現出치는 않지만 後世의 어느 時代에는 그 子孫이 罪罰을 受難하게 마련이라는 思想이 東洋의 思想이다. 그래서 東洋人들, 特히 韓國 民族과 中國 民族들은 後世代의 子孫들에게 災殃을 미칠 수 있는 惡業을 삼가해야 한다는 思想이 一般的으로 觀念化되고 있다.

그러나 英國系의 ‘英글로색슨’ 民族은 어떠한가. 海運技術의 發達과 더불어 所謂 ‘바이킹’ 노릇을 하며 海外로 進出하여 아프리카, 印度,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하와이, 美國 等地의 未開 인디안들을 武器로 占領하였다. 原住民인 인디안들을 無差別 殺戮하고 順順히 屈服하는 자는 奴隸로 使役하기 爲하여 殘存시켜 두고 오래도록 使役하고 그 많은 땅들을 자기들의 領土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反抗하지 못하도록 屈從시키고 그 많은 領土를 占有하여 自己네들의 種族을 植民

하여 子孫들을 繁殖시키지 않았는가?

그 點을 들어서 東洋思想대로 因果應報를 따진다면 일찌감치 滅亡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祖上 때문에 그 惡行 때문에 應報的 罪科는 커녕 오늘날 地球의 表面 到處에서 繁昌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特히 ‘빅토리아 女王’ 時代에는 ‘해가 지지 않는 英國’ 이라 하여 全盛期를 이루지 않았던가? 弱肉強食이란 法則에 따라 해내는 種族이 勝利를 이루지 않았던가?

優勝劣敗의 眞理는 過去나 現在나 大宇宙 自然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長頭長身の 앵글로색슨族!

果然 偉大하다 아니 할 수 없도다.

歷史와 國家의 存亡關係

어느 國家, 部族에서나 支配者가 있고 被支配者 즉 屈從者가 있는 것이다. 어디 없이 누구든 支配者가 되기를 좋아하고 屈從者가 되기를 싫어한다. 支配者는 權力을 잡아야만 專橫·獨裁할 수 있고 그래야만 自己의 富貴安寧과 子孫眷屬들의 無限無盡無窮한 華麗한 生活을 爲하여 弱한 國民들을 收奪할 수 있고 奴隸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支配者가 되고자 한다.

나는 여기에서 強調하노니 帝王이나 군주이거나 或은 大統領이거나 支配者들은 被支配者의 立場을 恒時 十分 考慮하면서 百姓들의 財産과 生命과 人格과 人權을 尊重하고, 百姓을 自己 家族과 同一視하여 百姓과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하여야만 自己의 그 支配者의 位置를 時間的으로 長久히 延長할 수 있을 것이다. 卽 빨리 亡하지 않을 것이다.

中國 旅行에서 明朝時代의 王宮을 보고 느꼈다. 數十棟이나 되는 巨厥들이 圓柱 기둥들은 아름답지요, 그 豪華燦爛한 丹青과 으리으리한 規模는 國民의 膏血을 搾取한 痕迹이 歷歷하고 苛斂誅求를 能히 表現하고 있다. 百姓의 혈벗고 굶주렸음은 不見可知요, 君王은 豪華燦爛한 生活이었고 百姓의 財物을 얼마나 많이 收奪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百姓은 王室이 하루 빨리 滅亡하기를 苦待했을 것이다. 君王의 세계는 그대로 따로 있고 百姓의 세계는 따로 있어 그 生活狀態는 極과 極의 對照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明朝가 亡했다. 民心이 君王을 떠나면 君王이 亡하는 것은 必然의 理致니라.

루이 13세가 어떻게 했기에 프랑스 王室이 亡했는가? 파리의 루블 博物館을 보았다. 그야말로 雄壯, 巨大, 豪華로왔다. 石造一色의 建物이었다. 그러나 루이 13世는 그것을 두고 3,000坪이나 되는 베르사이유 宮殿 建物 全部를 大理石으로 꾸며 奢侈의 極을 다해서 建造하여 移徙를 했단다. 그래서 舊宮殿은 博物館으로 使用되고 있다. 王室이 豪華를 極하면 國民은 乞食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베르사이유 宮殿에서 루이 14世가 國民으로부터 殺害 當해서 亡했단다.

帝政러시아는 어떻게 亡했는가. 國民과 王室 사이에는 큰 담장이 있고 王室과 豪族들은 國民을 굶주리게 하고 小作農으로 奴隸化했다. 國民 民心은 王室을 떠나 버렸다. 굶주린 사람 數가 豪華生活하는 者의 數보다 몇 千 倍나 많았다. 數字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當然하다. 그래서 革命이 發起해서 러시아王室은 亡했다. 小數가 國家 財產을 90% 以上 所有하고 國民의 90%가 極貧者로 存在할 때에 그 政府는 亡하는 法이다.

모든 存在는 眞理 뿐이더라. 寸毫의 乖離도 없더라.

蒼空을 날으면서 地球의 表面을 내려다 보아도 또한 橫的으로 東西南北을 두리번거리며 살펴 보아도 또는 着陸하여 地表나 空間을 살펴 보아도 보이는 萬物은 觀音이요, 들리는 소리는 妙音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眞理가 따로 없어라. 太平洋 바다는 아득히 멀고 虛空은 限없이 廣濶하더라. 저 虛空의 끝은 어디메인가? 끝이 없어라. 韓國과 美國과 濠洲는 바다 저 건너 있다고 하지만 바닷물 그 밑으로 全部가 連結되어 陸地의 地球이더라. 어느 누가 韓國과 하와이는 물 건너 저 멀리 있다고 했더냐? 全部分이 다 連結되어 있는걸. 人工的 加味를 모두 다 지워버리면 本來의 大宇宙 自然만 남으니 眞然 이것이 寂滅인가 하노라. 寸毫의 乖離도 없는, 이것이 바로 寂滅이며 眞理이며 眞然인가 하노라.

衆生들이여! 하찮은 조그마한 느낌, 秩序와 法則에 어그러진 現實의 甘味로움에 執着과 沒溺치 말고 大宇宙 眞然의 無窮한 神祕와 不可思議와 奧妙한 理致를 맛볼지니라. 些少한 是非를 앞에 두고 내가 옳네 네가 옳네 다투지 말지니라.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말하지도 말고 마음에도 간직하지 말지니라. 大宇宙 自然의 眞理만큼 잘났음이 어디 있던가 말이다. 眞理에 따라서 살지니라. 眞理가 法이요, 法이 眞理니라. 無爲自然인지라.

靑山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蒼空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
물 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落水山所
石人 愚光

나는 이제 大宇宙 自然의 審美主義者이며 自由主義者임을
自處하노라.

8. 第八次 海外旅行

(二次 日本 旅行-鹿兒島宮崎)

偶然的機會가 있어서 二次로 日本 南九州의 鹿兒島 宮崎로 妻와 함께 旅行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朴永鎮 先生님 夫婦分과 함께 出發하였다.

◦ 96年 10月 12日

아침 4時에 起寢하여 簡單한 짐을 챙겨서 準備完了하고 택시를 기다렸다. 택시는 朴永鎮 先生님 夫婦分이 事前에 準備해서 우리 집으로 午前 5時 30분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簡單한 아침 食事を 하고 났더니 5時 25分이었다. 우리 夫婦는 짐을 들고서 大門밖을 나가서 기다렸다. 얼마 후 택시가 到着하였기에 우리 夫婦는 승乘하여 出發하였다. 새벽이기 때문에 車는 막힘없이 順調롭게 잘 달려서 午前 6時 25분에 金海空港에 到着하였다.

國際線 一層의 亞洲觀光 集合所에서 一行 105名이 集合하였다. 모든 出國手續을 마치고 8時 20분에 飛行機에 搭乘하였다. 飛行機는 橫列로 座席數가 五個씩 配列되어 있는 小型 飛行機였다. 午前 8時 56분에 離陸하였다. 날씨는 흐렸다. 午前 10時 3분에 鹿兒島에 到着하였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鹿兒島

까지는 金海에서 定期航空便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一行은 傳
貰機를 내어 온 셈이다. 金海에서 亞洲觀光會社側의 가이드로
李敬惠 嬢이 同行하였다.

空港 밖으로 나가니 버스 2臺가 待期하고 있었다. 우리는 2
號 버스에 탔다. 버스는 미야자끼(宮崎)를 向하여 달렸다. 卽
宮崎縣이다. 周圍의 山들은 韓國의 山勢와 비슷하였다. 山마다
삼나무(杉)들이 密林을 이루고 있었으며 寸毫의 彎曲도 없이
나무들이 直立으로 서 있었다.

가고시마(鹿兒島)에서 미야자끼(宮崎)까지 가는 途中에는
山이 많았는데 스기木(杉木)이 山을 빼곡이 덮고 있었다. 一次
로 日本에 올 때도 보았지만 日本에는 스기(杉)나무와 히노끼
(檜木)나무가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스기나무는 물에 견디는
힘이 强하기에 木造船을 만드는데 많이 使用되는 나무이다. 이
杉木이 密林을 이루고 있으며 굵지는 얇고 둘레가 約
20~30cm가 普通이었다. 그러나 10年 20年 歲月이 經過할 수
록 年年歲歲 자라고 있으니 日本의 未來의 國富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日加月增으로 日本은 自然的으로 富國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神社와 神宮 附近에는 스기나무 둘레가 5m~7m되는
것도 許多하였다. 이번의 旅行에서 가장 부러웠고 貪나는 것이
이 杉木이었다. 어떤 나무는 나무의 중허리까지 가지치기를 하
였는데 바지를 벗은 사람이 連想 되었다. 어떤 나무는 바지가
랑이를 걸어 올린 것 같이 아랫도리를 2m 정도 가지치기한
것도 있었다. 높이는 大概 20m 以上 30m 정도되는 것이 었다.

드디어 宮崎에 到着하였다. 宮崎縣(미야자끼)까지는 150km
이다. 첫째로 平和大公園에 들렀다. 높다란 콘크리트塔이 約
50m 높이인데 塔 中央 部位에 세로로 ‘八紘一宇’라고 漢字로

크게 씌어져 있었다. 卽 넓은 모든 나라의 땅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다. 하나로 된 一字의 主人은 日本이 되겠다는 건방진 野望이니 정말 可笑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塔은 二次 世界大戰 당시에 建立했으리라. 아직도 그 文句를 그대로 놓아 둔 것이 異常하다.

야마노구찌(山の口) 休憩所에서 約 5分間 停車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또 달려서 鹿兒島(가고시마)로 回程하는 中이다. 平和台公園 리스트 하우스에서 日食 點심을 먹었다. 밥과 麵(국수), 鷄肉전골 등이었다. 그리고 오시엔돔(室內海水浴場)을 둘러 보았다. 이 돔은 天井이 開閉式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松林도 많았다. 道路邊의 街路樹는 主로 椰子나무가 많았고 높이가 20~30m 되어 보였다. 그리고 棕櫚나무도 많았다. 이곳 南九州는 亞熱帶氣候이다. 우리나라의 濟州島에 온 느낌이다. 다음은 蝦(하)노高原, 大淀川(오오요도가와)를 지났다. 宮崎市內를 흐르는 江이다. 江 東便에 空港이 보인다. 宮崎(미야사키) 縣木인 蘇鐵나무가 많았다. 높이가 2m 정도로 자란 큰 蘇鐵나무들이다.

멀리 보이는 山의 杉木(스기나무) 꼭대기들은 마치 毛筆을 여러 數十個를 모아 묶어 둔 붓 끝 처럼 보인다. 이 宮崎縣의 主產物은 쌀, 면, 煙草, 파 등이라고 한다. 한 곳을 지나니 코스모스가 燦爛하게 피어 있었다. 140種이라 한다. 기리시마(霧島)로 돌아왔다. 이 霧島는 全體가 山이고 丘陵인데 곳곳에서 溫泉 김이 몽게몽게 피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冬節期에는 이 안개가 얼어붙어서 車가 不通이라고 한다. 비는 가을비라 그런지 오다가 말다가 한다.

大波池國立公園을 지났다. 左便에는 駱駝 등위의 흑 같이 두

개가 불거진 山은 獅子岳이라 하며 高千穂峰(다까지호미내)이 보인다. 오른쪽으로 中岳(나까다께)이 있다. 오늘밤은 여기 林田(하야시다)溫泉호텔에서 宿泊하기로 하였다. 海拔 約 800m인 山間 호텔이다. 호텔에서 夕食을 하였는데 밥, 쇠고기, 국, 달걀탕, 生鮮膾, 새우튀김, 간장, 김치 등 반찬도 比較的 좋은 便이었다. 不知名 반찬이 두어 가지 더 있었다. 밥도 더 追加로 받았다.

여기 日本사람은 숟가락을 使用하지 않는다. 대신 木箸를 使用한다. 초고추장도 없었다. 食事 中에 舞臺에서 펼쳐지고 있는 中國北京舞蹈學院藝術團圓들의 서커스 公演을 보았다. 아슬아슬하게 하는 것들에 마음이 조였다. 이 食堂 兼 公演場의 天井 높이가 60m라고 한다. 한 지붕 밑에 百貨店도 있고, 庭園도 있고 호텔도 있고 總 面積이 3,000坪이라고 하니 壯大하고도 廣濶하다. 4인이 1室에 자니 우리 夫婦는 朴永鎮 先生 夫婦와 一室 同寢하였다. 자기 前에 溫泉浴을 하였다.

◦ 10月 13日 日曜日

아침 6時에 잠을 깨어 7時에 호텔 食堂에서 뷔페食을 하였다. 8時에 버스를 타고 鹿兒島(가고시마) 쪽으로 向해 出發하였다. 가고시마의 人口는 54萬名이다. 氣溫은 年平均 18°C이다. 버스가 約 2km 通過했을 때부터 左右便의 地表에서는 溫泉김이 무럭무럭 피어 오르고 있다. 이 地方 一帶는 地下가 溫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은 丸の屋(마루노오) 瀑布가 보인다. 高千穂峰(다까지호노미내)의 左便에 韓國峰(가라구니다께)이 있다. 발에는 수수깥이 자주 보인다.

巨大한 도리이(鳥居)가 보인다. 기리시마(霧島)神宮이다. ‘나

니기노미코도'를 모신 神宮이다. 아름답리 杉木(스기노기)들이 있는데 높이가 約 40m나 되어 보인다. 그 지붕은全體가 銅版으로 덮여 있다. 여기에 또 한 그루의 큰 杉木이 있는데 높이가 35m이며 둘레는 7.3m의 큰 杉木으로 750年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나무를 神木이라 하며, 나무에 새끼줄을 돌려 묶어서 그 새끼줄에다 베(布) 조각을 군데군데 꽃아서 神木임을 表示하고 있었다.

車에서 내려서 바른便으로 걸어 올라가니 새끼노오(關の尾)瀑布가 있었다. 幅이 40m이고 높이가 18m이다. 그 瀑布의 윗쪽은 조각조각의 바위들이 密集해서 깔려 있는 平面이다. 元來는 한 개의 큰 바위의 盤面이었는데 火山 爆發時의 熱에 依해서 破裂되어 龜裂이 생겨서 그 龜裂 사이로 물이 흘러서 瀑布로 되어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사쿠라시마(櫻島)까지는 1時間 30분이 所要된다고 한다. 바다에는 이끼아미(生網)들이 많이 보인다. 이것은 고기를 가두어 두는 그물 裝置이다.

드디어 저만치 사쿠라시마(櫻島)가 보인다. 東으로 大隅(오오스미)半島, 西로는 薩摩(사쓰마)半島가 突出되어 있고 그 사이는 錦江灣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錦江灣의 깊숙한 곳에 櫻島가 우뚝 서 있다. 이 섬의 둘레는 35km이고 높이는 1,040m이다. 우리 一行은 버스에 얹은 그대로 渡船에 올랐다. 잠시後에 櫻島(사쿠라시마)에 到着했다. 船舶 위의 버스에서 내려서 섬에 올랐다. 그 一帶에는 검은 돌이 깔려 있다. 火山 爆發時에 熔岩이 흘러내려서 생긴 돌이다. 本來는 외로이 있는 섬이었는데 火山이 여러 차례 爆發함에 따라 그 熔岩이 퍼져내려서 東쪽에 있는 大陶(오오스미)半島와 連結되어 버렸다. 이 섬의 山麓에는 소나무가 많았고 杉木은 없다. 東쪽으로 돌아서

南으로 時計方向으로 車を 돌리니 民家が 곳곳에 散在하고 있었다. 이 火山에 어찌자고 사람이 살고 있나 疑問이었다. 地理學者는 이제 이 섬은 休火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世上일은 모를 일이라 남의 일 같지 않게 걱정이 되었다.

다시 카-웨리號를 타고 되돌아 와서 이소(磯)庭園 内に 尙古集成館에 들렀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博物館 役割을 하고 있었다. 古代 大砲, 古美術品 등이 陳列되어 있었다. 이 公園은 薩摩藩主였던 島津齊杉가 別莊으로 만든 것이다. 島津家は 그 祖上이 源(미나모토)家였다. 源賴朝→島津忠久→忠時→久經→忠宗→貞久 등으로 이어졌다. 鶴嶺(쓰루가네)神社는 島津家の 歷代를 모시고 있는 神社이다.

다음은 沈壽官 陶窯地로 갔다. 美山村에 있었다. 많은 作品들이 陳列되어 있었다. 薩摩燒(사쓰마야기)를 만들어냈다. 沈當吉은 全羅北道 南原 사람이라고 한다. 이 沈當吉의 後孫들中 歷代의 長子는 韓國女子와 結婚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오늘도 우리나라 國旗와 日本 國旗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沈氏의 系譜를 보면 初代 沈當吉, 2代 沈當壽, 3代 沈陶吉, 4代 沈陶丹, 5代 沈當吉, 6代 沈當官, 7代 沈當壽, 8代 沈當丹, 9代 沈當榮, 10代 沈當珍, 11代 沈壽藏, 12代 沈壽官, 13代 沈壽官, 14代는 獨子로서 亦是 壽官으로서 오늘도 祖上과 흠에 빌면서 가마솥(窯)의 불꽃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에는 아무런 作業도 하지 않았고 冷氣만 감돌고 있었다. 요 사이도 一年에 세번 정도 陶器를 굽고 있다고 한다. 14代 壽官은 韓國에도 자주 往來한다고 한다.

午後 5時 45분에 池田湖에 到着하여 뱀장어를 求景하였다. 검은 色의 그야말로 眞黑의 큰 뱀장어와 하얀 白色의 뱀장어

도 보았다. 池田湖는 아주 큰 湖水였다. 다음은 溫泉 모래찜질로 有名한 이브스키(指宿)로 向하였다. 그곳의 썬사이드 호텔에 들러 256號室에 들었다. 夕食은 和式이었는데 먹을만 했다. 오늘은 妻가 속이 좋지 않아 吐하고 泄瀉 하여 큰 困辱을 치렀다. 오늘밤도 朴永鎭 先生님 夫婦와 同房에서 宿泊하였다.

◦ 10月 14일 日曜日

午前 6時에 起寢하여 7時에 아침 食事を 和食으로 하였다. 그런대로 입맛에 맞았다. 8時에 버스로 出發하여 나가사키바나(長崎鼻)로 向하였다. 九州南端薩摩(사쓰마)半島의 最南端에 이르렀다. 외로이 우뚝 서 있는 山, 이름을 물으니 開聞山이라고 하며 一名 ‘사쓰마후지(薩摩富士)’라고도 한다. 꼭 富士山을 닮아서 이름했다고 한다. 이 山 높이는 1,574m이고 꼭 부채를 거꾸로 세운 型이다. 여기도 蘇鐵이 많았다. 東은 太平洋이요, 西는 東支那海이다. 松木이 많았다. 長崎鼻 右側 卽 西쪽에는 開聞岳. 浦島太郎(우라시마타로)의 傳說의 땅인 山川町이다. 石油 貯藏탱크가 커다랗게 여러 個가 海邊에 보인다. 이 탱크에는 全日本이 2年間 使用할 수 있는 分量이 들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23日間 使用할 石油가 備蓄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氣가 찰 노릇이다. 우리나라 爲政者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심한 노릇이다.

鹿兒島縣은 日本의 南端의 玄關口의 役割을 하는 地理的 條件이며 溫暖하고 아름다운 自然과, 豊富한 歷史, 遊休養地로 適切한 곳이기도 하다.

午後 1時 30分 西牟田食堂에서 點심을 먹었다. 나무도시락 같은 상자 안에 먹을 것을 넣은 것이었다. 제법 먹을만 하였

다. 日本에서는 아직도 밥그릇 같은 것은 木器를 使用하고 있었다.

午後 2時 空港을 向하여 出發하였다. 飛行機가 午後 3時 55分 出發인데 延着이 되어 午後 4時 45분에 出發하였다. 午後 5時 50분에 金海空港에 着陸하였다. 마침 미리 豫約해둔 택시가 待機하고 있었기에 우리 一行은 무사히 午後 7시에 蔚山의 집에 到着하였다.

■ 후기

第7次 海外旅行 卽 캐나다와 美國 東部를 둘러온 後 우리 夫婦는 海外旅行을 그만두려고 하였는데 뜻밖에 南九州로 또 다시 旅行을 하게 되었다. 이번 旅行에서 깊이 感銘받은 것은 日本國의 山林政策과 石油備蓄政策에 놀랐다. 그 密林의 수많은 杉木과 2年間 쓸 수 있는 石油備蓄 등은 앞날을 내다 보는 長期的인 政策이었다. 그런 面에서 우리나라가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번 旅行에서 丹丘之景은 發見하지 못하였다. 마음 속으로 감추고 있는 丹丘는 亦是 캐나다의 록키 山脈 中の 콜롬비아 大冰原이라 하겠다. 日本의 南九州 호텔에서의 二泊을 모두 다 다미(疊)房에서 했다. 그리고 九州에서는 가을철 벼를 베어 말리는데 땅바닥에 널려서 말리지 않고 나무 장대를 걸쳐 놓고 그 장대에 벼단을 걸쳐서 말리고 있었는데 참 特異한 光景이었다.

日本人은 大體로 親切하고 상냥하였는데 特히 女性들의 人事는 대단하다. 내적으로 알맹이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謙遜한

人間 됴됨이는 果然 본받을 만한 民族性이었다. 內面的으로는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겉치레만 번드르하여 ‘내가 제일 잘났네, 내 아니고 뉘 사람 있느냐?’ 하며 뽐내는 民族들은 自省하면서 可히 比較해 볼 일이라 생각된다.

내가 世界旅行을 하면서 19個國을 돌아보았지만 우리나라 처럼 山川草木이 오밀조밀하고 아름다운 곳은 보지 못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自然의 所重함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제4부

春溪 哲學 斷想



1. 愚者寂滅觀

- 靈魂이 눈을 뜨고 大宇宙自然과 人生을 통채로 瞬間적으로 한눈에 보았을 때 비로소 哲學의 싹이 튼다.

95. 9. 15 새벽 3時 35分

- 哲學은 理性에 依하여 自然과 人生의 具體的 現實的 根本原理를 探究하는 학문

『새국어대사전』, 진영출판사

- 哲學이란 自然 人生及知識의 現實及理想에 關한 根本的 原理를 探究하는 學問

『廣辭林』, 日本 三省堂

- 哲學이란 그리스語, 라틴語의 필로소피아(Philosophia), 英語로 필로소피(Philosophy), 獨逸語로 필로조피(Philosophie), 프랑스語로 필로저피(Philosophie) 등으로 계승된 것인데 이것이 漢字로는 哲學이라고 翻譯되어 使用된 것이다. 知慧에 對한 사랑(愛智學), 哲學의 中心課題는 認識과 形而上學이다. (認識+眞理)+(形而上學+存在)=哲學, 以上 約 四千五百字로 解說된 것이다.

『世界百科大辭典』, 瑞文堂

- 哲學이란 人生의 意義, 世界的 本體的 窮極의 根本原理를 研究하는 學問

『漢字大典』, 教育出版社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 오는 동안 體驗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여 내 스스로가 '眞理' 라고 깨달은 몇가지를 列舉해 보고자 한다.

- 살아 있는 모든 人生에게 結論이란 없다. 죽음 그것이 結論이다.

1979年 10月 23日 晚 11時 32分

- 時空은 永劫히 共存併在한다(아침이니까 해가 돋느냐? 해가 돋으니까 아침이냐?)

1984. 7. 15 早朝 3時 13分

- 모든 人間은 地球의 寄生蟲이다.

1995. 10. 22 正午 LA에서

- 모든 人間은 自己運命을 마중가고 있다.

1986. 4. 7 晚 11時 10分

- 凡俗한 人間은 거들먹거리를 좋아한다. 이것은 淺薄한 人間の 淺薄한 自存心이다.

1977. 4. 9 晚 11時 10分

- 凡俗한 人間일수록 自己의 人間的 價値를 眞價 以上으로 表

出하기를 좋아한다.

1986. 1. 3 早朝 4時 28分

· 存在한다는 것은 모두가 眞理이다. 없다는 것도 모두가 또 한 眞理이다.

1992. 12. 11 朝 4時 5分

· 謂之曰 地域感情을 없애야 한다고 道德君子然하게 論하고 있지만, 實은 ‘有權者 모두는 우리 黨을 支持해 주시고 나에게로 投票하시오’ 하는 慾心이 分明히 內包되고 있다.

1992年 1月 3日 朝 5時

· 雲霧 霜露는 물로서 變化를 이루고
海山上蒼은 永劫히 常住하는도다.
春來滿花는 서로 다투어 꽃을 피우고
秋至億蒼이 紅葉으로 바뀌어 떨어진다.
一切成住壞空을 되풀이 하며
또한 永遠히 常住함도 存在하는도다.

소리없이 흐르는 限없는 無端 時間
오직 바람소리 물소리 천둥소리 뿐인 限없는 無界境間
온통 텅 비어 있는 限없는 無邊空間
아아 이게 바로 大宇宙 自然의 秩序와 法則에 依한 眞然이며 眞理이며 寂滅인가 하노라.

1995. 9. 13 早朝 3時 30分

2. 思索의 放浪

- 美辭麗句여! 雄辯이여! 獅子吼여! 偉대한 科學的 力學이여!
그대가 모든 生死를 左右할 것인가? 地球의 廻轉을 停止시킬 것인가? 噫라. 大宇宙 自然의 運行 作業은 神聖 不可侵이로다.

1996年 3月 9日 早朝 4時 30分 祈禱를 마치고 나서

- 對他的 道德律을 逸脫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自由는 無限定으로 누릴지어다.

1987年 11月 17日 晚 10時 49分

- 五臟六腑

五臟 : 心臟, 肝臟, 肺臟, 脾臟, 腎臟,

六腑 : 胃臟, 小腸, 大腸, 膽腸, 膀胱, 命門

1991年 4月 5日 早朝 4時 11分

- 造物主, 神

人間은 自然의 一部이며 아는 것 外에는 無知하며 또한 弱한 存在이다. 그러기에 不可思議한 現象의 非現象인 諸般事物들을 謂之曰 造物主의 作業이며 또는 神의 作業的 現象이라고들 말한다. 造物主의 姓氏가 무슨 氏이며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얼마인가? 그러나 모든 有無形的인 事物 現象은 大宇宙自然의 作業의 現象이다. 造物

主! 그것은 自然일지니라.

1991年 3月 3日 晚 10時 37分

· 人間의 삶의 作業이란 것은 取하고 버림의 連續이며 畢竟에
는 모두 다 버리는 作業일 뿐이다.

1986年 2月 23日 正午 停年退任式을 마치고

· 人生은 왜 죽는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1979年 4月 17日 晚 10時 37分 부처님 말씀 抄

· 새가 왜 앉았는가? 지금 곧 날기 爲하여. 오늘은 왜 비가 오
는가? 將次 날이 맑으려고. 왜 이다지도 슬픈지고, 將次 기
쁨이 오려고. 世上萬事가 때에 따라 輪廻하는지라. 이 모두
가 大宇宙自然의 作業인지라. 眞然인지라.

1983年 4月 6日 晚 10時 37分

· 담배 배운 내 恨이여! 담배 못 끊는 내 恨이여! 房 안에서,
居室에서, 化粧室에서, 집 안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하는 우
리 각시. 밖에 나가니 손 시리지, 춥고 떨리지, 하기야 公害
가 있긴 있지, 돌이 다가오는 外孫子가 왔을 땐 特히…….

1996年 1月 2日 早朝 6時 20分

· 只今! 只今이란 時間은 電光石火보다도 빠르게 사라지는데
다. 내가 只今이라고 말했을 때 그 只今은 벌써 저만치로 사
라져 버렸는지라.

1986年 2月 23日 正午

• 李在萬 自敘傳

- 내가 한 가지 專門的인 知識과 技能을 지녔다고 해서 너무 뽐내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은 더욱 훌륭한 재주와 技術을 지니고 있느니라.

1990年 7月 21日 早朝 4時 20分

- 모든 死者는 죽음 그 時間부터 無能力者이다.

1986年 9月 21日 晚 10時 15分

- 사람이 兩人이면 벌써 두 個의 個體인 것이다. 두 個를 합쳐도 그 意志는 分明히 두 個이다. 그러기에 完全一體的 結合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있다 해도 形式上일 뿐이다.

1979年 6月 23日 晚 11時 3分

- 道人이 아닌 모든 人間은 自己의 短点, 缺点, 弱点是 감추어 숨기려고 하면서도 長点是 더욱 增幅 表出하기에 힘쓴다.

1991年 2月 27日 早朝 4時 30分

- 남의 人格을 侮辱했을 때에는 두 사람의 苦痛이다. 侮辱을 준 사람의 心的苦痛, 侮辱받은 사람의 忿痛苦痛.

1978年 8月 13日 晚 9時 50分

- 三四人이 가로서서 步道길 가로 막고 걸어가네.
바쁜 불일 있는 사람 앞질러 가려해도
요리 막고 조리 막고 本意 아니면서 막고 가네
앞뒤 사정 살펴보고 길을 비켜 주련마는
이야기꽃 피우면서 길을 막고 걸어가네

이 世上에 우리말고 뉘라서 또 사람있나
 自己네만 사람인 양 가로막고 걸어가네
 暫間 뒤를 돌아보니 바쁜 사람 빨리 오건만
 그래도 모르는 척 길을 막고 걸어가네
 뒤에 사람 體面지켜 길 비켜주오 말 못하네

1980年 8月 11日 11時 10分

· 眞 然

宇宙萬物現象然	其性實相虛空眞
一切諸事與時起	本無根基終消散
凡色聲香味觸法	皆是如霧夢味幻
喜怒憂思悲恐驚	一切如露煙泡電

宇宙에 있는 萬物의 形象이 뚜렷하지만
 그 本性和 됴됨은 虛空과 같다.
 모든 일이 때에 따라서 일어나지만
 本來는 뿌리가 없고 結局은 사라지고 만다.
 무릇 색, 빛, 소리, 향기, 맛, 촉각, 마음
 이것은 모두 안개와 같고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
 즐겁고 성내고 근심하고 생각되고 슬프고 무섭고 놀랍고 하
 는 것은
 모두가 이슬같고 연기같고 거품같고 번개같다.

1993年 8月 27日 晚 10時 55分

· 不適應者는 自然의 選擇을 받지 못하느니라.

1985年 2月 10日 早朝 4時 25分

3. 原初的 眞然은 宇宙이다.

· 宇宙란?

概念的으로는 누구나가 다 어렵듯이 알고 있는 말이며 初等學校 四學年生 以上이면 漠然하게나마 알고 있는 말이다.

‘宇’字는 居處(집우), 天地四方, 度量(헤아릴우), 端也(끝우), 屋邊簷下(처마기슭우), 品性(품성우) 以上 等으로 볼 때 ‘宇’는 無限無邊의 空間을 말함이요, 上下四方四字라고 볼 수 있다.

‘宙’字는 居也(집주), 往古來今(고금주), 天也(하늘주), 無限時間(때주) 等 以上으로 살펴보면 宙는 無端無限한 時間을 말함이니 宇宙는 卽 無邊廣大한 空間과 無始以來로 無端 永劫히 永續될 時間을 합쳐서 宇宙라 하는 것이다. 卽 時空을 宇宙라고 하는 것이다.

『最新 理想玉篇』 參照 理想社

· 時間과 空間은 分離할 수 없으며 또 分離될 수도 없다.

1) 卽 宇宙는 ①世界 ②空間과 時間의 모두 ③秩序와 法則으로 組織되어 있는 온갖 存在物一切를 包含한 空間 ④無限히 넓은 空間에 數없이 흩어져 있는 天體들

『국어대사전』, p582, 진영출판사

2) ①天地四方과 古今, ②宇는 天地四方, 宙는 往古來今, ③世界, 天地, 天體, 그밖의 萬物을 包含하는 全空間,

『漢字大典』, 教育出版社

- 3) 天文學의 入場에서 모든 天體 或은 모든 物質, 放射가 存在할 수 있는 限度의 全空間. 宇宙의 '宇'字는 天地四方(空間的 넓이와 높이) 또는 天이란 意味를 가지며 '宙'字는 過去로부터 未來로의 時間的인 連結 卽 時間과 空間의 全部를 包含한 것이 宇宙이고, 世界와 같은 뜻으로 使用된다. 宇宙는 英語로 Universe 또는 Cosmos이지만 最近 흔히 使用되는 宇宙時代의 宇宙는 Outer Space를 말한다. 總 約 5萬6千字로 長文解説되어 있음. 以下 省略.

『世界百科大事典』, 瑞文堂

- 4) ①天地四方과 往古來今, ②空間과 時間, ③天地古今, ④天地 또는 世界.

『日本 廣辭林』, 三省堂

以上 各 文獻을 살펴 볼 때에 要는 無限한 空間과 空氣 天體를 비롯하여 存在物 全部와 時間을 包含하여 宇宙라고 하며, 全部라는 말로서 通한다고 본다.

· 宇宙의 中心은? 哲學的 考察

世界의 各國이 宇宙內의 地球의 表面에 存在하고 있으며 世界의 모든 人類도 地球의 表面에 存在하고 있다. 그러면 宇宙의 中心은 어디인가. 北斗七星이 中心인가, 北極星이 中心인가 아니면 經度의 起點인 런던의 그리니치天文臺가 中心인가.

너도 나도 宇宙內에 살고 있다. 萬物은 宇宙內에 存在하고 있다. 存在物 一切가 어우러져 宇宙가 成立되고 있다. 내가 이 宇宙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와 宇宙는 아무런 關係가

成立되지 않을 것이며 存在하지 않는 나에게서는 宇宙도 存在하지 않는다. 南山 위의 저 소나무도 宇宙內에 存在하지 않는다고 假定해 볼 때에 그 나무와 宇宙는 關係가 成立되지 않느니라. 없는 것끼리 關係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기에 “宇宙의 中心은 바로 ‘나’ 인 것이다”라고 結論을 맺을까 한다. 너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宇宙의 中心은 바로 ‘너’ 인 것이다. 窓틈에 끼어 있는 먼지의 立場에서 볼 때는 바로 ‘먼지’가 宇宙의 中心인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宇宙內에 存在하는 一切萬物의 各個體마다가 宇宙의 中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卽 먼지 하나까지도 宇宙를 形成하기에 하나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1994年 8月 17日 朝 4時 23分

- 人間에게 必要로 하는 모든 物資를 大量 生産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結局 大量的 쓰레기를 生産하고 있는 셈이다.

1996年 3月 25日 10時

- 어리석은 仁者의 布德인가?

北韓에서 食糧이 窮乏하여 民生이 크게 苦痛받는다고 알고 있다. 저쪽에서 要請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서 쌀을 北韓에 보내 주었다. 쌀을 싣고 간 우리나라 船舶에 揭揚된 우리 國旗를 내리고 北韓의 人民共和國의 旗를 揭揚하는 受侮를 當하고 또 우리 船舶의 乘務員이 監禁 當하는 困辱까지 치루었다. 그래도 人間的인 面에서 感謝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어디 쌀 보내 주오 했나? 南韓에서 스스로 自進해서 보낸 것 아니냐?’ 면서 自尊心을 喪失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꼴. 그래도 우리 金永三 大統領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쌀이 없으면 外國 쌀을 購入해서라도 더 보내주겠다. 同胞가 굶주리고 있음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對南 態度가 부드럽게 同和的으로 變하지도 않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이것이 仁者의 布德인가? 우리 國民 모두는 奮痛을 禁치 못하고 있다. 國家的 體面과 國威를 損傷 當해 가면서 屈辱的 仁者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國家의 重大한 決定은 國民의 感情을 意識하면서 決定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다.

1995年 11月 23日 晚 10時 李在萬 作

4. 人 格

가. 人格이란?

- 1) ① 사람의 品格, 資格, ② 法律的 行爲의 主體, ③ 個人으로서 獨立할 수 있는 資格, ④ 自覺이 있고 道德上的 責任을 질만한 資格이 있는 個體

『새국어대사전』, p 626, 진영출판사

- 2) 사람의 特性을 統一的으로 表現하는 境遇 쓰이는 말.

그러나 사람의 特性을 주로 ① 個體의 面에서 把握하느냐, ② 社會的 面에서 把握하느냐, ③ 사람(個體)과 社會(環境)의 關係에서 把握하느냐에 따라서 人格이 意味하는 바가 다르게 된다.

첫째, 個體의 面에서 把握할 境遇 다른 個體로부터 識別할 수 있는 獨自의인 그 個體의 特性을 人格이라 보는 것으로 人格은 다른 個體로부터 質的 및 兩的으로 分化된 것, 또는 各個體에 共通된 構造에 着眼하여 그 內部 構造의 差異에 依해 人格을 區別한다.

둘째로 社會의 面에서 把握할 境遇 社會가 印象이나 評判에 依하여 規定하는 것과 文學的 所産이나 價値의 類型을 定해서 어느 쪽으로 向하는가에 따라 人格을 規定하는 두 가지가 있다.

셋째로 個體와 環境의 關係에서 把握하는 境遇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① 個體의 內部的 힘(心的 에너지)이 바깥으

로 向하느냐 안으로 向하느냐에 따라 人格을 規定짓는 방법 ② 個體 內部的 作用이 統一의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人格을 規定짓는 方法 ③ 사람과 (主로 社會的인) 環境의 力學的인 關聯을 重要視하여 人格을 社會的인 場에 依해서 規定되는 사람의 特性이라고 보는 것 ④ 人格을 個體와 環境이 關聯하는 場으로 보고 그 場의 構造(體制)로부터 人格을 規定하는 方法 ⑤ 個體의 環境의 適應, 變革을 重要視하며 그 方式에 따라 人格을 規定하는 것 等等이다.

以上은 心理學, 文化人類學에서 쓰이는 人格의 概念인데 그밖에 論理的 法學的 概念으로서의 人格이 있다. 그것은 普通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本質 또는 價値를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

『세계백과대사전』, pp483~484, 瑞文堂

3)① 사람의 됨됨이, 人品 ② 法律關係 特히 權利, 義務의 主體이며 法律上 獨自의 價値가 認定되는 資格

『漢字大典』, pp62~63, 教育出版公社

4)① 個人으로서 獨立을 할 수 있는 資格 ② 心理的으로는 知, 情, 意의 主體를 말하며 ③論理上으로는 道德的 行爲의 主體를 말하며 ④法律上으로는 法律的 行爲의 主體를 말하며, 社會的으로는 共同生活의 主體를 말한다.

『日本廣辭林』, 三省堂

나. 人格者가 되기 爲한 自己 成熟의 方法

나의 人格을 尊重받기를 바라기 前에 남의 人格을 尊重하기에 힘쓸 것이며 ‘德生於卑退’ 하여 自己를 낮추어 물러서며 잘난 체하여 앞질러 설쳐대지 말 것이다.

나의 人格을 所重하게 생각하듯이 恒常 그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의 人格을 尊重함에는吝嗇치 말 것이며 나의 人格을 保全 暢達하기 爲하여는 다음 各項에 留念하여 刻骨躬行할 지니라.

- 1) 모든 言辭와 行爲에 있어서 道德性이 習慣的으로 生活化 되도록 努力할 것이며,
- 2) 多辯饒舌하기 보다는 寡默慎言할지니라.
- 3) 學識과 識見이 豊饒 多邊하게 多讀研鑽하여 指導者 素養을 涵蓄할지니라.
- 4) 恒常 他者를 爲하여 貢獻하는 度量이 多大할 것이며
- 5) 個人的으로, 社會的·國家的으로, 家庭的으로 活動, 處理, 狀況이 時宜適切하며 順理的이며 君子의 生活 態度가 具有되어 있게 努力할지며,
- 6) 性品이 寬大 溫和하며 判斷力이 있고 別賢愚 怒無識하여 包容性이 豊富하여 남으로부터 信望이 두텁도록 힘쓸 것이며, 恒常 自省하는 態度가 있어야 하느니라.

1995年 11月 23日 晚 9時 47分

· 百貨店, 商店, 市場 等 모든 곳에 陳列된 商品과 各 工場에서 大量으로 生産되는 모든 物品과 地球上에 散在된 모든 것은 全部가 쓰레기니라.

1996年 3月 27日 晚 10時 37分

- 歷史가 언제 드리 누워 있습니까-歷史 바로세우기에 對한 反言質問

1996年 3月 29日 字 朝鮮日報 7面 盧在鳳

- 存在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存在物과도 關係가 成立되지 않는다.

1990年 10月23日 晚 10時 33分

- 宇宙空間과 地球表面에 眞理만이 存在하고 있고 眞理가 아닌 것은 存在하지 않느니라.

1993年 5月 5日 朝 4時 3分

- 權力과 勢力은 있을 때에 아껴 쓰면 後患怨恨이 없느니라.

1996年 3月 29日 午後 1時 33分

- 있는 것도 眞理요, 없는 것도 眞理요, 運動함도 眞理요, 停止함도 眞理이다.

1990年 3月 12日 晚 9時 37分

5. 神의 存在

- 神 : 나는 神의 存在를 認定하지도 않으며 또한 否認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果然 神이 存在하는지 存在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神의 存在는 오직 神만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爲先 내가 所有하고 있는 몇 권 안되는 文獻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神이란?

- 1) ① 宗教의 對象으로서 超人間的 또는 超自然的 威力을 가지는 存在 ② 神明, 鬼神의 尊號 ③ 하느님

『새국어대사전』, p477, 진영출판사

- 2) God, Sprit ① 천신신, 하느님신(天書神), 引出萬物者, (皇極經世) 天之神棲于日人之神棲于日 ② 영검할신(靈也) ③ 신명신, 신통할신(神明), (書經) 乃聖乃神 ④ 정신신(神經)

『漢字大典』, p1085, 教育出版社

- 3) 『嚴身(イカミ)の義』 ① 神(い) 冥冥の間に存して妙絶不可思議の能力を有し, 人類に禍福恩威を降すと思惟せらるる靈, 即ち, 宗教的想上歸依若しくは畏怖せらるる客體. (ろ) 神武天皇の建國以前に, 日本國土を統治したまひし方方. 「千早振る神代」. (は) 紳士に奉仕せられたる靈. 「神や佛に見離され」. (に) 全知全能にして宇宙を創造し且支配する惟一絶對の主宰者. 上宰. 天宰. (ほ) 神葬式に於ける亡者の靈魂. ② 人智を以て量り得られぬ物事. ③ 存るかみ. 鳴靈. 神

は敬ふに威を増す. 神は正直の頭に宿る. 神は非禮を受けず.
神は見通し.

『廣辭林』, 三省堂

4)靈也, 陰陽不測之謂, 귀신신, 영검할신(神明), 신통할 신,
天神 - 하느님신, 神經 - 신경신, 정신신.

『最新 理想玉篇』, p340, 理想社

5)神은 宗教의 信仰對象으로서 東洋에 있어서의 神, 그리이스 사람들의 데오스(teos), 印度人の 데마(提婆) 등 그 概念이 同一하지 않으며 神의 概念이 民族에 따라 時代에 따라 一定하지 못하다. 「신약성서」에는 神은 人類의 아버지이며 人類는 神의 아들이라 하였고, 그리이스 哲學에서는 思索이 到達하는 終局的 宇宙의 根本的 實在라 하였으며 칸트(kant) 以後의 近世哲學에 있어서는 神의 概念을 實踐的 信仰이라 말하고, 哲學的 認識과는 儼然히 區分하게 되었다. 哲學에 있어서 神의 存在를 證明하고자 여러 學說이 있으니, 宇宙論的 證明, 本體論的 證明, 道德論的 證明, 目的論的 證明 등이 있다.

· 神觀의 成立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언제부터 이루어졌나?

神觀의 成立은 太初의 일인 卽 初期의 人類가 日月星辰의 運行과 晝夜의 交替, 自然의 變化 等 宇宙 萬像의 驚異의인 威力을 發見하고 威恐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에 萬能의 所有者로서 神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을 것이다. 未開人의 生活 속에서 發見되는 原始宗教에 있어서는 論理的 教理가 없는 低級하고 雜多한 神들이 애니미즘(animism)의인

思考方式에 依하여 崇拜되고 있으며 生活全般을 規制하고 있다.

가. 「그리스 神」

그리스의 神話에 依하면 開闢의 옛날 天地를 主宰하는 神을 제우스(Zeus)라 하는데, 諸神의 長으로 靈山인 올림포스(Olympos)山の 白雲 속에 살면서 下界를 支配하고 雷火, 山樹巖木을 投下하고, 몸을 움직이면 山川이 鳴動하는 神變이 일어났다. 제우스의 두 아우가 있었으니 위는 포세이돈(Poseidon)海神으로 바다 속에 宮殿을 가지고 있으며, 아우 아이도네우스(Aidoneus)는 地下의 冥府를 支配하는 까닭에 明界의 사람들은 아이도네우스를 生命의 敵으로 두려워하였다. 제우스의 누이에 해라(Hera)가 있으니 제우스의 다음가는 副司이며, 제우스의 아내인 아프로디테(Aprodite)는 사랑과 美의 女神이며, 아테나(Athena)는 大氣를 支配하는 智慧의 女神이고 이밖에 아레스(Ares), 해르메스(Hermes), 헤파이스토스(Hephistos) 等 諸神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제우스 神族이라 한다. 이들은 最上級 神에 屬하며 天界에도 그 밑에 에로스(Eros)를 비롯한 無數한 神들이 있어서 各其所任을 맡고 있었다. 이와 같이 全知全能에 가까운 最高神으로서 未開社會나 民間에서 흔히 보는 雜神과는 格이 다르다.

나. 「韓國의 神」

1) 神思想과 神俗 : 李朝 英祖時代의 學者인 星湖 李瀼은 그의 著書 『星湖僊說』에서 ‘鬼也者陰之靈神也者陽之靈’이

라 하여 中國 模渠의 說대로 陰陽說에 依하여서 神과 鬼의 生成을 說明하고 또 魄은 陰이며, 魂은 陽으로 陰陽이 合하여 萬物이 生하는 理致에 依하여 萬物은 모두 鬼神이 있다는 것이다. 金時習도 『金鰲神話』에서 鬼者陰之靈, 神者陽之靈이라 하여 星湖와 같은 說을 主張하였으나 張繼는 『海東雜錄』에서 ‘人始死有鬼神’이라 하여 사람이 죽어서 비로소 鬼神이 있다고 하였다. 韓族의 神俗은 오래된 文獻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 『晉書』의 ‘三韓俗重鬼神常以五月耕畢群衆歌舞以祭神’ 또는 『三國志』의 ‘三韓常以五月祭鬼神 高句麗 其俗 於所居之左右 立大屋祭鬼神’, 『魏志三韓傳』의 ‘馬韓信鬼神’, 『隋書』의 ‘高麗敬鬼神’ 등의 記錄에서 上代人の 神觀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三國遺事』에서 보는 處容의 아내를 탐낸 疾病神, 居施知가 쏘았다는 狐神, 水路婦人을 掠奪하여 간 海神, 延鳥郎·細鳥女의 日月神, 武王의 아버지인 池龍, 景德王 때의 五嶽三山神, 處容條의 地神 등 多様な 神들이 登場하는 것으로 미루어 三國時代에 벌써 自然神, 動物神의 出現이 있었다. 이러한 神觀의 傳統은 民間傳承 속에 깊이 浸透하여 民族生活의 精神的 面에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여 왔다. 現傳하는 巫俗, 占卜俗은 물론이며 諸般迷信事는 根本的으로 鬼神觀에서 表出된 現象이다.

2) 神의 種類 : 神의 種類는 屬性에 따라 無數하나

- ① 自然神에 天神, 天體神, 火神, 地神, 水神, 方位神
- ② 動物神에 龍神, 狐神, 蛇神, 漁神
- ③ 植物神에 草木神, 農穀神
- ④ 人間神에 祖上神, 王將神, 冤魂
- ⑤ 家宅神에 産神, 城主神, 守門神, 基主神, 業身, 龜王神,

- ⑥ 疾病神에 日字鬼, 干支神, 各種 病마다 神이 있으며
- ⑦ 仙, 佛, 巫神
- ⑧ 雜神으로 나눌 수 있다.

3) 防退鬼法

- ① 鬼神을 事前에 豫防하고 驅逐하는 方法에는
毆打, 驚壓, 刺傷, 封縛하는 - 敵對法
- ② 祭物을 바치고 歌舞로써 공손히 對하는 - 服從法
- ③ 呪符, 呪文, 藥物, 顧墓, 陰陽을 利用하는 - 依他法
- ④ 五感, 光明, 禁忌로써 對하는 - 嫌忌法

『世界百科大辭典』, pp314~315, 瑞文堂

以上으로 限定된 文獻이나마 살펴 보았을 때 說明된 內容들이 모두가 抽象的이고 想像的이며 非經驗的인 것만이 記述된 것들 뿐이다.

이와 같이 根據를 잡지 못한 虛無한 內容들이 時代別로, 國家別 地域別로 記錄하게 된 것들 뿐이다. 좀 더 具體性을 띄고 있어야 하며 事實的으로 神이 現然하게 現出되어서 神의 行動作用이 우리의 肉眼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事實記錄이나 또한 神을 直接 相面해서 對話를 서로 交換했다는 事實들은 한 件도 記錄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傳說的이고 神話的으로 論述된 것 뿐이다. 그저 ‘神은 存在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마음 속으로 그려보는 記錄들 뿐이다. 神의 存在가 具象的으로 宛然 아니 現然하게 經驗的으로 우리의 眼界에 聳出되어 보이듯이 혹은 神의 活動樣相等을 우리 人間에게 體驗化할 수 있도록 說明된 것은 없다. 물론 神을 만나 본 사람의 記錄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上代人이나 古代人이나 그리스인이나 神을 事實적으로 直接 만나 본 사람은 없는 模樣이다. 上代나 古代에는 寫眞機가 없어서 神을 寫眞으로 現像化할 수는 없었겠지만 現代人 中에 神의 存在를 認定하는 사람이 있다면 神과 더불어 함께 寫眞을 撮影해서라도 神의 存在를 立證해 준다면 얼마나 快哉이겠는가.

아차, 깜박 잊었었구나. 神이 存在한다면 形態가 있는가? 나는 斷然 又 決然히 말하지만 神은 形態가 없다고 본다. 萬若에 神도 形態가 分明히 現然하게 있다고 豪言壯談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人間에게 그 神의 形態를 具象化해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보냐. 神의 形態가 있다면 그 形態가 存在인지라, 어찌 이와 같이 存在與否를 따질 必要가 있겠는가 말이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形象이 없는 架空的인 것을 두고 있다, 없다고들 하며 서로가 爭論하는 것은 百年河清이요, 時間이 永續될 때까지 다투어 보아도 勝者는 없을 것이요, 敗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껄이다 보니 나는 神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는 사람 같은 處地에 놓이게 되었구나. 사실인즉 나는 客觀的 神의 存在를 認定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좀 슬மிழ근하지마는 말이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스스로가 神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人間은 神經 卽 精神이 있기 때문에 神이 있다든가 없다든가를 말할 수 있다. 죽은 者로부터는 ‘왜 그리들 야단이야. 神은 있다. 내가 바로 神이다’라는 말을 들어 볼 수가 없다. 生存者는 精神的으로 세 가지 作用을 할 수 있다. 心理學에서 말하는 知, 情,

意 세 가지이다.

첫째로 知는 알아 볼 수 있는 能力을 말함이요

둘째로 情은 밍다, 곱다, 사랑한다, 기분 좋다 等 感情이 作用하는 것이요

세번째로 意는 사랑하기 때문에 取해야겠다 또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意志가 作用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세가지 作用은 바로 心的이요, 精神的 作用이기 때문에 바로 神의 作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李朝 末期 憲宗때에 韓國 最初の 天主教 神父였던 金大建이 天主教 壓迫을 當해 死刑될 때에 最後로 ‘植物에는 生魂이 있고 動物에는 生魂과 覺魂 두 가지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生魂과 覺魂과 靈魂의 세 가지가 있다’고 刑 執行官에게 말했다. 그러기에 살아 있는 사람의 靈魂은 바로 神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萬若에 ‘꿈속에 神이 나타나서 어떠한 啓示를 해주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神經(精神)이 卽 神經 作用으로 꿈을 꾸는 것이다.

神의 存在는 마음 가운데에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고 強辯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強辯할 수 있는 것이다. 天使도 惡魔도 마음 가운데서 생겨난다. 天使의 實物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惡魔를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마음의 作用일 뿐이다. 마음이 神이다.

• 神觀의 形成

神에 대한 觀念 卽 神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神觀이며

神의 存在를 認定하게 되는 것이 神觀이다.

우리 人間은 大宇宙 自然 中에서 極히 微細한 一部分의 存在에 不過하다. 人間도 모든 生物들과 한가지로 自然生自然去이다. 人間은 自然界에서 自然으로부터 生을 받아 出生하여 自然속에서 自然長하고 自然老하며 自然病하여 自然死하고 自然으로 自然去하는 것이다. 神이 하는 일이 아니니라. 모든 人間은 죽음에 臨하여 自己의 一生이 무척 짧다고 생각하게 된다. 百歲 老人도 自己의 人生이 虛無하고 짧다고 생각한다. 人間이 살다보니 大宇宙 自然에 對해서 神祕하고 不可思議함을 느끼게 된다. 前述한 文獻 中에서도 있다시피 日月星辰의 運行作業과 晝夜의 反復交替와 雲雨霜雪의 變化와 萬物의 生成變化와 人間의 生死 等に 關해서 不可思議함과 神奇함과 끝내는 畏恐을 느끼게 되었다.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어서 宇宙萬物의 生成과 變化를 이룩하면서 主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造物主이다. ‘造物主가 바로 神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처음으로 神을 認定하게 되었다. 人間의 生死도 神의 作業이다. 모든 것은 神의 作用 結果라고 보는 卽 神觀이 생겨서 神의 存在를 認定하게 된 것이다.

· 나의 見解

神은 偉大하고 全知全能하여 不可能이 없는 超自然的 超能力的인 存在라고 人間들은 생각해 왔기 때문에 神에 對하여 歸依性이 發露하기 始作하였다. 人生을 安全하고도 安樂 幸福하게 살기 爲해 神을 믿고 歸依하여 내 몸을 神에게 依託하고자 神 崇拜思想이 擡頭되고, 祈禱行爲와 祭祀行爲와 宗

敎生活이 營爲되게 되었다고 본다.

나는 모든 宇宙現象과 萬物이 變하고 또 變하지 않고 常住하는 等은 神의 主宰下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大宇宙 自然의 秩序와 法則에 依해서 生成, 變化, 常住의 現象이 나타난다고 본다. 神이 있어서가 아니라 大宇宙 自然의 作業 結果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나는 眞然이라고 말한다.

• 結言

이 정도로 해서 나는 빠뜨려서는 안될 重要的 事例를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이 點을 分明히 밝히지 않으면 巷間의 뜻있는 諸賢들로부터 強烈的 嘖聲을 免하기 어렵고 또한 諸 宗教人으로부터 逼迫을 當할 일이기 때문에 밝히고저 한다. 물론 나 自身도 서투른 佛教信者이긴 하지만…….

現 社會에서 行해지고 있는 傳統的 因習的인 儀式行事나 祭祀, 禮拜 等에 關해서 言及해 보고자 한다. 그 前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過去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傳統的 이고 慣習的이며 風習的인 思考方式이나 儀式行事나 祭禮行事, 祈禱 等에 關해서 오늘날 一般社會人이 그 趣旨나 意義, 節次 等에 關해서 分析하고 批判하려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數千年 數百年 내려오고 있는 傳統에 對해서 敢히 오늘날의 우리가 어찌 批判할 수 있느냐 不遜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 잘못하다가는 神罰을 받을지 모른다’ 하면서 批判을 하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傳統이 오래지만 따질 건 따지고 分析할 건 하고 批判할 건 해야만 새로운 發展과 向上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들 各自 個人은 各自의 過去가 있었기 때문에 各自의

現在가 있다고 본다. 例를 들면 儼然히 現在의 吾身이지만 이 나(我)라는 存在도 그 옛날부터 存在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이 몸이 그 옛날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始祖의 體身 속에 潛在하고 있었다고 본다. 分明히 나의 因子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屢代를 거치고 또 거쳐서 오늘의 나로서 出現된 것이다. 있는 것이 恒常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그 무엇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法則에 依해서 나의 存在가 태어나서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子孫된 道理로서 祖上에 對하여 崇拜 敬慕心이 發露하여 追念感謝할 줄 알아야 하며 奉祭祀해야만 하고 父母님께 養育之恩을 報答하고자 하여 孝當竭力함이다. 死後에는 追念하여 祭祀를 致其嚴하느니라.

宗教儀式에서도 神이라기 보다는 高聖俊德하신 大聖의 德을 기리면서 본받을까 하여 崇拜하고 遺德을 讚揚하는 뜻에서 樣式이 執行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既存의 傳統的인 祭禮나 宗教意識에 對해서 絶對로 反對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나의 思想을 明白 又 確然히 밝힘으로써 這間의 誹謗을 多少나마 免하고자 한다.

이제 끝을 맺어야 할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왜, 무엇 때문에 神이란 이 巨創한 問題를 提起해서 나 스스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長久한 時間을 두고 計劃的으로 研究해 보고자 한 것도 아니다. 어떠한 偶然한 着想에서 始作되었음은 分明한 事實이다. 平素에 ‘神이 果然 存在하는가?’ 하는 疑問이 懇切했었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堪當하기 어려운 艱難險阻의 고비에 들어 十年을 넘게 神의 超人間的 威力을 渴望하였고 또 오늘날까지 持續되어 왔음

을 率直히 告白한다.

이 글을 쓰면서도 自信있게 永遠不變하고 또한 萬世人이 肯定 共鳴하리라고는 期待하지 않으면서도 씁쓰레한 心情을 禁치 못했음은 事實이며 내가 왜 이렇게도 大膽하게도 着手 했는가 생각하니 정말 멋적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 時間에도 ‘神의 存在를 認定하는 게 옳지 않느냐?’ 고 생각하면서도 끝내 齷齪같이 否認해 보고 싶은 心情이 더욱 強烈해지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神의 存在는 認定하지 않을지언정 大宇宙 自然의 眞理的 運行 作業에 關해서는 우리는 恒常 神祕함과 不可思議함을 甘味 롭게 맛볼 것이며 畏敬의 心을 지녀야 할 것이다.

良心이 神이며, 神은 存在하지 않는다.

大宇宙 自然이며 眞理이며 眞然일진저.

1996년. 5월. 6일 晚 11時 27分

6. 身土不二

요 몇 해 前부터인지 確然치 않으나 身土不二란 말이 많이 流行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數年前부터 流行된 말은 分明히 아니다. 이 말은 商業(장사)하는 사람의 奇拔한 着想으로 自己의 物件을 많이 팔기 爲한 商業用語로서 使用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菜蔬장수, 과일장수, 쇠고기, 돼지고기, 흑염소, 토종닭, 벌꿀, 食糧 等 주로 먹거리 장수들이 쓰는 용어이다. 이렇게 身土不二란 말이 자주 使用되면서 廣告나 商標에도 用語를 表示한다. 내 고장에서 產出되는 식품들을 내 고장 사람들이 많이들 利用하라는 말이다. 내 故郷에서 生産되는 食品을 利用하므로써 입맛에 맞고 體質에도 걸맞는다는 것이다.

身土不二的 뜻은 내 몸과 흙과는 둘이 아니다. 사람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또는 사람과 흙은 不可分の 關係가 있다. 사람과 땅과는 因緣이 있다는 뜻일게다. 卽 사람과 흙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뜻이다.

대충 以上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그건 事實이다. 그러나 不二라는 말은 그 根本이 佛敎經典에서 나온 말이며 佛敎의 思想이기도 하다. 佛敎經典의 하나인 天地八陽神呪經中 末尾에

‘六萬六千 比丘比丘尼와 優婆塞와 優婆尼는

得大總持하여 入不二法門하고

無數天龍夜叉와 乾闥婆와 阿修羅와 迦樓羅와

緊邦羅와 摩睺羅伽와 人非人等은

得法眼淨하여 行若薩道하니라’

라고 되어 있다.

‘入不二法門’이란 語句만 爲先 생각해 보기로 한다. 入+不二法門=入不二法門이다. 卽 不二的 法門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法門은 眞理의 境地를 말함이요, 法은 眞理이다. 門은 境界 또는 境地인 것이다. 둘이 아니다’고 하는 眞理의 境地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 入不二法門은 그 뜻이 廣大高遠하여 쉽게 解得하기가 어렵다. 人間의 心靈的으로만 解得할 수 있는 것이다. 卽 느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宇宙自然의 萬物과 諸般事는 어느 하나만이 存在할 수 없으며 또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因緣生起 因緣滅이라는 眞理에 依해 存在하고 또한 滅散되며 이루어지고 흐트러지는 것이다. 簡單한 事例를 들면 空氣(大氣)가 있으므로 해서 飛行機가 뜰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다. 空氣와 飛行機가 因緣되어서 날아가는 것이다. 卽 어느 하나가 그 하나만으로 存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가지 이상 또는 세 가지 이상 因緣이 되어야만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人水가 不二라. 사람과 물은 떼 수 없는 因緣關係이다. 人體의 75%가 물로써 形成되어 있으며 물이 없으면 모든 生物이 살 수 없음은 가장 가까운 不二的 關係를 말해 주는 것이다. 온갖 萬象이 다 그러하니라. 天人不二, 人土不二, 海陸不二, 山川不二, 父子不二, 夫婦不二, 人鹽不二, 糞蠅不二, 扇風不二, 手足不二, 皮骨不二, 米水不二로 밥이 되고, 水土가 不二, 水木不二이다.

巨大한 旅客機는 50萬種의 部品이 모여서 하나의 飛行機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不二是 卽 因緣이라는 말이요, 關係가 있다는 말이요, 둘이 숨쳐서 하나라는 말이기도 하다. 紙

筆墨은 不二이다. 하나의 分子나 因子만으로써는 存在를 形成할 수 없는 것이다. 燭火不二, 晝夜不二, 生死不二 卽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는지라. 魚刀不二, 盜主不二 이와같이 不二法은 바로 眞理이며 바로 眞理가 法이다. 이와같은 不二的 關係 卽 不二的 法門에 들어가면 바로 道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를 일이다. 大宇宙 自然을 그렇게 크게 바라보라는 말이다.

1996年 5月 8日 晚 10時 37分

7.一回性

모든 人生은 한번만 태어날 수 있으며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또 모든 人生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을 끝으로 두 번 다시 죽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이 生과 死는 一回性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모든 人間은 生을 祝賀하고 기뻐하는 것이며 또한 그 生을 오래도록 살기 위하여 努力하는 同時에 보람있고 幸福한 生을 營爲하기에 最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業蹟을 이루고 남기기 위해서 自己實現에 最大의 努力을 기울이는 것이다.

死도 一回性이기에 한번 죽으면 再次 生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래도록 無限定 歲月을 살기를 希求하여 努力하는 것이다. 萬若에 生이 二回性이고, 死도 二回性이라고 假定해 볼 때에 모든 人間의 生活하는 態度와 마음가짐은 確然히 달라질 것이다. 卽 生活에 操心性이 없어지고 거칠어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한 번 죽어도 또 하나의 餘分的 生命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한 번 죽어도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죽는 것은 험하게 생각하여 모든 言動이 亂雜해지기 쉬우며 暴惡해지기 쉬울 것이다.

왜 第二의 生命이 存在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모든 生物에 共通의이며 固體나 液體나 氣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樹木을 원줄기를 잘라내면 다시 붙일 수 없다. 或 붙일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보기에는 原狀 그대로 보이지만은 事實은 잘라졌다가 다시 붙은 것이 確然한 事實이다. 卽 一回가 지나

간 것이다. 벽돌의 한 가운데를 잘랐다 하면 벌써一回가 經過했다는 事實이 分명한 것이다. 아무리 시멘트로 붙였다 해도 그것은 本來 그대로가 아닌 것이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았다가 네모꼴 그릇에 옮겼다면 물 自體는 그 물이지만 둥근 그릇에 담았을 때의 그 形態는 벌써 지나간 過去가 되어버렸으니一回性은 지나간 것이다. 空氣나 김도 無數한一回性을 經驗하여 流轉하는 것이다. 여기 있을 때가一回性, 저기 있을 때가 또一回性, 그렇게 流轉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流轉한다는 것은一回性의 連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思考를 펼쳐 보면 모든 作爲와 營作은 모두가一回性이라 할 수 있다. 어제 밤에 큰 방에서 잠을 잤다 하는 것은 亦是一回性인 것이다. 어제 밤은 벌써一回性으로 過去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一回性인 것이다. 人間의 經驗이란 것은 갖가지一回性의 累積이라고도 나는 말하고자 하며, 감히 말하는 것이다.

每日 活動하는 一舉手一投足이一回性인 것이다. 萬物이一回性의 連續으로 流轉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人間의 人格이란 그 人間의一回性의 連續累積된 狀況을 綜合的이고 客觀的으로 評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椅子上에 앉는 것도 몇 時 몇 分 몇 抄에 한 번 앉았으니一回性이며 作日 外出한 것도一回性이니 人間의 一生은一回性의 累積 歷史인 것이다. 그러기에 빛나는 自己의 歷史를 創造하기爲해서 우리 人生들은 하나하나의 言動에 留念的인 作爲가 時時刻刻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남으로부터 逼迫 當하지 않고 嗤罵(치매) 當하지 않게 生活을 營爲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言語에 있어서 恒時 他人의 人格을 極히 尊重하여 相對가 不快感을 느끼지 않게 하며 남의 短點과 缺點을 指摘해서 肺腑를 찌르는 말은 秋毫도 말하지 말 것이며 相對方의 長點만을 讚揚해 줄 것이며 相對方에게 希望의이고 發展的이고 激勵적인 言辭에 吝嗇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에게 나 잘난 表示는 絶對 禁物이며 大衆 앞에서 많이 아는 체 하지 않으며 남의 面에 손을 자주 쑥쑥 내밀며 이야기 하는 따위는 몹시 野卑한 舉動이며 自己의 人格을 나타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空然히 남에게 害를 끼치거나 귀찮게 하는 짓은 삼가야 하며 남에게 不快感을 주는 짓은 絶對 自制해야 할 일이다. 모든 일에 삼가하는 態度가 習慣化되어 있어야 하며 ‘危方不入하고 亂方不居(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며 난잡한 곳에는 있지 않는다)’ 하는 處身을 잘 해서 自己의 心身의 安全을 圖謀할 줄 아는 賢明人이 되기를 힘쓸 것이다.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不忍非人이요 卽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했고, 非人不忍이라 卽 사람 아닌 사람은 참지 못한다 했으니 꼭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處世를 잘 하는 사람이다.

‘雄辯은 銀이요, 沈默은 金이다’ 라는 格言을 十分 吟味할 것이다. 然而나 나에게 不利하거나 害롭게 말하는 데는 沈默은 不德이다. 斷然히 解明하고 따지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도 모든 一回性마다 善良히 處決하고 來日도 優秀하게 一回性마다 善히 處身함으로써 德性이 갖추어지고 自己 人格은 進一步로 陶冶되어 가는 것이다. 一回性이라고 해서 秋毫도 疏忽히 하지 말라. 가장 惡質的인 性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嫉妬心과 猜忌心이다. 自己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남이 成功的으로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냈을 때 卽 成功하고 잘 되었을 때 空然히 용심을 부려 미워하며 猜忌하고 嫉妬하는 따위의 性格은 人間 末子の 最惡的 性格이다. 남이 잘되는 것을 眞心으로 祝賀를 해 주는 것이 참된 人間の 道理일진대 無斷히 심술을 부리고 미워함은 사람이라기보다 野獸의 物件에 不過한 存在이다. 남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남이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傳統的인 美風良俗일진대 이러한 美風에 馴致치 못한다 하는 人間은 社會的으로 孤立的인 人間이 될 수 밖에 없는 存在이다. 더불어 살 수 없는 人間이다. 自己가 잘 되면 거들먹거리며 意氣揚揚하게 뽐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심술궂게 猜忌하는 人間은 目不忍見인 物件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愼之愼之할 일이다. 내가 成功했더라도 謙遜하며 祝賀를 받더라도 卑退하면서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恩功입니다’ 하고 謝禮함이 禮義일 것이다. 남이 못 되었을 때는 慰勞와 激勵을 해 주는 것이 사람의 道理이며 이것이 모두가 一回性때 마다 對處해 나가야 할 人道이다.

이와 같이 쓰다보니 너무나 一回性的의 範圍가 넓어서 견잡을 수 없게 되어 버렸구나. 人間の 一生은 一回性마다 愼之處理의 重疊일 따름이다. 1秒愼之, 1分愼之, 時時愼之, 日日愼之, 月月愼之, 年年愼之, 平生愼之, 一回愼之, 每回愼之, 十回愼之, 百回愼之, 無限愼之하여 人生은 至於老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一回性的의 生을 華하고 一回性的의 死에 이르는 것이 君子의 一生이라 할 것이다. 1997年 1月 1日 正午도 一回性的의 時刻이다.

些少한 一回性이라 해서 가볍게 等閑視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가 一回性마다 험하게 생각해서 넘어가고 또 無策으로 넘겨 보낼 때에 다른 사람은 每 一回性마다 有意的으로 잘 對應해 나갈 때 그 사람은 成功의 一步 一步를 前進해서 成就의 彼岸에 到達하게 되는 것이요, 每 一回性마다 無關心한 나는 앉아서 敗北를 기다리는 人間이 되는 것이다. 한 瞬間 한 瞬間 이기는 者가 永遠히 勝利하는 것이다. 卽 一回性 一回性을 이기는 者는 永遠히 勝利하는 것이다.

一回性 中에는 長久한 긴 一回性이 있는가 하면 짧은 一回性도 있다. 動物 中에는 一回性인 生을 받아서 數十年, 或은 百年을 維持하는 動物도 있고 더러는 百年을 넘기는 一回性을 享有하는 것도 있다. 하루살이와 같은 그 一回性을 잠시동안 支撐하는 것도 있다.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대로 自己의 一回性을 所重하게 保全하려고 하는 것이다. 甚至於 人間이 어찌 自己의 一回性을 所重하게 看守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要는 身體가 健康하게 精神도 健全하게 無病하게 一生을 活動的으로 長壽하면서 幸福하게 生을 營爲하다가 一生을 終焉하는 者가 가장 一回性을 穩全히 處決했다고 볼 수 있다.

處女性도 一回性이요, 童貞도 一回性이다. 이 處女性과 童貞은 아주 高貴한 것이기 때문에 所重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道德的으로 正當性이 確保되어야만 人格의 圓滿함이 保全되는 것이다. 所重하다.

喜怒哀樂을 表情에 나타내지 말 것이다. 喜도 暫間, 怒도 暫間, 哀도 暫間, 樂도 暫間 그 다음에는 恒常 反對가 된다는 流轉性을 알아야 할 것이다. ‘世上事는 塞翁之馬’라고 했겠다. 내가 잘 했다고 남에게 뽐내지 말 것이며 자랑하지 말 것이다.

스스로가 자랑함을 自誇라고 한다. 自誇心이 强하면 남은 絶對로 稱讚해 주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속으로 비웃는다. 때로는 嗤罵(치매)를 當하기도 할 것이다. 嗤罵란 빈정거리고 또 비웃음을 말하는 것이다. 自己 혼자 거들먹거리는 醜態에 不過한 것이다. 내가 잘난 체 하지 말 것이다. 아무도 認定해 주지 않고 오히려 嗤罵만 當하기 쉽다.

1985年 3月 3日

8. 哲學斷想

· 나는 孤獨하구나. 特히 大衆 앞에서는 더욱 孤獨을 느낀다. 왜냐구? 똑똑한 사람은 時間을 獨占하다시피하며 많이 아는 체 지껄이지요, 잘난 사람은 제 잘난 체 하고 거들먹거리지요, 많이 가진 사람은 내노라 하고 뻔뻔스럽지요. 그러니 나는 첫째 못 낚지요. 두번째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지요. 세번째 나는 가진 것 없지요. 그러니 내 어찌 孤獨을 안 느낄 수 있나요.

· 特別法이라는 것은 權力을 잡은 者가 既存法에 없는 것을 기어코 固執을 貫徹하고자 할 때에 非常手段으로 制定하는 法이다. 그러기에 不可能은 내 사전에도 없는 文句라는 뜻이다.

· 偉大한 科學者여, 天下를 左之右之하는 權力者여, 그대는 不可能함이 없다면 地球의 實物을 새로이 하나 만들어 보려무나. 아니 못만든다구. 그럼 蒼空을 흘러가는 一連의 白雲이 하나 만들어 띄워서 3日間만 空中을 흘러가도록 해 보려무나. 그건 되겠지?

1994年 夏 7月 27日 밤 10時 33分

· 宇宙에는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도 않고 매일 있는 것 그것만 있다.

1995年 11月 23日 晚 8時 25分

- 苦痛의 時間은 지겨웁게 더디 가고 歡樂의 時間은 電光石火 같이 빠르기만 하다.

1993年 4月 6日 晚 10時 37分

- 檢事나 判事가 執權黨이나 執權者의 눈치를 살필 때에는 벌써 法은 죽고 없는 것이다.

1996年 2月 8日 早朝 4時 30分

- 秩序와 原則과 道律上 어긋나더라도 남이 알지 못하는 것에 現實甘味貪求主義者. 그는 남의 앞에서는 正道와 道德을 主唱하는 指導層 階級에 處해 있는 責任者로서 남이 보지 않을 때는 賂物을 좋아하면서 不義를 敢行하는 族屬.

- 모든 人間은 아프다가도 治療를 받으면 낫는 그 재미로 산다.

1985年 8月 27日 晚 10時 43分

- 愚者는 恒常 感情을 빨리 露出시킨다.

1985年 4月 23日 晚 10時 27分

-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고나면 싫어진다. 그래서 내다 버리게 된다. 이것을 葬事치른다고들 말한다. 공손히 尊重히 하는 체하면서.

1986年 3月 13日 午 1時 20分

• 李在萬 自敘傳

- 모든 뉴스(새 消息)는 처음 듣고 보고 알았을 때는 놀랍기도 하고, 稱讚할만 하기도 하고, 밋살스럽기도 하고, 感歎스럽기도 하고, 興味롭기도 하고, 興奮되기도 하나 時間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시한 過去事에 不過하다.

1987年 8月 30日 早 4時 11分

- 모든 人間은 살아 生存時에는 제대로 評價를 받지 못한다. 그것은 本人 앞에서는 直說的으로 評價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고 나면 너도나도 올바르게 評價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1987年 8月 29日 朝 4時 10分

- 모든 動物은 地球를 밀면서 간다. 車도 地球를 밀면서 간다.

1988년 8月 25日 午 1時 30分

-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窮乏하다. 貯蓄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궁핍하다. 浪費하기 때문이다.

1988年 3月 21日 朝 3時 30分

- 모든 人間은 뜻대로 成功하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저 自然生하고 自然去하는도다.

1988. 9. 25 晚 10時 11分

- 모든 人間은 運命의 遭遇者로서 造成된 自然의 作品인 것이다.

1988年 3月 21日 朝 3時 30分

- 低資質的 人間은 조그만 알면 天下 事物을 다 아는 것처럼 獨言長廣舌한다.

1988年 1月 6日 早 4時 11分

- 沈默을 지키는 사람은 果然 無知者이며 天痴인가

1989年 1月 8日 夜 10時 45分

- 永遠히 幸福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理由는 地球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1989年 1月 8日 夜 10時 45分

- 두 사람 以上이 모여 살 때는 眞情한 自由란 있을 수 없다. 自己 혼자居할 때에만 眞實한 自由의 삶이다. 그러나 不便할 때가 많다. 모든 것이 不便할 따름이다. 그러니 多少間 不自由일지라도 함께 살아야만 한다.

1990年 1月 23日 夜 11時 28分

- 사랑도 한 때요, 미움도 한 때라. 모든 것이 時間과 存在하다가 時間이 되면 모두가 사라지느니라.

1990年 8月 16日 朝 9時 37分

- 人間이 제 아무리 萬能이다, 不可能이란 나에게에는 없다고 떠들어 보았댔자 人間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그 以上은 不可能하다.

1990年 12月 31日 晚 11時 5分

- 내가 한 마디 한 말에 大衆의 反應이 없다고 해서 肯定的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말이 말 같지 않으니 大衆의 反應이 없느니라.

1991年 1月 22日 朝 5時 10分

- 모든 存在는 地球를 밀고서 存在하며 地球를 밀고 作動한다.

1991年 3月 15日 夜 5時 10分

- 人間이 平時에 正善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人格을 評價할 수 없다. 어떤 機會에 暴言이나 暴行을 했을 때가 바로 그 사람의 人格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評價이다.

1991年 9月 14日 夜 10時 37分

- “그 놈을 매우 쳐라! 그 놈 지독한 놈이로고.”하며 사또는 長歎息한다. 그럼 사또는 얼마나 지독한 者인가?

1991年 11月 12日 夜 11時 35分

- 人間의 一生은 選擇의 連續이다. 끝내는 죽음을 選擇한다.

1992年 3月 20日 晚 10時 45分

- 人間이 生活한다는 것은 決定의 連續이다. 어쩌면 選擇과 決定은 同時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1992年 5月 7日 朝 3時 35分

- 近者에는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失言難行할까봐 戶庭出入 하기가 매우 두렵더라.

1992年 7月 20日 朝 3時 21分

- 多辯饒舌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많이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

1992年 10月 19日 晚 10時 51分

- 平凡 以下の 人間은 남이 나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安心한다.

1992年 12月 27日 夜 10時 13分

- 빠르게 지나가는 時間이든 더디가는 時間이든 나의 一生의 一部이다.

1993年 1月 1日 朝 4時 45分

- 모든 相戰鬪爭은 처음에는 言爭으로부터 始作된다.

1993年 2月 8日 朝 3時 35分

- 旅行은 오직 興趣만이 아니라 現場學習이다.

1993年 3月 17日 晚 11時 17分

- 모든 人間은 할 일을 다 못하고 사라져 간다.

1993年 4月 30日 朝 4時 35分

- 宇宙空間의 全體事物을 모조리 알고 난 後에 사라져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992年 7月 17日 午 1時 30分

• 모든 人間은 다른 모든 生物과 한 가지로 죽음을 바라보고
마중가면서 살고 있다.

1993年 9月 28日 午 11時 30分

• 人間들 中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죽는 者는 한 사람
도 없다.

1993年 10月 3日 午 1時 50分

• 모든 人生은 지나고 보면 꿈인 것이 分明하다.

1993年 11月 26日 夜 10時 51分

• 모든 人生은 例外없이, 태어나기 以前의 原点으로 가고 있
다.

1993年 12月 3日 午 2時 9分

• 婚期에 이룬 男女가 사랑한다는 말은 所有慾의 表現이다.

1993年 12月 31日 夜 11時 12分

• 매우 짐작은 男子, 매우 암전한 女子 卽 甚한 不言者, 不行
者는 無能力者에 가깝다.

1994年 1月 7日 朝 4時 27分

• 帝王과 將相의 王冠과 服裝을 벗겨보면 틀림없는 사람이다.

1994年 1月 12日 晚 9時 57分

- 내 마음이 逸樂平溫하면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

1994年 1月 22日 午 11時 36分

- 賂物 잘 챙기고 上納 잘하고 急速히·進級 榮達하는 내 男便 最高야! 當身 男便, 秩序와 眞理를 忘却하고 現實甘味에 滿足하는 腐敗助長者, 人格喪失者 表裏不同者, 可憐한 者. 그대 夫婦.

1994年 1月 30日 晚 9時 41分

- 모든 것은 成敗間에 時間이 解決한다.

1994年 3月 5日 晚 10時 35分

- ‘當身에게 敵이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聖人 君子로 自處하지 말지니라.

1994年 3月 23日 午 1時 43分

- 자신의 敵은 恒常 자신에게 微笑를 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94年 5月 5日 晚 11時 13分

- 그 사람 性格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人格을 蔑視한다면 자신의 性格과 人格이 要注意性이다.

1994年 6月 7日 晚 9時 21分

- 남의 人格은 恒時 尊敬하며 스스로는 謙下卑退할 때에 자신

• 李在萬 自敘傳

의 人格은 增高 되느니라.

1994年 8月 9日 朝 3時 45分

• 地球는 巨大한 動物園, 植物園이며 博物館이다.

1994年 9月 3日 晚 8時 50分

• 無知, 輕淺者일수록 有害함을 알면서도 歡樂的인 誘惑에 陷沒되기 쉽다.

1994年 10月 9日 晚 11時 10分

• 哲學이 隨伴되지 않은 言行은 必然코 野賤하기 마련이며 動物的일 수 밖에 없다.

1994年 10月 0日 朝 4時 10分

• 必要惡이 停止되었을 때부터는 不必要惡이 增大된다.

1994年 11月 5日 晚 10時 10分

• 깊이 研究, 思索, 創造함은 自己實現임에 틀림 없으되 남으로부터 欽敬을 期待함은 僞善的이다.

1994年 12月 5日 午 2時 38分

• 生理的인 問題解決은 他人이 代行할 수 없다.

1994年 12月 10日 晚 11時 27分

• 살았을 때에 善言, 善行일랑 다 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남의 이야깃거리 밖에 되지 않으리니.

1994年 12月 31日 晚 11時 33分

· 모든 사람은 自己 나름대로 歷史를 創造하고 있다.

1995年 1月 1日 朝 5時 12分

· 人間の 一生에 있어서 가장 極大的인 失手는 죽음에 對處하지 못함이다.

1995年 1月 1日 朝 5時 12分

· 矛盾과 逆理는 반드시 是正되는 법이다. (事必歸正)

1995年 3月 10日 晚 10時 37分

· 술 마시고 담배 물고 祝 紙榜 쓰는 사람.

1995年 3月 21日 晚 10時 33分

· 칼로써 과일을 깎으면 알맹이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다.

1995年 4月 5日 朝 6時 29分

· 經驗은 生活力이다.

1995年 4月 25日 朝 5時 10分

· 人生의 一生은 왔다가(來) 갔다가(往)하는 것이며 終末에는 停止하는 것이다.

1995年 4月 30日 晚 10時

· 자주 울지 않는 아기가 더욱 귀엽다.

• 李在萬 自敘傳

• 眞理가 內包되지 않는 哲學은 있을 수 없다.

1995年 1月 25日 晚 9時 50分

• 人格과 名譽는 가장 高貴한 財産이다.

1995年 2月 15日 晚 10時 3分

• 人間은 태어남으로부터 所屬을 免할 수 없다.

1995年 2月 25日 晚 9時 31分

• 財貨를 남겨 두고 죽은 사람은 有福한 사람이다. 쓰고도 남았으니까.

1995年 3月 1日 晚 10時

• 모든 人間은 될 만치 된다. 그 以上은 될 수 없다.

1995年 3月 11日 朝 5時 15分

• 모든 生物은 自然의 命令에 따라 살고 있다.

1995年 3月 20日 朝 6時 3分

• 人間 못된 것은 自尊心과 功名心만 强하다.

1995年 4月 5日 晚 10時 10分

• 가지고 싶은 것은 젊었을 때 많이 가져 보라. 늙으면 늙을 수록 必要없게 된다. 最後에는 모두가 必要없게 된다.

1995年 4月 21日 晚 9時 30分

- 生死는 自然의 作業이며 人爲的으로는 어쩔 수 없는 줄을 알면서도 自己의 家族에 關해서만은 深刻하게 생각한다.

1995年 5月 3日 晚 11時 5分

- 神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해서 畏敬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自己의 良心을 두려워할 것이며 大宇宙 自然의 眞理를 두려워할 것이다. 萬若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神이 存在한다고 해도 神을 畏敬할 사람이 아니다.

1995年 5月 16日 晚 10時 27分

- 感覺問題에 關해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시원한가? 얼마나 기쁘냐 등은 對答 說明하기가 困難한 것이다. 本人이 直接 經驗해서 알 일이다.

1995年 5月 30日 晚 9時 27分

- 自己가 아주 잘한 일이 많다고 평평거리며 말하는 사람도 평평거리지 않는 사람도 죽은 다음 먼 後에 比較해 보면 큰 差異가 없다.

1995年 6月 7日 朝 4時 25分

- 藝術은 虛無이다. 人間의 一時的인 몸부림이다.

1995年 7月 5日 晚 8時 55分

- 人間의 一生은 解決의 連續이다.

1995年 8月 3日 晚 9時 55分

• 李在萬 自敘傳

- 天道나 人道나 秩序와 法則에 어긋난 것이라도 言과 行을 作爲하는 者는 그것도 自己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 보는 逆道者이다.

1995年 9月 25日 朝 4時 30分

- 賂物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天道와 眞理에 對해 無關心한 사람과는 哲學과 道德을 論할 相對가 못 된다.

1995年 11月 3日 朝 5時 21分

- 哲學은 나의 親舊이다.

- 自己가 有名해지기 爲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僞善이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有名해지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이다.

1995年 12月 25日 晚 10時 25分

- 法律과 道德과 規範은 眞理에 따라서 살자고 하는 모두를 爲한 約束이다.

1996年 1月 1日 朝 5時 5分

- 양반과 상놈이 싸우면 恒常 양반이 不利하다.

1996年 2月 5日 晚 10時 27分

- 冠쓰고 道袍 입으면 다 양반인가, 平時의 行止를 잘 해야 양반이지.

1996年 1月 19日 朝 6時 10分

- 大宇宙 自然은 人間이 하는 일을 命令하거나 禁止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結果만을 안겨줄 뿐이다.

1996年 2月 15日 晚 10時 37分

- 自尊心과 功名心이 강한 者와는 胸襟을 털어 놓고 말할 相對가 아니니라.

1996年 3月 10日 晚 10時 53分

- 점잖고, 正直하고, 溫柔하고, 善行하는 사람이 반드시 富者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음이 平和롭고 安定 閑暇한 자는 恒常 富者이다.

1996年 3月 20日 朝 4時 25分

- 功名欲이 潛在하고 있는 奉仕와 慈悲와 施惠는 分명한 僞善이다.

1996年 4月 1日 晚 10時 45分

- 富者도 政府가 만들 수 있고 貧者도 政府가 만들 수 있다.

1996年 4月 25日 晚 9時 40分

- 마음이 神이다. 神은 마음이다.

1996年 5月 9日 晚 9時 51分

- 危險한 짓을 하는 것은 잘 되면 本錢이요, 아니면 負傷이다.

1996年 4月 25日 晚 9時 40分

• 李在萬 自敘傳

- 남의 아들 道知事하는 것 보다 내 子息 郡守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1996年 6月 10日 朝 10時 12分

- 百가지를 알고 있는 知識이라도 한 가지만 말하라.

1996年 7月 3日 晚 9時 29分

- 孤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孤獨의 原因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德性이 缺乏되고 不德하기 때문에 人心이 떠나는 것이다(德不孤).

1996年 7月 1日 晚 10時 11分

- 이야기하는 것도 상소리, 弄談하는 것도 상소리, 싸울 때도 상소리, 그대는 生活이 상소리로 連續이니 可憐하다. 그대의 八字가 그런 걸.

1996年 7月 16日 午 1時 53分

- 人生이란 挑戰에 對한 應戰의 連續이다.

1985年 2月 19日 午前 4時

- 모든 運命은 瞬間的으로 決定된다.

1985年 3月 1日 午前 5時 7分

- 모든 事物의 現實에 懷疑를 가져 볼 때에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다.

1986年 7月 3日 午後 11時

- 힘이 세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1986年 8月 15日 朝 4時 3分

- 여러가지 모든 번거로움은 人間들의 作爲에 起因된 것이다.

1986年 9月 12日 朝 3時 45分

- 그 사람의 性格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지 말아야 한다.

1986年 10月 3日 朝 4時 9分

- 앉아서 對話할 때에 帽子를 쓰는 것은 女子의 特權임을 나는 몰랐다.

1986年 11月 22日 夕 11時 3分

- 空間은 모든 것을 抱擁한다.

1986年 12月 25日 夕 10時 7分

- 로미오는 읽어 보았어도 줄리엣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 어느 讀書家의 告白 -

- 人間性的 사랑의 發露는 情意의 表示나 物色的인 提供으로부터 作爲가 始作되기도 한다.

1987年 3月 3日 夕 11時 7分

- 男女의 愛情도 一種의 賭博이다.

1997年 4月 7日 夕 10時 45分

- 少年少女는 未來의 꿈과 希望에 살고 老人은 지난 날의 追憶에 산다.

1993年 5月 6日 朝 3時 50分

- 自己 子孫들의 將來의 繁昌과 興盛을 爲하여는 百番 千番 祈禱함도 좋지마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해롭게 하지 말 것이며 猜忌 嫉妬와 惡口 險談치 말 것이며 사랑하고 尊敬하며 도울 것이다.

- 女性이 비록 柔弱하나 거기에서 偉大한 歷史가 誕生한다.

1997年 1月 5日 后 1時

- 모든 사람이 갈 때는 사랑도 미움도 다 버리고 늙느니라.

1997年 1月 7日 后 3時

- 形式은 存在의 表現이다.

- 어떠한 政府이건 善法이나 惡法이나 그것은 警察과 軍隊의 힘으로 强行 維持되고 있는 것이다.

1997年 1月 7日 后 7時 15分

- 理不通인 無識한 사람의 固執은 眞理에 어긋나면서도 強烈하기 마련이다. 솔뚜껍 가지고 자라 잡는 式이다.

1997年 1月 8日 前 7時 5分

- 理不通인 固執이 強烈한 人間은 對他的인 過誤에 對하여 相對方에게 平生토록 謝過할 줄 모른다. 卑劣한 自尊心만이 強하기 때문이다.

1997年 1月 11日 午前 4時 25分

- 年老해서 自己가 健康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人間은 百歲長壽가 稀罕하다.

1997年 1月 15日 午前 4時 33分

- 모든 人間은 모든 人間과 헤어진다는 前提條件下에 現存하고 있다.

1997年 1月 21日 前 5時 10分

- 平凡한 人間은 自己가 잘한 일이나 傑作品을 創造했을 때에 남들이 보아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自己가 잘못 했을 때나, 모든 일에 拙劣했을 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음을 多幸으로 생각한다.

1997年 1月 29日 午後 10時 43分

- 人間關係는 喜悲哀樂을 發生케 한다.

1997年 2月 3日 夜 9時 38分

- 나의 人生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1997年 2月 10日 夜 11時 22分

- 世界를 둘러 다녀 보아도 죽은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1997年 2月 13日 朝 3時 35分

•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날 보고 술 한잔 하자는 사람 없더라.

1997年 2月 14日 夜 11時 3分

• 남을 爲하여 돈 한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남 앞에서 아주 작은 돈뭉치를 자주 끌어내어 만지작거리는 사람! 그것은 分明히 自誇心이며 自己 存在를 表示하는 虛妄한 示威인 것이다.

1997年 2月 15日 夜 10時 37分

• 善知識人이여! 無知者와는 論爭을 하지 말라. 恒常 지기 마련이며 자칫하면 逢變을 當하기 쉬우니라.

1997年 2月 17日 夜 9時 44分

• 人間은 웬만한 苦痛은 견뎌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適應能力인 것이다.

1997年 2月 19日 夜 10時 27分

• 十目이 所視여, 十手가 所指라, 其嚴乎인저!

9. 道에 關한 小考

道에 關해서 辭典과 玉篇 等を 찾아 보면 아래와 같이 記述 되어 있다.

- 理想新玉篇(理想社)
路也(길도), 蹈(밟을도), 理也(理致도), 順也(순할도), 仁義忠孝之德義(道理도), 言也(말할도), 由也(말미암을도), 從也(좃을도), 行政區域名(행정구역이름도)
- 새국어대사전(진영출판사)
道理(도리), 地方行政區域의 하나
- 漢字大典(教育出版公社)
路也(길도), 理也(이치도), 順也(순할도), 一陰一陽之謂道, 言也(말할도), 仁義忠孝之德義(道도), 由也(말미암을도), 從也(좃을도), 行政區域 이름도, 非先王之法言不敢道, (中庸) 尊德性而問學.
- 廣辭林(三省堂發兌)-日本
道路 又는 道義, 길, 案内, 道教, 道家,(佛)佛門, 佛家, 八道, 日本의 東海道, 東山道, 北海道.
- 百科大辭典(瑞文堂)
道家 - 中國 先秦時代에 있어 老將一派의 無爲, 靜退의 思想을 품은 學者의 總稱. 以下 省略.
- 莊子 - 道가 있는 곳

『東郭子が 莊子에게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道란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고 있지.」

「어디라고 分明히 이름을 일러 주십시오.」

「땅강아지와 개미에게 있다.」

「꽤나 시시한 것에 있군요.」

「벼죽정리와 피(裨)에도 있지.」

「漸漸 더 시시하군요.」

「기왓장에도 있지.」

「漸漸 極端으로 가는군요.」

「똥이나 오줌에도 있는걸.」

東郭子は 잠자코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莊子は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자네는 묻는 것이 틀려 먹었네. 예를 들어 貴族집의 執事가 市場에서 돼지를 차례차례 더듬어 살찌고 여윈 것을 골라 내고자 할 때도 머리가 있는 윗쪽보다는 궁둥이와 발이 있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알기가 쉬운 법 일세. 자네도 道가 어디에 있다고 決定을 지으려고 해서 안되네. 事物을 超越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되네. 道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며, 참다운 가르침도 亦是 그런걸세.」

※ 東郭子 - 이름은 順子, 田子方篇에 그의 스승으로 나온다.

以上으로 살펴 볼 때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道路나 北海道나 行政區域 等を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靈的으로 感知할 수

있는 眞理의 道에 關해서 論해 볼까 한다.

單刀直入의 으로 말하자면 道는 바로 眞理라고 할 수 있다. 眞理를 內包하지 않은 道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眞理는 法이요, 法則이다. 이 法을 道라고 볼 수 있다. 大宇宙自然이 이 法에 따라서 存在하며 眞理에 따라서 萬物이 流轉하고 있는 것이다. 卽 道를 따라서 生成되며 流轉되며 또한 滅하기도 하는 것이다.

地球가 自轉하며 또 太陽의 周圍를 돌고 있는 것도 道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卽 軌道라는 道를 따르는 것이다. 春夏秋冬의 季節의 變化도 地球의 道를 따라 回轉함에 따른 道이다. 白雲이 空中을 흘러 가는 것도 道에 依한 것이요, 眞理에 따른 것이요, 바람이 부는 것도 道이다. 道가 아닌 것은 오래 存在치 못 한다. 봄에 植物의 새싹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結實하는 것도 眞理의 道에 依한 現象이다. 모든 自然界의 變化와 不變하고 常住하는 것이 모두가 道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있는 것 없는 것 모두가 理가 있어서 나타나는 現象이다. 高層 빌딩이 維持되고 或은 倒壞되고 하는 것이 모두 理致가 있기 때문이다. 理致가 있는 것은 法이요, 眞理요, 道이다. 山이 우뚝 오래 서 있는 것도 道에 依해서이고 江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도 道이다. 汽車가 레일 위로 달리는 것이 正道이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깊은 大海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道이다. 물은 熱을 加하면 뜨거워지는 것이 道이다. 淸掃를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 道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道와 더불어 存在한다. 이것들은 모두 自然의 道라고 내 나름대로 말한다. 이 自然의 道에 對하여 人

道가 있다. 人間이 人間으로서 行해야 할 道가 있는 것이다. 自然에 自然道가 있다시피 自然道에 隨伴하는 人間道란 것은 人間이 말하고 行하는 道이다. 사람은 社會的 動物이다. 그러기에 相互가 共同生活을 함에 있어서 相對方의 感情을 束縛하거나 損傷시킴이 없도록 하기 爲하여서 人道가 있고 또 이 人道를 實踐해 나감으로써 各自의 人格을 保全할 수 있고 또 明朗한 社會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것이다. 卽 人間の 心靈에서 우러나오는 道行이 人間の 價値를 더해 주는 것이다.

· 自然에 對한 人間の 道

自然과 더불어 산다는 信念 아래 大宇宙 自然에 對하여 恒時 敬畏心을 가져서 崇拜하고 感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나와 自然은 不二의 存在라 생각하며 自然을 아끼고 保護해야 하는 것이 切實한 人間の 道이다.

· 人間 對 人間の 道

1. 子의 父母에 對한 道 - 孝道를 다할 것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함.
2. 子孫의 祖上에 對한 道 - 追念, 敬慕하며 感謝할 줄 알고 爲先之道를 다하며 祭禮, 行祀를 謹嚴하게 致其嚴할 것이며 省墓를 자주 行한다.
3. 父母의 子女와 手下에 對한 道 - 恒常 心底에 慈愛가 깔

려 있어서 嚴히 訓戒하면서 사랑으로 愛育하며 將來의 進路를 引導한다.

4. 敬尊長, 愛國, 愛族의 道를 先導해 나가며 隣誼를 敦篤히 함을 父祖되는 이는 模範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5. 其他 尊長이 手下에게 對한 道 - 손 아래 年下의 사람에게도 恒常 人格과 權利를 尊重하면서 教化善導하여야 한다.
6. 夫의 妻에 對한 道 - 人格을 尊重하면서 心底에는 어떠한 境遇에도 사랑은 變치 않는다는 생각이 常存해 있으면서 對話에도 敬語를 使用함이 可할 것이며 男子가 할 일, 女子가 할 일을 區分하지 않고 助力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모든 일은 事前에 夫婦가 相議하여 合議를 거쳐서 施行에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子女나 他人이나 其他 手下 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는 妻의 잘못이나 失策 등을 舉論하거나 高聲 詰責함을 삼가해야 한다.
7. 兄의 弟에 對한 道 - 恒常 和樂한 웃음으로 對하며 情感 어린 談話를 나눌 것이며 心底에는 恒常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며, 벗을 對하듯 해야 하며, 모든 言動이 示範的이어야 한다.
8. 아우의 兄에 對한 道 - 恒常 心底에 恭敬하는 情念이 깔려 있어야 하며 言語와 動作이 輕妄스럽지 말 것이며 順從의 美를 나타내야 마땅하다.
9. 媿父母의 子婦에 對한 道 - 子婦도 子息이다. 딸과 같이 생각하여 心底에 恒常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며, 子婦가 미처 알지 못하여 行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딸에게 타 이르듯 愛情어린 타이름이 있어야 할 것이며 高喊과 詰責

은 삼가하는 것이 媿父母의 道理일 것이다.

10. 子婦의 媿父母에게 對한 道 - 子息이 親父母님께 對하는 心情으로 恒常 尊敬의 마음이 心底에 자리 잡고 있어야 子婦之道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不平과 不滿의 表出은 平生을 두고 禁物인 것이다. 但 意見을 陳述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恭敬하는 心情으로 陳述함도 可하다.

이밖에도 人間關係는 數 많게 形成되고 있으나 모든 關係에 있어서 사랑과 尊敬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 交互作用을 展開해 나갈 때에 隨時로 道는 自然히 發生되게 마련이다. 餘他の 人間關係의 道는 言及을 廻避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道가 存在한다는 데 對한 記述이 나의 目的이었지 그 具體的 事例와 境遇에 따른 內容을 說明하는 것은 目的이 아니기 때문이다.

· 諸般事物과 道

1. 쓰레기의 道 - 쓰레기는 恒時 쓰레기筒에 蒐集하는 것이 道이다. 休紙, 담배꽂초 등을 街路에 버리는 것은 道에 逆行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清掃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清掃 用具는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고 整理하는 것이 道이다.
2. 通行과 乘車의 道 - 左側을 通行함이 原則이며(우리나라) 後續人이 앞으로 가려 할 때는 길을 비켜 讓步하는 것이 道이다. 乘車하기 前에는 先到者부터 차례로 列을 지어서 乘車하는 것이 道이며 車中에서는 남이 싫어하는 行爲나

言聲은 삼가하는 것이 道이다. 高聲騷亂해서는 매우 失禮이며 吸煙도 남에게 公害를 주는 것이다.

3. 公共物에 對한 道 - 公共物은 ‘우리 모두의 것’ 이란 것을 常念하여 아껴서 使用하여야 道이다. 화장실은 한 사람이 不潔하게 使用하면 다음은 더욱 甚하게 二重·三重 不潔해짐을 考慮해서 淨潔하게 使用하는 精神이 꼭 必要하다. 이것이 道이다.

이 외는 모두 列舉하기가 困難할 정도 多雜 多樣하기 때문에 略記한다. 남이 道를 따라 履行하지 않으므로 해서 내가 當하는 苦痛과 不便함을 想起해 볼 때에 道는 自明하게 認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道는 相互 모두에게 必要한 것이다. 法律이 道요, 秩序가 道요, 道德이 道이다. 나에게 害가 되고 不利益이 되는 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남에게도 害가 되고 不利益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道이다.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 道이다. 植物도 너무 지나치도록 물을 빨아먹지 못하면 枯死하는 法이다. 이와 같이 自然의 道가 사람에게도 亦是 通用되는 것이 道이다.

萬物은 存在와 더불어 道를 隨伴한다. 萬物은 道에 따라 存在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늘에도 道가 있고, 땅에도 道가 있다. 바다에도 道가 있고, 江물에도 道가 있다. 사람의 발자국마다 道가 있다.

사람이 言動함에 있어서 道에 따라 말하고 行해야만 남이 首肯하고 共鳴할 것이며, 順理에 따라야만 存하고 順理에 따르지 않으면 亡하는 것이다. 卽 道에 따라야만 存在할 수 있다.

「明心寶鑑」에도 ‘順天者是 存하고 逆天者是 亡’이라고 하였다. 順天者라는 것은 順道者란 말이다. 卽 天은 道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順道함이니 存在할 수 있으며 이것이 道이다. 男女가 適齡期에 이르면 兩姓好合하여 結婚을 해서 設家해야 子孫이 繁昌하는 法이니 이 法이 道인 지라. 이로써 子孫이 繼繼承承하여 家庭과 집안이 連綿하는 同時에 社會와 國家가 存續되어 가는 것이니 이것 또한 道이다.

남의 物貨를 훔치기 前에 나의 財貨를 盜難 當했을 境遇를 假想해 보라. 그 얼마나 哀惜하고 怨痛하겠는가. 이렇게 易地 思之함으로써 偷盜는 不道요, 不德이요, 非道 卽 道가 아님을 스스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道路에 放尿放糞해 놓음을 보고 그 누구나가 다 보기 싫다고 할 것이다. 이런 問題는 相互間의 問題일 뿐 아니라 社會全員의 不快한 問題이며 道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나만이 便利하고 有益하다 해서 行함이 남에게는 害惡이 된다면 이것도 非道이다.

남이 아무도 目睹하지 않을 때에 自己 便宜主義나 利益을 爲하여 道에 어긋나지만 敢行하려 함은 이것이 非良心이며 逆道理인 것이다. 道는 良心이요, 正道인 것이다. 良心은 人間性 본 바탕이다. 남이 보고 보지 않고는 良心에는 關係가 없는 것이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恒常 良心은 살아 있어야 한다. 남이 본다고 해서 道가 있고,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道가 없다는 法이 없다. 불쌍한 때는 同情을 베푸는 것이 道이다. 道를 따라서 行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仁義로운 것이며 時代의 古今과 洋의 東西를 不問하고 꼭 있어야만 하고 行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道는 善이며 좋은 것이다. 行하자.

1986年 7月 30日

10. 人性과 作爲와 運命

人性이나 性質이나 性品이나 性格이나 概括적으로 살펴 보면 그 뜻은 共通的으로 大同小異하다. 文獻을 살펴보기로 한다.

1) ① 性格 - 各 사람이 가진 特有한 性質.

② 特性에 依하여 識別되는 個人的 됨됨이, 個性.

『새국어대사전』, 진영출판사 p. 425

③ 性品 - 性質과 品格. 性質과 됨됨이.

上同 p. 428

④ 性質 -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特性和 資質. 마음의 바탕.

上同 p. 428

2) 性質 - 本來의 氣質. 固有의 性狀(Quality).

性狀 - 마음의 性質

廣辭林 日本 三省堂

3) ① 人性 - 사람의 性品. 사람 本然의 性品.

〔孟子〕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漢字大典』, 教育出版社

② 性品 - 各 사람에게 特有한 性品, 性質, 品性, 品格

上同 p. 543

- ③ 性質 - 타고난 氣質. 固有의 性格. 天性, 資質, 性分.
 [唐書]. 性質嚴重起居皆有禮法.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바탕, 特性, 形質, 性的 特徵.

上同

- ④ 性品 - 性質과 品格. 性質과 됨됨이. 性質. 性情.

上同

- 4) 性格 - 意的 方面을 規定하는 個人的 根本的 性質. 人間的 行動은 主體的 條件 卽 精神的인 것과 環境的인 相互 關係로 決定된다. 그러므로 그때 그때의 양쪽의 條件如何에 따라서 한 個人的 行動은 변함없이 變化하게 된다.

環境條件과 主體條件이 긴 時間을 考慮에 넣지 않는다면 大體로 一貫된 普遍的인 모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 個人的 行動에 對하여도 두 條件이 갑자기 變動하지 않는 限에 있어서는 大體로 '이 사람은 이런 行動을 할 것'이라는 豫見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 어떤 場所에 있어서의 한 個人的 全體的인 모양을 人格이라 부르고 普通 때에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普遍的인 貌樣을 性格(character)이라고 한다.

한 個人的 人格은 그때 그때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 個人的 性格은 그때의 貌樣의 平均 代表值 또는 習慣的인 그 사람의 貌樣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런 規定은 한 個人에 對한 것이지만 수 많은 사람의 性格을 보면 사람마다 全部 다르다. 그러나 어떤 點에서는 비슷하므로 이것을 몇 개의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 分類法

이에 對하여서는 여러 가지 分類法이 있는데 스프랑거(E Spranger)는 經濟人, 理論人, 審美人, 宗教人, 權力人, 社會人 등의 六種類로 區別하였으며, 융크(CG Jong)는 內向性, 外向性으로 바이닝거(O. Weininger), 아펠바흐(H. Apfelbach)는 男性型, 女性型 등으로 分類하고 이러한 性格의 여러 型은 家庭, 交友, 職業, 社會的 良俗, 信念, 規法, 그밖에 社會的, 民族的 特性에 重大한 影響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나이더(K. Schnelder)는 發揚性, 抑鬱性, 自信缺乏性, 熱狂性, 顯揚欲性, 氣分異變性, 爆發性, 情操缺乏性, 意志缺乏性, 無力性 등으로 分類하고 있다. 中間省略.

一般的으로 情意的 特徵으로서의 性格特徵은 氣質(temperament)이라 불리며, 有名한 古典的 分類인 多血質, 憂鬱質, 膽汁質, 粘液質의 四氣質은 近世에 이르기까지의 氣質 分類이다.

『世界百科大辭典』, 瑞文堂

· 人性과 作爲

以上 文獻을 살펴 보면 人性의 意義나 分類에 關한 解說이 主로 되어 있다. 내가 追求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달리 人性과 行動作爲와의 關係라든가 또는 作爲와 運命에 關해서 考察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大體로 人性의 形成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 생각한다. 卽 타고난 遺傳性과 人性에 影響을 끼칠 수 있는 環境性과 다음으로는 教育에 依하여 形成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遺傳, 環境, 教育의 세 가지가 累積되는 時間에 따라서 特有의 人性을 形成하는 것이며, 또한 習而爲性이라 오랜 時間 習慣이 된 生活은 人性으로 固定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父子가 그 身體나 容貌가 닮는 것과 같이 그 性品도 往往 닮는 수가 있다. 이것은 遺傳에 依함이 多大하다. 그래서 父子가 함께 生活함으로써 人性이 닮는 수도 있고 또 父의 教育의 影響을 받아서 父子가 닮은 人性이 形成되는 경우도 있다. 오랜 時間을 두고 師弟가 同行하고 배우는 동안에 그 스승을 닮은 弟子의 人性이 形成될 수도 있다.

大體로 人性이라 하는 것은 內在의 存在이기 때문에 言語로 表現하거나 行動的 作爲가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의 人性을 쉬 알아 볼 수 없다. 無言無行爲者의 人性은 다만 寡默, 沈着, 頓重한 人性이라고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大概 人間의 精神作用은 知와 情과 意의 三方面으로 心理學에서 分類하고 있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作用實態를 例를 들어서 說明해 보면 어떤 男子 青年이 아름답고도 淸楚한 美貌의 少女를 發見했을 때 마주 對하고 보니 ‘少女이구나 아름답구나’ 하고 判別했다면 아름다움을 알았으니 이는 知의 作用이요, 다음으로는 ‘사랑하고 싶고 나의 愛人으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情의 作用이요, ‘이 少女를 내가 가지고 싶으니 무슨 方法을 取해야겠다. 오늘 저녁에는 그 女의 집을 찾아 가 봐야겠다’고 意志를 決定했다면 이것은 意의 作用인지라, 意는 行動開始하는 決定的作用이다. 意志가 決定되면 곧바로 作爲로 들어간다. 卽 行動化한다. 行動한다는 것은 佛敎에서 말하는 業이 始作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意志 決定도 그 사람의 人性의 發露作業이다.

그런데 上述한 바, 人性의 類型에 따라서 意志決定이 다르게 決定된다. 萬若에 前述한 權力人型이나 外向性型이나 男性型이나 發揚性型, 熱狂性, 爆發性型 같은 人性이면 밤을 기다려서 밤이 되면 越牆을 하고서라도 그 少女의 房門 앞에 이르러 門고리를 잡아 당겨 미친듯이 뛰어 들어가서 사랑을 告白하거나 아니면 劫奪的으로 抱擁하기까지 하는 者도 있을지 모른다. 이는 大膽하고 勇敢해 보이는 人性이 發露되어 이루어지는 作爲이며, 또 이와 비슷한 人性일지라도 沈着하게 理性을 잃지 않고서 順理로 하소연하면서 求愛하는 形態로 作爲하는 人性도 있을 것이다. 이와 反對의 上記 品格의 類型인 宗教人型, 審美人, 女性型, 內向性型, 無力性型 등의 性格 類型은 積極性을 띄지 않거나 深思熟考하여 戀情을 서서히 方法을 研究해 가면서 表露하는 型일 것이다. 이와 같이 相反되는 人性의 類型中 어느 類型이나 長點과 短點이 있기 때문에 好不好를 말하기 어렵다. 모든 人間은 그 사람의 人性 卽 氣質에 따라서 作爲가 區別나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한 作爲에 따라서 結果가 惹起되는 것이다.

· 作爲와 運命

人性에 따라 모든 行爲가 進行됨으로써 그 結果가 所生한다. 行爲가 바로 作爲요, 作爲가 또한 業이다. 善業에는 善果가 現露하고 惡業에는 惡果가 結實하는 것은 大宇宙 自然의 眞理이며 眞然이며 自然法이다.

그러기에 人性과 作爲와 運命, 이 三者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것이다. 이 結果를 두고 無智한 우리 衆生들은 運命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運命이 아니라 自己選擇이라고 나는 말한다. 모든 意志決定은 自己의 選擇에서 出發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成功과 失敗도 性格이 어느 정도는 決定한다. 그러나 하늘이 아는 만큼 成功한다는 것은 좀 別途로 치더라도, 普通 사람의 生活水準은 性格의 如何에 關係없이 모두가 비슷한 水準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大惡의 人性에 依한 大惡의 作爲에 依한 結果는 大罪惡이란 罪業을 產出하는 運命이 되며 大善의 人性에 依한 大善의 作爲에 依한 結果는 大善業이란 菩薩道에 가까운 運命을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其外의 普通의 人性의 所有者는 大概가 人性에 크게 關係없이 비슷한 水準의 生活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 常例이다. 이것은 自然의 均等한 보살핌이며 또한 人間의 能力이 大體로 均等하기 때문이다. 人性이 惡性이 아닐 때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人性은 人格의 一部分이지만 亦是 人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自己의 人性을 恒時 反省해 볼 必要가 있다. 人性은 人格을 形成하고 人格은 財産이다. 모든 作爲와 運命은 ‘皆是 出於心’이다. 作爲도 運命도 마음에서 出發되고 始作되는 것이다. 佛敎에서 말하는 ‘一切唯心造’이다. 모든 作爲가 善한 人性(마음)에서 出發하면 그 열매는 卽 福果를 얻으리라. 婚事를 定하기 前에 相對方을 살펴보고 그 父母 또는 祖父母까지 그 以上 上代祖까지 들추어 말하며 살피고 심지어 그 當事者의 外家가 어디인가까지도 알아 보려고 한다. 이것은 相對方의 좋은 遺傳을 擇하려 함이다. ‘孟母三遷之敎’는 좋은 環境에서 孟

子を 훌륭한 人性으로 育成하겠다는 孟母의 欲心에서이며, 좋은 學校를 골라서 좋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자 함은 亦是 좋은 人性을 形成하여 훌륭한 人格者가 되기 爲한 欲心에서이다. 이와 같이 遺傳과 環境과 教育 이 세 가지를 잘 選擇해야만 좋은 人性 卽 人格이 形成되어 福田을 啓發하게 된다. 모름지기 나의 人性의 短點을 反省해 보며 恒時 善良하게 改造함에 盡念할지니라.

運命이라 함은 自己選擇의 結果를 말함이다. 모든 運命은 그 사람의 人性 卽 氣質로부터 結果되는 것이기에 自己選擇의 結果이다. 나는 運命論者가 아니다.

1996年 5月 31日 晚 10時

• 보입니까? 運命의 거미줄이.

1996년 4월 27일 晚 9時 53分

• 寂滅이 따로 있나, 화장실이 寂滅이지.

1996년 4월 7일 晚 12時 제주도 화장실에서

11.人間(Man)

人間(Man)이란 規範的 乃至 價值的인 意味를 包含해서 動物과 對立的으로 使用하는 境遇가 있고 生物學的인 分類로는 哺乳類에 屬한다. ‘人間은 驕慢하게 自身들을 知性和 叡智의 人間 卽 ‘호머 사피엔스(Homo Sapiens)’ 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人間들이란 地球라고 하는 惑星 위에 사는 動物의 種類 中에서도 가장 興味있는 動物인 한편, 다른 存在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種類의 動物이다.’ 이 말은 火星人 中에 哲學的인 生物學者가 있다고 할 때 그가 地球上의 動植物에 關한 報告書를 쓴다면 最終章의 첫머리에 쓸지도 모를 그러한 말이다.

우리들은 모두 ‘人間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對하여는 感情的으로도, 本能的으로도 깊은 關係를 갖는 存在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이 다른 世界로부터 온 訪問者에게 對해서도 같게 생각할 수 있는 公平하고도 폭 넓은 人間觀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위에 쓴 것과 같이 架空의 火星人이 말한 것 같은 ‘人間에 關한 省察’을 試圖해 보고, 그 省察에 비추어 人間의 過去, 現在, 未來(가령 未來가 있다고 하면)를 달아보고, 地上의 生命에 대해서 人間들이 이미 行한 것 또 지금 行하고 있고 앞으로 行할 일 그리고 將次는 地球 以外의 生命에 對해서 行할 일들의 價値(善惡 等)를 推測해 보는 것은 有用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考察을 할 때에는 마치 飛行機에서 내려다 볼 때 작은 언덕이 平坦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가지 一時的인 情熱은

그 重要性을 잃고 만다. 이에 반해서 참으로 恒久的인 重要性을 갖는 일들은 限定된 見地에서 바라보는 境遇보다 훨씬 明瞭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 人間의 本性和 그 進歩

人間은 그 처음에, 一般的으로 生存競爭이라는 點에서 볼 때 그 앞날이 밝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 人間은 數에 있어서도 稀貴한 種類의 動物이었고, 野獸를 避하여 나무에 기어 오르는 것도 원숭이에 比하여 민첩하지 못하며, 추위에 對해서도 몸을 保護해 주는 皮膚에 덮힌 털이 적고, 幼兒期가 길다고 하는 不利한 條件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種類의 動物과의 競爭에서 食物을 確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와 같이 人間은 그 出發點에 있어서 모두 不利한 條件들이었지만 단 한 가지 頭腦가 發達되었다는 長點은 차차 蓄積되어 人間을 다른 動物과 差別化시켰고 드디어 쫓겨 다니는 逃亡者로부터 地球上의 主人으로 바꾸어 갔다.

이러한 過程에서 처음에는 어떠한 段階들을 거쳤는가 하는 것은 有史以前의 일로서 推測할 수 밖에 없다. 人間이 불을 使用하게 된 것은 마치 現代에 있어 原子力의 利用이 갖는 危險과 比較할 수 있는 정도의 危險(그 質에 있어서는 類似한)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불은 人間의 食事を 改善시켰을 뿐 아니라 洞窟의 入口에 불을 피워놓음으로써 자는 동안의 安全이 保障되었다. 또한 人間은 槍이나 화살을 만들었고 陷穽을 파서 거기 빠진 mammoth(mammoth) 등을 사로잡고, 狂暴하게 괴

롭히기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드디어 人間은 여러가지 동물을 家畜으로 기르게 되고 有史時代의 黎明期에 農耕의 有益함을 發見하게 되었다.

· 言語의 役割

그러나 人間이 獲得하기에 이른 모든 것 中에서도 가장 貴重한 獲得物은 言語였다. 言語는 순수하게 動物的으로 소리지르던 것이 차차 發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쓰여지는(書) 言語 卽 文字는 처음부터 言語를 쓴 것이 아니라 情報를 나타내는 그림이 차차 型으로 잡혀진 것이다. 言語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利點은 그것이 經驗의 傳達을 可能하게 한 데에 있다. 어떠한 世代에서 익힌 일을 그대로 다음 世代로 傳達해 주는 일이 可能해져서 繼承的으로 個人的인 體驗을 넓혀 주게 되었다.

言語보다도 文字로 記錄하게 되자 知識의 貯藏庫를 만든 結果가 되고 記憶을 記錄이라는 手段으로 바꾸게 되었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人間의 進歩를 可能하게 한 것은 個個의 人間들이 經驗한 것을 保全할 수 있는 技術 卽 記錄하는 手段이었다. 한편 頭腦의 能力도 生物學的인 改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遺傳的인 能力에 前進이 일어난 時代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時代는 約 50萬年 前에 이미 끝났다. 그 時代 以後에는 先天的인 知性이 增大되기는 하였어도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人間이 進歩되는 것은 傳統과 教育에 依하여 繼承되고, 後天的인 獲得技能에 依存하였다.

· 人間의 知性和 本能의 싸움

여러가지 基礎的인 條件들은 有史以前의 여러 時代에는 意識的인 目的없이 채워졌지만 일단 基礎的인 條件이 채워지면 知識이나 支配力으로 끊임없이 進展이 加速되어 왔다. 過去 5 世紀에 있어서 그 前進은 그 以前에 記錄된 歷史의 全期에 依한 것보다도 큰 눈부신 發展이었다. 따라서 現代의 苦悶의 하나는 人間의 思考習慣으로 技術은 急速히 發展되고 그 結果 技能이 增大함에 反하여 叡智는 衰退한다는 것이다.

· 自然과 人間

이와 같이 人間이 存續하기가 매우 어려운 逆境 속에서 매우 긴 時間이 흐른 後에 人間은 有用한 여러가지 技能을 익히고 發展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人間의 本能이나 習慣은 過去의 여러가지 鬪爭에 依하여 形成되어 갔다.

한편 人間은 飢饉이나 洪水, 火山의 爆發과 같은 人間에게 原因이 없는 自然의 危險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옛날에 飢饉에 對해서 어떠한 對策이 可能하였는가 하는 것은 『舊約聖書』의 「創世紀」에도 記錄되어 있다. 洪水에 對해서는 두 가지 方法이 試圖되었다. 中國史의 黎明期에 中國人은 黃河를 따라 堤防을 쌓고, 西아시아에서는 노아(Noah)의 이야기에 보이는 것처럼 洪水를 막는 最上의 方法은 有德한 生活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들은 火山의 噴火에 對해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a)의

都市가 破壞되는 이야기 속에도 이런 생각의 基礎에서 文學的 表現을 하고 있다. 現在에 이르기까지 中國人과 西아시아人에 依한 위의 두 가지 型的 理論은 強力하게 對立하면서 存續되어 왔는데 차차 中國人의 생각이 優越하게 되었다.

그러나 最近의 여러가지 情報에 依하면 有德한 生活(傳統的인 意味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이 堤防과 마찬가지로 人間이 살아남기 爲해서 必要하다는 것이 分明하게 되고 말았다.

· 知性和 本能의 싸움

人間에게 原因이 없는 環境으로부터의 여러가지 危險을 人間이 克服해 감에 따라 自身들의 새로운 世界에 本能的이고도 感情的인 體質(이것을 手段으로 하며 以前의 여러 時代를 살아온 體質)을 갖게 되었다. 結局, 人間은 如何한 境遇에도 살아남기 爲해서 큰 強靱性和 情熱的인 決意를 必要로 하였다. 또한 人間은 機敏한 警戒와 注意를 지닌 恐怖 그리고 危機에 處했을 때는 危險에 直面하는 勇氣를 必要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옛날에 여러가지로 닥쳐오는 그 危險을 人間은 위와 같은 習慣이나 情熱의 體質을 가지고 어떻게 阻止하였을까 하는 問題에는 不幸하게 充分하고 適切한 答을 求할 수가 없다. 오늘날 人間은 獅子나 호랑이에게 向하고 있던 敵意나 猜疑心을 같은 人類에게 돌리게 되고 말았다. 人間이 生存하는데 도움을 준 技能의 大部分이 社會的인 協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人類에 對하여 그러한 것은 아니고 自己에게 協力하는 團體, 集團 以外의 人類를 向해서 敵意를 불태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人間은 種族的인 團結 및 組織化된 戰爭을 통해서 몇 世紀 동안에 걸쳐 社會的 협력의 必要性和 過去의 鬭爭이 人間의 內部에 자라게 한 本能的 凶惡感, 猜疑心이 兩立되어 온 것이다. 有史時代 始初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知性이 創造한 技能이 끊임없이 環境을 變化시켜 왔다. 이에 反하여 人間의 本能이나 感情은 모두 野性的이고 原始的 世界에 맞게 形成된 채 그대로 持續되어 왔다.

· 人間集團의 特徵과 組織化된 戰爭

非人間的인 世界로부터 對立하는 人間集團으로의 發達課程과 恐怖나 猜疑心の 連續은 새로운 次元의 人間의 群居性을 만들어냈다. 人間은 개미나 꿀벌처럼 完全한 社會性을 갖고 있지는 않다. 分明히 개미나 꿀벌은 反社會的인 方法으로 行動하려는 衝動을 조금이라도 갖는 일이 決코 없다. 人間이 國王을 殺害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꿀벌이 女王벌을 暗殺하는 일은 없다. (개미집의 規律에 依한 境遇는 別途이고, 女王벌집에 들어가 女王벌을 죽이는 일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外部의 개미가 다른 무리의 개미 집에 偶然히 들어갔을 境遇에 即時 죽어버리지만 그 境遇에도 개미 社會에서는 ‘平和主義的’ 抗議라는 것은 決코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意見을 달리하는 少數者의 存在는 있지 않고 社會的 團結性이 恒常 個個의 개미나 꿀벌의 行動을 支配한다.

그러나 人間의 境遇는 다르다. 大概 原始人은 家族보다 큰

集團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人間의 敵으로 되는 危險의 結果로서(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家族이라는 것은 共通된 祖上을 갖는 種族으로까지 擴大된다.

戰爭은 여러 種族을 結束시키게 되고 이렇게 하여 國民, 帝國, 同盟聯合體 등이 생기게 되었다. 必要한 社會的 團結은 가끔 무너져 버리는데 이것이 무너질 境遇에는 敗戰이 된다. 結局 部分的인 自然選擇에 依하여 또는 部分的인 自己의 利益을 意識함으로써 人間들은 더욱더 集團에 協力하게 되고 祖上들에게 없던 次元의 群居性을 나타내게 되었다.

· 生物學的인 戰爭觀

現在 우리가 살고 있는 世界는 約 6,000年間에 걸친 組織化된 戰爭에 依하여 形成되어 왔다. 戰爭에 敗한 쪽은 絶滅되거나 人口가 激減되는 것이 通例였다.

戰爭에서 이기려면 여러가지 要因에 依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重要的 要因은 많은 人口를 가지는 것이고, 보다 發達된 技術과 完全한 社會的 團結 그리고 보다 積極的인 熱意를 갖는 일이었다. 純粹한 生物學的인 見地에서 말하자면 어떤 주어진 面積에서 사는 人間의 數를 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進歩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보면 그 많은 戰爭들은 不遇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로마人들은 西로마(西Roma)帝國의 大部分의 地域에서 人口를 많이 늘게 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콜롬부스(C. Columbus)와 그의 後繼者들은 西半球의 人口에

있어 콜롬부스 以前の 인디언들의 人口보다 몇 배 더 많은 人口를 불어나게 하였다. 中國이나 印度에서도 몇 時代를 걸친 戰爭 後에 確立된 中央政府가 그 巨大한 人口로 불어남을 可能하게 하였다.

• 戰爭과 人口

戰爭으로 인해서 人口가 增加된 것만은 아니다. 蒙古人들은 回教 칼리프(Calif) 帝國에 터어키인이 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人口에 回復 不能한 被害를 주었다. 또한 아직도 沙漠인 北아프리카의 여러 地域에 廢墟가 보이는 것은 로마帝國의 沒落에 依하여 입은 被害를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太平天國의 叛亂은 第一次 世界大戰의 戰死者數를 上回하는 死亡者를 내었다고 推定되고 있다. 이와 같이 戰爭으로 人口가 줄어든 이들 事例에도 不拘하고 綜合的으로 決算해 보면 過去의 戰爭은 이 地球上의 人口를 減少시켰다기보다 더 增大시키는데 貢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人間의 過去와 現在

生物學的인 觀點과는 다른 觀點도 또 있다. 다만 數라는 觀點에서 보면 개미는 人間보다도 數百배나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人間이 전혀 없는 廣大한 여러 地域이 있다. 그런데 이 地域에는 흰 개미가 無數한 移動群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흰개미가 우리 人間들보다도 優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人間에게는 哺乳動物 中에서 가장 數가 많은 存在로 불어나게 한 原因 以上으로 追加的인 長點이 있다. 그것은 人間 特有的인 長點으로서 集合的인 文化라고 命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文化의 長點은 人間社會의 特徵이라기 보다 人間 個人을 特徵지우는 것인데 社會的 團結性이라든가 戰爭에서 이길 수 있는 能力 等과는 전혀 區別되는 일들을 包含하고 있다.

· 잘못된 名譽觀

人類가 서로 競爭하고 때때로 敵對 關係에 이르는 여러 國民으로 分裂됨으로써 누가 名譽로울 수 있는가에 對한 國民的 評價는 悲慘하리만큼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하였다. 例컨대 英國에서는 넬슨(H. Nelson)이나 웰링턴(W. Wellington)의 記念碑를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세워 받들고 있는데 그들이 外國人을 大量 殺害한 技量を 認定받았기 때문이리라. 奇妙한 일이긴 하지만 이들에 對한 英國人의 느낌처럼 外國人도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 英國人이 아닌 教養있는 外國人이라면 누구에게든지 '英國의 가장 큰 榮光스러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물을 때 大部分의 사람들은 셰익스피어(W. Shakespeare)나 뉴우튼(I. Newton), 다아윈(C. R. Darwin)이라고 對答할 것이다.

· 人間的 過去와 現在

外國人을 殺害한다는 것은 境遇에 따라서는 人類 全體의 利益을 爲해서 必要한 일이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正當化되는 境遇일지라도 警察行動이라는 性格에 屬하는 境遇이고, 이러한 行動은 國民的인 자랑이나 慾心을 나타내는 것 들이었다. 人類가 尊敬할 만한 技能이 殺人하는 技能일 수는 없다. 이집트의 '死者의 書' 에 있는 것처럼 아마도 最後의 一人이 된 人間이 저승의 裁判官 앞에 서서 人間이라는 種類의 動物이 絶滅된 것은 섭섭한 일이라고 呼訴할 때 果然 어떠한 議論이 展開될 것인가. 人間의 生活이란 것은 一方의 幸福한 것이었다고 그들이 主張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人間의 歷史를 돌이켜 볼 때, 農耕의 發見이나 社會的인 不平等, 組織化된 戰爭으로 人類의 大多數는 困難과 過剩勞動을 하고 때로는 災難을 當하는 生活을 해 온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일은 未來에는 없어질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작은 智慧만 있어도 現在는 모든 人間生活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 智慧가 過然 우리에게 臨할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러한 동안에 위에 쓴 바와 같이 最後로 남은 人間은 오시리스神의 裁可를 받기 爲하여 '一般的인 幸福의 歷史' 라는 議論 以外의 것을 展開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人間的 未來와 平和의 可能性

人間은 人類가 存續되기를 바라며 오시리스神 앞에 辯護하

는 立場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러셀(R. AW. Russell)은 말하였다.(現代人の 過誤)

公正하신 裁判官님, 人類에 對한 告發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告發이 現代에도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 大部分의 人間들이 여러가지 環境이 展開시킨 可能性 以上の 能力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 주실 일은 우리 人間들은 最近에 비로소 古代的 無知와 여러 時代를 걸쳐 싸운 生存競爭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의 大部分은 지난 12世紀 동안에 일어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自然에 對해서 獲得한 새로운 힘에 陶醉해서 우리들의 大部分은 다른 人間들에 對한 힘을 獲得하는 方向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깨비에게 흘러서 도깨비불을 따라가는 것과 같고, 그 도깨비불은 어찌면 우리들을 조금씩 빠지는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誘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들 人間の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여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世界에 對해서 또한 星雲이나 原子에 對해서 卽 巨大한 일이나 些少한 일에 對해서 우리가 알기에 이른 것은 우리들 以前의 世上에서 可能하다고 본 것 그 以上으로 넘어선 것 뿐입니다.

神께서는 이렇게 反論하실지 모르겠습니다. ‘知識이란 것은 그것을 善用할 수 있는 充分한 智慧를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限 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智慧도 亦是 우리들에게 存在하고 있는 것입니

다. 또한 散發的으로 여러가지 일을 統制하는 힘은 모자라나 여러 聖人이나 豫言者들이 戰爭의 어리석음을 가르쳤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幸福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러셀은 다음과 같이 繼續할 것이다.(平和의 可能性)

偉大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을 避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빛나는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超越的인 榮光의 世界를 創造해내는 힘도 人間의 內部에 潛재해 있다고 그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詩人이나 作曲家, 畫家와 같은 人間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비전(Vision)을 雄大하고도 빛나는 作品의 形態로써 世上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想像力의 世界가 모든 우리들 人間의 것으로 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人間關係도 또한 抒情詩와 같은 아름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可能性의 어느 정도는 例컨데 男性과 女性과의 戀愛의 形態로 수 많은 人間들이 經驗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可能性이(戀愛와 같이) 좁은 領域에 限定되어야만 할 理由가 없습니다. '合唱交響曲'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可能性은 全世界를 包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살펴본 것 등이 人間의 힘으로 할 수 있는 限界 안에 存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時間이 주어진다면 人間은 未來의 여러 時代를 거쳐 이 일들을 成就할 것입니

다.

오시리스 神이여!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理由로써 神께서 우리 人間들에게 刑의 執行延期를 해 주실 것을 請願합니다. 또한 우리 人間들이 옛날의 어리석은 行爲에서 脫皮하여 빛과 사랑과 아름다운 世界로 옮겨 갈 機會를 주실 것을 請願합니다.

이렇게 英國의 러셀은 人間の 未來에 對한 밝은 展望을 꿈꾸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人間の 未來에 對한 可能性은 우리가 아는 限 存在하는 것이고, 人間이라는 種類의 動物이 存續할 만한 價値도 이러한 可能性을 實現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1985年 9月 27日

12. 물(水)의 哲學

나는 어설피게 잘 시부렁거리곤 한다. 오늘은 ‘나의 每日의 生活樣相을 反省해 볼 必要가 있구나’ 하고 그려 보련다.

나는 普通 새벽 3時 或은 3時 30分頃이면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이것 저것 空想, 妄想, 雜想들이 소용돌이 치다가 어느 한 곳에 思考가 停止되면 그 뼈대가 될 만한 것을 備忘錄에 簡單하게 記錄해 둔다. 이것은 다음에 또 잠꼬대 같은 글을 한번 써 볼까 하는 準備 作業인 셈이다.

이러한 備忘錄에 記錄하는 일은 잠을 자다가도 한 가지 着想이 떠 오르면 금방 일어나서 머리맡에 있는 電氣 스탠드에 불을 켜고 備忘錄에 쓰곤 한다. 어떤 밤에는 두 번 세 번쯤 일어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來日 아침에 쓰겠다’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昨夜에 무엇을 着想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어나면 글을 몇 줄 써 보고 아침 5시가 되면 洗手洗面하고 부처님께 내 나름대고 祈禱를 올리고, 밖에 나가서 맨손 體操를 5~6分 동안 하고는 新聞을 보고, 花盆에 물을 주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아침밥을 먹는다.

그리고 休紙筒을 消去하고 담배 한 대 빨고는 暫間 思索의 放浪을 한다. 그 思索이 整理되면 글 몇 줄을 쓰는 등 마는 등 하다가는 집 앞 길 건너에 있는 불링센터에 가서는 靑春男女들의 불링숨씨를 求景하면서 저 공이 이번엔 다 쓰러지라고 용을 쓰면서 보곤 한다. 그리고 또 담배 피우고, 담배는 하루 終日토록 근 20여 차례나 피운다. 물론 그냥 입으로 빨아 들여

서 그냥 입 밖으로 연기를 내뿜는 ‘뺨뽀 담배’이지만 자주 피우는 썸이다.

그리곤 하루에도 大門 밖을 數十번 들락거린다. 그리곤 또 펜(pen)을 들어 쓰는 등 마는 등 하다 점심 먹고 잠이 오면 약 30분간 낮잠 자고,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은 하루 24時間 동안에 大便 2번, 小便 4번 정도 가고, 午後에는 午前 中の 生活을 거의 反復 演出 하는 썸이다. 이라고 보니 나의 生活은 無味乾燥한 짜임새 없는 生活이며 나의 人生에 보탬이 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나마 自我成就를 爲해서 몇 줄의 글을 每日 쓰기로 마음 먹었다.

저녁을 먹고 주로 텔레비전을 10時까지 或은 11時까지 보고는 또 펜(pen)을 든다. 밤 11時쯤 잠자리에 든다. 어떤 때에는 12時쯤에 잠이 들 때도 있다. 그리고 새벽 3時 或은 3時 30分 或은 4時에는 잠이 깬다. 이러한 나의 生活은 결국 먹고 싸고의 反復生活이다.

그래서 한 번 내 나름대로 글을 써 볼까 하나 워낙 아는 바가 없고 基礎知識과 經驗이 不足하고 보니 그럴듯한 素材가 잡히지도 않으며 또한 表現技術도 貧弱하기 짝이 없으니 짜증만 난다. 그러나 나는 日常生活 周邊에서 平易하고도 凡準的인 事物들에 關해서 내 나름대로 쓰기로 大膽하게 마음 먹었다. 그러면 물(水)에 關한 文獻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地球上에 가장 널리 存在하는 液體로서 純粹한 것은 無味無臭하며 섭씨 100°C에서 最大의 密度를 가지며, 섭씨 零度에 있어 凝結하며 섭씨 百度에서 沸騰하며, 水素 2, 酸素 1의 比率로서 이루어져있다. 또 中性이며 또한 安全

한 化合物로서 固體, 液體, 氣體 等の 物質을 溶解하는 性質이 豊富하며, 天然水는 多少의 物質이 溶解됨을 免치 못함. 海水는 數多한 種類를 머금고 特히 食鹽이 豊富하다.

廣辭林, 日本 三省堂

- 2) ① 到處에 存在하는 無色無臭의 液體이며, 生物의 生存에 있어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物質.
② 水素 2, 酸素 1의 比率로 和合된 物質

새국어사전, 진영출판사

- 3) 물(水, water) - 分子式이 H_2O 인 化合物이며 地球의 表面에 가장 많이 또 널리 分布되어 있는 物質의 하나이다. 自然界에는 세 가지 形態로서 卽 固體(얼음, 눈), 液體(물), 氣體(水蒸氣)가 存在한다. 물은 모든 動物의 細胞와 植物組織과 鑛物의 結晶에 없어서는 안될 物質이다. 바닷물은 平均的으로 무게의 3.5% 정도의 다른 物質이 들어 있으며 이들 물질은 主로 鹽化나트륨($NaCl$) 2.7%, 鹽化마그네슘($MgCl_2$) 0.4%, 黃酸마그네슘($MgSO_4$) 0.2%, 黃酸칼슘($CaSO_4$) 0.15%, 鹽化칼륨(KCl) 0.05%로 되어 있으나 大部分의 化學元素들도 少量씩 들어 있다.

以下 約 四千五百字로 解說되어 있으나 以下 省略함.

世界百科大事典, 瑞文堂

以上으로 살펴 보았으나 그것은 主로 물의 化合成分과 分布 및 必要性에 關해서 論述되어 있다. 나는 以上에 記錄되어 있

지 않은 물(水)의 哲學面에 關해서 拙劣한 愚見을 몇 字 쓸까 한다.

물은 自然法을 代表할 만한 物質이라고 생각한다. 自然世界에서 第一義的인 存在라고 본다. 이 물이 지니고 있는 自然法에 依해서 人定法이나 實定法이 制定·成立된다고 본다.

내가 二十歲 때에 처음 教職生活을 하던 倭政 時代에 月刊紙이며 教育雜誌인 『文教朝鮮』이란 冊에서 보았는데 法字에 關해서 解說해 놓은 것을 읽어 본 즉, 法字는 水(물수)邊에 去(갈거)를 써서 卽 水+去=法이다. 卽 ‘물이 가는 것이 自然의 法이다’ 라고 解說되어 있었다. 물은 溫度에 따라서 液體, 固體, 氣體의 三形體로 變化하여 宇宙內의 萬物의 三體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 물은 江물이 흐를 때에는 모든 것을 똑같이 公正하게 덮쳐 흐른다는 意味에서 法字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三體로 變化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無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쉬지 않고 江물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時間도 흐르고 人生도 흐르고 變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떤 틈 새만 있으면 스며 들어가니 徹底한 眞理를 우리에게 暗示하고, 물은 物質에 따라 凝結作用을 하니 和合團結을 말해 주고, 고인 물은 結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니 우리에게 活動을 하라는 뜻이며, ‘흐르는 江물에서 두 번 다시 그 물에 발을 씻을 수 없다’는 말은 금방 발 씻은 물은 저만치 흘러가 버리고 지금은 上流에서 새로운 물이 흘러 내려 온다는 뜻이니 時間을 아껴 쓰라는 뜻이며, 물은 또 더러운 때(垢)를 잘 씻어내니 人間에게 潔白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물은 모든 生命을 保全해 주나니 우리들에게 仁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空氣를 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空氣의 고마움을 모르
듯이 每日 물로 살고 있지만 물의 고마움을 몰라서야 되겠는
가. 물은 哲學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고마운 存在이다. 요즘
에 各 工場에서도 물이 있어야만 物質을 生産할 수 있다. 우리
는 물의 고마움을 알고, 물은 바로 우리의 生命임을 認識해야
할 것이며 물을 모두가 아껴 쓰기로 銘念해야 할 것이다.

물은 神祕하고 不可思議한 存在이다. 偉大하고도 不可缺한
存在임에 또 한번 驚異를 禁할 수 없다. 물을 所重히 아껴 써
야지.

나는 물이다.

1996年 5月 15日 晚 10時 51分

13. 時間과 空間의 無限한 神秘性

1. 時間

時間에 關해서 爲先 文獻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어느 때로 부터 어느 때까지의 사이
- 2) 空間과 더불어 物體의 存在 變化를 說明하는 必要 條件.
곧 過去와 現世와 未來에 流轉, 連續하여 縱으로 無限한
것. 卽 時間↔空間
- 3) 心和 色이 合친 境界
- 4) 60分 동안

◦ 새국어 대사전 - 진영출판사 刊行

- 1) 어느 때로 부터 어느 때까지의 사이
- 2) 空間과 더불어 物體의 存在 變化를 說明하는 必要 條件.
곧 過去와 現世와 未來에 流轉, 連續하여 縱으로 無限한
것. 卽 時間↔空間
- 3) 佛敎에서 말하는 心和 色이 合친 境界
- 4) 60分 동안

◦ 漢字大典 - 敎育出版工事 刊行

- 1) 時와 時의 사이
- 2) 타임(Time), 空間과 더불어 物體의 存在 變化를 說明하는
必要 條件. 過去, 現世, 未來로 流轉 連續하여 縱으로 無

限한 것. 古今, 年月 等은 그 區分의 稱임. 此概念은 吾人의 心中에 具有한 形式이라고도 말하며 또 俱在 又は 續在 等の 感得에 依하여 抽象에 抽象을 거듭하여 얻어진 것이라고도 말한다.

◦ 廣辭林 - 日本 三省堂 發兌

時間(自然科學上의 時間) - 現象變化의 課程에 있어 事象의 前後를 表示하며 또는 現象 持續의 정도를 나타내기 爲하여 導入되는 量. 古典物理學에 있어서의 時間의 性質은 運動의 法則에서 決定하였다. 卽 普通 週期的인 現象(時間)을 利用하여 다른 時刻에 있어서의 時間을 比較하였다. 이것은 力學의 法則에 依하여 孤立保存系에 있는 週期 現象의 週期가 一定함이 保證되어 있는 곳에 그 根據가 있는 것이다.

이 外에 時間에 對하여는 다른 座標系에 있어서의 同時性이라는 것이 問題가 된다. 古典力學에 있어서는 2點 사이의 距離가 座標系에 依하지 않고 同一하며, 또 運動 法則이 어떠한 座標에 있어서도 똑같은 形態를 保存한다고 한다면 그 結果 同時性은 座標界에 依하지 않는다는 것이 證明된다.

相對性理論에서는 이와 사정이 完全히 달라진다. 特히 一般 相對性理論에서는 空間의 各 點에서 어떠한 構造의 時計를 使用하여도 原理적으로 自由인 것이다. 物理學의 法則은 이 選擇에 關係 없는 一般的 形態로 주어져 있다. 또한 時間에 關하여 이 外에 可逆性, 非可逆性의 問題가 있으며, 이것은 正確히 말하자면 現象의 可逆性, 非可逆

性이라 할 것이다.

· 哲學上的 時間

感覺에 秩序, 統一을 주어서 經驗으로 하는 한 形式, 時間 그 自體로서는 運動하는 事物도 아니고 또 事物의 運動도 아니며, 獨立된 存在者도 아니다. 그것은 停止하거나 또는 運動하는 모든 現實을 包括하는 形式이고 그러므로 옛부터 空間을 時間이라고도 하였다. 그 形式的 性格은 測定할 수 있다는 量의 性格 또 그것의 連續과 非連續에서 보는 二律背反的인 性格 等 空間에서 記述되는 여러 性格과도 같다.

이와 같은 모든 一切의 現實을 包括하는 形式으로서의 時間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및 플로티노스(Plotinos) 以來에 어떤 主觀的인 意義를 가지고 있다고 反省이 되어 칸트(Kant)의 時間論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直觀의 形式으로 보았다. 그러나 生滅流轉하는 現實을 넘어 常住不滅의 實在를 捕捉하려는 形而上學的 立場에서는 時間에 立脚한 現實이란 價值的으로 보아 低位的인 存在領域이며, 超時間的인 永遠한 것에서부터 區別된다. 따라서 時間은 亦是 어떤 意味로는 假現的인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一定하지 못한 解析을 가지는 時間은 近世의 初期부터 特히 空間과 함께 數學化되어 力學의 基礎概念으로서 認識論的, 方法論的으로 反省되어 왔다. 卽 칸트의 時間論에 있어 '時間의 觀念性' 속에는 그것의 主觀的인 現象性的의 뜻 以外에도 客觀的 自然의 認識에 基礎가 되

는 先驗의 原理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렇게 客觀적으로 생각하면 時間은 未來, 現在, 過去라는 流動的인 體驗的 意義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特히 20世紀 初頭부터는 直接 體驗되는 時間現象의 意味 分析을 哲學의 中心問題로 하려는 傾向이 일어났다. 이러한 境遇에는 時間은 等質的인 單位의 連續이라든지, 空虛한 形式이라든지 하는 形式으로 知性化되기 以前의 生活關心 또는 삶의 意味에 充滿되는 構造로 보게 되며, 한편에서는 時間的인 것의 無常性이 強調되는 同時에 다른 편에서는 그것의 飛躍 또는 創造的인 性格이 主張된다. 이것은 베르그송(H. Bergson)의 '純粹持續의 說'에서부터 시작되며 다른 方面에서는 人格의 道德的 또는 宗教的인 決斷의 '瞬間'을 強調하는 廣義的인 實存哲學의 時間論이 이 傾向의 顯著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傾向의 時間論은 처음에 말한 傳統的 時間論이 根本적으로 自然認識을 바탕으로 한 것에 反하여 歷史哲學 方向에 깊이를 둔 것으로서 다시 키에르케고오르(Kierkegaard)나 辨證法 신학에서의 그리스도교 終末論의 信仰을 이 歷史哲學에 結付시키게끔 되었다.

◦ 世界百科大辭典 - 瑞文堂 發刊

以上 文獻으로 살펴 보니 自然科學이니 哲學이니 하여 時間 그 自體의 概念이나 觀念에 關해서 表現되고 있다.

2. 나의 懷疑와 時間考

(1) 時間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時間을 보려고 해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每日 時計를 들여다 보는 것이 卽 時間을 본 것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의 時刻을 나타낸 것이지 흐르는 時間 그 自體는 아니다. 時計는 物體이기에 보인다. 그러나 흐르고 있는 時間은 物體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當然한 일이다.

時間은 分明히 있기는 있되 停止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은 時間 그 自體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現象的인 物體를 통하여 時間이 흐르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日月의 位置의 變化라든가 生物들의 成長 現象 또는 變化, 滅散, 成住壞空 等の 現象 陳出에는 長短은 있을 망정 時間이 필요한 것이다. 아니 時間의 흐름에 따라서 變化가 이루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現象物을 通하지 않고서도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해 보면 지금 時間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抽象的인 느낌이 드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時間이 있기는 있다.

(2) 時間은 언제부터 始作하여 存在하며 또한 언제까지 永續될 것인가?

나는 나름대로 文獻을 찾아 읽고 하였으나 그 어느 冊에도 時間이 언제부터 始作했다는 說明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또 어느 누구로 부터도 時間이 언제부터 열렸는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 大端히 답답한 노릇이다. 想像이나 해 볼까. 아마 數億年 되었을까, 아니 數百億年은 되었을까? 아니 10兆年 아니 數百,

數千兆年은 넘었을 걸? 아니 500京年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想像해 보니 限이 없구나! 明哲한 科學者여 說明 좀 해 주시오. 數字는 얼마든지 記錄할 수 있으니 걱정이 없다. 0字는 얼마든지 無限定하게 붙일 수 있으니까 安心이다. 그럼 이 零字라는 0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붙일 수 있을까? 限定이 없지, 無限定이야! 地球가 있으니 이 地球를 몇 바퀴고 돌면서 零字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數字가 모자라서 못 붙이는 건 아니니까 걱정할 건 없다.

要컨대 時間이 언제부터 시작하여 存在하며 앞으로 언제까지 永續할 것인가 정말 未知數이다. 偉大한 天文學者여, 科學者여 속 시원하게 說明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흔히들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를 分明히 모를 때에는 '無始以來로'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으니 無始以來로라 말하여 그만 말을 덮어 버림이 좋을까?

또 이 時間 自體의 終點은 어느 만치 갈 것인가? 數千億年인가 數千兆年인가. 흔히들 終末論을 말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자꾸나. 終末이란 時間의 終末인가, 地球의 終末인가, 宇宙의 終末을 말하는 것인가. 그 終末의 視點을 分明히 啓示해 줌으로서 愚昧가 啓發되고 그대도 偉大한 存在로서 떠오르지 않겠느냐 말이다. 人類界의 終末을 말한다면 그 人類들은 終末이 그 人類에 對한 時間은 終末일지 모르지만은 客觀的인 時間은 如前히 存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假想하여 張東吉이란 者가 死亡했다면 張東吉의 時間은 終焉되었다손 치더라도 一般的 時間은 如前히 永續되는 것이다. 따라서 時間의 始初와 時間의 未來終焉을 구태어 알아보겠다는 나의 着想부터가 大端히 잘못된 것이다. 에라, 斷念하는 것이 오히려 自然에 順應

하는 道이다. 大宇宙 自然의 神祕의 가족을 벗겨보겠다고 생각한 나 自身이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짓이로다.

(3) 時間은 空間과 더불어 存在하는가, 獨自的으로 存在할 수 있는가?

時間과 空間, 이 둘은 事物을 生成·維持하는데 不可缺의 要素인 것이다. 나는 斷然 又 決然히 말하고자 한다. 空間이 없어도 時間은 存在 永續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例를 들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져도 時間은 健存하며 日月이 있고 없고 간에 時間은 그대로 흐르리라. 萬物이 더해도 덜해도 時間은 흐르리라. 宇宙의 萬物이 다 滅했다 해도, 暗黑 中에도 時間은 흐르리라.

‘時間은 獨立된 存在이다’라고 나는 愚痴하게도 確信하는 바이다.

(4) 時間이 먼저냐, 空間이 먼저냐?

空間이 時間 內에 存在하느냐? 時間이 空間 內에 存在하느냐에 對해서 나는 생각해 본다. 地球의 表面에 섬(島)이 하나 없었을 때에도 時間은 흐르고 있었고, 大陸을 하나쯤 發見하지 않았어도 時間은 存在했으며, 地球가 없었을 때에도 時間은 存在했다고 나는 確信한다. 이 李在萬이가 태어나기 以前에도 時間이 있었듯이 天體全部가 없었을 때에도 時間은 悠默히 存在했으리라고 確言하고 싶다. 時間은 모든 空間이 存在하기 以前부터 흐르고 있었다고 믿는 바이다. 이 時間이 있는 後에 大宇

宙 自然이란 空間이 存在하기 시작하였고, 萬物의 流轉이 行해지기 시작했다고 나는 確念하는 바이다.

時間은 自然의 自然이다. 自然히 흐르는 것을 詩人, 墨客들과 내노라 하는 政治人, 하물며 市長, 郡守 향차 시골 面長까지도 “丙子年을 보내고 새로이 丁丑年을 맞이하여 云云”하고 新年人事를 하곤 하는데 丙子年을 大門밖에 나가서 보냈는가, 握手하고 보냈는가, 큰절하고 보냈는가, 마당뜰에서 보냈는가 말이다. 自己가 어째서 보냈단 말인가. 自然히 자취 없이 소리 없이 사라졌는 걸. ‘丁丑年을 맞이하여 云云’ 하는데 어디까지 가서 맞이했는가 말이다. 江陵에 가서 맞이했는가, 大門 밖에 나가서 맞이했는가, 어떻게 맞이했단 말인가. 하기야 言辭를 展開하다 보면 修飾的으로 그렇게 表現함도 當然하지. 나는 그저 時間이란 題目을 두고 論說하다 보니 言及이 된 것 뿐이라고.

(5) 時間은 空間과 더불어 意義를 지닌다.

나는 時間은 날줄(經度)이라고 想像한다. 그것도 太古 그 以上 옛부터 앞으로도 未來 億劫萬年 縱으로 無限無極으로 連續되는 날줄이다. 이 날줄의 數는 엄청나게 많아서 無量數이며 全域을 덮어 無限히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空間은 無數한 씨줄(緯度)이라고 思考한다. 이 날줄과 씨줄이 合쳐서 交織을 한다고 思考해 본다. 交織되는 그 눈금 마다에 大小 事件이 記錄되고, 好惡의 事物이 點綴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無限無極으로 展開 點綴되어 가면서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無數히 交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時間이라는 點과 空間이

라는 두 個의 點이 한 데 어우러져서 事物이 形成, 發生, 消滅되는 事態가 生成하노니라. 時間의 過去視點과 未來終點은 不可知事이다. 時間에 對해서는 그 始初와 未來終點 等은 아무리 攄부림쳐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이 정도로서 나는 斷念하고자 한다.

3. 空間

空間에 關해서 우선 文獻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上下, 前後, 左右로 無限하게 퍼져 있는 빈 곳. ↔時間
- 2) 쓰지 않는 빈 간.
- 3) 知覺을 通하여 얻은 概念, 空間↔時間 概念.

◦ 새국어대사전 - 진영출판사 刊行

- 1) 집을 쓰지 않고 비워 둔 간.
- 2) 하늘과 땅 사이
- 3) [哲學] 上下, 前後, 左右로 無限하게 퍼져 있는 빈 곳. 時間과 아울러 物質의 存在를 說明하는 必要條件.
空間↔時間.

◦ 漢字大典 - 教育出版社 刊行

- 1) 비어 있는 곳, 빈 틈.
- 2) [Space] [哲學] 時間과 더불어 物體의 存在하는 必要條件, 卽 上下, 四方, 大小, 遠近, 長短, 廣狹 等에 依해서 表言하는 一般無限이며 物體의 延長의 成立이 可한 것.

空間 - 直接的 經驗에 依한 常識的인 概念으로는 上下, 前後, 左右의 세 方向의 넓이를 가지는 곳을 말한다. 이 概念은 바른 意味의 經驗의 對象이라고 말할 수 없다. 心理學的으로 말하면 視覺이나 觸覺 等の 作用에 依한 空間 知覺에 基因하는 空間 表象이며 哲學的으로는 이 空間表象에서 出發한 經驗的 空間을 特殊한 要素에 依해 規定짓는 先驗的 空間과 區別한다.

幾何學的 空間의 概念은 歷史의 흐름과 同時에 變化한다. 처음에는 2次元, 3次元의 유우클릿 空間이 그 對象이었다. 『幾何學原本』에 明示한 平行線의 公理에 對한 疑問點에서 出發해서 그 公理를 變更한 로바체프스키 空間, 리이만 空間 등의 비유우클릿 空間이 생겼다. 한편 데카르트가 해석 幾何學을 創始한 後 유우클릿 空間이 數를 써서 解釋的으로 나타나 研究하게 되었다. 以後 空間은 解釋學과 關連되어 해석학의 對象이 空間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空間의 概念이 擴大되어 N次元의 空間이 創案되었다. 微分幾何學의 對象은 일반의 리이만 空間이며, 相對性理論에도 쓰인다. 비유우클릿 空間 研究로써 發展한 空間은 유우클릿 空間과 함께 벡터 空間으로 되었으며, 無限次元 벡터 空間으로 알려졌던 힐베르트 空間은 量子力學의 研究에 不可缺한 存在로 되었다. 現在의 數學에서는 一般 集合을 空間이라 하고 그 元素를 點으로 하는 抽象 空間이 研究되어 이에 位相을 導入한 位相 空間 或은 線形 空間, 函數 空間 등이 重要視된다. 物理學에서는 統一場理論의

研究에 各種 接續空間을 導入한다.

世界大百科事典 - 瑞文堂 刊行

以上 文獻으로 살펴 보니 空間 成立, 存在와 概念的인 意義에 關해서 說明되어 있고 空間에 對한 느낌 등이 說明되어 있지만 그것은 나의 本質的인 懷疑를 解決해 주지는 못하였다.

4. 나의 懷疑와 空間考

(1) 空間은 눈에 보이는가?

空間은 虛空이기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空間은 分明히 存在한다고 나는 確然히 말하고자 한다. 一切 萬物이 存在한다는 것은 空間이 있기 때문에 空間에 存在할 수 있다. 空間 그 自體만은 別個로 보이지는 않는다. 物體가 存在할 때에 또는 物體 두 個가 사이를 두고 存在할 때에 그 두 個의 物體 사이가 空間이기에 '空間이 있구나' 라고 感知되는 것이다. 卽 비어 있는 곳이 보이니 그것이 空間이라는 것을 抽象的으로 認知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存在하지 않는 곳이 卽 空間이며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空間이다.

空間은 哲學이며 自然科學이며 抽象的인 것이다.

(2) 空間의 概念

내가 空間이라고 생각하는 概念은 時間↔空間으로서 虛空의 無限한 限界와 그 空間 內에 存在하는 空間을 占有하고 있는

一切萬物을 包含하여 卽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一切萬物을 統括하여 空間이라고 보는 概念이라고 說明하고 싶다. 卽 時間과 相對되는 空間을 말하는 것이다. 空間은 自然科學이며 抽象的인 概念이라는 것은 時間과 同一하다고 본다.

(3) 空間은 時間과 더불어 存在하는가? 獨自的으로 存在할 수 있는가?

空間과 時間 이 둘은 前條 (3)項에서 記術하였기에 詳記하지 않기로 하나 時間과 더불어서 空間만이 存在할 수는 絕對로 不可能한 것이다. 空間과 時間이 더불어서 物體의 存在와 變化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空間은 時間 없이는 存在할 수 없어도 時間은 空間이 없어도 存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事物現象을 이룩하는 데는 時空이 合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4) 空間이 먼저냐? 時間이 먼저냐?

이 點도 前條 (4)에서 言及하였기에 여기에서는 省略한다.

5) 空間은 時間과 더불어 意義를 지닌다.

前條 (5)條에서도 略記했듯이 時間은 太古 때부터, 無始以來로 부터 永劫, 未來로 縱으로 連續되어 가는 無限 廣大한 날줄 (緯度)인 것이며, 宇宙 空間의 넓이로 어디든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空間은 씨줄(經度)로써 橫으로 어디 없이 넓게 퍼

져 있다. 이 씨줄과 날줄이 交織되는 눈금 하나 하나로 事物의 形成과 發生, 變化 및 好, 不好間의 事故가 發生하여 人間 全體를 웃겼다다 울렸다다 하는 것이니 過去에도 現在에도 來世에도 그렇게 歷史가 點綴되어 왔고 또 그렇게 點綴되어 가리라.

이 空間과 時間의 交叉點에서의 事件 發生說은 내가 滿 17 歲때에 獨學공부를 하다가 偶然히 생각났음을 이에 밝히는 바이다.

그러기에 事件 發生은 六何原則에 의해 따지고 說明되어야 한다. 이 六何 中에서 때와 場所가 分明해야 하는 것이니 때는 卽 時間이오, 곳(場所)은 卽 空間이다. 時空이 相休하여 事物을 일으키는 要素가 된다.

(6) 空間의 起點은 어디이며 終點은 어디인가? 空間의 距離는?

잘못 思考하게 되면 空間의 起點은 自己가 서 있는(起立한), 卽 발 있는 곳이 起點인 양 번개 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것도 맞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于先 急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自己의 눈앞이라고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空間의 起點과 終點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每事는 自己 中心으로 思考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도 無理가 아닐 성 싶다.

그러나 나는 좀 더 哲學的으로 大宇宙 自然的으로 考察해보자. '英國의 首都인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天文臺」가 起點이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니치 天

文臺는 地球의 表面의 東西를 두르는 起點이며 이 起點은 어디까지나 人間이 決定한 人類間의 約束에 依해서 設定된 것이지 大宇宙 自然이 定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이 人爲的으로 便利上 設定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空間의 넓이와 距離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내가 이곳 땅 바닥에서 空中의 어느 任意의 곳을 向하여 막대기를 세웠을 때 그 막대기의 끝 方向을 向하여 空中을 줄곧 한 方向으로 날면 그 끝이 어디에 있으며 얼마 만큼 날면 또 時間的으로 얼마 동안 날면 끝에 到達할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다. 내가 읽은 冊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어느 書籍에도 空間의 끝이 얼마인가를 明示한 책을 나는 發見하지 못하였다. 또한 어느 先輩님이나 學者들로부터 說明을 들은 적도 없다. 답답하기가 짝이 없다. 自然科學者여! 偉大한 天文學者여! 또한 博識한 哲學者여! 속 시원하게 說明 좀 해 보시오.

空間을 向한 方向은 無盡數로 많을 것이다. 그 많은 各 方面을 飛翔하여 最後 끝까지 가면 몇 千年, 몇 萬年, 아니 몇 千億年, 아니 몇 千兆年을 날아가면 얼마만한 距離의 끝에 가서 到着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궁금한 일이며 답답할 지경이다. 나는 思考를 中止하기로 決心하겠다. 왜냐하면 이 問題는 解決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랜 時間을 날아가도 끝이 없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宇宙 空間의 끝이 있을 리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斷念하고 보니 속은 시원하건만 未解決적인 것만은 不快하기 限이 없구나. 時間과 空間! 두 가지가 다 無限無極의 存在이며 어떻게 보면 뿌영게,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하게 보이는 眞實! 大宇宙와 自然의 眞妙한 眞然 그대로의 存在. 否定할래도 否定할 수도 없는 無限히 흐르면서 時間과 空間이 交織되는 그 눈금 마다에 過去 太古以前부터 얼마만한 많은 사람을 웃겼으며, 또 울렸단 말인가? 어제도 몇 時쯤에 어디에서 새 生命을 誕生시켜 몇 사람을 즐겁게 웃겼으며, 오늘은 어느 時 어느 곳에서 그 어느 늙음을 終結시켜 그 家族들을 哀絶하게 슬프게 울렸는가 말이다.

이와 같이 時間과 空間은 마디 마다에 喜悲哀樂과 憂思恐驚을 되풀이 해 가는구나! 點綴하는구나! 時間과 空間은 歷史를 創出 記錄하는도다. 時間과 空間은 大宇宙 自然이며 神祕한지고, 不可思議한 存在인지고!

얼마 동안 얼마 만치 가면 끝이 닿을지 정말 모르겠다.

時間과 空間! 過去와 未來의 神祕, 不可思議!

1995年 9月 18日

14. 나의 宗教는 佛教이다.

(佛教의 基本的인 要諦 抄錄과 나의 思考)

佛教은 宗教의 하나이다. 먼저 宗教가 무엇인가 알아 보면, 宗教(Religion)는 無限 絶對의 超人間的인 神佛을 崇拜하고 信仰하며 이로 말미암아 善惡을 勸戒하고, 慰安, 安心立命, 幸福을 얻고자 하는 길.

古來로 그 教義, 節次에 따라 佛教, 基督教, 마호메트教의 三大 宗教외에 여러 宗教가 있다. 그렇다면 앞의 '神의 存在論'에서 記述한 바 있듯이 神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는 나 自身이 佛教의 信者가 되었다고 하면, 거꾸로 말하면 佛教 信者가 神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는다면 自己撞着的이며 矛盾이 아닌가 하고 誤解를 할 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佛教은 人本主義이며 또 平等主義이기 때문이다. 例컨대 살아 있는 偉大하고 道德家이며 人類共同體主義者라던가 그런 사람을 崇拜 信仰하는 것과 같다.

人間에게 宗教가 있으므로 해서 心靈的으로 平生토록 中心이 바로 서서 信條있는 生活을 持續할 수 있고, 또 不道德한 心靈적 樣態는 道律的으로 變革되어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佛教信者가 되었다. 아마 9歲 或은 10歲 때인가 先妣께서 “너는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때부터인가 싶다. 그리고 中學校 時節에 學校에서 當番 차례가 되어서 밤에 宿直室에서 자는데 새벽 4時頃에 百楊寺의 鍾소리가 땡땡...하고 처음에는 천천히 울리더니 차차 빠

르고 隱隱하게 들려오는 그 鍾소리가 마음에 들었으며 또 나에게 感銘을 깊게 하였다.

그 後에 절에 間或 들르기도 할 때에 法堂 앞을 지나다가 佛像을 바라다 보면 부처님의 그 仁慈하시고도 尊嚴하신 모습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끌어 들인다. 그러니 自然히 法堂으로 들어 서게 되어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엎드려 拜佛하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절에 가기만 하면 拜佛하는 것은 일찍부터 習慣이 되어 버렸다.

내 나이 60歲가 넘어서부터는 佛敎에 關한 基本的인 書籍을 求해서 읽기도 하며 佛經도 읽고 暗誦하기도 하였다. 書寫를 해 보기도 하였으나 長歲月을 두고 暗誦하지 않으니까 벌써 忘却의 世界로 들어가 버렸다. 내가 佛敎信者라하고 輕妄하게 自處함도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佛敎에 關해서 教義를 남에게 제대로 說明할 수도 없는 無識한 信者이기도 하다. 宗教, 信仰生活을 한다는 것은 徹底히 믿어야 하며 絶對로 半信半疑해서는 信者라 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흔들려서 迷惑의 世界로 빠지게 되기 쉬우니 慎之慎之할 일이다. 나는 절에 들르면 佛像께 拜禮함만으로 佛敎信者라 自處할 따름이다. 그리고 儒敎도 信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佛敎信者라고 해서 다른 餘他 宗教를 絶對로 排斥하지는 않는다. 宗教의 開祖는 훌륭하고 偉大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信仰의 對象은 아닐지라도 尊崇할 줄 아는 常識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男女 佛敎信者가 拜佛하고 祈禱하는 內面的인 目的에 關해서 愚見을 披瀝해 보기로 하겠다. 大體로 男女 信徒들이 佛像前에 설 때에 그 內面的인 마음가짐은 各己 區區하게 다를 것이다. 純粹히 崇佛精神으로 부처님의 眞理를 따르

고 부처님의 德을 기리면서 나의 邪惡한 마음을 여의게 하시
옵고 善良한 德心을 올바로 案內引導해 주셔서 佛教實踐者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純粹祈禱가 있는가 하면 나를 하루 빨
리 億萬富者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는 빨리 進級되어 課長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따위의 欲望祈禱가 있고, 우리 아들
이 今年에 大學校 入學試驗에 꼭 合格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
리 아버지 다리 아픈 것을 하루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救援祈禱도 있다. 欲望(慾心)祈禱와 救援祈禱를 합쳐서 祈福
祈禱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祈禱를 徹頭徹尾하게 精誠껏 오래도록 올리면 반드
시 祈禱한대로 모두가 所願成就되느냐? 絕對로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무리 超人間的이며 全知全能하신 부처님이시더라
도 祈禱를 해도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絕對로 되지 않
는다. 人間이 主體인데 主體인 自己가 힘껏 精誠껏 努力하면
서 祈禱하라. 그러면 所願成就하리라. 祈禱만하고 낮잠 밤잠
다 자고는 또 잘 놀고 하는 사람이 어찌 大學入學試驗에 合格
하겠다는 말인가? 부처님께서도 眞理와 法則을 좋아 하신다.
盜賊이 ‘오늘 저녁 盜賊질이 成功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千
번 萬번 祈禱한다 해도 眞理가 아닌 것을 어찌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아들이 今年에 나이가 20歲인데도 身長이
145cm 밖에 되지 않으니 키를 170cm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
고 빌어도 이것은 부처님의 所管이 아니고 自然의 所管이기에
부처님께 祈禱하지 말라 이 말이다.

그러나 답답하고 窮色할 때에 眞理性이 있고 合理性, 妥當
性, 合法性 있는 것은 祈禱를 하라. 부처님은 慈悲롭고 仁慈하
시니까 말이다. 精誠을 다해서 믿고서 열심히 하라.

다음은 佛敎 月刊誌인 大衆佛敎를 數年間 講讀한 것 中에서, 또 佛者讀誦經이란 冊 中에서, 또 佛敎經典이란 冊 中에서 要諦만을 記錄해 둔 것 가운데 佛敎初歩者에게 參考가 될까 하여 앞뒤 없이 移抄해 둔다. 또 淨土寺에서 每月 郵送해 주는 淨土會報에서 拔萃한 것도 있으며 靑潭스님의 金剛經大講座에서 拔萃한 것도 있다.

◦ 四聖諦

1. 苦 - 苦痛스러운 것 : 四苦(生, 老, 病, 死),

八苦(生老病死 + 求不得苦, 愛別離苦, 怨憎會苦, 五取蘊苦)

生老病死苦 : 태어날 때도 苦痛이요, 삶도 苦痛스럽고, 늙어가는 것도 苦痛스럽고, 죽는 것도 苦痛스럽다. 이 네 가지가 四苦이다. 八苦는 이 四苦에다 다음의 또 다른 四苦를 합치면 八苦이다.

또 다른 四苦는,

- (1) 求不得苦 : 慾心대로 되지 않는 苦痛을 말한다. 富者가 되고 싶어도 얻지 못하고, 아들을 낳고 싶어도 얻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苦痛.
- (2) 愛別離苦 : 가장 사랑하고 所重히 아끼는 것과 離別하는 苦痛,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苦痛과 사랑하는 財物과 헤어지는 苦痛.
- (3) 怨憎會苦 : 怨讐진 사람이나 미운 사람과 만나는 苦痛.
- (4) 五取蘊苦 : 다섯 가지 蘊 卽 色蘊, 受蘊, 想蘊, 行蘊, 識蘊(色, 受, 想, 行, 識)을 말한다.

- 色蘊 : 物體의 形體이며 이 形體들은 마음의 意識作用을 일으킬 때에 눈을 통하여 나타나는 色體를 色蘊이라 한다.
- 受蘊 : 感受作用을 나타내는 것을 受蘊이라 한다.
- 想蘊 : 思考作用을 하는 것을 想蘊이라 한다.
- 行蘊 : 取하고 버리겠다는 意志作用을 하는 것을 行蘊이라 한다.
- 識蘊 : 行蘊을 認識하는 作用을 識蘊이라 한다.

이리하여 바깥 世界와 이 몸의 內部의 모든 機關은 五蘊에 包含되며 集合된다는 것이다. 五蘊은 因緣性的의 法이므로 이러한 五蘊에 마음을 놓아 버리지 않으면 苦痛이고, 이 五蘊에 대해 貪慾과 執着을 버리면 苦를 없애는 因緣이 되는 것이다.

2. 集(苦의 原因), 執着(愛慾의 煩惱, 貪慾)

3. 滅(愛慾의 煩惱와 貪慾을 끊어 없애 버리는 것)

4. 道(滅에 이르는 方法)

이 道에는 八正道(八個의 올바른 길)가 있다.

- (1) 正見 : 四眞理를 바로 보는 智慧 - 바른 見解, 所見.
- (2) 正思惟 : 煩惱, 妄想을 버리고 성냄과 怨恨이 없는 - 바른 생각.
- (3) 正語 : 거짓말, 악담, 이간질, 雜談이 없는 - 바른 말.
- (4) 正業 : 殺生, 盜, 淫이 없는 戒行을 지키는 - 바른 行爲.
- (5) 正命 : 不正한 商行爲, 占장을 떠나 正當한 方法으로

得衣食 - 바른 生活

- (6) 正精進 : 착한 생각, 착한 行動을 持續하는 - 바른 努力.
- (7) 正念 : 생각의 焦點化 心身の 眞理를 正察, 貪慾을 끊는
- 바른 記憶.
- (8) 正定 : 모든 慾心과 散亂한 생각을 鎮定, 禪定에 들어가는 - 바른 禪定.

◦ 五欲 : 人間이 지니고 있는 5가지 慾心

- 1. 財欲 2. 色欲 3. 食慾 4. 名譽慾 5. 睡眠欲

◦ 三界(삼계)

- 1. 欲界 2. 色界 3. 無色界. 이三界라는 모든 存在는 괴로운 것이며 變하는 것이다.

◦ 四無量心(사무량심) : 慈, 悲, 喜, 捨의 네 가지 限量 없는 마음이다.

- 1. 慈 : 菩薩은 惡한 사람을 對할지라도 마음에 差別이 없어서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또 성을 내지도 않는 까닭에 大慈라 할 수 있다. 菩薩은 모든 衆生을 위하여 이롭고, 즐거움이 되지 않는 일은 없애버리고 마는데 이것이 大慈이다.
- 2. 悲 : 菩薩은 모든 衆生을 위하여 利로움과 즐거움을 주는데 이것이 大悲이다.
- 3. 喜 : 菩薩은 모든 衆生에 對하여 마음의 歡喜를 내는 것은 大喜이다.
- 4. 捨 : 菩薩은 모든 一切의 法을 볼 때 平等히 하여 差別

을 두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버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大捨라 한다.

以上 四無量心은 모든 善行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 十八心所緣境

1. 六大 : 地大, 水大, 火大, 風大, 空大, 識大의 6가지 큼이 있다. 모든 衆生과 宇宙는 이 六大의 因緣으로 構成되는 것이다.

2. 六處 : 사람과 같은 衆生들이 가지고 있는 感覺器官으로서 卽 눈, 귀, 코, 입, 몸, 뜻(意)을 6處라 하며 모든 衆生은 이 여섯 가지 感覺器官으로 바깥 世界를 비추어 보고 느끼고 알며 이러한 作用으로 活動하고 있는 것이다.

心所緣境이라는 것은 사람의 6가지 感覺器官과 그의 對象이 되는 바깥 境界의 色, 소리, 냄새, 맛, 觸感, 意識境界 等 6가지 (六境)가 서로 맞대어져 그로 因하여 일어나는 6가지 識別(分別) 作用(六識 卽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을 말한다.

모든 法이란 이 六大, 六處, 十八心所緣境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六根이라 하는 것은 六境에 依持하여 六識을 일으키어 境界를 認識하게 하는 根源으로 眼根, 耳根, 鼻根, 舌根, 身根, 意根을 말한다.

(1) 안근(眼根)은 안식(眼識)을 내어 色境(形體와 색깔)을 認識한다.

(2) 이근(耳根)은 이식(耳識)을 내어 聲境(말과 소리)을 認

識한다.

- (3) 비근(鼻根)은 비식(鼻識)을 내어 香境(香氣와 여러가지 냄새)를 認識한다.
- (4) 설근(舌根)은 설식(舌識)을 내어 味境(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단맛)을 認識한다.
- (5) 신근(身根)은 신식(身識)을 내어 觸境(간지럽다, 따갑다, 무겁다, 아프다)를 認識한다.
- (6) 의근(意根)은 의식(意識)을 내어 法境(정신적, 마음적으로 느끼는 것)을 認識한다.

◦ 十八心所緣境 : 6處(根) + 6境 + 6識 = 18心所緣境이다.

◦ 百八煩惱와 108念珠

佛敎 哲學에 있어서 수민(隨民), 혹(惑), 심예(心穢)의 뜻이다. 이것이 煩惱이다.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해치며 靜寂을 혼드는 여러가지 마음의 作用을 말한다. 梵語 클레사(Klesa)의 譯語이다. 迷理, 迷事の 2種으로 나누어지며, 前者는 見惑, 四諦의 理에 當황하는 見道所斷의 煩惱를 말하며 後者는 修惑, 物件의 事相에 눈이 어두워져 境界 때문에 괴롭히는 修道所斷의 煩惱를 가리킨다. 또한 煩惱에는 貪, 瞋, 癡, 慢, 疑, 見 6種을 들어 이것들은 여러 惑의 根本이기 때문에 根本煩惱라고 한다.

다음은 108念珠에 關해서 略記해 보면 衆生들은 눈(眼), 귀(耳), 코(鼻), 입(口), 몸(身), 뜻(意)의 여섯 가지 器官을 통해서 6境 卽 色, 聲, 香, 味, 觸, 法을 認識하는 것인데 이 6境(또는 6塵이라고 말한다)을 接하면 6塵 各各마다 苦, 樂, 捨, 好,

惡, 平의 여섯 가지의 心靈的인 느낌이 反射的으로 反應되는 것이다. 그러니 6塵이니까 1塵마다 6가지 苦痛이라면 6塵이면 $6 \times 6 \text{塵} = 36$ 卽 36가지의 苦痛이 된다. 모든 衆生은 前生, 現世, 未來의 三世가 있기 때문에 $36 \text{苦痛} \times 3 = 108 \text{苦痛}$ 이다. 前生에 36苦痛, 現世에서 36苦痛, 來世에 36苦痛, 合計는 108苦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8念珠다.

◦ 形相은 다만 空이고 空은 오직 形相이다.

(Form is only Empriness, Empriness only Form.)

◦ 釋迦牟尼佛의 三處傳心(세 곳에서 마음을 傳했다)

(1) 舉拈花(거념화) : 많이 들어온 꽃 中에서 한 송이를 들어 大衆에게 보였다. 加減尊者가 그 뜻을 알고 소리 없이 웃었다. 舉拈花(들어올릴 거, 집어들 념, 꽃 화 : 꽃을 집어 들어 올렸다). 이것은 眞理의 表示, 無常의 뜻을 以心傳心하신 것이다.

(2) 多子塔前分半坐 : 多子塔 앞에서 說法을 하려 하실 때 加減尊者가 늦게 와 보니 앉을 자리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앉은 자리 半을 조금 한쪽으로 비켜주셨다. 慈悲를 表示하는 마음, 同事.

(3) 槲示雙趺 : 부처님 涅槃하셔서 火葬(火葬)하려고 하는데 加減尊者가 와서 아직 그 下體에 불이 붙지 않은 발 있는 槲쪽에 가서 이마를 대고 痛哭하니 두 발이 槲에서 밖으로 쑥 나왔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았다. 生死一如라는 뜻이다.

- 카플로 스님의 說法 : 空, 佛性, 神, 하나님 등은 모두 共通 意味를 지닌 異音의 言語라고 小僧은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리들 人間이 만들어낸 單語이다.

自然選擇과 宇宙創造說의 否認

- 適切한 措置와 對應하는 適應的 行爲에 依해서 自然의 選擇이 되어 自然의 保護를 받고 適者生存한다.

1993年 9月 2日 午前 3時 47分 李在萬의 着想

- 創造主의 宇宙 創造說에 가장 먼저 挑戰狀을 낸 사람은 「種의 起源」을 쓴 찰스 다윈이다. 進化論을 展開하고 創造主의 宇宙創造說을 否認했다. 다윈 以後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도 自然選擇(適者生存)이란 理論을 展開하여 宇宙 創造說을 否認했다. 進化論을 展開한 찰스 다윈과 自然選擇論을 展開한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 등 自身들도 “生命의 神祕에서 깊은 畏敬을 보고, 畏敬感 속에서 奧妙한 神性を 느낀다”고 말했다.

※나의 思考 : 나는 위의 두 分의 學說에 矛盾을 느낀다. 分明히 造物主의 宇宙創造說을 否認했다면 造物主도 否認한 것이 아닌가. 造物主의 實存을 그 누가 物證的으로 證明할 수 있는가? 人間이 無知하기에 스스로가 想像的으로 案出해낸 것이다. 造物主를 認定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神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神性を 느낀다 하면 神을 認定하는 것도 아니고 神을 認定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隱然히 神을 認定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 奧妙하고 神祕하다는 것은 大宇宙 自然 그 自體가 本來 지니고 있는 特性이라고 나는 보는 바이며, 不可思議한 것은 大宇宙 自然의 特質이라고 볼 뿐이라야 한다고 본다.

◦ 菩薩摩訶薩

菩薩 : 菩提薩埵의 준말. 菩薩은 깨침.

菩提薩埵 : 깨친 衆生.

◦ 摩訶薩 : 큰 菩薩

◦ 滅度 : 大解脫

◦ 涅槃(열반) : Nirvana, 煩惱妄想을 여의고 生死를 解脫한 最高의 理想.

◦ 泥洹 : 翻譯하여 滅, 寂滅, 滅度, 圓寂이라 한다. 不生不滅의 法을 體得한 境地. 迷妄의 生死를 超越하는 것.

◦ 至道無難(지도무난) : 道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 唯嫌揀擇(유협간택) : 오직 좋고 나쁨을 가려내기를 싫어하라. 사랑과 미움, 아름다움과 추함, 즐거움과 슬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 不貪愛憎洞然明白 : 사랑과 미움을 貪하지 않으면 흰히 뚫려서 밝아진다.

◦ 樂而不流(낙이불류) : 즐겁다고 해서 지나치게 흐르지 말 것이며

◦ 哀而不悲(애이불비) : 슬프고 애답다고 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다.

樂而不流요, 哀而不悲라.

◦ 次元世界

- (1) 一次元世界 : 前後進行(汽車) - 直線的
- (2) 二次元世界 : 前後左右進行(自動車) - 平面의 世界
- (3) 三次元世界 : 左右 前後 上下 進行(立體的), 宇宙, 飛行機, 十方世界 - 立體的 世界
- (4) 四次元世界 : 精神世界, 時間世界라고도 한다. 李廣이 범이라고 보고 활을 정성껏 힘껏 쏘았더니 화살이 꽂혔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바위였다. 이런 것이 精神一到 金石可透(정신일도 금석가투) 卽 精神이 한번 強해지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 (5) 千次元, 萬次元으로 次元이 높아지면 見性이요, 깨달음이다. 부처가 된다.

◦ 無爲自然法 : 老子, 莊子의 思想이기도 하다.

因緣으로 생기어 났다 없어졌다(生滅)하는 것이 없는 法. 있다, 없다(有無)의 法이 相對性 原理라면 이 相對性 原理를 超越한 絕對 境界의 法을 뜻한다. 곧 無爲의 法을 말하며 無爲는 梵語 Asamskrta 곧 모든 法의 眞實體를 가리킨다.

爲는 爲作, 造作의 뜻이니 곧 因緣의 造作, 相對 世界의 人爲的 行爲를 超越했다는 뜻으로 無爲라 한 것이다. 成住壞空(성주괴공), 生住異滅의 變遷을 하는데 이것을 解說한 涅槃, 實相의 世界는 하는 것이 없고(無爲), 造作할 것이 없는 境地이므로 無爲法이라 한다.

생각을 超越하는 거기서부터 聖賢의 地位가 始作되는데 52位나 올라가야 부처님이 된다. 老子는 12位까지 올라갔

다고 본다.

孔子 : 四書三經의 內容을 보아 無爲法의 깊이를 깨달은 정도가 菩薩의 52位說에 對照해 보면 老子的 境遇보다 못한 것으로 判明됩니다.

- 七寶 : 金, 銀, 琉璃(유리), 瑪瑙(마노), 玃据(현거), 珊瑚(산호), 眞珠

- 娑婆(sabha)世界 : 忍土. 苦海에서 苦痛이 많지만 참고서 살아가는 땅, 世上. 堪忍土(감인토) : 苦의 世界이지만 堪耐하며 참고 살아가는 땅(世上)으로 忍界라 翻譯한다. 우리가 사는 此世界, 衆生은 十惡을 참고 견디며 또 이 國土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으므로 自然히 衆生들 사이에 참고 견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으로 또는 菩薩이 衆生을 教化하기 爲하여 手苦를 견디어 받는다는 뜻으로 堪忍世界(감인세계)라고 한다.

- 카악人間 : 獨逸의 精神醫學者인 ‘프린츠 홀른’은 말하기를 母性原理의 人間을 ‘카악人間’이라 表現했는데 感情대로 남을 配慮하는 가슴(마음)이 退化하고 本能的 生殖器만 머리에 달려 있는 물골의 人間들을 말한다.

- 眞空妙有(1)
마음 바탕에 宇宙가 다 들어 있다. 卽 無限界가 있다. 有無, 大小(있다 없다, 크다 작다)는 眼(眼)이 속은 것이다. 有無, 大小, 來往, 生死 等은 皆是妄想(相)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뿐이다.

- 큰 독이 간장 종지·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道理가 마음 법이다.
- 크다는 것도 거짓말로 큰 것이요, 작다는 것도 거짓말로 작은 것이니
- 크다는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이고 작다는 것은 큰 것으로 작은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다 꿈이기 때문이다. 꿈으로 크고 꿈으로 작은 것이다. 妄想은 꿈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지 참말로 큰 게 아니고, 작다고 생각하는 간장종지도 우리의 생각이지 實際로 작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의 神通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華嚴의 道理가 아니면 참말로 成佛할 사람도 없고 佛法을 얻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物質 自體도 眞空妙有이다. 있긴 있되 眞空으로 있는 거고 事實로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있기 때문에 妙有(妙하게 있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무 것도 없는 데라 하여 아주 없는 거냐 하면 그건 없는 걸로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고 卽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있어도 거짓으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거냐 하면 또 이게 바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참말로 없는 것이며 없는 걸로 없는 그것은 없는 걸로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의 存在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있다고 하려면 妙有라고 하고 眞空妙有의 存在라고 한다.

- 불란서의 科學者인 라보아제는 “어떤 것도 創造되었거나 어떤 것도 破壞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 中國의 格言 : “當身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삶의 시작이다.”
 - 萬一 우리가 觀世音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 볼 때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가 全宇宙가 된다. 그 머리 위의 머리카락 하나가 궁극적으로 實體 안으로 들어가는 門이 될 수 있다. 머리카락 하나가 神의 王國 그리고 淨土가 될 수 있다. 當身이 自身, 먼지 하나 그리고 모든 것들과 共存하고 있음을 볼 때 當身은 그것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먼지 하나 속의 原子가 그들의 電子와 더불어 核을 1抄에 18萬마일을 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 여기서 法들은 事物이다. 法은 眞理이다. 모든 存在와 現象의 眞理이며 眞理가 바로 法이다. 한 사람이 法이다. 한 그루의 나무도 法이다. 眞理이다. 한 조각 구름도 法이다. 햇빛이 法이다.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法은 빈(空) 性品으로 表示되었습니다”라고 말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빈(空) 性品을 그 自體의 性品으로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 眞空妙有(2)

本性이 있기는 있는데 物質로 있는 게 아니고 없는 虛空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妙하게 있다. 그러므로 妙有라고 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쳐다 볼 수도

없고 들어 볼 수도 없고 대질러 볼 수도 없고 그러니 이런 면으로 보면 眞空이다. 그래서 眞空妙有이다. 眞空자리 本性이 能히 一切萬有를 合攝하므로 眞空妙有라 한 것이다.

- 不貪夜識金銀氣(불탐야식금은기) : 탐욕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金과 銀의 빛을 알 수 있다.

- 遠害朝看麋鹿遊(원해조간미록유) : 남을 훌륭게 할 마음을 멀리 하면 아침에 고라니와 사슴을 볼 수 있다. 해할 마음이 없는 줄을 알고서 고라니와 사슴이 사람 가까이 오니 볼 수 있다.

不貪夜識金銀氣요, 遠害朝看麋鹿遊라.

不貪 : 慾心과 貪하는 마음이 없음.

遠害 : 짐승을 죽이겠다, 남을 해치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

- 無實無虛(무실무허) : 實利를 얻은 것도 없고 얻지 않은 것도 없다. 卽 얻었다는 말.

無實 : 마음을 여의었으므로 菩提를 얻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았으니 卽 얻은 것이 없으니 實利가 없다는 뜻.

無虛 : 마음을 모두 여의고 菩提를 얻었으니 虛無하지 않는 뜻. 卽 菩提라는 實利를 얻었다는 뜻.

-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 모두가 마음에서 出發한다. 마음으로 만든다. 맛있다, 쓰다, 아름답다, 추하다, 사랑한다, 미운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마음의 所作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만든 마음과 만들어진 客觀이 있게 되어 거

기에는 主觀, 客觀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 一切唯心이라 오직 마음 뿐이다. 一切가 마음이다. 그러므로 一切(모두)가 佛法이다. 主觀이 곧 客觀이고 距離가 없다.

◦ 부처님의 誕生과 涅槃

- 誕生(紀元前 624年 4月 8日)

룸비니 동산에서 摩耶夫人께서 無憂樹 나무가지를 잡고 解産.

- 出家(紀元前 595年 2月 8日)

- 成道(紀元前 588年 12月 8日)

부다가야의 菩提樹 나무 아래서 成道하시다.

- 涅槃(起元前 545年 2月 15日)

구시나가라城에서 西頭南向臥로 涅槃하시다.

◦ 八萬大藏經에는 緣起論과 中道論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없다.

◦ 佛教의 緣起論과 中道論

- 緣起論 - 佛教의 原理를 說明한 部分이다.

- 中道論 - 佛教의 實踐을 說明한 部分이다.

- 若見緣起(약견연기) : 만약에 緣起를 보면(알면) 便見法(편견법), 能히 法을 불(알) 것이다.

- 此有故彼有(차유고피유) : 이것이 있는 까닭에 저것이 있다. ~緣起

- 此起故彼起(차기고피기) : 이것이 일어나는 까닭에 저것이 일어난다. 서로 어울려서 일어난다. 사라지는 것도 서

로 어울려서 사라진다. 因緣生起, 無始無終

- 無常(무상) : 부질 없는 것이요, 덧없는 것이다. 있는 것에도 執着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도 執着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中道이다. 自由自在다. 모두 超越했다. 有無도 超越하고 富貴, 貧困도 超越하고 好惡(좋고 나쁜 것)도 超越했다.
- 愛憎(애증) : 사랑함도 미움도 超越한다. 氣分 좋다고도 하지 않고 氣分 나쁘다고도 하지 않는다. 즐겁다고도 하지 않고 괴롭다고도 하지 않는 것이 中道이다. 이 中道論은 佛教의 實踐을 어떻게 하는가에 對한 論題이다. 사람을 差別하지 않는 것도 中道이다.
- 蓮꽃 : 부처님의 象徴이다. 誕生하실 때 蓮꽃이 솟아나서 부처님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 菩提樹 : 부처님께서 解脫(깨달음)하시고 成佛하신 것을 뜻함.
- 三法印 : 佛教의 宇宙觀, 緣起法을 說明한 것이다. 印은 確實한 眞理다. 틀림 없는 眞理다. 즉
 - (1) 諸行無常(제행무상) : 宇宙 世界 萬相의 眞理는 모든 것이 無常하다. 모든 돌아가는 現象은 덧없다고 하는 것이다.
 - (2) 諸法無我(제법무아) : 모든 現象은 하나 하나에 어떤 實質的인 物體가 있고 實質的인 本質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環境에 依해서 생겼다가 어떤 環境에 依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하나에 實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佛教의 無我이다.

(3) 涅槃寂靜(열반적정) : 佛敎에 無常論과 無我論이 있는 反面에 그 根本 眞理는 恒常 無와 有를 超越하여 늘 高요하고 實相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것이 涅槃寂靜이다.

以上 三法印은 佛敎의 因緣法을 說明한 것이다.

- 極樂世界와 十萬八千里의 西天西域國이 어디에 있는가?
(李在萬 註)

極樂世界는 安樂하고도 사람이 바라는 理想世界이다. 限없이 苦痛을 받는다는 暗黑世界인 地獄의 反對가 極樂이다. 그러나 이 모든 境地가 人間이 이름 붙인 想像의 世界이며 生存時에 善을 勸하고 惡行을 警戒하는 뜻에서 脅迫성을 나타내는 世界이며 極樂世界는 勇氣를 주어 勸善하는 方便的인 想像世界이다. 實存하지 않는 世界이다. 極樂世界를 갔다 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 보지 못하였다. 極樂世界와 地獄은 各 個人의 마음 가운데에 自己 마음으로 因해서 있게 되는 것이다. 一切唯心造이다. 10萬 8千里의 西天西域國은 우리나라에서 西쪽으로 그만치 멀리 가면 西洋을 지나서 大西洋을 거쳐서 美國쯤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 西天西域國도 마음 가운데 깊숙히 있는 나라라고 보면 옳을 것이다. 修道하는 濃度가 진할 수록 마음 깊숙히 10萬 8千里에 到達하여 成道하게 됨을 말했을 것이다.

- 毘盧舍那佛 : 釋迦牟尼 부처님의 永遠한 生命 自體의 表現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 阿彌陀佛 : 極樂世界的 衆生을 說法 教化할 때에는 釋迦牟尼 부처님 自身이 阿彌陀佛로 나타나신다.

◦ 一切唯心造의 出處

一切唯心造는 佛敎의 思想이며 哲學이다. 朝夕禮佛의 「새벽췌송」(朝鍾聲)에 나오는 語句이다. 寺刹에서 朝夕으로 鍾을 치는데 아침에는 새벽 4시에 普通 鍾을 치며 寺刹에 따라서 다르다. 새벽 鍾을 칠 때에 讀經하는 經文에,

願此鍾聲遍法界 鐵圍幽暗悉皆明

(원차종성변법계) (철위유암실개명)

三途離苦破刀山 一切衆生成正覺

(삼도이고파도산) (일체중생성정각)

南無毘盧教主 華藏慈尊 演寶偈之金文

(나무비로교주) (화장자존) (연보게지금문)

布琅函之玉軸 塵塵混入刹刹圓融

(포랑함지옥축) (진진혼입찰찰원융)

十兆九萬五千四十八字 一乘圓教

(십조구만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大方光佛 華嚴經 第一偈

(대방광불) (화엄경) (제일계)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라고 되어 있다.

◦ 釋迦牟尼부처님께서 分身으로 나타나신다. 分身은 教化하는 方便이다.

◦ 有餘涅槃과 無有餘涅槃

涅槃이란 ‘승려가 죽음’, 卽 ‘道를 이루어 모든煩惱와 苦痛이 끊어진 境地’를 말한다.

有餘涅槃 : 살아 있을 때 道를 이루어 涅槃寂靜의 境地에 들어 갔으나 아직도 餘生이 남아서 살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즉 부처님.

無有餘涅槃 : 죽는다는 말(스님, 大師, 부처님의 돌아가심을 말한다.)

◦ 不二門 : 生死가 둘이 아니고 有無가 不二(둘이 아니고)고 現世 未來가 둘이 아니고 完全히 하나의 佛法 世界로 들어간다는 뜻.

◦ 合掌 : 흩어진 마음을 한 데 모으는데 意義가 있다.

◦ 大乘三部經

(1) 法華經 : 부처님의 根本立場(마음)을 밝힌 經典이다.

(2) 華嚴經 : 모든 菩薩들의 慈悲實踐으로서 菩薩行을 말씀하고 있다.

(3) 金剛經 : 解脫을 말씀하고 있다.

◦ 般若 : 智慧, 最上智, 解脫之見.

◦ 摩訶(마하) : 크다. 時間的, 空間的으로 永遠無限이다.

◦ 天上天下 唯我獨尊(천상천하 유아독존) : 하늘 위와 땅위에 오직 나만이 높고 尊貴하다.

釋迦牟尼부처님께서 태어 나실 당시 四方 일곱 걸음을 걷고는 서서 한쪽 손은 위로 또 한쪽 손은 아래로 가리키며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데 天上天下에서 오직 나 혼자만이 尊貴하다고 表現하셨지만 내가 모든 衆生の 苦痛과 煩惱에서 救濟해 줄테니 衆生들은 나를 따르라는 뜻이며 또 모든 衆生은 사람마다 佛性을 지니고 태어 났으므로 사람마다 各己가 다 尊貴하다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 有求皆苦 無求皆樂(유구개고 무구개락) : 慾心이 있으면 모두가 다 苦痛이요, 慾心이 없으면 모두 다 즐겁다.

※ 나의 思考 : 一般 衆生들은 어떤 사람은 위로 父母를 모시고 侍奉하면서 또 膝下 兒孫 等 妻子眷屬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衣食住에 關한 諸般 物資를 求得해 時時刻刻 日日月月 그리고 年年歲歲의 生活을 維持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니 必要한 것을 아니 求할 수는 없는 것이다. 佛敎에서의 論說의 ‘有求皆苦 無求皆樂’이란 말은 盾循性을 發見할 수 있다. 衆生은 生活에 꼭 必要한 物資를 求得하지 못할 때가 바로 苦痛이요, 求得했을 때는 樂일 것이다. 父母님께 供養을 提供해 드렸을 때가 樂이요, 못했을 때는 苦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論說의 本旨는 必要 以上の 不道德한 貪慾을 버리고 正當性과 合理合法性을 尊重하라는 것이다. 卽 非道德의인 盜賊질, 詐欺 等 惡行的인 貪慾을 버리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기에 自古로 佛道生活을 하려면은 獨身生活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佛敎生活을 하는 사람도 먹어야 活動하는 法이니 食糧을 求得해야만 樂이다.

그리고 衆生들 중에는 備蓄과 預蓄을 좋아하는 이가 많다. 正當한 道德으로 入手된 金錢이나 收穫物은 預金하고 또 倉庫에 貯藏하기를 좋아한다. 人生의 未來는 不可知라. 困窮할 때나 危急할 때에 使用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그 누가 나쁜 짓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各自가 自己人生은 自己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 如來(여래) : 이와 같이 훌륭하게 된 사람. 如是 眞如이다.
- 佛陀는 智慧와 慈悲의 兩足에 依해서 있는 것이다.

◦ 四攝法

- (1) 布施 : 남을 慈悲心으로 對하고 物質法施를 布施라 한다.
- (2) 愛語 : 恒常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남을 對하는 것.
- (3) 利行 : 恒常 남을 爲해 利益되게 하는 것.
- (4) 同事 : 彼我的 區別없이 他人과 苦樂을 함께 하고 協力하는 것.

◦ 四相(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四相을 지니면 衆生이고 四相을 버리면 菩薩이다.

- (1) 我相 : 迷한 사람은 財産이나 學問과 좋은 身分이 있는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나' 라는 觀念의 我相이다.
- (2) 人相 : 仁義禮智信의 道義를 實踐하더라도 그 뜻이 驕慢하여 自己를 높일 뿐, 一切衆生을 恭敬할 줄 모르므로 곧 人相이다.

- (3) 衆生相 : 좋은 일은 自己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주는 것이 바로 衆生相이다.
- (4) 壽者相 : 客觀의 境地를 對하여 取하고 버리며 分別하며 살아야 한다는 觀念 그것이 곧 壽者相이다.

15. 思考의 片鱗들

• 거울

- 1) 한달에도 두어번씩 들여다 보는 거울엔
초라하고 못난 얼굴 기막히게 수척하네
얼마나 쌓였던가 가시밭길 사연들이여
푸리죽죽한 육체일망정 신령만은 생생했으면
그래도 후세에 가선 손가락질은 없을텐데
- 2) 홀로 있을 땐 고독일랑 느끼지는 않았는데
대중 속에선 지독하게 사무치는 쓸쓸함이여
내 탓이냐? 네 탓인지 나도 몰라 하면서
시름 없이 넘겨 보내는 무한한 세월 속에
아아 홀로 즐길 수 있는 건 역시 고독인가?

83. 7. 9 土曜日 11時 30分

• 苦笑의 敗北(人生形成의 問題點)

저 소리 왁자지껄. 오! 우훅! 왁웁! 야! 야!
“용감도 하구나. 좀 더 크게 외쳐라!
지구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못 들을라.

교실에서, 복도에서, 나들간에서, 더 용감하게!”
“그 쯤 떠들어서는 용감하지를 못해!”
“더 크게 고향치고 볼거다, 그치?”
“야, 임마 맹천아 이리왓!” 그렇게 말이야.
저 소리 쿵 왈가닥, 쿵닥 쿵닥 뛰어라.
더욱 씩씩하게 뛰고나 볼거다.
힘을 다해서 달나라 우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시리.
안 뛰는 놈 바보지, 못났지. 내 세상이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계단에서 뛰어라.
더 높이 뛰고 볼거다. 그리고 빨리.
요렇게 뛰다고 어디 마루장이 꺼질라구.

83年 7月 11日 점심시간

· 허물들이 비치네

요즘은 아침마다 자주 들여다 보는 거울
넥타이를 걸어야 신사인가 교장이런가
하기야 남들이 다하는 세속이기에
초라하고 못 생긴 내 얼굴 주름 투성이.
지나간 과거여, 그 얼마나 눈물 머금었던가.
그 얼마 만큼 슬픔을 삼켰던가.
시련의 높이여, 안녕! 永遠히!
내 거울엔 매일같이 주름만 늘어나네.
내 마음이 더욱 죄스럽게 비치네.
알알이 다 비치네 지난날의 허물들이

승고한 이성이여, 내 가슴에 잠드소서. 부디.

84年 10月 23日 朝 7時 10分

• 이 슬

“안녕하세요.”

“아이, 교장선생님이시군요.”

의자에 앉은 채 빠꼼히 쳐다 보는 여선생님의 인사.

그 미소마저 냉랭한 찬바람을 머금고 있었네.

감정의 표출이 빠르군. 솔직하게 빠르군.

어리석도다. 그대여, 제발 행복하소서.

“내가 뭔데, 이제는 우리 교장은 아닌데 뭐.”

그랬던가. 아, 그렇군. 아니지.

식견 결핍증에 걸린 내가 그렇게 추념해 보았던가?

어리석음을 지꼈었던가. 잘못일세. 암, 내 잘못이지.

자취 없이 내려 소리 없이 앉는 밤이슬이여!

적시다 못해 함초름히 꽃잎에 담긴 이슬이여! 풍요한 사랑
이여!

적막한 심야암에 고독한 꽃잎을 달래주는 이슬.

그대는 사랑과 인정을 펴시네요.

자연의 계시인가 섭리런가.

그대도 자연이요, 나도 또한 자연이외다.

생의 넋을 달래주는 위대한 자비여! 신비여!

그래서 시공(時空)이 억만겁토록 계속되는가 보지.

이슬이여, 대자연의 섭리를 내뿜는 자애로움이여,

그대 위대하도다. 성스럽도다. 찬란하도다. 존귀하도다.

그 선생님이시여! 아니 모든 인류들이여!
마음은 이슬 같았으면...
자애와 정감어린 이지구존(理知具存)의 마음씨!
그리고 심장의 한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바름과 참의 미소였
으면...
그대 행복할지어다. 나도 행복할지어다.
남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인간은 못되게 생겨 먹었어.
정말 나는 알밋기도 하지.
그대의 가슴에 안개 걸렸으라.
이 마음도 이슬 같았으면.
이슬!

83年 10月 3日 밤 10時 30分6. 無常有感

가꾸는 마음(樹木愛護)

작 사 ; 呂川國民學校長 李在萬

작 곡 ; 呂川國民學校長 李在萬

산들 산들 봄바람에 하늘거리며
아침햇빛 들판 받아 푸르른 잔디
즐겁다 그 춤을 추는 우리 나무들
언제나 우리들을 즐겁게 해
키-업고 아름답다 멋진 나무-들
파란 잔디 고운 잔디 우리 마음 같-에
오-늘도 사랑하며 힘써 가꾸자
우리 모두 나-무잔디 힘써 가꾸자

文化人은 나무 잔디를 잘 가꾸고 아낀다.
施設展開 狀況을 外觀的으로 살펴보면
그나라 사람들의 精神文化를 짐작할 수 있다.
나무 잔디 사랑은 情緒教育으로 始作된다.

이 樂譜는 著者가 직접 작사·작곡한 '가꾸는 마음' 原本임.

· 無常有感

宇宙萬物現象然	其性實相虛空真
億兆諸事應時起	本無根基終消散
凡色聲香味觸法	一切如霧夢昧幻
喜努憂思悲恐驚	皆時如露煙泡電

· 地球轉

今天是時地球轉	諸事萬象應刻變
---------	---------

· 廣州安氏 梅竹軒 追慕錄

凡西面 望星里 玩溪亭

創建玩溪歲久深	重修今到後孫尋
松盤幽谷臨仙座	竹帶清江欲洗心
倡義勳功參錄登	死生偉蹟振高音
蔚州勝地新裝處	賀禮登軒奏一琴

庚午年(1990) 1月, 慶州后人 春溪 李在萬 謹稿

· 謹次七賢祠中建韻

在梁山(蔚山 楊亭柳氏)

重建此祠已積年	七賢扁額舊衣然
龜山復起臨村池	洛水添明到廟筵

• 李在萬 自敘傳

偉祖忠心登史載
秋霜春露茨壇處

仍孫孝悌列先連
追慕士林萬歲傳

辛未年(1991) 1月, 慶州后人 李在萬 謹稿

• 謹次靜軒 李相洛 先生 晬韻

鐵樹開化六十春
壯年背井離鄉後
琴瑟雙絃歡壽奏
如流歲月誰能拒

芝蘭馥郁拜迎親
白髮孤年接物新
斑衣彩舞賀杯伸
泉石詩書永又真

辛未年(1991) 5月, 慶州后人 李在萬 謹稿

• 河沙亭落成韻

江東面 於勿里 琴川村 黃性運 氏

壯嚴先亭構江東
鄉林雲集講鄒魯
東海蒼波年年綠
乘繼遺業益日興

至誠凝結現此同
尊靈恒留此堂中
孫孫追念歲歲紅
芝蘭熏香永却通

乙亥年(1995) 臘月, 慶州后人 李在萬 謹稿

16. 俗談·格言·故事成語

한국의 속담

俗談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진리를 감명깊게 짚막하고 깔끔한 표현으로 나타낸 格言인데 거기에는 대개 날카로운 諷刺나 유우머(humour)가 들어있다.

- 푸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 장래 可望性이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알아본다는 말.
- 仲媒 보고 기저귀 장만한다. - 準備가 너무 빠르거나 일을 급히 서두를 때 이르는 말.
- 오뉴월 쇠불알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 到底히 이루어질 수 없는 虛妄한 慾心을 내는 사람을 嘲弄하는 말.
- 三角山 밑에서 잔물 먹는 놈. - 人心이 사나운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란 뜻으로 앙큼스럽고 매정한 사람을 말함.
- 삶은 팔이 새씩 나거든 - 도무지 期待할 수 없는 모양.
- 三年 묵은 말가죽도 오롱조롱 소리 난다. - 봄의 氣運이 發動함에 萬物이 다 活動을 開始한다는 말.
-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虛勢를 부린다. 또는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勇斷을 내어 큰 일을 한다.
- 가는 년이 물 길어다 놓고 갈까. - 이미 일이 다 틀어져서

그만 두는 터에 뒷일을 生覺하고 돌아볼리 萬無하다.

- 鄉廳에서 開閉門하겠다. - 開閉門은 太守衙門에서 하는 것인데 이를 시골 鄉廳에서 行하겠다 함은 權限 밖의 일을 한다는 뜻.
- 허허해도 빛이 열닷 냥. - 겉으로는 快活하고 樂天的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말 못할 딱한 사정이 있다는 말.
-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러다. - 賂物을 써 通해 놓으면 일이 順調롭게 잘 된다는 말.
- 기와집 물려 받은 子孫은 祭祀를 두번 지내야 한다. - 草家집 지붕 이기가 귀찮고 힘이 든다는데서 나온 말.
- 길 아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 男便이 쫓을 얻으면 아무리 溫順한 아내라도 성을 낸다는 말.
- 길쌈 잘 하는 妾 - 길쌈 잘 하는 妾이 어디 있으랴 하는 뜻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함.
- 麒麟은 잠자고 시라소니가 춤춘다. - 聖人은 깊숙이 들어앉아 活動을 하지 않고 奸惡하고 無能한 사람이 날뛰는 말.
- 당나귀 하품한다. - 당나귀가 우는 것을 보고 귀머거리의 하품하는 줄 안다는데서 귀머거리를 嘲弄하는 말.
- 매달린 개가 누워있는 개를 웃는다. - 남보다 못한 形便이 면서 남을 오히려 비웃는다는 뜻. 똥 묻는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 法 모르는 官吏가 불기로 威勢를 부린다. - 實力이 없고 自信이 없으면 空然히 애매한 사람을 치는 것으로 일을 얼버무린다는 말.
-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 - 서투른 솜씨로 어려운 일을

하려다가 도리어 잘못됨을 이르는 말.

- 종년 姦通은 소 타기. - 무릇 地位나 權勢로서 일을 하기는 쉽다는 말.
- 시어미 미워서 개 옆구리 찬다, 시어미 역정에 개 밥그릇 찬다. - 윗어른에게 꾸지람을 듣고 화풀이는 다른 곳에도 함을 비유하는 말.
- 努力은 天才를 낳을 수 있어도 天才는 努力을 낳을 수 없다. - 무슨 일을 이루는데는 天才보다 努力이 더 必要하다는 말.
- 굵은 나무가 先山을 지킨다. - 쓸모없는 것이 도리어 소용이 된다는 말. 자손이 貧寒해지면 先山의 나무까지 팔아버릴수가 있으나 줄기가 굵어 쓸모없는 나무는 그대로 남게 됨으로 이렇게 말함.
- 굵은 지팡이는 그림자도 굵어 비친다. - 제 本來의 모습이 좋지 않은 것은 숨기지 못한다는 말.
- 치들에 바람 들면 석돌보다 못하다. - 야무진 사람일수록 한번 墮落하면 건잡을 수 없게 된다.
- 오입쟁이 현 갓 쓰고 똥 누기는 예사다 - 放蕩한 사람이 禮를 지키지 않고 失行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말.
- 首陽山 그늘이 江東 八十里를 간다. - 首陽山 그늘이 진 곳에 江東의 아름다운 땅이 이루어졌다 함이니 어떤 한 사람이 잘 되어 氣勢가 좋으면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 德을 입음을 比喻한 말.
- 湯藥에 甘草 빠질까. - 아무 곳이나 함부로 끼어 섞임을 嘲弄하는 말.
- 들은 귀는 千年이요, 말을 한 입은 사흘이라. - 모진 말을

한 자는 곧 잊어버리나 그것을 들은 자는 좀처럼 잊지 못한다.

- 같은 값이면 寡婦집 머슴살이. - 이왕 일을 할 바에는 自己에게 利得이 더 많은 곳으로 간다는 말.
- 婚娶에 財物을 말함은 오랑캐 짓. - 人倫大事인 婚姻에는 禮를 爲主로 할 것이지 財物을 介入시켜서는 안된다는 말.
- 대감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은 데는 간다. - 대감 죽은 後로는 그에게 잘 보일 必要가 없으나 대감이 살아 있고 그의 말이 죽으면 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해 弔問간다는 뜻으로 人心이 利益을 追求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말.
- 冷水먹고 이 쭈시기. - 실속은 없이 겉으로만 있는 체함을 이르는 말.

格 言

處世上의 가르침과 계율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 金言, 處世訓, 箴言 등도 이에 포함된다.

- 慾心이 많으면 근심을 낳고 어질지 못하면 罪를 낳는다. (孔子) - 憂生於多欲 罪生於不仁
- 사랑은 미움의 始初이고 德은 怨恨의 根本이다. (管子) - 사랑하던 사람끼리 미워할 수 있고 德을 베풀면 怨恨으로 갚는다는 말.
- 모르는 사람끼리는 怨讐가 맺어지지 않는다.(春季 李在萬)

- 술은 茶의 대신이 될 수 있으나 茶는 술 대신이 될 수 없다. (幽夢影) - 茶가 없을 때는 술을 마시면 되지만 술 생각이 날 때에 茶를 마신다고 解決되지 않는다.
- 불이 빛에서 비롯된 것처럼 사랑은 恒時 知識에서 우러난다. (카알라일)
- 敵을 알고 나를 알면 百戰이 위태롭지 않으며 敵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번은 敗하고 한번은 이긴다. 그러나 敵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싸움에는 必히 진다. (孫子)
- 하늘은 스스로 돕는 者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 미국의 프랭클린이 한 말로 알려져 있으나 그가 좋아한 말이라는 평이 타당하다.
-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 모든 일을 언제나 操心해서 하라는 말.
- 初年 고생은 晩年 福이라, 初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 젊어서 고생은 끝에 樂이 오는 수가 많으므로 그 고생을 달게 여김을 가리키는 말.
- 春風으로 남을 대하고 秋風으로 나를 대하라. - 남에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嚴格하게 대하라는 말.
- 黃金 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크고 좋은 遺産은 공부시키는 일이라는 말.
- 젊은이가 희망을 바라보고 산다면 노인은 追憶을 바라보며 산다. (프랑스 格言)
- 만약 敵에게 돈을 꾸어주면 그를 얻지만 친구에게 꾸어주면 그를 잃을 것이다. (프랭클린)
- 사람의 情도 가난한 곳에는 끊어지고 世上 人心은 돈 있

는 집으로 향하느니라. (明心寶鑑)

-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빌려 쓴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다. (프랭클린)
-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서서 일하는 사람보다 所得이 많다. (니슈)
- 아무것도 없는 자는 노동의 桎梏 아래 있고, 財産을 가진 者는 근심, 걱정의 桎梏 아래 있다. (설러)
- 시간을 지키고 안 지키에 따라 사람의 品位가 결정된다. (브하그완)
- 辯明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못한 辯明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辯明이다. (에디슨)
- 어떠한 전쟁이건 이기겠다는 각오 없이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맥아더)
- 撤收하여 돌아가는 敵을 막지 말라. 計劃的인 撤收는 가장 強力한 攻擊일 수 있다. (孫子)
- 인류는 전쟁에 終止符를 찍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게 終止符를 찍게 될 것이다. (캐네디)
- 埋葬된 皇帝보다는 거지가 더 낫다. (라 폰테이느)
- 자유란 법률이 허락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權利이다. (몬테스키)
-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서나 束縛을 받는다. (루소)
- 자유와 평등을 약속하는 사람은 立法者이건 革命家이건 空想家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괴테)
- 각자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타인에게 그들의 이익을 인정한다면 영원한 平和는 즉시 이루어지리라. (괴테)

- 잘못을 저지르고도 反省할 줄 모르는 사람은 下等의 사람이요, 反省하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사람도 下等의 사람이다. (小學)
- 善良한 사람 가운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孟子)
- 지나치게 착한 것은 오히려 惡한 것보다 못하다.
- 돈이 가득 들어있는 지갑보다 책으로 가득한 書齋를 갖는 편이 훨씬 좋다. (릴리)
-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失望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스위프트)
- 결혼생활이 평화로우면 이 세상이 樂園이요, 싸움이 잦으면 평생 地獄이다.
- 아내 없는 남자는 몸이 없는 머리통이고 남편 없는 여자는 머리통 없는 몸과 같다. (독일 格言)
- 시간은 돈이다. (서양 格言)
- 남자가 술을 마시면 집이 반 정도 불에 타지만 여자가 술을 마시면 집 全體가 불에 탄다. (러시아 格言)
- 아! 술의 精이여, 만일 네게 적당한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너를 惡魔라고 불렀을 것이다. (셰익스피어)
- 자녀가 변변치 못하다면 재산을 남겨준들 무엇하리오. 자녀가 善하다면 굳이 재산을 남겨줄 필요가 어디 있으리오. (영국 格言)
- 자연에는 容恕란 없다. (벤티)
- 국가는 국민의 하인이자 결코 주인이 아니다. (홀란드)
-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원하던 것을 가질 수 있다. (프랑스)

格言)

- 자연으로부터 離脫하는 것은 행복으로부터 離脫하는 것이다. (존슨)
- 바보는 彷徨하고 智慧로운 사람은 旅行한다. (플러)
- 이기고도 지는 수 있고 지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법구경)
- 인간은 快樂을 누리기 위해 富를 갈망한다. (키케로)
- ‘가난은 擄取가 아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코체프)
- 富裕하고 지위 높은 사람치고 利己主義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톨스토이)
- 술이 度를 넘으면 어지러워지고 즐거움이 度를 넘으면 슬퍼진다. (史記)
- 富者が 하나 생겼다는 것은 貧者が 여럿 생겼다는 말이다. (春季 李在萬)
- 守錢奴의 돈은 그가 땅속에 묻힐 때 비로서 밖으로 나온다. (蒙古 格言)
- 게으른 소년과 폭신한 침대는 떼어놓기란 어려운 일이다. (덴마크 格言)
- 부자의 享樂은 가난한 사람의 눈물로 연결된다. (플러)
- 虛榮心은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自尊心은 沈默하게 한다. (쇼펜하우어)
- 부자가 넘어지면 큰 일이라고 소리치고 가난뱅이가 넘어지면 저녀석 酒酩한다고 빈정거린다. (터어키 格言)
- 어리석은 사람만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물건을 빌린다. 그것은 책, 우산, 돈이다.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友情과 돈

두가지를 다 잃는다. (프랑스 格言)

- 물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고요하게 흐른다. (릴리)
- 생각이 적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몽테뉴)

故 事

- 結草報恩(결초보은) : 恩惠를 갚는다는 말.

中國 戰國時代 때 魏武子는 병이 들자 아들 魏顛에게 아름다운 小室을 改嫁시키라고 하였다. 그 후 병세가 惡化되어 정신이 昏迷해지자 小室을 自殺하도록 하여 같이 묻어 달라고 하였다. 魏武子가 죽자 魏顛은 자기의 아버지가 정신이 맑았을 때의 遺命을 좇겠다고 하며 小室을 改嫁시켰다.

그 후 魏顛가 秦의 杜回와 싸우다 쫓기게 되었을 때 한 노인이 杜回 앞에 있는 풀들을 묶어 놓아 杜回가 탄 말의 발이 여기 걸려서 넘어져 魏顛은 秦의 杜回를 사로 잡았다. 그날 밤 魏顛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나는 당신이 改嫁시킨 小室의 아비요, 내 딸을 殉葬하지 않은 恩惠에 報答한 것이요”라고 했다는 故事에서 由來한 것이다.

- 叩盆之痛(고분지통) : 莊子의 부인이 죽었을 때 친구인 惠子が 弔喪을 갔다. 莊子는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盆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것을 본 惠子가 “자네는 부인과 함께 살며 같이 자식을 기르고 같이 늙어 온 사이가 아닌가. 부인이 죽어서 울지 않는 정도라면 또

모르겠는데 盆을 두들겨 가며 노래까지 부른다는 건 좀 너무 하지 않는가?”

하고 나무라자 莊子は 이렇게 對答했다.

“그런 게 아닐세. 그 사람이 죽었을 당시에는 나도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애당초부터 生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 生命은 고사하고 形體도 없었으며 形體는 고사하고 氣運조차 없었네. 그저 茫漠하고 混沌 大道 속에 섞여 있던 것이 변해서 氣運을 낳게 되고 氣運이 변해서 形體가 생기고 形體가 변해서 生命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지금 또 변해서 죽어 간 것 뿐일세. 즉 삶과 죽음의 變遷이란 것은 四時의 循環과 역시 마찬가지로 아닌가. 모처럼 하늘과 땅을 침실 삼아 편안히 잠들어 있는 참된 모습 옆에서 영영 소리쳐 운다는 것은 天命의 自然을 분간 못 하는 淺薄한 짓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는 것을 그만 둔 걸세.”

라고 대답하였다.

喪妻를 한 사람의 집에 喪問을 할 때 그 남편을 보고 인사를 할 때에 “叩盆之痛을 무슨 말로 慰勞해 드리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註) 惠子 : 戰國時代 宋人. 名家의 一人. 本名은 惠施. 莊子의 名은 周이다.

盆 : 뚝배기와 같은 것으로 古代 樂器

- 盲龜遇木(맹귀우목) 針芥相投(침개상투) : 大海를 헤엄쳐서 물속으로 다니던 거북이가 3년마다 물 위로 한번씩 올라와서 숨을 크게 쉬고 잠깐 休息을 취하는데 한 눈 먼

거북이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보니 토막 나무막대기가 하나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서 그 막대기를 잡고 거북이가 편안하게 쉬었다는 말이다. 용하게도 기회에 잘 맞추어서 일이 便利하게 잘 되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처럼 어려운 일이 運 좋게 맞았다는 말이다. ‘針芥相投’는 바늘 끝으로芥子씨를 맞추어 찌르려고 하여도 단번에 찌르기가 힘든 일인데 높은 空中에서 떨어뜨린 바늘이 地上에 있는芥子씨에 용하게 떨어져서 꽂혔다는 말로 어려운 일인데도 偶然히 奇蹟적으로 일이 잘 이루어질 때에 쓰는 말이다.

- 昊天罔極(호천망극) : 父母의 恩惠가 맑고 드높은 가을 하늘처럼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
- 伯夷叔齊(백이숙제) : 中國 古代의 殷나라 末에서 周나라 初期(BC 1100年頃)에 있었다는 傳說的인 兄弟 聖人. 孔子, 司馬遷 등이 傳한 이야기에 의하면 이들은 孤竹國(現在의 河北省)의 王子로서 父王이 죽으면서 遺言하기를 아우인 叔齊에게 王位를 물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叔齊는 兄인 伯夷를 두고 王이 될 수 없다 하였다. 兄은 父王의 遺志라 自己가 王이 될 수 없다고 서로 사양하던 끝에 兄弟는 故國을 떠나 周나라 文王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 武王은 그의 位牌를 싣고 殷나라 王을 치려 하였다. 이것을 본 그들은 武王이 道德에 어긋났다는 것을 說明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周王에게 祿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여 首陽山(現在의 山西省)에 들어가 고

사리를 캐어 먹다가 굶어서 死亡했다고 한다.

- 鷄卵有骨(계란유골) : 鷄卵에도 뼈가 있다는 말로 福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機會를 만나도 덕을 못 본다는 뜻이다. (故) 李朝 初期의 大臣 黃喜가 집이 가난하므로 임금의 命令으로 하루 동안 南大門으로 들어오는 商品은 다 黃喜의 집으로 보내라 했더니 마침 이날은 종일토록 비가 와서 아무 것도 들어오는 물건이 없다가 저녁 때에 달걀 한 꾸러미가 들어왔는데 달걀을 삶아놓고 본즉 모두 굶었다는 「 굶」 音과 「骨」의 音이 비슷하므로 訛傳되어 鷄卵有骨이란 말로 轉用됨. 『松南雜識』
- 臥薪嘗膽(와신상담) : 苦生을 참고 견디면서 努力하는 것. (故) 吳王 夫差가 쉼나무 위에 자면서 越에 復讐할 것을 잊지 않았고, 또 越王 勾踐(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吳王에게 復讐할 것을 잊지 않아 彼此 苦生을 참고 견디었다는 故事임. 『吳越春秋』
- 白首文(백수문) : 千字文을 일컫는 말. (故) 後梁 周興嗣(주흥사)가 이를 하룻밤 사이에 만들고 머리털이 허영게 세었다는 데서 온 말.
- 薑桂之性(강계지성) : (喻) 늙을수록 氣力이 정정하고 剛直한 사람. 生薑(생강)과 肉桂는 오래 될수록 매워지기 때문에 일컫는 말. 『宋史』

- 中有(중유) : 現世와 冥途(명도)와의 중간에 있는 어두운 世界. 死後 49日間은 魂靈이 여기 中有에서 머문다 함. 고로 7齋를 지내서 往生極樂하기를 祈禱 祝願함. (佛敎)
- 程門立雪(정문입설) : 弟子가 스승을 尊敬함을 일컫는 말. (故) 游酢(유작)과 楊時(양시)가 程伊川 선생을 찾아갔을 때 伊川은 눈을 감고 冥想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서 기다리다가 伊川이 이들에게 물러가라고 命하였을 때에는 門밖에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 함. 『宋名臣言行錄』
- 糟糠之妻(조강지처) 不下堂(불하당)이요, 貧賤之交(빈천지교) 不可忘(불가망)이라. : 夫婦가 서로 처음 만나서부터 함께 등겨밥과 술찌기미를 먹고 苦生한 妻는 집에서 내보낼 수 없으며, 어려서부터 함께 貧賤한 집에서 각각 태어나서 사귀어 온 사이는 잊을 수가 없다는 말.
- 鷸蚌相持(방홀상지) 漁父之利(어부지리) : 황새와 조개와의 싸움. (喻) : 제삼자에게 利益을 빼앗김. 鷸蚌之爭, 漁父之利. 『戰國策, 燕策』
- 飛者上有跨者(비자상유고자) : 나는 놈 위에 걸터 앉은 놈 있다.
- 鵲血滿胸(견혈만흉) : 杜鵑이 피를 토하고 가슴이 벅차 오름. 情思가 極히 懇切함.

- 邯鄲學步(한단학보) : 자기의 本分을 버리고 남의 行爲를 본 받는 것은 어느 것이나 失敗한다는 뜻. (故) 옛날 燕나라의 少年이 趙나라의 서울 邯鄲(한단)에 가서 그 곳 사람 걸음걸이를 배우다가 아직 충분히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 보니 邯鄲의 걸음걸이도 안되고 자기의 본 걸음걸이도 잊어버렸다 함.
- 長頸烏喙(장경오혜) : 목이 길고 입이 뾰족한 人相. 越王 勾踐(구천)의 人相. 忍耐力이 강하고 苦生을 같이할 수 있고 殘忍하고 慾心이 많음. 疑心을 많이 하며 安樂을 같이할 수 없는 性質이 있다고 함.
- 塞翁之馬(새옹지마) : 人生의 吉凶禍福은 變化가 많음을 比喻함. (故) 北方의 한 老翁이 기르던 말이 胡地로 달아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로하는 사람에게 翁은 오히려 幸福한 결과가 될는지 누가 아느냐고 대답을 하였다. 몇 달만에 그 말이 한匹의 駿馬를 데리고 돌아왔으며 동네 사람들은 다시 幸運을 치하하니 老翁은 도리어 不幸이 될런지 누가 아느냐는 대답이었다. 그런 뒤에 老翁의 아들이 乘馬를 즐기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은 다시 不幸을 위문하게 되었는데 또 幸福이 될지 누가 아느냐는 대답이었다. 그런지 일년만에 胡人이 大舉入寇하여 壯丁들이 戰場으로 불러나가 8,9割이 사망하였건만 老翁의 아들만은 절름발이이므로 父子가 相保하였다는 故事. 『熙晦機』

漢字名言語句

- 阿諛苟容(아유구용) : 남에게 아첨을 잘하며 구차스러운 짓을 하는 일.
- 隙駒光陰(극구광음) : 빠른 歲月. 門 틈 사이로 달리는 말이 지나가듯이 歲月이 빨리 감을 말함.
- 雀學鶴步(작학관보) : 참새가 황새 걸음 배우기. 자기 力量을 생각지 않고 無理하게 남을 模倣하려 한다는 뜻.
- 陀羅尼(다라니) : 總持. 梵文을 그대로 讀誦하면 無邊의 意味를 품고 있어 各種 障礙를 除去하고 功德을 받는다. 呪文.
- 雲樹之懷(운수지회) : 벗을 그리워하는 懷抱.
- 面張牛皮(면장우피) : 소가죽을 얼굴에 바른 사람. 낮 두꺼운 사람.
- 頓斷無心(돈단무심) : 사물에 대하여 도무지 탐탁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음.
- 顛僕不破(전복불파) : 理由가 정당하여 움직이지 못함.
- 飄風不終朝(표풍부종조) : 회오리 바람은 오래 불지 않음.
- 魚頭鬼面之卒(어두귀면지졸) : 지지리도 못한 사람.
- 騰蛟起鳳(등교기봉) : 龍이 하늘을 오르고 鳳凰이 일어나 氣勢가 등등함을 말함.
- 炎附寒棄(염부한기) : 더우면 달라붙고 추우면 버린다. 勢力이 있을 때는 아첨하고 勢力이 약해지면 푸대접하는 世上人心.
- 矮者看戲(왜자간희) :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이 말하면 저도 같이 아는 체하고 떠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 韋編三絕(위편삼절) : 옛날에 孔子가 周易을 많이 읽어 그 책을 매었던 가죽 끈이 세번이나 끊어졌다는 데서 나온 말로 책을 많이 읽음을 比喻한 말.
- 蚤腸出食(조장출식) : 벼룩의 쓸개를 내어 먹는다. 些少한 이익에 執着하는 사람을 두고 말함.
- 蛇心佛口(사심불구) : 뱀과 같은 惡한 마음을 가지고서 입으로는 佛子 같이 佛經을 외우는 사람. 즉 表裏가 다른 사람.
- 衣裳之治(의상지치) : 구태어 法을 정할 필요가 없이 仁德으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教化시키는 것.
- 衣架飯囊(의가반낭) : 옷걸이와 밥주머니란 뜻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란 뜻.
- 量衾伸足(양금신족) : 이불 길이를 보아서 발을 뺀음.
- 錦褌裏犬矢(금보리견시) : 비단 포대 안에 개똥이 들어 있음. 겉보다는 內容이 보잘 것 없음. 外貌는 잘 생겼는데 마음씨가 좋지 않음.
- 鏤塵取影(누진취영) : 쓸데없는 노력. 먼지를 새기고 그림자를 입으로 분다는 말.
- 鍾鳴漏盡(종명누진) : 때를 알리는 鍾이 울리고 물時計의 물이 다 함. 하루의 時間이 끝나고 밤이 깊어가는 것. 老年.
- 阪上走丸(판상주환) : 언덕 위에서 공을 굴린다는 뜻으로 勢에 便乘하여 일을 하면 일이 쉽게 잘 됨 또는 그 일이 自然의 힘에 따라 진척된다는 것.
- 和而不同(화이부동) : 서로 함께 和하되 나쁜 짓은 같이 하지 않고 빠져나온다는 말. 君子가 行하는 길.

- 大巧若拙(대교약졸) : 아주 能한 사람은 自然스럽고 피도 쓰지 않으며 자랑도 하지 않으므로 拙한 것처럼 보임.
- 夜以繼日(야이계일) : 밤으로서 날을 이음. 밤낮으로 쉬지 않고 힘 씬
- 夜行被繡(야행피수) : 수 놓은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음. 功名이 世上에 알려지지 않음.
- 壺裏乾坤(호리건곤) : 항상 술 취한 속에 있음.
- 含血憤人(함혈분인) : 근거없는 말을 하여 상대를 헐뜯는 것.
- 吞牛之氣(탄우지기) : 소를 삼킬만한 氣像.
- 仰事俯畜(양사부축) : 위로는 父母를 奉養하고 아래로는 妻子를 먹여살림.
- 傷風敗俗(상풍패속) : 풍속을 紊亂하게 함.
- 亡羊之嘆(망양지탄) : 갈림길에서 염소 찾기가 困難함. 學問의 길이 갈래가 많아 길을 잡기 어렵다는 말. 어떤 일에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는 歎息.
- 亢龍有悔(항룡유회) : 尊貴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항시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할 憂慮가 있다는 말의 比喻. 易의 上九를 亢龍에 比喻하여 이르는 말 (易經)
- 乘風破浪(승풍파랑) : 뜻이 遠大함을 이르는 말.
- 乘望風旨(승망풍지) :윗사람의 눈치를 잘 살펴 비위를 잘 맞추어 줌.
- 乍往乍來(사왕사래) : 變化가 빠름을 말함.
- 主乏醬客厭羹(주핍장객염羹) : 주인집에醬이 없자 나그네는 국이 먹기 싫음.
- 中和之氣(중화지기) : 中庸之德. 過不及이 없는 德.

- 不食之報(불식지보) : 父祖의 蔭德으로 잘 됨.
- 三易姓(삼역성) : 姓이 세번째 바뀐다. 外孫女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
- 疾風知勁草(질풍지경초) : 강한 바람이 불면 弱한 풀은 모두 쓰러져 버리므로 쓰러지지 않은 풀은 강한 풀임을 알 수 있음.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비로서 그 志操의 굳음을 알음.
- 發奸摘伏(발간적복) : 숨겨있는 일이나 正當하지 못한 일을 집어 냄.
- 知斧斫足(지부작족) :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아는 사람에게 害를 당하거나 속임을 받았다는 뜻.
- 紅爐點雪(홍로점설) : 별경계 단 화로에 한 點의 눈을 넣으면 곧 녹아 없어짐. 比喻로 道를 깨달아 마음 속이 탁트여 맑음을 말함. 커다란 일에 작은 힘은 조금도 보탬이 안됨.
- 經天緯地(경천위지) : 온 天下를 經綸하여 다스림.
- 罪疑惟輕(죄의유경) : 罪狀이 분명하지 않아 輕重을 判斷하기 어려울 때는 輕하게 處分함을 이룸.
- 老馬厭太乎(노마염태호) : 늙은 말이 콩 싫다 하라. 比喻로 本能的인 欲望은 늙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
- 群輕折軸(군경절축) :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많이 모이면 車軸이라도 꺾을 수 있음. 아무리 적은 힘이라도 團結하여 一致協力하면 強敵에 對抗할 수 있음.
- 聚蚊成雷(취문성뢰) : 모기가 때 지어 날으는 소리가 雷聲을 이룸. 여러 小人의 무리가 事實을 歪曲하여 열심히 남의 辱을 함.

- 茫無頭緒(망무두서) : 精神이 아득하여 하는 일이 頭緒가 없음.
- 草網着虎(초망착호) : 썩은 새끼로 범 잡기란 뜻으로 엉터리 없는 짓을 꾀함을 일컫는 말.
- 華不再揚(화불재양) : 한번 떨어진 꽃은 다시 가지에 올라 붙지 않음.
- 華胥之國(화서지국) : 太平한 나라.
- 萬殊一理(만수일리) : 온갖 萬象이 한 理致로 돌아감.
- 萬折必東(만절필동) : 黃河가 여러번 꺾여 흘러가도 필경 東쪽 黃海로 흘러든다는 뜻으로 曲折이 있으나 필경은 본 뜻대로 나간다는 말.
- 董狐之筆(동호지필) : 權勢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事實을 써서 歷史에 남김.
- 落月屋梁(낙월옥량) : 지는 달이 지붕을 비춤. 故人을 생각하는 마음이 懇切함.
- 蒙網捉魚(몽망착어) : 그물을 머리에 이고 고기 잡기란 뜻으로 그물을 물에 던져야 고기가 걸리는 것인데 그물을 머리에 이고서도 고기가 잡힌 것은 偶然히 運이 좋았다는 말.
- 蕉鹿夢(초록몽) : 인생의 得失이 虛無하고 덧없는 것. (故事) 鄭나라 사람이 사슴을 잡아 芭蕉의 잎으로 덮어 감추어 두었으나 너무 기뻐서 그 장소를 잊어버려 사슴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꿈으로 諦念하였다 함.
- 藏頭隱尾(장두은미) : 머리를 감추고 꼬리도 숨기다. 일의 顛末을 똑똑히 밝히지 아니함.
- 藕斷絲連(우단사련) : 겉으로는 끊어졌으나 中心은 이어

져 있다는 뜻으로 情意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比喻.

- 虎踞龍盤(호거용반) : 용이 도사리고 범이 웅크리고 앉음. 雄壯한 山勢.
- 虎尾春冰(호미춘빙) : 범의 꼬리와 봄의 얼음. 매우 危險한 地境.
- 尾大難掉(미대난도) : 꼬리가 너무 커지면 흔들지 못함. 곧 臣下의 勢力이 強해지면 임금이 自由로이 하지 못함을 말함.
- 處心積慮(처심적려) : 마음을 두고 잊지 아니함. 한가지 일에 執念함.
- 以德服人(이덕복인) : 德으로서 남을 服從케 함.
- 因循姑息(인순고식) : 舊習을 쫓아 머뭇거리고 아직 그대로 지낸다는 뜻으로 오래된 弊習을 고치지 못한다는 뜻.
- 白首風神(백수풍신) : 머리가 희고 풍채가 좋은 老人
- 百尺竿頭進一步(백척간두진일보) : 百尺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으로 더욱 奮發하여 더 나아감.
- 風樹之感(풍수지감) : 父母가 돌아가시어 더 오래 모시지 못한 슬픈 感懷
- 河東獅吼(하동사후) : 남편이 자기 妻를 두려워 함을 비웃는 말. 恐妻家
- 孤城落日(고성낙일) : 도움이 없이 孤立된 情狀.
- 行尸走肉(행시주육) : 살아있는 송장, 돌아다니는 고기덩어리란 말로 배운 것이 없어서 쓸모가 없는 사람을 뜻함.
- 縣河之辯(현하지변) : 물이 힘차게 흘러가듯 힘차고 거침 없이 말을 잘함.

世界名言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벤담(J. Bentham, 1748~1832)은 英國의 法律家요, 哲學者이며 經濟學者로서 功利主義의 創始者이다. 그는 道德 및 立法의 基礎로서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라 말했다. 英語人名辭典에는 벤담이라 읽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의 主張에 의하면 快樂은 善이요, 苦痛은 惡으로서 善惡을 낳는 힘의 計算으로 人間 行爲의 倫理的 價値가 決定된다. 이런 계산을 進行시켜 벤담은 道德 및 立法의 最高 목적은 바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한 것이다.

- 戰爭에 대비하는 것은 平和維持의 가장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初代 大統領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말로서 1790년 1월 8일 國會 兩院에서 행한 演說 가운데 있는 名句이다. 軍費擴張論者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그들의 주장인즉 平和를 유지하기 위하여 軍備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獨立宣言이 있는 것은 1776년 7월 4일이었고, 파리조약에서 英國이 미국의 獨立을 승인한 것이 1783년 9월 3일이다. 일찍이 독일의 軍隊가 愛用한 것이 그리스의 哲學者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BC 500年쯤)의 말이다. 그이 말로서는 “萬物은 遺傳한다”가 유명하지만 다음 말도 그에 못지 않게 유명하다. “戰爭은 萬物의 아버지요, 萬物의 王이다”

물론 原始時代에는 戰爭이 萬物(萬事)의 아버지였을는지 모르나 오늘날에는 戰爭은 萬物の 끝, 萬物の 破滅이다.

◦ 自由냐 죽음이냐(Liberty or Death)

미국 獨立運動의 指導者 페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가 1775년 3월의 群衆大會에서 행한 演說에서 이 口號가 생겨났다. 그는 당시 29歲의 젊은 辯護士였다. 미국의 獨立宣言日은 1776년 7월 4일인데 美國獨立戰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歷史에서 쓰는 用語이고 미국의 歷史에서는 그것은 單純한 獨立이 아니라 獨立革命이라는 概念이다. 페트릭 헨리의 演說의 맺음말은 미국의 國민학생들이 暗記하도록 課題가 주어진다.

“奴隸의 쇠사슬에 묶여 安樂한 生活을 하고자 하는 者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라. 그러나 나는 斷然 그것을 拒否한다. 내게 自由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 사람을 찾는다.(Anthropon zeto)

그리스의 哲學者 디오게네스(Diogenes, 413~323 B.C)의 말이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理想으로 삼은 “獨立된 자유로운 人格”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無欲을 看板으로 내걸고, 反文化的 反社會的 原始的 生活을 주장했다. 그 결과 乞人(乞人)생활을 실행하여 그것이 “束縛 없는 自由生活”이라 하였고, 人生을 白眼視하여 息살과 비웃음으로서 자신을 高尚한 人間이라고 自慢하였다. 이와 같은 乞人哲學者를 가리켜 犬儒學派라 한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디오게네스이다. 黑海 남쪽에 위치한 그리스 植民地

시노페에서 출생한 그는 한낮의 아테네 거리를 등불을 들고 다녔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사람을 찾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고 建物の 기둥 사이에서 外套를 쓴 채 잠을 잤다. 또한 큰 나무통을 집으로 삼고 살았다. 어느날 고린도 市에서 이 통을 南向으로 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알렉산더大王이 이 哲學者의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왔다. “내가 해 줄 일이 무엇인가?” 하는 大王의 물음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비켜 서서 내가 太陽 빛을 쬐게 해달라.”

어느날 어린이가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 마시는 것을 보고,

“졌다. 나는 아직 군더더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주전자를 깨뜨려 버렸다.

脫稿를 하면서...

‘春溪漫步’는 나의 살아 온 날들에
대한 記錄이다.
특히 내 生涯 모두를 바쳤던
敎職生活과 삶
그리고 思考의 片鱗들에
대한 記錄이다.
남에게 널리 알려 世上의 龜鑑이
될 것이라 감히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한 평생을 묵묵히 살아 온
내 지난 날들에 대한 反省의 意味가
무엇보다 크다 할 것이다.

책의 內容 中에 惑 誤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責任이며
넓은 아량으로 理解해 주길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春 溪 漫 步

李在萬 自敘傳

1998年 1月 發行

저 자 : 李 在 萬

편집 · 기획 : 두레(673-4484)

인 쇠 : 한솔인쇄(62-0979)

비매품



